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박사학위논문

진먼도(金門島)의 탈/냉전과 정체성의 딜레마:

-소양안(小兩岸)의 교류와 관광을 중심으로-

2019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WU CHUN FANG

# 진먼도(金門島)의 탈/냉전과 정체성의 딜레마:

-소양안(小兩岸)의 교류와 관광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근 식

이 논문을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WU CHUN FANG

오준방의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 원 장 \_\_\_\_\_(인)

부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 <국문초록>

### 진먼도(金門島)의 탈/냉전과 정체성의 딜레마:

-소양안(小兩岸)의 교류와 관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WU CHUN FANG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의 접경지역인 샤먼과 진먼(일명 소양안)의 교류 상황을 통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현황과 진먼이 양안의 화해·평화의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양안의 교류에 관한 기존 연구는 보통 무역과 관광 같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양안이 교류를 회복한 지 거의 20년 동안 어떻게 양안 관계의 정치적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지를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진먼의 특수한 정치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정체성’이라는 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본 연구는 대만의 민주화운동과 본토화운동(Taiwanization)에 따라 부상된 ‘대만의식’을 통해 대만인의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탈군사화 이후 진먼이 이 정치공동체에서의 지위 딜레마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만의 ‘문화 독립’논술과 중국의 ‘문화 통일’논술을 통해 통일과 독립의 논쟁 하에 정치화된 문화논술이 진먼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평화 교류에 있어, 많은 연구처럼 본 연구도 ‘관광’을 주요 영향 요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양안의 문화관광에서 가장 대표적인 ‘뿌리찾기관광’과 ‘순례관

광'을 추가했고 '일반관광객'과 '종친조직', 그리고 '종교 신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양안의 평화 교류에 시민사회의 역량의 영향과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분석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채택했다. 진먼의 전쟁유산은 민감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양안관광객들이 진먼 전쟁유산의 보존과 재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진먼이 양안의 평화 교류에 역할과 공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광은 확실히 평화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진먼의 경계와 전장 이미지는 여전히 양안관광객의 진먼 방문 요인이다. 3. 국민당군과 중공군이 치열한 상륙전이 벌어졌던 구닝터우 지역은 양안관광객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곳이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이다. 4. 진먼의 전쟁유산의 가장 큰 우세는 역사교육의 교재와 평화교육의 장으로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진먼 전쟁유산의 우세를 좀더 높이려면 발언권을 잃지 않는 전제에 중국 푸젠 지역의 홍색관광과 결합하여 정치적 틀을 넘어선 냉전사 보존과 전시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국 개혁개방 이후 제시한 '신동원·인동근(神同源,人同根)'의 문화논술에 따르면 소양안의 '뿌리찾기관광'와 '순례관광'에 대해 탐구했다. 특히 소양안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인 '종친(宗親)'은 중국의 특유한 지역 사회의 조직이며, 양안 문화의 근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민간 조직이다. 본 연구는 진먼과 샤먼의 종친조직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 종친 조직이 지역과 규모에 한계가 있지만 교류의 깊이는 일반 관광객과 종교 신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혈연이 이어지며 종족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종친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사와 교류 활동

과 서로 도와주는 마음에 든든한 소양안 종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비록 일반 관광객과 종교 신자의 수가 더 방대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종친 조직의 네트워크의 연결과 형성은 양안의 평화 교류의 지속가능성과 심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양안의 접경지역과 옛 전장인 진먼도이 탈냉전 이후 직면된 정치와 문화적 정체성의 딜레마에서 출발하여 양안의 '통일' 논쟁 하에 양안의 문화논술로부터 파생된 관광의 모델과 행위를 통해 진먼이 자신의 정체성의 이중성을 이용하여 양안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내고 '평화의 섬'으로 전환된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남북한이 훗날의 교류에 중요한 본보기와 방향을 제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융합에도 적극적인 공헌이 있다고 본다.

주제어: 중국, 대만, 양안 관계, 진먼도, 금문도, 샤먼,분단국가, 접경지역,  
정치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평화관광  
학번:2009-31209

# 차례

1 장. 서론 .....	1
1 절.      문제제기 .....	1
2 절.      선행연구 검토 .....	5
(1)      교향(僑鄉) .....	6
(2)      전장 .....	8
(3)      평화의 섬 .....	14
3 절.      이론적 자원 .....	17
(1)      대만의 민주화와 국가정체성의 변화 .....	19
(2)      정치적 싸움에서 문화적 싸움으로 .....	25
4 절.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	37
(1)      연구대상 및 연구틀 .....	39
(2)      연구 방법 .....	42
(3)      논문의 구성 .....	46
2 장. 진먼도의 정치적 정체성의 변동과 상징적 재현 .....	49
1 절.      국민정부시기(1912~1937 년) .....	49
2 절.      일본 점령시기(1937~1945) .....	55
3 절.      냉전 · 분단시기(1949~1992 년) .....	63
(1)      양안 분단과 냉전 .....	63
(2)      최전방의 군사화와 냉전경관 .....	82
4 절.      탈냉전과 민주화 .....	98
3 장 이산가족문제의 추이와 방문관광 .....	105
1 절.      가족이산과 통우문제 .....	105
2 절.      중국의 개방과 가족방문 .....	120
(1)      ‘귀향’ 운동과 ‘뿌리찾기’ 열풍 .....	122
(2)      양안 이산가족의 귀향길 .....	126

(3)	소양안 이산가족의 귀향길.....	135
3 절.	이산가족의 지위 향상과 종친(宗親)조직의 부상.....	143
(1)	이산가족의 지위 향상.....	143
(2)	종친조직의 부상.....	149
4 절.	뿌리찾기 관광(尋根之旅).....	154
4 장	평화적 교류와 관광산업의 발전.....	166
1 절.	소삼통 이전의 교류 문제.....	166
2 절.	소삼통와 진샤관광권의 형성.....	171
(1)	소삼통의 형성.....	171
(2)	진샤관광권의 현황.....	176
3 절.	진먼의 관광자원의 체계화.....	184
(1)	지방정부의 관광개발 계획.....	184
(2)	진먼의 전쟁유적 보존과 활성화 현황.....	187
4 절.	잔징관광과 생태관광.....	195
(1)	관광지로서의 진먼의 이미지.....	195
(2)	탈냉전과 생태관광.....	200
(3)	전장관광의 현황과 미래 전망.....	204
5 절.	민남문화관광.....	220
5 장.	결론: 평화의 지속가능성과 진먼 정체성의 전망.....	229
	참고문헌.....	244
	Abstract.....	264

## 표 차례

표 3- 1 대만의 외성인(대륙 출신) 성적(省籍)별 노병 수 .....	124
표 3- 2 중국 푸젠성 각지의 진먼 동포 연의회 .....	154
표 4- 1 양안이 홍콩을 경유하여 진행하는 무역 총액 .....	167
표 4- 2 1987~2003 년 대만과 홍콩/마카오의 왕래인원 수 .....	171
표 4- 3 현재 관광명소로 재활용하는 진먼 군사 공간들 .....	192

## 그림 차례

그림 1- 1	진먼과 대만 본섬의 위치도 -----	2
그림 1- 2	양안 중복된 행정구역 -----	4
그림 1- 3	진먼인의 신분증 -----	5
그림 1- 4	1995년 6월~1996년 6월 대만국민의 현상유지편향 -----	20
그림 1- 5	대만인의 통독입장 추세 분포도(1994년 12월~2018년 6월) -----	25
그림 1- 6	대만 진먼과 중국 샤먼(소양안)의 위치도 -----	39
그림 1- 7	진먼 주민과 대륙 어민이 소액무역을 진행하는 장면 -----	40
그림 1- 8	연구틀 -----	42
그림 1- 9	대만진먼호행 노선도 -----	44
그림 2- 1	기(紀)014 미국 개국 150주년 기념우표.....	51
그림 2- 2	진먼 웨요초등학교의 쌍깃발 장식 .....	54
그림 2- 3	진먼 왕진청양루의 국호 장식 .....	55
그림 2- 4	기(紀)026 대만 광복기념우표 .....	63
그림 2- 5	紀 046 1956년 우정(郵政)60주년기념우표.....	66
그림 2- 6	상(常) 084 1957년 중화민국지도우표.....	66
그림 2- 7	17세기 정성공의 푸젠 연해 기지들 (네덜란드인 그림) .....	68
그림 2- 8	특(特)009 "보위진마우표(保衛金馬郵票)" .....	81
그림 2- 9	중화민국 현재 관할 지역 .....	82
그림 2- 10	낙하방지말뚝(反空降樁).....	87
그림 2- 11	유리 파편이 쫓는 바위.....	87
그림 2- 12	사거리에 있는 대공정 토치카 .....	88
그림 2- 13	해변 병커와 철저망 .....	88
그림 2- 14	군대위문공연단의 공연 배경:거광루 및 ‘무망채거’ 돌 .....	90
그림 2- 15	1969년 진먼 전용 지폐 .....	92
그림 2- 16	화강석병원 .....	98
그림 2- 17	영빈관:인기 가수 덩 리궈(鄧麗君)이 목었던 방 .....	98
그림 2- 18	1952년~2014년 진먼 인구수와 군인의 수 .....	99
그림 2- 19	옹 밍쯔(翁明志) 외 세 명이 길거리에서 항의하는 모습 ..	101
그림 3- 1	‘전우만리·국맥소계(傳郵萬里·國脈所系)’ 기념우표 .....	107
그림 3- 2	대만의 우편 50000호 우편함 수(郵局第五〇〇〇〇號信箱收) .....	108
그림 3- 3	‘홍콩·내상(香港·內詳)’ 봉투.....	109
그림 3- 4	대만의 ‘삼민주의통일중국,자유민주안화라리’ .....	110
그림 3- 5	중국의 물결무늬 도장이 찍혀 있는 편지 .....	111
그림 3- 6	1957년~1962년에 사용했던 '중화민국(中華民國)'우표 .....	113
그림 3- 7	1958~1962년에 사용했던 ‘장충통의 존영’ 우표 .....	114

그림 3- 8 ‘대륙난민동포가 자유로 달려가는 기념우표(大陸難胞奔向自由紀念郵票)’ .....	115
그림 3- 9 1989-2017 년 양안 간의 편지 왕래 .....	116
그림 3- 10 1966 년 발권한 광둥성 차오희권(僑匯券) .....	119
그림 3- 11 1987 년 '외성인 귀향 촉진회'의 ‘상가(想家)’ 시위 장면 ..	125
그림 3- 12 '외성인 귀향 친척 방문 촉진회'의 단기 .....	128
그림 3- 13 리 광치엔(李光前)장군 신상 .....	133
그림 3- 14 진먼 통안선착장과 중국대륙 각 지역의 연결망 .....	136
그림 3- 15 1949 년 중국에 남은 진먼인들 .....	137
그림 3- 16 2007 년 푸젠성의 진먼동포 인구수 .....	139
그림 3- 17 진먼 여객선 ‘태무호’가 샤먼으로 직행 장면 .....	142
그림 3- 18 중국 푸젠성 진먼 출신 96 세 노인 55 년만에 65 세 딸과 상봉 장면 .....	143
그림 3- 19 1994 년~2000 년 중국 방문하는 대만인 관광객 수 .....	158
그림 3- 20 강하당을 방문하는 당정 간부들 .....	165
그림 4- 1 홍콩의 대만 방문객 수 .....	169
그림 4- 2 진먼-샤먼 소삼통 노선도 .....	174
그림 4- 3 2001-2016 년 진먼 소삼통 페리편 수 .....	176
그림 4- 4 2001-2007 년 진먼의 소삼통 이용자 수 .....	180
그림 4- 5 진샤대교 남북선 노선도 .....	181
그림 4- 6 상안국제공항 위치도 .....	183
그림 4- 7 1994-2003 년 진먼 방문객 수 .....	185
그림 4- 8 진먼도의 전쟁 유적 위치 분포도 .....	187
그림 4- 9 진먼 ‘백만 대군의 영웅섬 복귀’ 기념주 .....	192
그림 4- 10 영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	198
그림 4- 11 일본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	198
그림 4- 12 한국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	199
그림 4- 13 베트남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	199
그림 4- 14 진먼 발전 제한 구역 분부도 .....	204
그림 4- 15 대만 본섬 관광객 방문 동기 .....	206
그림 4- 16 중국관광객 방문 동기 .....	207
그림 4- 17 대만 본섬 관광객의 방문횟수 .....	207
그림 4- 18 중국 관광객 방문횟수 .....	207
그림 4- 19 대만 본섬 관광객의 구닝터우에 대한 사전 정보 .....	208
그림 4- 20 중국 관광객의 구닝터우에 대한 사전 정보 .....	208
그림 4- 21 대만 본섬 관광객이 기대되는 장소 .....	209
그림 4- 22 중국관광객이 기대되는 장소 .....	210
그림 4- 23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 .....	210

그림 4- 24 전쟁유산이 관광상품으로 잘 활용된 곳.....	211
그림 4- 25 진먼의 전쟁유산의 가장 큰 우세 .....	212
그림 4- 26 향후 진먼의 전쟁유산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건의 .....	212
그림 4- 27 양안 관광객 ‘영웅삼도전지관광원 방문 여부.....	213
그림 4- 28 다덕도의 ‘영웅삼도전지관광원 가이드맵.....	215
그림 4- 29 세계 최대 군사 방송 스피커.....	215
그림 4- 30 홍색기역전장관.....	216
그림 4- 31 진먼로부터 포격을 당한 웨이터우 강철진지.....	217
그림 4- 32 전쟁과 평화 전시관.....	217
그림 4- 33 진먼의 중국 인수(引水) 공정도.....	218
그림 4- 34 샤먼의 '일국양제·통일중국' 표어 .....	220
그림 4- 35 다단도의 ‘삼민주의·통일중국’ 표어 .....	220
그림 4- 36 1979-1995년 중국 푸젠성의 대만관광객 수 .....	222
그림 4- 37 민대연 박물관의 본관 건물 외관 .....	224
그림 4- 38 민대연 박물관 입구의 '동문, 동종, 동근생'대형폭파 벽화 .....	224
그림 4- 39 진먼-취안저우 쓰징 노선 이용자 수 .....	228
그림 5- 1 모범거리의 양안 국기 나란히 걸린 장면.....	239
그림 5- 2 진먼과 샤먼 지속적인 교류의 주요 원인.....	242



# 1 장. 서론

## 1절. 문제제기

1985년에 발생한 8.23 포격전으로 진먼도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해 인식되었고 그 때부터 진먼의 양안 접경지역의 역할이 점차 형성되었다. 그러나 학술계에서 본격적으로 진먼이라는 곳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였고, 그 당시는 ‘불법소삼통’시기였다. ‘불법소삼통’시기는 진먼도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1992년부터 샤먼과의 공식적인 소삼통을 실시하는 2001년 이 기간동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대만 본섬의 민주화 운동이 한창 진행되었고 본토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진먼도가 드디어 군사통제와 전장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진먼도의 딜레마가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어떤 딜레마인가? 우선 지리적 위치를 보면, 진먼과 대만 본섬의 거리가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반면에 중국의 샤먼도와는 10km, 북쪽의 자위(角峙)도와는 1.8km 밖에 안 된다(그림 1-1). 이로 인해 냉전시기에 미국은 장제스에게 언젠가 중국공산당에 의해 점령당할지 모르는 이 작은 섬을 포기하라고 수없이 제안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탈냉전 이후 대만 본섬인과 중국인들을 진먼 소속에 대해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림 1-1 진먼과 대만 본섬의 위치도



또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1994 년에 대만의 민진당 인사인 쓰 밍더(施明德)가 제시한 진마(金馬)철군론부터 말해야 한다. 비록 훗날 민진당은 철군론에 대해 진먼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에 호의를 표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진먼인들이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군대의 대량 주둔으로 현지의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게 지역을 발전하려면 탈군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진먼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진먼인들이 아직도 분개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냉전으로 인해 정치 공동체가 된 ‘대평진마(台澎金馬)’는 중화민국의 국호와 대륙을 역공한다는 구호 아래 진먼도는 냉전시기에 전략적 위치가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국민당의 중심 사상인 삼민주의를 실천하는 모범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냉전시기의 진먼도는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전쟁의 상처를 지닌 영광의 땅이었다. 또한 전쟁과 군사 통제로 인해 진먼의 많은 전통문화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군에서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 종교

활동과 종친 조직의 활동을 존중했다. 그래서 진먼은 중국 대륙보다 더 전통적, 혹은 더 정통적인 종친과 종교의 의식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더구나 전쟁 시기에 섬 전체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오가는 군인들을 제외하고 진먼의 전통 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진먼은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 자부심이 지니고 있었다. 이는 훗날 중국 대륙 사람들과 교류할 때 보여진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대만 본섬의 본토화 운동과 대만 의식이 대두되면서 중화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통일론과 독립론 모두 진먼의 위치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일부 극단적인 독립파인사들은 ‘대만국(台灣國)’의 영토가 진먼을 비롯한 중국 대륙과 가까이 있는 섬들을 포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만’의 완전성과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 섬들을 중국에 돌려주라고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측면이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중화민국의 관할 영토는 ‘대만성’과 일부의 푸젠성(福建省, 진먼현과 쑤장현 마주도 등 섬들), 그리고 남해에 있는 동사(東沙)군도와 타이핑(太平)도만 남게 되었다. 국내의 접경지역에 북한과 중복된 행정구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중복된 행정구역은 바로 ‘푸젠성 진먼현’과 ‘푸젠성 쑤장현’이다. 따라서 진먼도와 마조도는 현재 중화민국(대만)에 의해 실제적으로 관할되어 있지만 행정상 진먼의 명칭은 ‘중화민국 푸젠성 진먼현’이고, 마주도는 ‘중화민국 푸젠성 쑤장현’이다 (그림 1-2).

그림 1-2 양안 중복된 행정구역



대만성정부나 푸젠성정부는 모두 존재와 실제 역할이 논란이 되어 왔다. 1990년대 말, 대만 본섬에서 적극적으로 ‘대만성정부’를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왜냐하면 대만성정부는 대만이 중국의 한 성(省)을 뜻하고, 또한 업무상 중앙정부와 자주 갈등을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대만 의식 고양에 따라 ‘대만성정부’는 1998년부터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2018년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폐지했다. 푸젠성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본격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진먼인의 신분증에 여전히 ‘푸젠성진먼현’을 표기하고 있다(그림 1-3)<sup>1</sup>. 이는 또한 양안 인민 물론이고 외국인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 대륙사람으로 오해받아 대만 본섬 주민과 다른 서류를 요구 받은 진먼인과 마주인이 있다고 들었다. 1985년 중국이 진먼현

<sup>1</sup> 대만 본섬 주민들의 신분증의 출신지는 이미 ‘대만성’이라는 글자를 없앴다. ‘타이페이시’나 ‘가오슝시 등 행정구의 명칭만 표기하고 있다.

을 취안저우(泉州)시에 추가해 중국대륙주민도 진먼현 호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림 1- 3 진먼인의 신분증



진먼과 마주 열도는 냉전시기에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공과 미국, 대만의 싸움장이 되어 양안 대치의 최전선이 되었다. 섬 전체가 요새화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군사 동원되었다. 탈냉전 이후, 현대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진먼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이미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진먼의 지정학적 문제는 정체성 문제로 내화되었다. 정치적 정체성이든 문화적 정체성이든 모두 양안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관건 중의 하나이자 진먼도는 수시로 변화되어 있는 양안관계에서 다시 '유익한' 혹은 '유용한' 지위를 창출할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의 딜레마를 이용해 양안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가 현재 진먼도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2절. 선행연구 검토

냉전시기의 진먼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국가의 차원(national scale)에서 진먼의 전략적 지위를 많이 분석했다. 계엄령

해제 이후 지역적 차원(local scale) 에서 진면을 연구하는 열풍이 일어났다. 초창기 진면 연구는 현지의 향토사학작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주로 1 차자료 수집에 집중되었다. 이어서, 시기로 진면도의 ‘교향-전지-평화의 섬’ 시대적인 역할의 변화를 통해 진면도가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향(僑鄉)

1840~1949 년 기간 동안 진면은 인구 유출이 심했던 교향 사회이었다. 이동경로가 중국 대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시기는 대만 본섬이 아직 일제시기여서 일본 당국이 대륙 민중들이 대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대만 본섬으로 이주해도 일본 통치자에 의해 억압당하고 노동일을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에서 ‘동진(東進)’하는 이민이 많지 않았다 (李国梁.2009; 邱淑如. 2016) .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화교연구가 외국·외국인과 관련되어서 민감한 작업이라 여겨기기 때문에 중단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의 양과 질이 대만에 비해 뒤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각 향진에서 출간하는 교간(僑刊, 교향에 관한 소식을 실은 잡지)까지 출간이 중단되었다 (李国梁.2009; 邱淑如. 2016) . 1980 년대에 들어서야 화교사와 화교문제에 관한 연구가 비로서 회복되었다. 1984 년 11 월 푸젠사회과학원(福建社會科學院) ‘화교연구소(華僑研究所)’가 설립되어 전에 교향으로 이름이 알려진 푸젠성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福建省地方志編纂委員會.1992 : 270) . 하지만 중국이든 대만이든 학술계에서 원래 중국 푸젠 남부 지역(이하 민남지역)의 교향 중이었던 진면도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드물다. 1949 년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이 분단되어 진면은 양안 전쟁의 최전방이 되기 때문에 화교를 다루는 연구나 기제가 대부분 관방의 현지(각 현

(縣)의 지방지)이었고 내용도 ‘차오회(僑匯, 화교들이 송금하는 돈을 뜻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19세기 이래 화교들의 ‘애향애국’이라는 경제 구원 역할을 계속 강조하는 것있다. 이는 또한 냉전시기에 양안이 자신의 정통성을 선포하는 경쟁 항목 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1959년에 출간된 ‘신진먼지(新金門志)’에서 비록 1949년을 전후하여 진먼교포가 매년 고향으로 보낸 차오회 금액을 대충 강조하지만 1979년의 ‘진먼현지(金門縣志)’에서 해외에 있는 진먼교포의 인구수와 조직, 그리고 조국과 고향에 대한 구체적인 공헌을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1949년 이전 지어진 진먼의 전통적 건축물들이 계엄령이 해제된 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연구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즉 민남식의 전통벽돌건물과 문화 혼합성을 지닌 서양식 건물(이하 양루)이다. 그리고 대만에서 진먼연구나 진먼학의 문을 연 것은 건축 관련 학과에서 1990년부터 제시해온 진먼전통건축에 관한 학술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비록 아직도 계엄 상태이었지만 대만 본섬의 계엄과 민주화운동의 분위기가 이미 진먼과 같은 최전방 도서들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계엄령 해체에 따라 대량으로 철군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발전 촉진과 인프라 시설의 개선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되었다. 이는 진먼의 경관공간(landscape space)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재구성(restructuring)할 것을 예시했다. 그리하여 진먼의 취락과 건축, 그리고 토지개발에 관한 학술 논문이 우후죽순 같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전통건축의 보존에 관한 논문은 건축 공간의 복구와 재건, 취락과의 상호작용 관계와 시대 변천에 따른 재결합을 주제로 삼는 논문이 대부분이다(林明議 1990; 江錦財 1992; 徐志仁 1994; 李楊勝 1996). 다음으로, 진먼은 계엄령 해제와 탈군사회, 그리고 관광화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군대, 국가공원, 그리고 민간조직 등이 어떻게 진먼의 각종 공간과 경영권의 재분배나 재구성에 관한 연구이다 (吳培暉 1992; 林美桂 1992; 金以蕾 1994) . 마지막으로 유형의 건축물을 둘러싼 취락 사회의 구조와 공간 조성의 사회적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이다(江柏煒 1994; 江柏煒 1999; 李錫祥. 1997; 張宇彤.2001) . 특히 대만 학자 장 보웨이가 진먼의 건축과 취락, 그리고 화교에 대해 가장 깊이 연구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건축 학과 출신의 배경으로 1999 년에 ‘양루:민월교향의 사회 변천과 공간 조성(1840s-1960s) ("洋樓":閩粵僑鄉的社會變遷與空間營造(1840s-1960s))’이라는 제목으로 박사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에서 장 보웨이는 진먼교포가 보낸 송금으로 지어진 중국과 서양 특색을 동시에 지닌 양루를 통해 20 세기 해외화교들의 가족주의와 고향정체성, 그리고 애국민족주의를 분석했다. 이 연구들이 진먼도 연구를 위해 민간사회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관방의 경직된 서술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문화자원의 보호 의식이 막 부상되는 진먼학의 발전에도 좋은 시작이라고 본다.

한편, 진먼의 향토사학자들이 1996 년부터 출간한 ‘金門學시리즈(金門學叢刊)’는 계엄령 해제 이후 진먼은 대만본섬과 다른 본토화과정을 보여준다. 즉 문화민족주의로 다시 중국대륙과 연결시키면서 미묘한 양안관계에서 진먼도 자신의 독자성이 인식되는 과정이다. 이 시리즈는 진먼 지역학의 열풍을 이끌었고 장기간 동안 억압되고 사라진 지역적 논술을 다시 재현했기 때문에 학술 연구의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었다(오준방 2015).

## (2) 전장

1949 년 ~ 1992 년 43 년간 진먼은 고도의 군사통치 상태에 처해 있었다. 계엄령 해체에 따라 진먼의 전쟁 유산이 관광자원으로 바

뛰 전장관광에 관한 연구도 진면 연구의 주축이 되었다. 전장(戰場)의 문화 경관은 다른 경관과 달리 경관을 만드는 주체가 보통 군인이다. 군인이 군사행동에 따라 원래 경관을 파괴해서 요새화 시켜다. 그래서 이런 경관은 완전히 군사적 목적에 복무하는 인위적인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경관은 접경지의 형태(육지 혹은 섬)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냉전의 국제성과 국지성을 보여준다. 이런 군사적인 경관이 ‘주요군사시설의 경관’과 ‘관련 군사시설의 경관’으로 나뉠 수 있다. ‘주요군사시설의 경관’은 적군의 진격을 막고 군사시설을 보호해 주는 위장 기능이 있는 것이다. ‘관련 군사시설의 경관’은 선전·홍보용 경관과 군사적 특색을 갖는 공공예술을 가리킨다. (傅朝卿 2011).

냉전 경관은 냉전체제 하에서 극단적 대치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공간이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경관을 ‘분단 경관’ 혹은 ‘냉전 경관’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전원근 2016). ‘냉전’이라는 것이 서로가 실제적으로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우는 전쟁을 피하고 싶으므로 대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대치와 침투, 그리고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냉전 시기에 만드는 경관의 형태가 주로 방어와 위협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땅굴과 요새, 망루, 용치(龍齒,스파이크)와 같은 가시적인 경관 이외에 지뢰 같은 비가시적인 경관 등 은폐와 엄폐를 위주로 한 군사시설은 냉전 경관을 만들어냈다. 비가시적인 지뢰가 둘러싼 범위 안에 가시적인 자연 경관을 만들어 자연보호 기능을 발휘하여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기도 한다(우권광·정근식 2016). 이 자연 경관은 한반도의 DMZ 나 대만의 진먼도와 마주도에서 현재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었다.

냉전 시기에 곳곳에서 산재해 있던 군사시설들이 탈냉전 이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문제에 직면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한다.한반도의 DMZ가 안보 관광의 형식으로 일부 냉전 경관이 관광자원화되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수시로 중단될 수 있으니 지역 발전과 시설 이용에 제한이 많은 반면에 대만의 진먼도와 마주도가 이미 탈군사화했고 냉전 경관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있다.

진먼도는 전지정무(戰地政務)와 계엄령을 해제 한 후 바로 관광 산업을 추진했다. 물론 초기에 냉전 경관이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었다. 주민들이 전쟁유산(Battlefield heritage)과 군사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전환시켜 관광 수익을 창출하기를 바랐다. (蔡承旺 1992) . 그래도 국가 안전을 고려해서 ‘평봉전계(平封戰啟, 평소에 군사시설을 폐쇄하고 전쟁 시 재개하다는 뜻)’원칙으로 1995년 진먼을 대만 최초의‘전역기념국가공원(金門戰役紀念國家公園計畫)’으로 지정했고 용도폐기된 군사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하게 된다. 진먼국가공원이 관할하는 구역이 진먼도의 총 면적의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전쟁역사의 유적지와 특수한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이로써 진먼식의 안보관광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관광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진먼도가 비록 ‘전지(戰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대만 본섬 관광객이나 중국 대륙 관광객에게 아직까지 ‘전지’ 이미지는 진먼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부호이다 (蔡承旺 1992;高淑貞 2007;蔡欣樺 2015; 陳佩雯 2017) .

전장관광(Battlefield Tourism)은 쉽게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관광을 하는 행위라고 한다. 인위적으로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개발하는 것을 통해 전장 접근의 가능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킨다. 전장관광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광자원이 바로 전쟁 시기의 군사시설들이다. 대만에서 군사시설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중에 방치된 공간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 시기에 군사시설들이 은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래의 지형에 따라 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탈군사화한 후 자연경관을 결합하여 저탄소 관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林惠珍 2014) . 대만 학자 장 보웨이가 2003 년 10 월부터 진먼현의 경관자문위원을 담당할 때부터 진먼 환경경관의 발전 대책과 공간 이용을 계획하면서 최초로 생태관광 (eco tourism) 과 다크투어리즘 (dark tourism) 으로 전장의 자연 생태와 군사경관을 보존하고 재현하자고 제시했다. 폐기된 군사 시설이 항상 정태적인 예술 문화 전시 공간으로 재활용하지만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방문객의 여행 경험을 풍부시키고 만족도를 올리고 다시 찾아오는 마음을 자극할 수 있다(薛能展 2010; 周根在 2012; 陳佩雯 2017) . 또한 관련 군사시설의 경관은 산업형 관광과 경관형 관광으로 발전하는 것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蔡欣樺 2015) .

그러나 이들 군사시설이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시대적 산물이다. 현지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아픈 기억을 남겨줘서 이들 군사 시설의 존재 자체가 전쟁과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군사화 이후 ‘한 시대를 기념하는 차원’에 있어 교육의 기능을 부여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전쟁 유산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키려면 이를 후대 세대의 생활의 일부로 되어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黃惠謙 2011) .

전장이었던 곳이라서 적을 막기 위한 살상력이 있는 방어시설도 있어야 하지만 지역의 관광 발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뢰다. 냉전 시기에 진먼도에 30 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뢰밭이 있었다. 지뢰가 주민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후 진먼의 여러 건설과 발전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1993년 관광 개방 이후,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지뢰 제거의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2007년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진먼도 전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2013년 지뢰 전면적으로 제거하기 전에 2010년부터 사오진먼도(小金門島)에서 제거된 지뢰를 이용해서 최초의 지뢰박물관을 만들었다. 이 지뢰박물관도 용도폐기된 토치카를 전시공간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지뢰박물관의 전시공간인 두 토치카가 원래 철거하려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빗자루나 농사 도구를 들고 철거 작업을 막았다 (오준방 · 정근식 2014) .

이런 주민참여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할 때 중요한 심사 포인트이지만 전쟁에 의한 파괴와 상처의 기억, 그리고 토지반환 문제로 인해 많은 진먼 주민이 군사시설의 재활용 사업에 대해 관심 없다. 그래도 진먼의 전쟁유산은 국내적 양안적 국제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으므로 2002년에 대만정부로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정됐다. 주민들이 진먼의 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자기의 생활 환경도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진먼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진먼대학교가 2012년에 세 마을에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金門縣文化局 2013).

또 다른 문제는, 진먼국가공원처(金門國家公園處)가 전쟁 역사 유적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이지만 관리 방식은 ‘보육·보존’을 위주로 하며 국가안보적으로 필요할 때 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를 파괴하면 안 되어서 재활용이 제한되고 관광서비스도 단지 부가기능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장 보웨이(江柏煒,2012)가 군사자원별로 냉전 경관을 9 가지의 공간으로 나뉘며 에코박물관(Eco Museum)과 다크 투어리즘 (Dark tourism)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진먼의 냉전 경관을 ‘전쟁박물관군(War Museums)’

과 ‘평화경관공원(Peace landscape Park)’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세계냉전기념지(世界冷戰紀念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국가공원과 같은 공공기관 주도하에 제한된 관리·재활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전지문화(戰地文化) 등 요소도 부가되니 진먼의 전쟁 경관이 좀더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 보웨이가 2007 년에 발표한 ‘누구의 전쟁역사? 진먼전쟁역사관의 국족역사 vs.민간사회의 집단적 기억(誰的戰爭歷史?金門戰史館的國族歷史 vs.民間社會的集體記憶)’ 논문에서 진먼의 전쟁역사에 대한 해석은 민간사회의 집단적 기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자신감을 재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탈냉전시기에 진먼의 어색한 지위를 완화시키며 진먼의 냉전사를 다시 알아내고 양안과 세계의 냉전사를 한층 더 알아내고 전쟁을 반성할 수 있게 한다.

진먼 주민의 기억과 목소리를 강조하는 연구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Michael Szonyi “Cold War Island: Quemoy on the Front Lin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 진먼에 관한 최초의 영어책이다. 이는 진먼의 군사현대화를 통해 글로벌 지정학과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Szonyi 는 진먼 사례가 지역정치의 특수성을 지니면서 세계 냉전 범위 안에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한다고 본다(Szonyi, Michael 2011). 그래서 진먼 연구에 있어 외교와 국가안보를 위주로 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그는 진먼 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냉전이 어떻게 한 지역의 사회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양안관계 대치시기(1949~1980년대)에 군사기지로 된 진먼도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재구성되고 동원되고 군사화시켰다. 주민들

에 있어, 냉전시기에 각 정권들의 이데올로기 대항 아래 생활하는 것은 일종의 생활군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zonyi, Michael 2016). 그리하여 Szonyi 가 군사화시기에 주민들의 기억이 지역정치에 작용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양안 관계에서의 진면의 위치는 베이징과 타이베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다른 나라와의 지정학적인 ‘총알받이’로 이용당한다고 할 수 있다 (Szonyi, Michael 2011).

### (3) 평화의 섬

2013 년 한국서울대학교 정근식 교수가 진면을 방문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 문제 연구에 오랜 시간 몰두해 온 그가 진면을 방문하는 이유는 양안관계의 변화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번 방문 후, 정근식 교수가 적극적으로 양안 관계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다. 예를 들어, 2013 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가 열린 토론회는 사면대학교과 진면대학교, 그리고 대만 중연원의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양안의 현황을 토론했다. 이외에는 정근식 교수는 국내 다른 학자와 학생들에게 진면 답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2014 년부터 1 년에 최소 3 개의 답사단이 진면을 방문하여, 진면에 관한 논문도 우후죽순처럼 나왔다. 그리하여 한국은 대만 이외 진면에 관한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나라가 되었다. 2016 년에 국내에서 진면에 관한 책 두 권을 출판했다. 하나는 4 월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편집한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이고, 또 하나는 7 월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편집한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이다. 이 책들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학자들이 탈냉전 이후 양안관계의 평화적 전환 과정에서 진면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진면이 한국학계의 관심을 끄는 주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냉전시기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끌어올린 포위 전선으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을 연결시켰다. 양안 냉전의 주 전장이었던 진먼은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약간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휴전협정 체결 이후 1954년 중공은 바로 진먼에 대해 9.3 포격전을 일으켰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완전히 북한에서 철수한 1958년에 진먼은 곧 국제사회를 뒤흔든 8.23 포격전이 일어났다(정근식 2016a:8). 이런 관련성 1970년대 중엽에 또 진먼과 한반도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켰다. 1973년 북한이 NLL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1974년 2월 5일 남한 어선에 포격을 가해 한 척을 침몰시키고, 한척을 납북하는 사건을 벌인다.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역의 병력 강화와 군사요새화의 지시를 내렸다. ‘서해 5도’라는 공식적인 행정 명칭을 쓰이기 시작하고 작전 개념도 바꾸었다. 이 때의 요새화 시설 모델이 바로 ‘진먼도’이었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도 진먼도를 지하요새화의 모델로 삼았다(전원근, 2016:203-207). 이는 진먼도와 한국의 백령도나 연평도의 해안에 지뢰와 용치(龍齒), 초소와 같은 비슷한 방어체제가 있는 이유다(오준방·정근식, 2014; 전원근, 2016). 한반도와 양안의 시간차는 비슷한 방어 메커니즘을 생겼고, 통전 시간차는 탈냉전 시기에 이 두 지역의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었다.

둘째, ‘통일’은 줄곧 한반도와 양안 정치적인 주요한 의제다. 양안은 비록 정치와 군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에 처해 있지만 민간 교류에 있어 이미 한반도가 부어위할 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소삼통을 이용해 진먼을 방문했던 한국 학자들이 소양안 왕래의 빈번함과 간편한 수속을 부럽고 포탄으로 만든 식칼과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파생된 고량주산업, 그리고 박물관이나 가게로 전환된 옛 방어시설 등의 전장관광화에 대

해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며 평화가 진먼도에서 자라고 있다고 감탄하기도 한다 (한우석 2011; 오승렬.2016; 장용석.2016) . 장용석은 ‘진먼은 평화가 정착된 아름다운 섬이었다’는 말로 열전과 냉전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이 작은 섬을 형용했다. 진먼은 이미 평화의 섬이 된다는 뜻이다. 전장에서 평화의 섬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양쪽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변방의 섬이 전쟁시기에 외부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면서도 평화시기에 외부세계에 대한 교류 협력공생의 토대로 된 교량이 될 수 있다 (김민환 2014 : 130) .

‘정경분리’ 정책은 양안 교류의 초보적인 관건이다. 양안 정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치가 양안관계의 발전에 불리하다는 인식 속에서 1992 년 홍콩회담의 산물인 ‘92 공식’의 창조적 모호성을 통해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할 완충지대를 창조했다 (백지운.2016 : 290) .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92 공식’은 확실히 중국에게 교류의 문을 여는 근거를 제공했고 정경분리 정책도 대만 상인들의 대륙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소양안도 가만 있지 않았다. 중국 푸젠성은 1992 년 ‘소삼통(小三通)’의 구상을 내놓았다. 그리고 1994 년에는 ‘대(對)대만 지역의 소액 무역에 관한 관리 방법’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소액 무역의 비공식적인 직접 무역과 경제 교류를 허용하였다. 그리고나서 2001 년 공식적인 직접 무역과 경제 교류를 뜻한 ‘소삼통’이 마침내 개통되었다. 2008 년에는 더 나아가 대삼통을 실현하여 양안의 직접 왕래와 협력이 더욱 빈번해졌다. 그러나 양안의 활발한 교류는 오히려 대만인들의 반중국 정서를 부추겼다. 이에 오승렬(2016)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 규모와 정치력의 비대칭성에 홍콩의 존재 등 요인이 있으므로 양안 통상관계도 분단지

역의 긴장완화에 유일한 유효유는 아니라고 본다. 양안통상의 불균형과 과도한 중국의존도가 대만 주민의 박탈감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오승열 2016":108-1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자들은 양안의 인적(人적) 교류(류)에 있어서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은미(2016)에 따르면, 남북한 간의 교류문제에 있어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물론이고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소통과 소비 등 ‘통일자원’이 거의 정부로부터 주도하고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과의 모든 교류협력은 정부라는 단일 창구를 거쳐야 한다. 심지어 이산가족의 상봉도 실리주의 차원하에 추진한 것이었고, 양안처럼 진정한 인도주의적으로, 비공식적인 친척 방문 및 민간 교류가 아니었다(정은미 2016:315-316). 그러므로 국내 학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안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공간을 개척하여 ‘통일자원’의 권력을 민간에게 일부분을 양도나 분권화해야 한다고 본다(장용석 2016; 백지운 2016; 정은미 2016). 정근식도 국가와 지방차원의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이 온도차가 있다고 본다. 냉전의 섬들의 연대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역들 간의 공통 경험에 기초한 평화의 연대를 실현하기에 아직 어렵지만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나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는 데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3절. 이론적 자원

1980년대부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에 ‘평화 교류’의 선의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대만 국내에도 민주화운동과 계엄령 해제

이후 대만 국민의 권력과 이동의 자유는 많이 향상하기 때문에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1987년 대만 본섬의 계엄해제에 따라 대륙 출신 노병들을 중국 대륙에 친척방문할 수 있게 했다. 많은 대만 사람들도 추세에 따라 중국으로 뿌리찾기 관광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양안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관계도 화기애애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대만 국내도 민주화와 본토화 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국가정체성과 정체(政體)의 전환 과정에서 점점 중국과 다른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고 대만인들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1988년부터 리덩후이 정부가 ‘실무 외교’ 정책을 실행했다. 이는 국제 조직에 참여하는 기회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해협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며 대등한 두 개의 정치적 실체(political entity)’를 주장했다.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중국문화민족주의와 대립하는 대만문화민족주의가 흥기하면서 ‘대만민족주의-다원화주의      국민당권위체제-대한쇼비니즘(大漢族主義, Han chauvinism) -중공’의 논리가 형성되었다(林竣達, 2009:144-145). 게다가 1996년 대만에서 거행한 총통 직선은 대만 민주화의 완성을 상징하여 대만은 ‘민주 공고(democratic consolidation)’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대만인의 국가정체성 변화를 가속시켰다(陳亮智, 1999; 王宏文, 2003). 국제적으로 지위미정론과 대내적으로의 ‘민족 구축(nation-building)’ 문제<sup>2</sup>, 그리고 대만인의 ‘대만정체성’은 민족적 정체성인가 지역적 정체성인가 등 문제들이 정치의 민주화와 중국의 통전(統戰) 논술에 따라 대만 내부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 양안 교류 시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

<sup>2</sup> 施正鋒. "民族自決權——台灣獨立建國的民族主義觀點".

## (1) 대만의 민주화와 국가정체성의 변화

대만 본섬 주민들이 중국의 무력 위협을 직접 느끼게 된 것은 1996 년 대만에서 최초의 민선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를 거행할 때부터다. 그 당시 중국이 양안양회(兩岸兩會)의 협상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1995 년부터 무력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1996 년 투표를 진행한 3 월에만 세 차례 군사훈련을 했고 대만 외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상륙 훈련을 진행해서 제 3 차 대만해협 위기를 일으켰다(郭添漢,2013:98-99).

중국이 군사훈련을 진행한 1995 년 7~9 월과 1996 년 2~3 월 사이에 대만 민중은 중국의 적대감을 강렬하게 느낀다. 약 70% ~ 80%의 민중은 이것이 대만 정부에 대한 적의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시하지만 개인의 투표행위나 민주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sup>3</sup>. 하지만 대만해협 위기로 대만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자금도 대거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61%의 대만인이 중공과 '양안 평화협정'을 협상하기를 원했다. 그 가운데 73.8%의 대만 민중이 국가안보와 존엄이 보장된 상태에만 양안 정치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sup>4</sup>. 이 시기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대만 민중이 여전히 '현상 유지하다 상황을 봐가며 독립이나 통일을 결정함' (30% ~ 40%)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현상유지후 통일'(20%)이다(그림). 그러나 대만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6 년 이전에는 대부분 대만인이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는 이중적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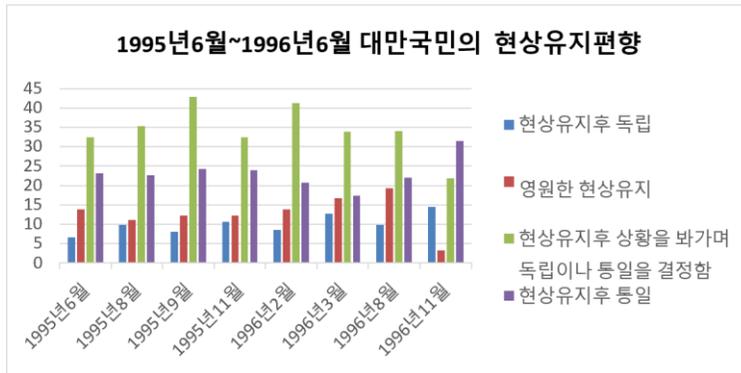
---

<sup>3</sup> 行政院大陸委員會.1996.「民眾對大陸政策及兩岸關係的看法綜合分析-摘要」

<sup>4</sup> 行政院大陸委員會 大陸資訊及研究中心.1996.「表五 民眾對兩岸協商等相關問題的看法」

체성을 갖고 있지만 1996 년 이후 ‘대만인정체성’이 높아졌다. 특히 1996 년 24.1%에서 1997 년의 34.0%로 9.9%가 상승하는 반면에 ‘대만인이자 중국인’ 정체성의 비율은 7.9%가 하락했다.

그림 1- 4 1995 년 6 월~1996 년 6 월 대만국민의 현상유지편향



출처: 行政院大陸委員會 大陸資訊及研究中心,1996.  
「民眾對兩岸未來關係發展的期望〔六變項〕」, 필자 재정리.

1999년 7월, 리 덩후이가 제시한 양국론(양안 관계는 국과 국가의 관계, 적어도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과 '신(新)대만민주주의'로 인해 자신을 “중국인”보다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2000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인 천수이벤(陳水扁)이 대선에서 선출되어 국민당의 55년 일당 독재를 종식시켰고 대만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중국학자 최 즈칭(崔之清)은 비록 중국이 이미 푸저우군구까지 철수하고 군사 훈련도 많이 줄였지만 리 덩후이와 민진당이 여전히 중국의 ‘무력통일’정책은 무력 위협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런 선거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중국이 제시한 '일국양제·평화통일'의 양안 윈윈 구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崔之清 2000: 58-59).

비록 ‘대만인정체성’의 비율이 많이 상승하여 2000년에 제1차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대만 국민들이 여전히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이에 중국학자들은 대만인이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이 독립보다 양안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본다(杨云龙·吴逸群,2000:17-19). 그러나 중국은 대만 독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진당 정부를 위협하기 위해 중공 해방군이 푸젠 등산도(東山島)에서 1996년 군사 훈련 다음으로 큰 규모의 대(對)대만 육해공 실전 훈련을 실행했다. 주요 훈련 목표는 ‘이무촉통(以武促統, 무력통일)’과 ‘공대항미(攻台抗美)’이었다(施予中 2002:93-98).

2008년 마 잉주(馬英九)가 대만 12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제 2차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마 잉주가 ‘92 공식’을 인정하면서 ‘대만독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중국은 리 덩후이의 ‘양국론’과 천수이볜이 ‘92 공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협상들을 다시 회복했다. 중국학자들도 마 잉주 정부가 ‘92 공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안의 평화발전 국면을 열었다고 호응했다(林劲,2012;李鹏,2012). 따라서 ‘92 공식’은 양안의 각종 교류 접촉과 상담의 중요한 정치적 기초가 되면서 양안 관계의 현황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李鹏 2012:8-9). 중국학자 우렁웬(吴能远)은 ‘92 공식’이 양안관계의 현상 인정과 양안정치관계의 정의, 그리고 양안관계의 행동 준칙에 필요한 기초를 다졌다고 본다. 그는 ‘92 공식’이 1992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각자가 구두로 성명하는 방식’으로 홍콩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며 양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룬 공식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 아래 점차적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吴能远 2012:12-15). 대만 학자 통 전웬(童振源,2011)도 ‘92 공식’이 ‘하나의 중국’의 공감대 연결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도움

이 되면서 국민당과의 연합하며, 대만 내부를 분열시키고 민진당 정부를 고립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이도 한다고 본다(童振源 2011: 89) . 대만 학자 우 제민(吳介民, 2012)은 역시 '92 공식'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제 3 차 국공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국민당 쑨잔과 후진타오의 평화회담을 성사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국공 양당은 '92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은 공식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의 중국'만 승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국민당은 각자 알아서 표현한다는 '일개중국 각자표술(一個中國,各自表述)'으로 해석하고, 공산당은 '양안은 구두로 각각의 표현으로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각표일중(各表一中)'으로 해석한다 (吳介民 2012 : 171) . 그래서 1992년 홍콩 회담에서 과연 공식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양안 3 당의 쟁점이다.

하지만 어쨌든 2009 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 30 주년 때 제시한 새로운 시기의 대만 근무에 대한 여섯 개의 의견 핵심 내용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서로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한 것이다. 그중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정치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이 합의한 의제는 경제문화적 측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뢰를 쌓는 밑바탕이 바로 '92 공식'이다 (林勁 2012:1-2) . 게다가 마잉주 정부 시대에 양안은 '92 공식'을 기초하여 정치적 신뢰를 강화시키면서 '하나의 중국'의 틀도 강화시켰다. 그리고 "선경후정, 후이후난"의 정책 하에서 양안 관계는 지속적으로 평화발전의 궤도를 향해 나아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양안 고위층 교류와 소통이 가장 빈번했다. 2013 년에 '시오회(習吳會) '와 '시론회(習聯會) '를 성사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국무원대만사무관공실(國台辦)과 대만 대륙위원회(陸委會) 이 양안 업무를 주관

하는 정부 기관도 직접 만나 상호 방문을 진행했고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 년 열린 '타이베이 회담'과 2013 년 '베이징 회담'은 학술적인 토론을 통해 양안의 정치적 의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비록 마英九 정부 시기에 양안의 경제무역 교류가 활성화되어 양안의 고위층 교류는 빈번했지만 대만 당국과 국민들이 '선경후정(先經後政)'의 방식으로 먼저 교류하다가 양안의 정치적 협상을 진행한다고 원하는데, 이는 중국의 기대와 차이가 있다 .

2016 년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 (蔡英文)이 선거에 선출되어 대만이 제 3 차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 결과에 대해 2017 년 10 월 18 일 시진핑은 19 대 대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바로 '92 공식'이며, 대만 민진당 정부가 '92 공식'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대만의 어떤 정당이나 단체가 중국과 교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또한 '평화통일'와 '일국양제', 그리고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의 이념으로 대만 기존의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중하며 대만 민중에게 대륙 민중과 동등한 대우를 실천하고, 또한 새로운 혜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평화 통일의 강도를 강화시켰다<sup>5</sup>.

마英九 정부가 집권한 8 년 동안 양안 관계는 전례 없이 호전해 졌지만 대만인의 '중국인 정체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차이 잉원 정부가 출범한 후 92 공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국이 대만 해협의 현황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

---

<sup>5</sup> 中國評論新聞網, 「中評論壇：台灣統派詳論習近平報告」, 2017.10.26  
[http://hk.crntt.com/doc/1048/5/6/9/104856987\\_2.html?coluid=7&kindid=0&docid=104856987&mdate=1026205306](http://hk.crntt.com/doc/1048/5/6/9/104856987_2.html?coluid=7&kindid=0&docid=104856987&mdate=1026205306)

와 인민들이 ‘무통(武統)’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래 양안 3당은 민진당의 2차 집권 하에서 ‘대만인 정체성’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2018 년 대만의 ‘천하(天下) 잡지’와 정치대선거연구센터가 각각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 정체성’의 비율(56.4%)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대만인이자 중국인 정체성’은 34.1%로 상승했다. 2017 년의 여론 조사와 비교했더니 이는 20 대와 30 대의 정체성 변동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30 대의 변동이 가장 폭이 크다. 하지만 ‘중국인 정체성’은 이미 소외된다. 송 원디(宋文迪)는 이 현상을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대만사회의 국족 정체성 분포가 해바라기 운동 이전의 기본 수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의 ‘무력 위협 책략’이 대만인의 타협주의(accommodationism)를 불러일으켜 생긴 결과이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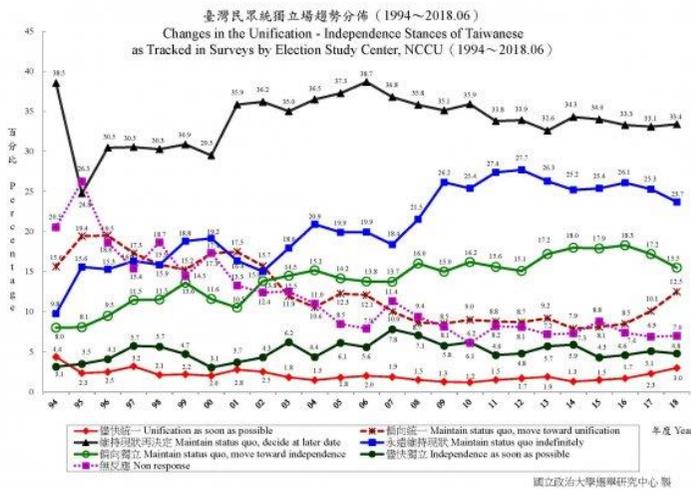
2018 년 대만 연합보의 ‘양안관계 연례조사’와 정치대 선거연구센터의 통독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민진당의 2차 집권 기간(2016~2018 년)에는 ‘현상유지하다 상황을 봐가며 독립이나 통일을 결정함’(약 30%)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06 년 이후 계속 감소해 오는 ‘통일 지향’옵션은 3 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를 돌파했다(그림). 연합보는 이를 대만 민중이 차이 잉원 정부의 양안관계의 처리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25%의 대만인은 민진당 정부가 주장하는 ‘대만 독립’이 양안관계가 긴장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46%의 대만인들은 비록 군사적으로 보면 양안 관계가 긴장한 상태에 처하고 있지만 양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3.6 점으로만 나타난다(1 점 ‘전혀 불가능’,

---

<sup>6</sup> 宋文迪, 「『後太陽花時代』의 終結?」, 自由時報, 2018-01-27

10 점 ‘상당히 가능’ )<sup>7</sup>. 또한 ‘통일 지향’ 옵션의 상승에 대해, 연합보는 중국의 대대만 혜택정책이 확실히 대만인, 특히 젊은 세대의 서진(西進) 의사를 향상시킨다고 분석했다. 송 윈디는 이것이 ‘천연독(天然獨)’세대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본다. 즉, 국족정체성에 대한 입장은 결코 개인의 경제 생활의 추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sup>8</sup>.

그림 1- 5 대만인의 통독입장 추세 분포도(1994년 12월~2018년 6월)



출처: 대만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

## (2) 정치적 싸움에서 문화적 싸움으로

### 1) 대만의 문화독립

중화문화는 동아시아의 3 대 문화권 중에 유일하게 동북아와

<sup>7</sup> 聯合報, 「聯合報『兩岸關係年度大調查』, 兩岸外交・官方關係惡化創新高」, 2018.9.17, A1 版

<sup>8</sup> 宋文笛, 「時代力量支持柯文哲, 透露「天然獨」年輕世代的可塑性」, 自由時報, 2018-09-22. <http://talk.ltn.com.tw/article/breakingnews/2559112>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대문화권이다. 근래에 문화 교류와 지역 경제 통합에 따라, ‘동아시아 의식’의 각성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과 단결도 촉진하였다(俞新天, 2003:45-49). 그러나 ‘누구의 중화문화’는 양안 3 당 사이에서 힘을 겨루는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대만 본토파 인사들이 ‘중화문화’를 ‘중화민국’과 ‘중화민족’에 따라 나타난 개념이라서 1949년 국민정부가 대만에 온 후에야 대만인들은 비로소 중화문화와 직접적이고 강한 연관이 생겼다(楊儒賓, 2014:149). 그리고 70여 년 동안 중화문화도 중화민국처럼 ‘중화문화는 대만에 있다’는 해석 각도가 생겼다. 즉 1949년 이전의 대만 전통 ‘한(漢)문화’와 1949년 이후의 중화민국의 중화문화와 융합된 중화문화를 가리킨다. 그래서 중화문화는 더 이상 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대만의 ‘한문화’가 이족인 일본에 의해 통치된 대만인(한족과 원주민 등 포함)의 ‘조국’인 중국에 대한 감정 연계이는 반면에 중화문화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형태이자 반(反)국민당 권위주의적 집단감정을 가진 용어로 보기 때문이다(楊儒賓, 2014:154). 바로 후자 때문에 대만인의 ‘반중(反中)’ 콤플렉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허 팔비(何乏筆, 2014)은 이것이 문화적으로 연결이 실패하는 결과라고 본다(何乏筆, 2014:163). 이로 인해 ‘문화 대독(文化台獨)’의 개념을 발전했다. 대만의 문화 독립 행위의 주요 논술 중의 하나는 대만의 ‘주권 미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주권 미정’에서 ‘주권 독립’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다(陳動; 陳孔立, 2005:32). 그리고 추진 방법은 바로 역사 교과서 중에 중국 대륙과 관련된 역사어휘를 삭제하거나 수식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중국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대만의 문화 대독이 리덩후이 총통 때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1997년 리덩후이 정부가 중국 역사 수

업에 본토 교육인 ‘대만 알아내기’라는 과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sup>9</sup>. 또한 중국통사와 중국현대사를 ‘자국사’로 통합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이유로 대학의 ‘국부(國父)사상’과 ‘자국사’ 수업을 취소하기도 했다<sup>10</sup>. 그 다음으로 집권된 천수이볜(陳水扁) 정부가 ‘탈중국화’행동을 더욱 크게 했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과서의 ‘탈중국화’는 ‘대륙’을 중국으로 수정하거나 고등학교의 중국사를 ‘외국사’로 편입되거나 ‘염화의 자손(炎黃子孫)’과 같은 중화민족 정체성을 지닌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다. 이로 인해 ‘반(反)중화의식’을 조장하고 ‘일변일국(一邊一國)’의 분리주의 이념을 고취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만과 평후도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004 년에 민진당 정부는 ‘대만지위미정론’을 강조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만과 평후군도가 이미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는 카이로 선언을 대신해 설명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학자 陈动&陈孔立(2005)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제정과 협상, 그리고 체결까지 모두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국제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불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기 전의 200 여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 민진당 정부는 교과서 요강 초안에는 ‘정성공 정권’과 ‘청나라’ 등 글자를 ‘생략’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어떤 정권도 대만을 관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관계’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었다. 즉 대만과 평후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陈动&陈孔立,2005). 또한 일제시기도 중화문화와 선을 그은 문화 대독의 논술이 되었다. 즉 중화문화는 쑨문이 창립

<sup>9</sup> 江南海. 「反課綱微調」的臺獨文化革命意識本質. 鵝湖月刊 481 期 ( 2015/07 ):0-1

<sup>10</sup> 江南海. 文化臺獨的真相－一個臺灣價值崩解與主體虛無的過程. 遠望雜誌 333 期 ( 2016/06 ): 16-20

된 중화민족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당시는 대만이 여전히 일제시  
기였기 때문에 대만인은 중화민족에 속하지 않는 주장이다<sup>11</sup>. 그  
리고 ‘대만민족론(台灣民族論)’의 창시자이자 ‘대독사관’의 최초 제  
안한 사람으로 간주된 쓰 밉(史明)은 그의 저서 ‘대만인의 4 백년  
사’에서는 대만도가 중국에 속하는 것과 대만인이 중화민족의 일  
부를 전적으로 부정했다. 그의 주장은 980 년 그의 저서의 중국어  
판이 대만에서 출판됨에 따라 1980 년대의 대만 민주화 운동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1970 년대 ‘중화민국’의 국제외교적 좌절  
과 방해, 그리고 국제사회가 중공정권에 대한 인정으로 인해 많은  
대만 국민들이 ‘국가가 없다’거나 중공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해외여행을 나갈 때 관광목적국들이  
중화민국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불안감이 더 커진다.  
이 때문에 당외단체들이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대만 의식’을 고취  
하여 국민당 정권의 합법성에 도전하는 것을 통해 민족주의 이데  
올로기적 동원을 했다 (蕭阿勤,1999) .

대만 학자 장 야정(張亞中)은 대만에 있는 각 족권의 역사관  
을 모두 존중해야 하지만 ‘탈중국화’나 ‘문화 대독’이 대만인들로  
하여금 문화적 경쟁력이 잃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치열  
한 성적(省籍)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張亞  
中,2016:55). 또한 판 차오양(潘朝陽)은 민진당의 두 번째 집권한  
것은 바로 문화세뇌 교육에 의해 형성된 ‘천연독(天然獨)’의 성과  
라서 차이 잉원 정부는 대만의 중화문화를 더욱 철저히 없애는 것  
을 문화교육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대만 민족’  
은 30 년 동안의 문화 대독의 교육 하에서 형성되었다<sup>12</sup>. 장 난하

<sup>11</sup> 文化切割 蔡当局意在政治“台独”? 台声 , 2016(24), 摘编自 11 月 25 日  
台湾《中华日报》

<sup>12</sup> 潘朝陽.文化臺獨「建國」在望.遠望雜誌 332 期 (2016 / 05 / 01 : 11 -  
12.

이(江南海)는 대만 민족이 혈연문화를 가진 ‘중국인’ 정체성을 배제하여 형성된 것이며 문화 대독이 대만 가치를 붕괴시키고 주체를 허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대만 민족의 주체와 본질을 정치 투쟁의 논술로 만들었다<sup>13</sup>.

2009년 국민당은 다시 집권권을 되찾았다. 12년 동안 탈중국화의 본토화운동을 겪은 후 마英九는 ‘대만 특색의 중화문화’로 1949년부터 중화민국 정권 하에서 발전한 대만 문화를 해석했다. 즉 중화문화와 대만문화의 전승과 결합으로 대만인들이 대만이라는 공간에서 대만 정신을 통해 중국 대륙과 다른 ‘새로운’ 중화문화를 발전시킨 것이다. 중국학자 천 공리(2013)는 마英九의 해석을 대만 내부의 ‘자존심 요구’에 맞추면서 ‘대륙의 중화민국 공세’에 맞서기 위한 문화적 발언권을 쟁취한 것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마英九는 중국의 중화문화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절단된 반면에 대만의 중화문화가 60년 동안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그는 대만의 중화 문화의 정통성에 민주적 자유를 더하면 대만은 중국보다 중화문화의 선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공리는 이것도 중국 문화와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陈孔立, 2013:1-6).

중국은 이미 ‘문화 대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것이다. 즉 대만 독립 인사들이 분리주의를 촉진하는 수단이다 (李道湘, 2003; 李道湘 2005; 李立, 2007). 하지만 문화통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다. 양안 교류 이래, 사회적 문화와 정치적 문화 차이로 인해 양안의 생활습관이나 가치 의식의 차이가 오히려 교류의 벽이 되었다. 정치적 문화 차이는 양안의 문화적 정체성의 갈등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이 바랐던 양안의 근본 문

---

<sup>13</sup> 江南海. 文化臺獨的真相—一個臺灣價值崩解與主體虛無的過程. 遠望雜誌 333期 (2016/06), 16-20

화인 ‘중화문화’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이 도전을 받고 있다 (陈孔立,2014) . 그러나 중국에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 중의 하나다. 국가 이익과 국제 이익은 모두 유형의 물질적 이익과 무형의 문화적 이익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국가 이익은 영토의 완전함에 관한 주권 문제이므로 ‘대만독립’은 중국에 의해 ‘평화 굴기’원칙을 파괴하는 사상으로 여긴다. 또 다른 이익인 '문화'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과 이념은 국가의 신분을 구축하면서 국가의 이익도 정해진다. 그러므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를 합리화되어야 한다(俞新天,2004; 俞新天.2006). 따라서 ‘대만 내부로 침투해야 하는 통일전선(統一戰線, 이하 통전)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 무역 외에, 중국은 문화 교류와 민족 감정 등의 명목으로 대만에 삼통의 실시를 요구했다 (江宗諭,2017) . 이로 인해 양안 삼통을 개방한 2008 년 이래 ‘중국 요인’은 대만의 각 분야에 깊이 침투했다. 특히 사회 하층에서 중국의 목적성과 전략성을 지닌 조작 흔적을 더 잘 볼 수 있다(陈孔立,2014 : 3) .

## 2) 중국의 문화통일

대만 독파의 역사적인 절단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신동원, 인동근(神同源,人同根)’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문화 통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마조(媽祖)<sup>14</sup> 신앙 과 정성공이 가장 흔한

---

<sup>14</sup> 마조는 중국 송나라 사람이자 푸젠성 푸톈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린 모량(林默娘)이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법술을 배워 요괴나 마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8 살 때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난파를 당한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 이로 인해 항해자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어 중국 대륙 연안과 대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이 되었다.

예이다. 현재 중화민국 정부가 관할하는 범위가 모두 섬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 중에서 ‘마조’신앙이 상대적으로 성행한다. 간단히 말하면, ‘마조 신앙’이란 중국 푸젠 연안 지역과 섬들이 예로부터 어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떠나기 전에 꼭 ‘마조’에게 평안을 빌곤 한다. 푸젠에서 대만까지는 반드시 ‘흑수구(黑水溝)’이라는 수로<sup>15</sup>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어민들 물론이고 대만으로 이주한 대륙이주자들은 심지어 마조 신앙을 가져 다니고 대만에 도착한 후에도 마조묘를 짓기도 한다. 대만 마조의 얼굴이 왜 대부분 검은 색인 것이 대륙 이주자들이 대만으로 가는 길에 끊임없이 배에서 향을 피우며 안전을 빌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이민자들이 마조 신앙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만 전역에 510 개의 마조묘가 있다<sup>16</sup>. 명청 시대에 약 40 개의 마조묘가 건설되었고 청나라 조정은 더욱이 마조의 지위는 ‘천비(天妃)’에서 ‘천후(天后)’로 진급되었다. 청나라가 명정수사(明鄭水師)와의 수차례 해전에서 마조 신앙은 중대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쓰 랑(施琅)이 마조 신앙의 힘을 충분히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대만을 수복했다. 그래서 나중에 대만 타이난에 있는 닝징왕부(寧靖王府)를 대천비궁(大天妃宮)으로 개축해 청나라가 대만을 통치한 후 정부 출자로 건설된 최초의 마

<sup>15</sup> ‘흑수골’은 평후도와 자이(嘉義) 사이의 평후 수로를 가리킨다. 자고로 ‘열 명이 간다면 여섯 명이 죽고 세 명이 남기며 한 명이 돌아온다(十去, 六死, 三留, 一回頭)’는 속담으로 이 수로의 험악함을 형용한다.

<sup>16</sup> 대만 마조묘의 수량에 대해 대만과 중국의 통계는 현저히 차이가 있다. 1989년 “취안저우 대만도포 귀향 뿌리찾기 가이드북(泉州臺胞回鄉尋根指南)’에는 당시 대만의 마조묘가 496 개가 있다고 적혀 있으며 2019년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의 ‘建设台胞台企登陆“第一家园” “妈祖故里”何为’라는 기사에서 3,000 여 개가 있다고 보도했다. 즉 30년 동안 대만 전역에는 2,504 개의 마조묘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대만의 다양한 신앙과 이런 증축 속도의 불합리를 고려해, 그리고 필자가 대만 쪽의 자료 중에 비슷한 수량을 기재하는 자료를 못 찾으므로 여기는 楊逢元(2018)의 버전을 채용했다.

조묘와 대만 마조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로부터 마조 신앙은 청나라가 대만의 민변(民變, 민중봉기)을 평정하는 심리전 무기가 되었고 청나라의 통치를 지지하는 상징까지 되었다(駱芬美, 2013: 168-174).

중국학자 샤오 지원(肖季文, 2002)은 정성공을 네덜란드 식민자들을 대만에서 몰아내고 청나라의 이족 통치에 반대하다가 대만을 수복한 사람이며 이는 중국 인민의 반침략 투쟁이 거둔 첫 번째 철저한 승리라고 본다. 또한 정성공은 먼저 대만을 수복해 국가 통일의 조건을 만들어냈으므로 강희(康熙)황제가 비로소 쓰 랑을 파견해 정성공의 후손을 토벌하러 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조국 통일을 이루어지고 국가의 주권 독립을 수호하게 된다(肖季文, 2002: 45-46). 그리고 정성공과 쓰 랑은 대립관계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서양 식민주의자들의 대만 점거에 반대하여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서 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王宏志, 1997: 72-74). 따라서 중화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을 단결시켜 국가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쟁취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은 민족분열에 반대하는 자가 모두 애국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일중일대(一中一台)’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자는 모두 국가와 민족이익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본다(苏双碧, 1997: 55-58).

마조 문화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신 문화로서 외부로의 확산서 오과 전파성을 현저하게 지닌다(马芳菲, 刘志, 2011: 13). 중국 학자 천 쑹핑(陈支平, 2018) 이 푸젠의 해양문화와 무당문화의 교호 작용으로 마조 신앙이 중국 푸젠 연안에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종족(宗族)과 향통 관념이 강한 것은 마조 신앙이 푸젠 출신상인과 이민을 따라 해외로 확산된 중요한 요인이다(陈支平, 2018: 21-24). 마조 신앙의 전파성은 새로운 매개체로 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시대의 적용성을 보여주며, 확산성은 신자들의 마

음 속에 있는 마조의 구난 기억을 구두로 전해지는 것과 문서로 기재된 것, 그리고 마조 조각상 등으로 외부로 확산되어 수직적으로 전해지는 것이다(马芳菲, 刘志, 2011; 吴炳廷, 2015). 그래서 해외에 있는 화인(華人) 사회에서도 중요한 신앙이다. 이민사회인 대만에 이주하여 개간하러 온 한족 이민자들의 지역 관념으로 초래한 충돌을 없애해주고 신앙권으로 확대하여 족군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温振華, 1984; 王世慶, 1972; 張珣, 1995; 陽春龍, 2001). 그리고 매년 마조 탄생일과 승천일에 대만을 비롯한 많은 해외 신자들이 메이저우(湄州)에 있는 조묘(祖廟)로 제사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서 ‘동방 메카’로 불리기도 한다.

마조와 정성공은 중국의 통일 사업에서 모두 구상화되었다. 즉 그들의 조각상은 중국이 대만에 기증한 역사적·문화적 기원과 평화 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 대만에서 마조 조묘의 조각상과 같은 재질이나 형상을 가진 조각상은 대만 본섬에 있는 베이강(北港)조천궁과 진먼도의 랴오뤄 마조공원의 조각상이며 각각 1992년과 2005년에 메이저우 조묘에서 증정되었다. 마조와 정성공의 조각상이 바라보는 방향과 시선에 ‘통일’의 염원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마조의 조각상이 손에 들고 있는 ‘여의(如意)’는 중화민족 특유의 문화적 상징 기호로 평안과 평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은 마조의 ‘해협 평화의 여신’이라는 여성 이미지로 부드럽고 굳은 눈빛으로 대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치 조국에 계신 어머니는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인 ‘대만’이 하루빨리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李丽娟, 2009:82).

신앙과 이민의 역사로 양안의 문화통일을 강화시키는 외에 문화교류의 명목으로 38년간 단절되었던 양안문화를 다시 연결시키는 가장 흔한 방식은 ‘관광’이다. 관광은 단기간의 접촉이지만 여

러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풍경 문화 관광, 종친의 뿌리찾기 여행, 종교 순례 여행 등이 있다. 중국에 있어서, 양안은 관광을 통한 교류들이 대만 동포에게 조국의 금수강산에 친근하게 하여 동원동종의 느낌을 강화시키고 조국에 대한 인지와 감정을 증진시키며 중국의 동포 정책이나 소수민족 정책도 선전할 수 있다(杨丽珍, 2007: 49-50). 관광객들이 이때 중국 대륙에서 들은 것과 보는 것을 다른 대만 동포와 나누고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또한 관광에 마조의 요소를 넣는 것은 지역 신앙 활동을 합법화하는 것 외에, 중앙 정부의 정치, 경제 또는 문화적인 목적을 이루는 시도도 있다. 판 정의(范正义, 2018)는 진먼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진장 웨이터우(围头) 촌의 마조묘 재건을 사례로 하며 재건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국가의 주류 이데올로기와 정책 추세에 맞추는 이유로 재건을 추진하는지를 사례로 연구했다. 즉 신앙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가 지역 발전을 중시하게 만드는 윈윈 국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마조평화전망구역(媽祖和平展望區)’의 관광 계획에 의해 ‘북쪽은 취안저우 천후궁, 남쪽은 웨이터우 마주궁’이라는 전망으로 대만과의 문화교류권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范正义, 2018: 75).

문화 교류는 흔히 관광의 명목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종친이나 종교 신자, 혹은 젊은이들로 나눌 수 있다. 형식은 학술 교류, 문화 연수 캠프, 문화 경제 무역 교류 등이 있다. 문화 교류 여행을 통해 넓고 심오한 오래된 중화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민족의 자긍심도 증진시킬 수 있다. 문화교류단과 현지 사람들의 화목한 장면은 중국의 중요한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 통일 전선 선전이다. 일반 여행단과 달리 문화교류단은 현지인과 접하는 시간과 기회가 비교적 많고 중국 정부의 중시를 받기 때문에 전국타이련(全國台聯)이라는 통전 기능을 가진 향정 조직 물론이

고 각 성시의 통전부(统战部)도 양안 문화 교류의 자리에 자주 참석한다. 반면에 중국인이 대만에 문화 교류를 하러 오면 대만의 ‘중국 문화 기호’를 수집하는 것은 중국 문화교류단의 임무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 대만의 타이중자연과학박물관의 ‘중국과학전시관’에 전시된 중국의 고대 과학과 기술과 같은 기호를 수집하는 것이다. 중국 문화를 수집하는 것은 대만 독립과 정치인들에게 양안의 ‘동근동원(同根同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杨骅, 2000:29-31). 젊은이에 대한 문화통전은 여름 캠프와 겨울캠프로 진행하곤 한다. 주로 문화 교류를 통해 대만 젊은이들이 중국의 성장과 변화를 느끼게 하고 젊은 대만 동포를 대륙에 일과 생활하러 오게 하며 양안 관계 문제를 중시하기 위한 것이다(刘丽娇; 宋伟. 2019:20-26). 또한 대만 젊은이들이 일본의 731 부대 전시관과 같은 중화민족의 어두운 기억을 지닌 박물관을 관람하게 하는 것은 관람자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대만 독과 정부의 친일역사 서술에 대한 대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적 기억으로써 공통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사회심리적 건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시진핑이 대만 평화통일 단체를 접견했을 때 형식적인 통일이 아닌 양안 인민의 심리적 통합으로써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중국의 통일 프로세스는 교류-인정-귀속-통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진핑은 2017년 19대 보고서와 2019년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때 중화문화가 양안 동포의 근원이자 귀속임을 계속 강조했다. 그러므로 중화문화를 널리 알리고 양안 인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양안 동포의 ‘심리적 통합’ 메커니즘을 촉진하는 것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양안의 교류와 공동이익이 마잉주 정부가 집권된 8년 동안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대만의 산딸기 학생운동(2008 년)과 해바라기 학생운동(2014 년)이 여전히 발생했고 2016 년 민진당이 다시 집권을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공중(恐中, 중국을 두려워하다)'나 통일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청나라 때 이족에게 할양하는 것과 장기간의 '반공(反共)'교육과 '대만 독립'의 선전과 교육과 같은 역사적 경험, 정치 선거 문화,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대만인들이 중국에 가보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양안의 심리적 통합은 중국의 신세대의 통전 방식이 되었고 양안의 "동문동종동조(同文同種同祖)"의 중화문화를 주축으로 한 교류로 양안 인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주류 주장이다(倪永杰,2015; 艾松如,2015; 汪毅夫,2016; 沈惠平,2016; 苏进强,2017) . 하지만 양안의 중화 문화는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발전 방향을 추진했다. 천 공리 (陈孔立,2016) 는 이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와 '대만 특색의 중화 문화'로 구분했다. 그리고 중화 전통문화의 어떤 부분만을 인정한다고 해서 양안의 문화적 정체성을 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현재의 양안 문화 교류는 흔히 '목적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양안 각각의 주류 문화를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안의 '다른' 문화의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선천적인 '중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이 포함된 '문화공동체'를 구축해야 진정한 진정한 상호문화적 이해를 이룰 수 있고 현상을 변화시킨다(陈孔立,2016:1-9).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양안 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먼저 '같은' 문화를 통해 친근감을 갖게 되고, 양안 분단 이후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수정을 하게 되어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영광을 창조하며 새로운 공동의 기억을 형성해야 한다 (沈惠平 2016<sup>17</sup>;

---

<sup>17</sup> 沈惠平. “促进两岸同胞心灵契合的机制与路径”, 中评社. 2017-02-26. <http://bj.cnrntt.com/doc/1045/4/6/4/104546495.html?coluid=295&kindi>

陈孔立 2016; 何芳东 2018). 그러므로 양안의 교류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도적 배치를 강화시켜야 하며 양안 인민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교류는 체제화와 제도화로 양안 인민의 이익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니 영제이(倪永杰,2015)는 양안이 공동으로 문화 추진 위원회와 양안 중국어 창신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면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동’의 중화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역사책과 학교 교과서를 공동으로 편찬하는 것이다(倪永杰,2015:49).

#### 4절.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앞서 말했듯이 진먼과 샤먼의 소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하위 관계이지만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안정부가 추진해온 민간교류와 별도로, 탈냉전 이후 진먼이 직면해온 지정학적 정체성의 딜레마가 역설적으로 양안 정부 차원에서 의도하지 않은 양안 교류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와 진먼인의 정체성의 이중성이 진먼의 평화 상징 혹은 평화 사상을 구축하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관광’은 소양안 교류에 있어 흔히 보는 방식이다. 기존연구는 대부분 일반 관광객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는 진먼이 중국대륙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특수한 관광 족군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특수한 관광 족군이 바로 이산가족과 종교 신자이다. 이산가족을 주제로 하는 뿌리찾기관광

과 신자를 주체로 하는 종교순례관광은 모두 중화문화와 중화민족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해 관광동기를 유발하는 관광형태이다. 그리고 관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관광객의 중화문화 정체성을 심화시킨다. 이는 또한 중국이 통일전선 정책에 문화정체성 정책을 강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만 본섬 사회의 구성원도 80%가 한족(漢族)인데, 왜 진먼의 종친과 종교 신자가 특별한가? 필자는 대만 본섬이 많은 정권의 교체와 다원적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회인 반면에 진먼은 정권이나 문화상 큰 변화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탈냉전 이후 진먼인의 정치적·문화적 모순을 만든 원인이며서 또한 진먼을 양안 관계에서 특수한 역할로 만든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체성의 역설이 양안관계의 평화적 공간을 여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점을 찾아낼 때 비로소 진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의 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체성의 역설은 바로 진먼인이 양안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찾기에 잘 활용해야 하는 무기이며 이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낼 때 바로 진먼은 성공적으로 평화의 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양안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통일을 향하는 정치적 목표이든 조화로운 문화공동체를 이룰 목표이든 분단국가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것도 본 연구가 한반도 훗날의 화해의 길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라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가 화해하는데 참고할 만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1) 연구대상 및 연구틀

그림 1-6 대만 진먼과 중국 샤먼(소양안)의 위치도



한때는 양안간 대치의 최전선이자 가장 치열하게 전투했던 진먼도와 샤먼도는 1980년대 샤먼이 중국의 개혁개방 ‘시험전(試驗田)’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특수한 사명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중국 정부가 진먼과 마주 군도에 대한 포격을 중지했고 ‘구랑위’호가 샤먼항에서 출발하여 무사히 ‘포화의 복도(砲火走廊)’라고 불리는 진하수역을 통과했다. 그리고 대만정부가 먼저 중국대륙친척방문을 개방하며, 진먼의 계엄령을 해제하여 철군시키고 ‘양문·양마’의 소삼통을 실시했다. 소양안의 전쟁 분위기가 점차 평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평화통일과 해협양안 교류협력의 최전선으로서의 샤먼에 비해, 진먼은 대만 사회의 이원대립적 사회 이데올로기로 인해 위치가 모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었던 진먼과 샤먼은 생활권이 다시 복원으로 양안 교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먼도가 계엄령을 해제한 이후, 진하 수역에서는

양안의 밀수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대륙의 상품이 비교적 저렴한 것은 밀수의 주원인이지만 소양안 동포간의 서로 돕는 마음도 컸다. 그림 1-7 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륙 어민들이 물건을 가득 실은 스티로폼 배를 저어 옛날 중공군의 상륙정을 막는 방어시설을 넘어 진먼 주민과 거래하러 왔다. 과거에 공격당하기는 쉬운 곳은 이제 민간인들이 군사 경계를 넘어 밀수를 하는 인기장소로 되었던 것은 접경지역의 역설을 보여준다.

그림 1-7 진먼 주민과 대륙 어민이 소액무역을 진행하는 장면



출처 : 대만행정원신문국

그러나 이런 거래는 불법이니까 1999 년 중국 정부가 따등도에서 대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대소액상품거래시장(对台小额商品交易市场)’을 특별히 개설했다. 하지만 한번에 10 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되<sup>18</sup>므로 민간인의 ‘소액무역’이 여전히 빈번했다. 2001 년 양안이 ‘양문(진먼과 샤먼) · 양마(마주와 마위)’의 소양안 직항을 실시했다. ‘소삼통(小三通)’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소양

<sup>18</sup> 厦门统计局. “2000 年我市对外贸易首次突破百亿美元大关”. 2003-10-31.

[http://tjj.xm.gov.cn/tjzl/tjfx/200310/t20031031\\_2091326.htm](http://tjj.xm.gov.cn/tjzl/tjfx/200310/t20031031_2091326.htm)

안간의 무역을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진샤관광권의 문도 열었다. 샤먼 시는 ‘나가기(走出去)’ 전력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샤먼의 기업들을 진먼에 가서 무역과 관광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했다<sup>19</sup>. 이로부터 ‘소삼통’은 중국이 해협 양안의 ‘대삼통’을 추진하는 정책의 교량이 되었으며, 관광은 양안의 인적 교류의 판도를 넓히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2000 년부터 지금까지 샤먼 관광 상품 중에 ‘하이상칸진먼(海上看金门, 바다에서 진먼을 바라본다)’라는 상품이 여전히 샤먼의 유명한 관광 브랜드의 하나다. 진먼은 양안의 국경 관광에 있어 아직까지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샤먼은 진먼을 거점으로 삼아, 평후(澎湖)군도나 대만과의 직항관광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푸젠성의 대내 관광권과 해협의 대(對)대만 관광권을 구축하는 데의 중심 역할을 확고했다.

또한 관광업의 흥기함에 따라 민남문화진흥사업도 진샤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했다. 1980 년대 말부터 샤먼의 문화예술단들이 대만에 가서 전통 희극과 음악을 공연하는 식으로 교류해 왔다. 1992 년 민(閩, 푸젠성의 약칭)대(대만)문화가 일맥상승(一脈相承)을 강조하여 증명하기 위해 샤먼에서 최초로 민대문화학술토론회가 열렸다. 2006 ~ 2010 년 샤먼시는 대(對)대만문화교류기지로서 대만과 진먼을 방문하는 문화교류의 업무를 담당하여 총 62 개의 단체(2024 명)이 대만을 방문했다. 2012 년 중국문화부에서 샤먼시에 대(對)대만문화교류의 심사·관리권한을 부여했다. 2011~2015 년 기간동안 샤먼의 문화예술단체가 대만과 진먼과의 연간 상호 교류 인원이 5000 명이 넘었다. 2013 년 샤먼과 대만의 민남전통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샤먼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대만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향음의 여행(乡音之

<sup>19</sup> 厦门统计局. “2002 年厦门市消费品零售市场亮点频出”. 2003-11-01. [http://tjj.xm.gov.cn/tjzl/tjfx/200311/t20031101\\_2091397.htm](http://tjj.xm.gov.cn/tjzl/tjfx/200311/t20031101_2091397.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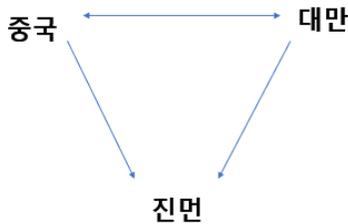
旅)’라는 대(對)대만 문화교류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sup>20</sup>.

개혁개방 이래, 샤먼은 경제 무역으로 양안 교류의 문을 열었고 양안문화관광권의 구축을 통해 대(對)대만교류의 인솔자의 지위를 다지게 되었다. 반면에 진먼이 줄곧 민남문화의 전통 건축물과 문물을 보존해 왔기 때문에 소양안의 민남문화부흥사업에서 ‘근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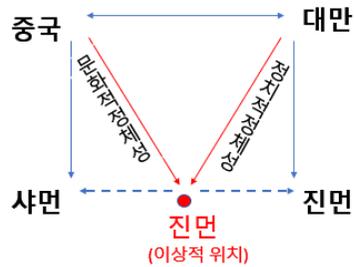
소양안은 소삼통을 통해 생활권과 경제무역권, 문화권, 그리고 관광권을 회복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넘어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소양안의 평화교류를 안정하게 하며 오늘날 양안관계의 교류를 유지해 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각을 ‘소양안’으로 돌려 양안관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8 연구틀

• National scale



• Local scale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진먼의 전쟁유산 재활용의 현황과 그의 상징하는 평

<sup>20</sup> 厦门统计局综合处. “改革开放四十年厦门文化事业发展状况综述”.  
[http://tjj.xm.gov.cn/zfxxgk/zfxxgkml/tjsjzl/tjfx/201812/t20181229\\_2200402.htm](http://tjj.xm.gov.cn/zfxxgk/zfxxgkml/tjsjzl/tjfx/201812/t20181229_2200402.htm)

화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 외에 양안 인민의 평화교류로 구축하고 있는 ‘문화공동체’의 현황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분석대상은 관광주체인 일반관광객, 종친조직, 종교신자 외에 가장 중요한 금문도 자체의 위상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자료 수집 외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결합하는 연구방법, 이미지 분석법까지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진먼도와 대만 본섬이 다른 정권 변화 역사를 겪어보기 때문에 정치적 정체성에 있어 대만 본섬 주민과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필자는 단순한 정당 지지나 통독(통일과 독립)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 즉 하나의 국가정체성이다. ‘중화민국 재(在)대만’이 아니고 대만국이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중화민국이라는 정권 아래 진먼은 국가를 지키는 영광을 부여했다. "우표"와 "국기"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보는 국가 기호는 민족주의를 평범하고 반사적이지 않은 존재(a banal, unreflexive presence)로 만들었다(Antonsich, Marco2015:32). 이러한 민족주의는 Banal Nationalism 이라고 불린다. Banal Nationalism 은 Michael Billig 가 1995 년에 최초로 제시한 개념으로,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민족 정체성의 창조와 재구축,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의식에 진입하는가를 조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JONATHAN HEARN .2007) .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우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국가의 주권을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Dallen J. Timothy.2001 :85) . 국기는 매우 눈에 띄는 국가 토템이며 우표는 보편성과 일상성, 다변성,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지닌 국가 토템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우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권, 영토, 풍속 민정, 정책, 국제적 지위 등을 알릴 수 있다. 이따므로 본 연구는 우표를 이용해 중화민국의 영토 변화와 양안의 정권 정당성과 영토의 소유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

데올러기 선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표는 미니 여행 포스터 (mini travel posters) 이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인정한 이미지를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관광목적기를 홍보할 수 있다 ( Raento, Pauliina. 2009:126). 값싼 지역 마케팅 형식이 되어 지역 수입을 늘리게 한다 (Dallen J. Timothy.2001 : 86) .

둘째, 소양안의 화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진면도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해 탐구하려고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진면도 사람 3 명, 중국 사람 4 명 총 7 명이다. 이산가족의 상봉과 종친회의 교류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부분은 관광객들이 (金門)의 전쟁유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현(縣)정부와 국가공원 등의 공공기관이 어떻게 협력하여 정부의 전쟁유적 관광코스를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 진면도의 관광버스인 ‘대만진면호행’(台灣金門好行, The Taiwan Tourist Shuttle service of Kinmen)의 B 코스인 ‘구닝터우전장선’(古寧頭戰場線)을 선택한다. 이는 4 개의 관광코스 가운데 유일하게 전장유적을 주축으로 한 코스이기도 한다(그림 1-9).

그림 1-9 대만진면호행 노선도



구닝터우 지역은 이전 양안의 냉전시기에 격렬한 상륙전이 벌어진 지역으로 남아 있는 전쟁유산을 보존하고 있어서 진먼의 다른 지역보다 더욱 충돌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2011년 중화민국 건국 100주년에는 구닝터우 지역에 ‘평화기념공원’(和平紀念園區)을 조성하여 오랫동안 평화연구의 주축 개념이었던 ‘전쟁과 평화’라는 이 두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 밖에도 구닝터우 지역은 샤먼(廈門)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워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명소이기도 한다. 관광객들이 과거의 방어 토치카와 지뢰밭에 올라서서 진먼과 샤먼의 소삼통 선박 및 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시화된 샤먼을 내려다 보고, 양안 평화의 비둘기로 비유할 수 있는 가마우지(鷓鴣)가 국경 없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전쟁은 마치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린 듯하다. 지난날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되고 경비가 가장 삼엄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전장관광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이 결합되어 양안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양안의 관광객이 관광을 통해 보는 진먼도는 어떠한 곳인지, 옛날 전장에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유효 설문지의 목표량은 300부이다. 설문지는 google 설문 시스템으로 문제를 편집하며 진먼 관광버스의 B 코스의 관광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구닝터우 코스 관광버스에 대한 참여 만족도와 참여 전후로 구닝터우에 대한 인상 변화이다. 둘째, 전쟁유산의 관광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감상과 냉전경관이 양안 평화 추진의 기능과 역할이다. 셋

째, 양안의 전쟁유산이 양안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진하는 공동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 (3) 논문의 구성

충돌지역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는 지방정부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주체들의 관계 및 국제 관계의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정학적 정치의 영향을 깊이 받은 진먼과 같은 냉전시기 양안의 경계구역이 된 지역에서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러므로 지정학적 정치의 영향 아래, 냉전시기 양안간의 주요 전장으로서 진먼이 어떻게 현재의 ‘평화’ 실험지역으로 변했으며, 관광을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했는지가 첫 번째 논의할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 하에서, 제 2 장에서는 양안이 ‘국가’와 ‘국족(國族)’ 정체성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국호’와 ‘문화’는 양안의 평화 교류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양안의 통독(統獨) 논쟁이 정치적 힘겨움에서 문화적 힘겨움의 전환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접경지역인 진먼도가 이 과정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진먼의 역할 전환을 중심으로 양안 관계를 살펴보고 양안의 지정학적 정치로 양안의 정권 사이에서 진먼이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3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진먼도가 냉전의 섬과 양안의 분계선이 된 1949~1978 년의 냉전-대치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70 년대 말부터 중국의 개혁개방과 신속한 굴기에 진먼과 마주 지역에 대한 포격을 중지하고 교류와 협상을 하자고 하는 해빙기(解冰期) 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처럼, 진먼은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관광 개방을 요구해서 양안 주민들이 진먼도를 거쳐 왕래할 수 있는 탈냉전-평화시기다. 양안의 경계지역인 진먼에서, 탈냉전

과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먼지방 정부가 냉전의 유산을 냉전의 관광경관으로 재활용했다. 이는 진먼 지방정부의 경제적 형태를 전환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포스트 냉전시기에 충돌과 분단의 기억을 담고 있는 냉전유산을 객체로 삼아 평화적 의미와 사명을 또 부여했다.

제 3 장에서는 양안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양안의 교류를 재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첩죄(匪諜罪)’로 뒤집어쓸 위험을 무릅써도 다른 지역이나 국가를 통해 중국 대륙에 있는 고향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대륙 출신 노병들의 향수(鄉愁)를 불러일으킨 가서(家書)가 노병의 귀향운동을 촉진했다. 반향운동도 대만의 계엄령 해제 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환이 되었다. 생이별이든 사별이든, "귀향"은 양안의 교류를 재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감정 요소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양안의 이산가족의 재회와 귀향이 이끄는 뿌리차기 여행의 열풍을 통해 탈냉전 이후 종족이나 국족에 대한 정체성의 재구축을 탐구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진먼인들이 냉전경관의 관광화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살펴보고, 냉전관광의 개발이 평화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냉전유산은 쌍방이 충돌했던 과거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로 향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전쟁유산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만일 전쟁관광에만 중점을 둔다면 관광자원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거나 이 시기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을 잃을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평화체제를 이루어지려면 과거 전쟁의 유산이나 기억에 의지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민남(閩南, 푸젠(福建)성 남부)문화관광과 종교관광,종치(宗親)관광, 그리고 생태관광 등 냉전유산 이외의 관광자원을 주목하여 이 관광 형태들이 진먼

의 평화관광을 추진할 때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양안 관광객들이 진먼의 냉전경관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냉전경관의 재활용에 대한 생각과 평화 감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냉전시기의 방어시설과 전쟁사적 기념관이 포스트 냉전시기에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재활용되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진먼의 주요 관광객이 된 이후, 충돌의 역사를 전시하는 기념관과 전시에 일상으로 보였던 정신적 표어가 ‘평화’라는 요구 하에 금기시된 관광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관광 명소들의 해금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관광이 아닌가 싶다. 냉전경관의 재활용 과정에서 이런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경관을 갖고 관광 설계자들이 관광부호를 만들 때 과거 충돌했던 양측 관광객(대만 본섬의 관광객과 중국대륙 관광객)을 두고 어떤 고려할 점이 있었으며, 관광객이 진먼 관광 전후가 진먼에 대한 인식 차이와 평화와 관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진먼의 냉전 경관은 앞으로 어떻게 보존되었거나 재활용되었는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그 중에 중국과의 냉전경관과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 결론에서 대만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 집권함에 따라 좋다가 나빠지는 양안관계에서 진먼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이용하여 평화 교류의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러한 평화 교류 속에서 염원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등 질문으로 분단 상태에서 평화 유지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2 장. 진먼도의 정치적 정체성의 변동과 상징적 재현

1980년대 말 이래로,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적게 언급하거나 33 회피하기 시작했다. 대만인들이 ‘중화민국’의 중국 정체성에 대한 상상이 무너지는 것 외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刘国深, 1999). 그래서 대만은 계속 하나의 중국을 강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으로 헛갈릴 수 있으므로 모호한 ‘정치실체’의 개념으로 대만의 정권을 해석하면서 대만의 양안관계와 국제정치 위치를 높이려고 한다. 필자는 1980년대 말부터 민주운동과 본토운동이 대두됨으로 인해 ‘중화민국’의 존재여부가 국민당과 민진당 사이, 그리고 외성인과 본성인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내부적인 요인도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 논쟁에서 가장 애매한 존재가 중국 대륙과 가까이 있는 진먼과 마주 섬들이다. 진먼과 마주 등 섬들이 예로부터 중화민국의 체제에 예속해서 중화민국 존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화민국도 진먼인이 마음 속의 ‘조국’을 유지하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진먼을 사례로 삼아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변동과 재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 1절. 국민정부시기(1912~1937년)

진먼은 1949년부터 군사 통제를 실시하면서 진먼도 냉전시대에 접어들었다. 1956년부터 국민당 정부는 진먼과 마주지역에서 전지정무실험을 실시하면서 두 지역이 각각 방위사령부정무위원회

가 설립되었다. 이로부터 전지사령관이 이 두 지역의 최고 군정수장으로서 당·정·군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군정일원화가 되었다. 그리하여 군사 목적과 군사 가치를 전지(戰地) 정무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진면을 ‘삼민주의모범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의 현정부(縣政府)의 지도층이 대부분 전지정무위원회에서 파견된 것이었다. 1992년에 이르러서야 계엄령이 해제되고 2년이 지나서야 진면과 마주 주민들의 대만 본섬 출입 통제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러한 통제는 전쟁 시기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혹은 전쟁의 정당성이 국민정부가 진면에 대해 군사 통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당성인가 하면, 진면인이 냉전시기에 반공 애국의 상징이 되고 탈냉전시기의 각종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국민당을 지지하는 것인가? 나는 '중화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화민국(中華民國)은 1912년에 설립되었고, 1937년 7월 4일에 중화민국 우정총국(郵政總局)에서 발행한 ‘미국 개국 150주년 기념우표’를 보면, 우표 왼쪽에 중화민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있어, 양국의 우호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대비색상을 이용하여 중화민국의 영토 범위를 명확히 표시했다. 당시 대만은 아직 일본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영토가 아닌 짙은 색깔로 표시했다. 하지만 티베트와 신장, 몽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옮기기 전에 중화민국의 영토를 주제로 한 최초의 우표였다.

그림 2-1 기(紀)014 미국 개국 150 주년 기념우표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진면은 비록 작은 섬이지만 애국심은 남 못지 않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진면 출신 화교들이 이런 애국심을 항상 건축물로 과시하곤 했다. 양루(洋樓, 서양식 건물)를 예로 들면, 아직도 진면에서 남아 있는 많은 양루들의 산벽에다 중화민국의 국기와 국민당의 당기가 교차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거나 ‘중화민국’ 이 네 글자를 크게 쓰여 있다. 양루 역사를 잘 모르는 많은 현지 젊은이와 외국인들은 이것이 1949 년에 국민당군이 진면에 주둔한 후 특별히 새긴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양루들이 대부분 1920 년대~1930 년대 기간에 지어졌다. 그리고 중화민국 국기의 변천사를 보면 양루에 국기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1920 년대부터임을 더욱 확신한다. 왜냐하면 1912 년 중화민국 개국 초기에 사용된 국기는 오색기와 18 성기이었기 때문이다. 1921 년에 쑨문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비로소 지금의 청천백일만지홍기(青天白日滿地紅旗)를 국기와 군기로 정했다.

그러면 왜 국기를 못지 않고 건물에 새긴가? 이는 푸젠성 화교의 이민사부터 봐야 한다. 대만 학자 장보웨이(江柏緯, 2012)의 연구에 의하면, 1870 년대 중엽부터 많은 화공(華工, 중국 노동자) 가

남양지역(현 동남아국가)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870년대 이전의 이민 1세대는 대부분 육체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생활비나 집 짓는 돈을 송금하기가 어려웠다. 1890년대부터 부자가 된 소수의 화교들이 ‘금의환향’의 의미로 가족에게 집짓는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푸젠과 광둥식의 전통 건축을 위주로 서양식 건물은 비교적 적었다. 1910년대 말기부터 진먼에 잇달아 양루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화교들이 샤먼에도 부동산을 투자하기 시작해서 부동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했다. 이로써 화교들은 건축물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신분과 생활방식, 그리고 미학의 상징을 보여주었다 (江柏煒,2012b:41)。

1920년대 초반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 차오회(僑匯, 화교들이 송금하는 돈)경제도 왕성해 졌다. 1920년대~1930년대 기간에 진먼 양루 건설의 절정기이었다. 이 양루 열풍은 1930년대 항일전쟁 발발 전까지 이어졌다. 진먼 양루는 한문화와 동남아식민지의 건축 양식이 융합된 것이다. 이 독특한 ‘불중불서(不中不西, 중국 스타일 같지 않으면서 서양 스타일도 아님)’ 및 ‘역중역서(亦中亦西, 중국 스타일이면서 서양 스타일이기도 한다)의 건축 양식은 화교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부를 과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세계경기 침체과 태평양전쟁 발발, 그리고 화교의 고향정체성이 약화로 차오회경제도 위축되면서 양루의 건설도 갈수록 줄어들었다 (江柏煒,2012b:42-44)。

1937년 10월, 일본군이 진먼을 군사적으로 점령했고 많은 진먼 주민과 물자를 동남아의 전장으로 강제로 징집했다. 샤먼도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어서 많은 진먼인이 전화(戰禍)를 피하려고 남양으로 도망간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많은 양루 주인들이 다시 진먼에 돌아오지도 않고 차오회도 중단되었다. 1945년 일본이 전패하고나서 차오회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

단되어 버렸다. 진먼의 4 분의 1 인구가 차오회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군 사령관이 송금 경로를 샤먼을 거치지 않고 타이베이를 경유해서 진먼으로 보내는 것으로 바꾸고나서 차오회가 다시 회복된다.(江柏煒,2012b:44)。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진먼과 샤먼을 동남아 각국을 침략하는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고향의 가족과 재산의 안전, 심지어 자신의 이주 나라와 생명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남양 화교의 애국 의식을 격발시켰다. 조국의 정체성에 입각하고 종교와 고향의식을 통하여 발전하는 이런 애국심이 1980 년대부터 중국의 화교 연구의 중요한 의제이다(庄国土 2000). 중국 학자 장 귀투오 (庄国土,2000) 가 중하층 화교들의 이민 주된 목적은 금의환향이기 때문에 종족 (宗族) 과 고향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 대한 국가정체성으로 승화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퇴각하기 이전, 중국 국내의 국민교육을 남양화교에 대한 교육으로 바꾸려고 화교 교육에 관한 정책과 법규를 발표했다. 이런 작법은 남양 화교의 민족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화교 학생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삼민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하는 국민정부에 대한 정체성을 높였다 (庄国土,2000 : 114) .

중화민국의 창립자인 쑨문은 ‘화교가 혁명의 어머니’라고 했다. 화교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면서 국내 각종 정치 개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차오회를 통해 중국의 혁명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국이 강대해야 그들이 타향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을 상징하는 국기는 화교의 마음에서 숭고한 지위를 가진다. 성냥갑, 담배갑뿐만 아니라 차아비(僑批, 화교가 보내는 편지) 위에 국기 도식과 ‘중화민국만세’의 글을 찍혀 있다. 또한 차오회로 지은 양루에다 국기와 국민당 당기가 교차하는 쌍 깃발이나 ‘중화민국’

4 개의 큰 글자를 새김으로써 화교의 애국심을 잘 드러난다<sup>21</sup>. 양루의 정면에 국기와 국회의 도식을 새긴 것 외에, 거실에 국기와 당기가 그려져 있는 생일 축하용 대련(對聯)도 걸려 있는 민가도 있다. 그리고 진먼도의 동쪽에 위치한 진더썬(陳德幸)양루의 정면에 ‘Union Is Strength’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타향에 있는 화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기를 바라면서, 대내적으로 후손들에게 가족, 고향을 위해 단결하도록 격려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진먼이 1949 년 이후에도 중화민국의 정체를 이어갔기 때문에 건물 위의 국기와 국호를 보존할 수 있었다. 장보웨이의 말에 의하면, 중국 푸젠의 진장(晉江)과 스스(石獅), 그리고 안시(安溪)의 양루도 원래 이런 국기도식이 있었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별 모양으로 수정된 것 있고 파괴된 것도 있다. 그리하여 지금 진먼을 제외하고는 푸젠과 관동의 교향(僑鄉)에서는 쌍깃발 장식을 거의 볼 수 없다(江柏煒,2012c:17).

그림 2-2 진먼 웨요초등학교의 쌍깃발 장식



출처:金門觀光旅遊·觀光處

<sup>21</sup> 林金榮, 古洋樓上的國旗, 『金門日報』, 2017/05/10  
<https://www.kmdn.gov.tw/1117/1271/1275/280177?cprint=pt>

그림 2-3 진먼 왕진청양루의 국호 장식



출처:金門觀光旅遊·觀光處

양루의 국기, 당기, 국호, 당휘 등의 장식을 보면, 1920년대~1940년대 기간에 진먼 화교들이 지은 양루가 성취와 부를 과시하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애국애향과 단결을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1937년 일본군이 진먼을 점령하면서 양루의 건설도 점차 중지되었다. 이때부터 진먼인이 방언으로 칭하는‘리분츄(日本手)시기’, 즉 8년 동안의 일제시대가 시작됐다. 이것도 진먼과 대만과 다른 역사 경험이었다.

## 2절. 일본 점령시기(1937~1945)

1937년 일본군이 진먼에 상륙하기 전에 정찰기를 파견하여 중국어 전단지(傳單)를 대량으로 뿌렸다. 전단지의 내용은 한 마디로 ‘진먼의 양민(良民)이 일본군을 만나, 차렷을 하면 해치지 않다’는 것이다. 전단지의 선전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진먼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10월 26일 일본 해군이 진먼도의 서남쪽에서 상륙하고 진먼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주민 세 명만 살해당했다. 심지어 레위

도(烈嶼)에 상륙했을 때 레위 주민들이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표를 보내 일본군을 맞이하기도 했다. 오히려 일본군은 유혈 없이 점령되면 나쁜 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돼지 한 마리를 죽였다<sup>22</sup>. 그 당시의 ‘대만일일신보(台灣日日新報)’에서 일본군이 진먼도의 수비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결국엔 지나군(支那軍)을 모두 다 섬멸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별로 저항하지 않는 것 외에, 주둔하던 4개의 중화민국 국군 연대도 거의 싸우지 않고 육지로 도망갔다(川島眞, 2015:38). 특히 진먼 현장(縣長)인 광 한(龐漢)마저 기선 진상호(金星輪)를 타고 다딩도(大嶼)로 도망갔다가 푸젠성정부에 의해 군법 재판으로 총살되었다. 그래서 8년동안 진먼현정부는 다딩도에서 계속 운영하며 대일 항쟁에 참여하였다. 그 당시 일본군이 날마다 군기나 함정을 파견해 다딩도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현정부와 군대가 원래 다딩도에서 철수하려고 했는데 현지 주민들이 자기의 집을 지키고 싶어서 철수하지 않아서 현정부와 군대도 남았다<sup>23</sup>. 그러므로 다딩도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진먼현정부 터군이 중국정부에 의해 양안의 공동 항일의 중요한 사적과 양안의 ‘오연(五緣)’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만 문물로 간주되어 2009년 ‘푸젠성대대문물보호단위(福建省涉台文物保護單位)로 지정했다<sup>24</sup>.

1938년 5월 9일 일본군이 진먼도 주변에 31척의 작전 함선과 항공모함 2척이 집결했다. 그리고 다음날 샤먼을 상대로 상륙작전을 펼쳤고 11일 샤먼섬이 완전 점령되었다(曹劍浪, 2004:350). 5월 3일 일본군은 진먼도를 푸젠과 광둥 접경지역

<sup>22</sup> 烈嶼筆記, 日據時代下的烈嶼,

<sup>23</sup> 金門日報, 探尋大嶼島上的「金門縣」, 2009/12/09,

<sup>24</sup> 每日頭條, 一段歷史遺址, 廈門大嶼島上的金門縣政府即將成為旅遊新熱點, 2018-01-21

을 공격하는 거점으로 삼아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 샤먼도의 중국 수비군은 거의 샤먼에서 철수했다. ‘대만일일신보’에 따르면 일본군이 샤먼을 공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지나(南支那, 중국 남부)와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국방적으로, 작전적으로 점령해야 하는 곳이다. 샤먼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중요한 항구이어서 샤먼을 통해 군수물자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점령해야 한다. 둘째, 샤먼은 남양화교들이 출입국하는 항구라서 화교들이 남양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며 샤먼에 있는 일본 화교들을 박해를 하고 심지어 남양에서 모금하고 국민정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를 핑계로 샤먼을 점령하기로 했다<sup>25</sup>. 셋째, 1937년 7월 7일부터 중화민국은 일본과 베이핑 서남쪽에 위치한 루거우차오(盧溝橋)에서 충돌을 벌이고 나서 광둥군 제 178 군단이 샤먼에 있는 대만 교민(僑民)을 체포할 뿐만 아니라 교민의 재산도 마음대로 약탈하거나 파괴했다. 그러므로 샤먼도를 점령해서 광둥군을 혼내주는 것은 500만의 대만 동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샤먼을 점령하는 것도 푸젠성정부가 있는 푸주(福州)지역에 작지 않는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李向群, 2015 : 132-135) .

지리적 위치를 보면, 일본군은 해로로 샤먼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진먼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진먼은 샤먼을 침략하는 발판이 되었다. 진먼의 격렬하지 않은 반항에 비해, 일본군과 격렬한 전

---

<sup>25</sup> 일본인 진먼과 샤먼을 점령한 지 얼마 안 된 후 잇따라 동남아의 여러 나라를 점령했다. 진먼 화교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군 중에 대만인도 대륙인, 그리고 진먼인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인이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의가 없으면 채찍질당하거나 사람을 배에 태우고 음식을 주지 않고 자생자멸하도록 한다. 당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화인(華人)항일유격대자들이 거의 다 공산당이였다. 말레이시아 진먼 화교인 장요병(莊有炳)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포트 클랑(Port Klang) 근처에서는 하루에 서너 구의 시체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참고: 李錫隆, 2006. 『雲山萬里: 馬來西亞滬江華僑訪談錄(精)』, 31-91 쪽)

투 과정에서 샤먼의 사상자가 약 4 천명에 달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랑위(鼓浪嶼)로 도망가서 구랑위의 식량과 의료 자원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다. 게다가 어떤 주민들이 내륙이나 진면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원래 인구 수가 18 만 명였던 샤먼이 1 만 3000 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샤먼으로 피난했던 많은 진면인들은 일본군이 진면에서 대학살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다시 몰래 돌아왔다. 하지만 주민의 회고에 따르면, 비록 진면에서 대학살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학대나 노역, 그리고 강제 노동은 적지 않았다(李錫隆,2006:69).

비록 중화민국 군대가 싸우지 않고 진면을 떠났지만 일본군이 진면을 점령한 8 년 간에 군대와 민간인조직이 대륙에서 항일 운동을 진행한 수시로 진면도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공격했다(川島真,2015:42).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38 년 4 월에 푸젠 남안(南安)에서 발족된 ‘복토구향단(復土救鄉團)’이 진면 최북단에 위치한 마산(馬山)병영의 일본군을 기습했다. 15 명의 일본군이 사살되었고 세 명의 목을 베었다. 이런 행동은 줄곧 진행했다가 1942 년 5 월 제 4 차 기습이었을 때 복토구향단은 시웬(西園)제염장 3 명의 일본기능공을 납치해서 일본군들이 대규모 수색작업을 펼쳤다. 일본군이 백여 명을 잡아 고문해서 마을 사람 20 여 명이 죽었다<sup>26</sup>. 지금 중국에서 이런 애국 행동을 양안 공동 항일의 영광스러운 역사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당시 진면과 푸젠 각 향진(鄉鎮)이 중화민국에 예속되어 있는 반면에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이어서 진면인들에게 대만군은 일본인의 지휘에 복종하는 일본말과 푸젠 방언을 하는 한족이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말하는 양안은 1949 년 중국과 대만이 분단된 후의 양안을 가리키며 오늘날 중국의 통진

---

<sup>26</sup> 西園志士 壯哉抗日-----黃世澤先生訪談錄, <https://hc.nccu.edu.tw/media/histroy3.php?id=132>

(統戰, 통일전선)의 용어이다.

진먼과 샤먼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후 초기에는 대만총독부가 직접 관리하다가 1939년에 일본이 남경에 수립한 괴뢰정권 왕징웨이(汪精衛)정권이 직접 관할하도록 변경하다. 비록 왕징웨이 정부는 자신을 중국의 새 중앙정부라고 불리지만 사용하는 국기는 중화민국국기 위에 ‘평화반공건국(和平反共建國)’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 노란색 삼각형 깃발을 추가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진먼인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중국인의 정권이며 중화민국의 국기이었다. 이로써 진먼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경제공동체<sup>27</sup>에 들어갔다. ‘남진’이라는 것은 중국 화난(華南) 지역(푸젠, 광둥, 광시, 윈난, 구이저우 등)의 ‘남지(南支)’와 일본 본토 이남의 태평양 해역과 동남아 일대의 ‘남양(南洋)’에 대한 확장·침략하는 정책이었다. 대만인은 사용하는 방언이 푸젠 민남 지역의 방언과 비슷하므로 대만은 남진정책에 있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대만총독부가 일본 남진 정책의 주도자가 되고 말았다. 특히 샤먼에서 아편사업에 종사하는 대만 적민(籍民, 일본 국적을 가지는 대만인)은 샤먼의 권업은행(勸業銀行)<sup>28</sup>과의 관계로 현지의 경제 자원을 약탈함으로써 샤먼의 경제 명맥을 잡았다 (王學新, 2006 : 40-41) .

진먼은 이 정책에 맡은 역할은 샤먼을 공격하는 발판 외에, 기타 주요 기능은 진먼의 자원을 활용해 전쟁의 수요를 지원하는 것과 화난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전쟁의 수요를 지원하는 것은 코발트광 등 자원을 채굴하는 외에 대만총독부의 계획적인 산업의 일환으로서 소금, 연초와 아편 3 대산업을 발전하는 것

---

<sup>27</sup> 1936년 ‘남진(南進)’정책이 일본의 국책이 되었다. 1938년 11월 일본은 ‘대동아신질서’를 호소하며 ‘일본, 만주, 중국(왕징웨이 정권)’이 경제공동체로 형성되었다.

<sup>28</sup> 샤먼권업은행(1940~1945)은 샤먼특별시재정국과 아편 사업에 종사하는 대만인과 설립된 은행이었다.

이다. 그 중에 아편을 가장 많이 재배했다. 일본은 대만에서 아편의 제조·운영하는 경험<sup>29</sup>을 가지고 ‘공영권(共榮圈)’의 점령지역에서 활용했다. 그리고 현지의 경찰특무시스템과의 협력과 아편의 과점 시장을 통하여 현지 사회의 치안과 정보를 파악했다(林正珍,2014:11-12).

그 때 샤먼의 국제적인 세력을 고려하고 샤먼보다 지세와 토질 조건이 좋은 진먼을 ‘시범양속원(示範罌粟園)’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1939년부터 대규모로 재배를 시작했다. 당시 진먼에 134 개의 마을이 있고 이 중에 119 개의 마을이 아편을 재배했으며 아편원의 총 면적이 3,000 묘(畝)에 달했다. 그리하여 진먼은 당시 푸젠의 아편 제조 총 기관이었던 ‘푸위(福裕)사<sup>30</sup>’의 생아편 공급원 중

---

<sup>29</sup> 17 세기에 대만은 이미 동아시아(東亞) 해역의 무역환승지가 되어 외국 상인들이 아편을 대만을 거쳐 중국 푸젠 등 지역으로 팔았다. 그리하여 1895 년 일본에게 할양했을 때 대만의 아편 문제가 이미 많이 심각해졌다. 처음에 일본인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거라고 자신만만하는데 잘 안되었다. 그러다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점진(漸進)정책’과 ‘전매(專賣)정책’을 제출했다. 즉 대만총독부에서 아편의 제조와 도매를 독점하여 공권력으로 아편의 소비를 줄이고 중독된 사람의 수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 두 정책으로 인해 대만은 자급자족의 제국 식민지가 될 뿐만아니라 고토 신페이가 민정장관으로 승진할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참고: 故事, 寫給所有人的歷史, 「屬於臺灣人的另一場「鴉片戰爭」」, <https://gushi.tw/taiwanbar-%EF%BB%BF%EF%BB%BFep0-5-opium-war/>)

<sup>30</sup> 푸위(福裕)사는 일본해군의 명을 받고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은 모두 대만인이 주식인수하여 출자한다. 1930 년대 중국대륙, 특히 화난지역의 샤먼에 간 대만적민(籍民)의 수가 급증했다. 이들이 대부분 ‘일상(日商)’의 명의로 아편, 도박과 성매매 사업에 종사했다. 당시 샤먼의 아편 암시장과 제조가 이미 매우 창궐했다. 아편 사업을 관장하는 사람은 주로 영국, 일본, 혹은 네덜란드의 적민(籍民)이었다. 그들이 치외 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의 보호를 받아 중국 경찰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민국(民國) 초기에 샤먼의 아편흡연소가 255 개에 달했고 이 중에 대만 적민이 운영하는 것 무려 237 군데가 있다. 게다가 대부분 대만의 조폭조직에 의해 관장하고 있다 (王學新,2006 : 28-29) .1929 년 중화민국정부에서 ‘금연법’을 공포함에 따라 푸젠지방정부도 강경하게 ‘금연’행동을 실시해 대만 적민들을 단속하거나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나중에 일본군이 샤먼을 공격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본다.

의 하나가 되었다. 처음에는 몽골이나 일본에서 아편의 씨앗을 진먼으로 운송하여 일본영사관의 일본 기능공을 보내 진먼 주민에게 아편 재배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일본의 해군과 영사관은 진먼 아편 재배의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王學新,2006:39). 샤먼 공매국이 채집된 아편을 모두 매수한 다음에 흥아원(興亞院)샤먼 연락부가 가공을 맡았 일본인이 진먼에서 22 개의 흡연소(아편을 피우는 곳)를 설립했고 주민들이 아편을 피우거나 대륙으로 밀수하는 것을 유도했다. 게다가 주민들 중에 몰래 ‘저순도’의 아편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서 심지어 ‘아편 마누라’, ‘아편 집’이라는 아편재(財)의 현상이 나타났다(林正珍,2014:23-26).

앞서 말했듯이, 민남 사투리를 할 수 있는 대만인들이 ‘난진’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진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대가 진먼에 상륙할 때도 대만인 홍 청치(洪清琪)와 홍 따산(洪大山) 형제가 길을 안내해 준 것이었다. 일본군이 진먼을 점령한 뒤 진먼을 샤먼특별시 산하의 3 개의 ‘행정공서(行政公署)’ 중의 하나로 편입했다. 대만인과 일부의 진먼이 행정공서의 장관 또는 경찰을 맡는 것으로 진먼을 통치했다. 홍 청치도 교제과(交際科)와 총무과(總務科)의 과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진먼도의 민생 물자를 통제·공급·조달하는 업무를 맡은 진먼개발회사도 일본어를 아는 대만인 천 화이더(陳懷德)가 사장, 진먼인 차이 원편(蔡文篇)이 이사를 맡았지만 배후의 주도자가 일본인 미야가와 토시나(宮川敏南)이었다. 이러한 ‘이화치화(以華治華)’의 방식은 같은 한족(漢人)으로서 잘 대해주는 커녕, 진먼의 어른이들의 회고에 따르면 진먼인마저 행세하고 관리 계층의 한족들은 종종 주민들을 폭행했다<sup>31</sup>. 그래서 1945 년 일본이 패전한 후 관리계층이었던 대

<sup>31</sup> 金門日報,日本手へ時陣, 2005/06/25, <https://www.kmdn.gov.tw/1117/1271/1274/37094>

만인들과 진먼인은 현지인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다.

아편 재배 외에 일본인들이 4 개의 도로와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진먼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일본군이 진먼을 점령하기 전에 진먼의 교통 수단은 대부분 노새와 말을 이용해서 말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없었다. 그래서 그나마 제대로 된 길은 시내인 호푸(後浦, 현 진청(金城))에서 동안선착장까지 이 구간의 돌길밖에 없었다. 1930 년에 이르러서야 진먼 현장이 호푸에서 관아오(官澳)까지의 도로를 건설해서 일제시기에 두 대의 화물차를 수입해 이 구간의 주요 이동 수단이 되었다 (羅志平, 2010 : 339-340) .한편, 진먼의 대외 교통을 봉쇄해 도민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13~55세의 진먼인이 ‘도민증’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제 시기의 인프라 건설과 관리 방식은 훗날 냉전시기에 국민당군에 의해 계속 사용하게 된다 (許維民, 2002; 江柏緯) .

1945년 일본 패전하므로 1945년 10월 25일에 타이베이시의 중산당(中山堂)에서 항복식을 거행하였다. 대만은 중화민국의 한성(省)이 되었다. 그래서 중화민국우정총국은 '대만 광복기념우표' 2종을 발행했다. 하나는 우표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만 지도에 청천백일기가 꽂혀 있는 것으로 주권을 강조했다. 광복 우표라 지도에 금문과 마주가 없고 대만, 평후 군도, 뤼도(綠島)와 란위(蘭嶼)만 표시했다. 진먼과 마주는 원래 중화민국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쪽의 햇불은 자유를 상징한다. 다른 하나는 항복식을 거행한 중산당을 도식으로 한다. 이때부터 대만은 중화민국의 일원이 되었다(그림 2-4).

그림 2- 4 기(紀)026 대만 광복기념우표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 3절. 냉전 · 분단시기(1949~1992 년)

#### (1) 양안 분단과 냉전

##### 1) 양안 냉전의 전초전:구닝터우과 다열단상륙전

1949 년 중국 내전에서 패배한 장 제스(蔣介石)는 대만으로 피신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1946~1952 년 7 년 동안 대만 인구가 약 200 만 명을 증가했으며 그중에 1949 년~1950 년 기간 장제스를 따라 대만에 온 군인과 백성의 수가 약 100 만 명 정도였다. 이때 장제스에게 대만과 전먼 등 푸젠성 연해의 몇몇 섬들만 있다. 1949 년 6 월에 국민당군이 진먼에서 요새총대(要塞總台)를 설립하며 진먼의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통신설비도 설치하였다 8 월에 리량룡(李良榮)이 인솔하는 제 22 병단이 진먼도에 진주했다. 9 월까지 진먼의 총병력은 2 만 명에 달했는데 아직 부족하므로 중국에 의해 ‘맹여호, 교여호(猛如虎, 狡如狐 :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여우처럼 교활하다)’ 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후롄(胡璉)이 인솔하는 12 병단도 진먼으로 파견하였다 (知兵堂編輯部, 2015 : 18-19) . 중

국 공산당이 원래 ‘진샤병거(金廈並舉, 진먼과 샤먼 동시에 해방시킴)’전략을 취하려고 했지만 배가 부족해서 결국엔 샤먼을 먼저 점령하기로 하였다(張火木,1999:17). 샤먼을 해방시킨 다음에 진먼을 공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당군이 점령된 진먼군도가 원래 샤먼에 속했던 다단도(大膽島)와 열단도(二膽島)를 포함해서 샤먼항을 왕래하는 민하이(閩海)의 중요 항로를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푸젠에 주둔한 공산당군 고층들이 ‘진먼전투’를 민하이 해방 전쟁의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하고 ‘진먼도’를 ‘건국’의 선물로 드리려고 해서 상륙전을 계획하였다. 둘째, 명말청초(明末清初)의 정성공(鄭成功)을 따라서 샤먼, 진먼, 그리고 나서 대만을 해방시키려고 계획하였다 (張火木,1999;沈衛平,2008; 李福井,2014) .

1949년 10월 17일 장제스는 공산당군이 샤먼을 해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탕엔보와 교체하러 후 련(胡璉) 장군을 진먼으로 파견하였다. 10월 24일 밤에 공산당군이 진먼 북쪽에 있는 리엔허(蓮河),아오토어(澳頭), 다덩 등지에서 출발하였다(張火木,1999:24). 그 당시 국민당군의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고 눈과 망원경으로만 바다를 감시했으니까 처음에 공산당군의 배가 이미 출발한 줄 몰랐다. 마침 그날 낮에 훈련할 때 탱크 2대가 고장나서 밤에 국민당군 201사단 601단의 중위인 빠엔 리간(卞立乾)이 해변에 가서 지뢰를 밟았다. 지뢰의 불빛에 지뢰가 터진 소리를 듣고 주변 초소의 탐조등을 다 켜서 바다를 환하게 비쳤다. 그래서야 공산당군의 배를 발견하였다 (知兵堂編輯部,2015;오준방·정근식,2014).

공산당군이 다덩도 등지의 후원부대의 엄호 포격으로 상륙했으며 구녕터우의 린취(林厝)마을에서 국민당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전사된 42 단단장이었던 리광훤(李光前)이 국민당의 전

사자 중에 계급이 가장 높은 장교이었다 (知兵堂編輯部,2015:29) . 26 일 아침, 공산당군이 구녕터우반도 전역을 점령했지만 국민당의 중공군이 8 시부터 구녕터우지역을 공습하기 때문에 공산당군이 패색이 짙어졌다. 비록 공산당군이 마지막까지도 상륙한 후 지휘소로 삼는 든든한 서양식 석조건물에서 국민당군과 처절한 시가전을 벌였지만 국민당의 해육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에 최종의 방어선도 잃게 되었다. 공산당군이 처음에 3 단계로 나눠 상륙을 작전했지만 첫 단계에서 공산당군의 배들이 국민당군의 맹렬한 포격에 의해 많이 격침되어서 두번째 단계와 세번째 단계의 후원부대가 배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전황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양측이 56 시간의 격전 끝에 국민당군이 승리를 거두었다(張火木,1999; 李福井,2014). 국민당의 기록에 따르면, 체포된 공산당군 포로가 7,346 명이고, 국민당군의 사망자 수가 1,267 명, 부상자는 1,982 명 있었다 (知兵堂編輯部,2015:35) . 이 전투는 군인들만 아니라 국민당에도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국민당군들이 중국대륙에서 계속 패배했으므로 도망가거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구녕터우의 승리는 ‘한번 더 싸우자’는 희망을 주었다. 또한 국민당정부도 이로 인해 대만을 본격적으로 반공대륙의 복국기지(復國基地)로 삼고 정착하였다(李福井 2014:312). 이는 1956 년~1957 년에 발행된 지도를 주제로 한 우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정부가 ‘잠시’ 포기한 중국대륙지도 외에는 이 우표들에는 국민당에 의해 반공 기지와 자유명등으로 간주된 대만 지도를 강조했다. 즉 대만도 주변을 특별히 불빛이 난 것처럼 밝게 표시했고 중국 지도에는 ‘광복 대륙(光復大陸)’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

그림 2-5 紀 046 1956 년 우정(郵政)60 주년기념우표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그림 2-6 상 (常) 084 1957 년 중화민국지도우표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그 당시의 대만은 대내적으로 중국대륙에서 피신하러 온 중국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대외적으로 공산당군이 파죽지세로 푸젠성으로 남하하며 샤먼을 해방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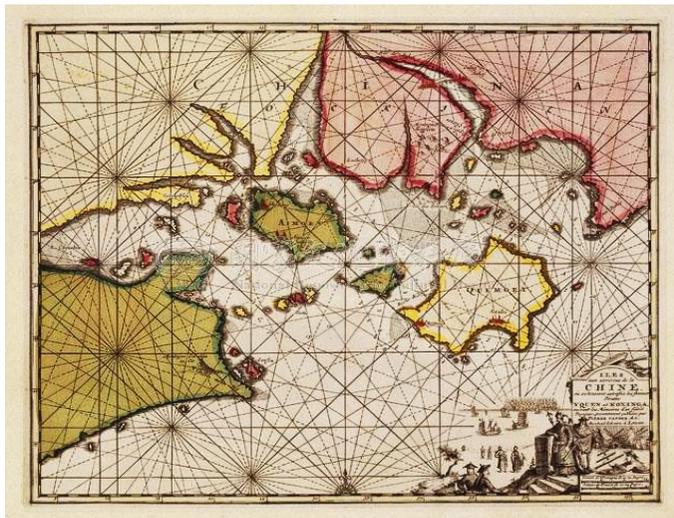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대만이 조만간 공산당군에 의해 점령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화민국정부에 지원을 제공해 주지 않는 곤란한 국면에 빠져 있었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인 왕 쥐룽(王作榮)이 그 당시의 대만은 고도(孤島, 외딴 섬)가 되어 대만 800 만 군인과 주민도 고군(孤軍, 고립된 군대)으로 되었다고 묘사하였다 그래서 구닝터우 전투의 승리는 중화민국정부와 대만 주민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다시 희망을 불어 일으켰다(張火木,1999). 가장 기쁜 사람은 당연히 장제스이었다. 그때부터 장제스가 진먼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확고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진먼의 인구가 불과 5 만 명이니까 물자의 공급은 샤먼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때 진먼은 비록 방어시설이 없지만 화강암으로 구성된 태무산(太武山)이 있으며 샤먼보다 중국대륙과 조금 떨어져 있고 대만과 가까워서 해·중공군이 대만에서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다(張火木,1999:17).

하지만 마오쩌둥(毛澤東)이 여전히 진먼도를 진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1950년 1월, 구닝터우전투 당시 제3야전군(第三野戰軍)의 대리 사령관을 맡은 쑤위(粟裕)가 계속 대만 공격 작전을 담당하였다. 6월 25일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므로 7월 초에 중공중앙 군사 위원회는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구성하며 마오쩌둥은 쑤위를 병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항미원조(抗美援朝)임무를 맡겼다. 쑤위가 대만해협전선을 떠나자 쟡제스는 ‘반공대륙’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 다단도와 얼단도의 병력을 증가하였다(蕭鴻鳴 외,2016: 418-425).

1950년 7월 26일 두번째 상륙전이 발발하였다. 이번 전쟁터는 진먼과 1만 2000m가 떨어지고 샤먼과 4400m만 떨어져 있는 다단도(大膽島)로 바꿨다. 다단도는 원래 샤먼에 속하였다가 1949년 이후 진먼도에 속하게 되었다. 면적은 0.79 제곱킬로미터이고

북쪽에 북산이라는 산이 있고 남쪽에 남산과 소호산이 있다. 남산의 높이는 해발 98m 로 가장 높은 산이다. 남북쪽을 연결하는 모랫길이 있다. 명청(明清) 시대부터 이 섬이 진샤해역(金廈海域)에 진출하는 해문(海門) 이라서 명나라 때 네덜란드인들이 이를 기지로 삼아 진먼과 샤먼을 공격하고 노략질하였다. 나중에 정지룡(鄭芝龍)이 네덜란드인을 물리쳤고 그의 아들 정성공이 반청복명(反清復明: 청나라에 반대해 명나라를 부흥한다는 뜻) 을 할 때 다단도와 진먼을 기지로 삼았다. 명청시대 진샤해역에 해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샤먼도를 비롯해 주변 섬들에 병력이 주둔하며 포대 등 군사시설도 설치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샤먼항이 오구통상(五口通商)의 항구 중의 하나가 되었고 다단도의 남산에 등대를 설치하여 무역 선박에게 중요한 해상 지표가 되었다.

그림 2-7 17 세기 정성공의 푸젠 연해 기지들 (네덜란드인 그림)



주: 노란색 작은 섬은 현재의 진먼도이고 샤먼도는 초록색으로 표시한다.

출처: 국립대만역사박물관

다단도와 일단도를 해방시키면 샤면항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진면의 주변 해역을 통제할 수 있어서 구녕터우전투 이후 공산당군이 또 다시 상륙전을 계획하였다. 다단도가 워낙 샤면과 가까워서 공산당군이 상륙하기 전에 수영해서 샤면에 투항하러 온 몇몇 국민당군인을 통해 다단도와 일단도에 주둔하는 병력이 많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950년 7월 26일 저녁 6시쯤에 공산당군이 샤면 백석(白石) 포대를 비롯한 주변 섬의 포대에서 다단도와 일단도에 포격을 시작했고 8시쯤에 공산당군 700명 정도 기범선을 타고 출발하였다. 남산과 북산 사이의 모랫길의 양쪽에서 상륙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은 태풍이 와서 파도가 심했기 때문에 일부 공산당군이 바다에 떨어졌고 다단도에 성공적으로 상륙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주변도 어두컴컴해서 일단 모랫길에 숨어 날이 밝는 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날이 밝자 남산과 북산에 수비하고 있는 국민당군에게 다 보여서 맹렬한 사격을 시작했고 상륙했던 공산당군은 거의 전멸되었다. 하지만 그 때 다단도에 원래 있는 화강암 같은 천연장벽을 빼고 든든한 방어시설이 없고 인력이나 장비도 다 부족한 상태에 공산당군이 여전히 남·북산의 일부를 점령해서 국민당군의 통신을 끊었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쑤헝핑(史恆豐) 대대장이 전령병이었던 라이 선밍(賴生明)을 북산의 주군에게 공격명령을 전하라고 파견하였다. 라이선밍은 공산당군이 점령된 모랫길을 통과했을 때 적의 공격에 다리를 다치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완성하였다 (劉傳暘, 2018 : 6-10) .

대만 국방부의 통계자료를 의하면 다얼단전투(大二膽戰役)에 공산당군의 사망자가 490명, 부상자 61명, 포로 169명, 그리고 각종 총포를 압수하며 적군의 배를 31 척을 쳐부수었다 (劉傳暘, 2018 : 11). 전투 끝난 후 그 당시 대만 ‘총정치부’주임인 장 징궈(蔣經國)

가 대단도에 순시하러 갔을 때 ‘대담담대담,도고인불고(大膽擔大擔, 島孤人不孤:대담한 자가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 섬은 외롭지만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말로 대단도를 지키는 병사들을 격려했고 이 섬의 이름도 ‘다단(大擔:큰 보자기)’에서 ‘다단(大膽:대담하다)’으로 바꿨다. 중공은 분석된 대단도 사육전의 패전 이유는 예페이(叶飞)가 인솔하는 제 10 병단이 구녕터우전투 후에도 진샤해역의 날씨와 조석을 잘 모르고 병력 증가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모한 상륙전을 펼친 것이다(蕭鴻鳴 외,2016:426).

## 2) 대만 해협 위기

### ① 1954년 제 1차대만해협위기

1950년 6,25 전쟁 발발하기 때문에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제 7 함대의 함선을 대만해협에 파견하고 '대만해협 중립화'를 선언하였다. 또한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해제함으로써 중공정권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는 동시에 중화민국정부도 중국대륙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였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장제서가 방공대륙의 목표를 아시아 냉전과 연결시키려고 해서 3 만 3 천명의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참전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하지만 1950년 10월부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구호에 ‘항미원조’운동을 전개하면서 인민지원군을 한반도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이제서야 대만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가능성, 혹은 장제스가 중국대륙을 공격하는 것을 동의하며 제 2의 전장을 만듦으로써 중공을 경제하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장제스는 오히려 참전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만 학자 린 샤오팅(林孝庭)은

장제스가 참전 거부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전쟁에 참전하거나 제 2 전장을 만들거나 미국이 총지휘직을 국민당 육군 총사령이었던 쑨 리런(孫立人)에게 맡기고 자기를 버릴까봐 거부한 것이다. 둘째, 장제스는 한국전쟁을 이용해 미국의 원조를 받고 대만과 국민당 당내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하려고 작정한 것이다(林孝庭 2015b : 72-73).

1953년 2월 2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휴전회담을 하루빨리 끝내려고 해서 대만해협 봉쇄를 해제하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국민당정부가 이제 중국대륙을 공격해도 좋다는 뜻이니까 장제스도 찬성했지만 휴전회담이 끝나면 미국의 원조와 자신의 지위는 변수가 생길까봐 장제스가 계속 미국에게 소련의 평화공존론과 중공의 은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즉 휴전은 중공이 열전을 냉전으로, 군사적 전쟁을 정치적 전쟁으로 바꾸고 소련과 중공은 휴전의 틈을 타서 미국과 영국의 해상 봉쇄를 돌파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혁명해방운동’을 전개하는 수작이라고 국민당이 주장하였다<sup>32</sup>. 그리고 이런 음모를 막는 최대의 방법은 바로 국민당의 ‘반공대륙’이고 공산주의를 소멸해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sup>33</sup>는 것으로 장제스 자신의 중요성과 대만의 운명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미국과 하루빨리공동방어조약(共同防禦條約)체결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휴전협정(armistice)’을 체결하기 전에, 국민당이 ‘방공대륙(反攻大陸)’의 서막이 열렸다. 7월 15일 밤 9시쯤, 진면방위사령관인 후렌의 지휘에 약 13000 여명의 국민당군이 푸젠과 광둥의 교계(交界)에 위치한 동산도(東山島)을 향해 진격하였다. 처

<sup>32</sup> 正氣中華報, 「匪俄真正的動向與陰謀」, 1953.10.24

<sup>33</sup> 正氣中華報, 「半熱戰後的劇烈冷戰」, 1953.8.14

음에 국민당군이 성공적으로 상륙했고 중중공군보다 병력이 10 배나 많아서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 중공의 후원부대인 보병 82 사단 244 연대와 제 29 군 85 사단 253 연대가 원래 진먼전투(즉 구닝터우전투)에 참전하고 패배했던 부대라 원수 같은 후련의 제 19 군과 필사적으로 싸웠다. 결국엔 공산당군이 진먼전투 이후 양안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를 얻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먼전투의 치욕을 씻었다. (萧鸿鸣 외, 2016: 454-456).

1953 년 7 월 27 일, 남북한은 ‘휴전협정’의 의해 전투 행위가 중단되었다. 마오와 장 아이핑(張愛萍)과 예페이(叶飞) 등 중공 고급장교들이 다시 주의력을 진먼으로 돌렸다. 사실은 중공이 비록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만해방 문제를 잠시 보류했지만 그래도 진먼 혹은 다천도(大陳島)를 먼저 점령하는지에 대해 계속 검토하였다. 1952 년 중공 화동군구(華東軍區) 참모장인 장아이핑(張愛萍)과 1953 년 평더화이(彭德懷)는 각각 마오쩌둥에게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에 참전할 때의 승리의 기세를 타서 푸젠 연해의 도서들을 해방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마오는 미국인을 자극해서 한반도에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이유, 그리고 사실 1950 년 ~1953 년 기간 중공의 중공군과 해군이 아직 푸젠성에 진주하지 않아서 진먼을 공격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였다(夏明星, 2012: 16). 1953 년 9 월 7 일, 화동군구에서 ‘다샤오진먼당오수복작전방안(收复大、小金门岛作战方案)’을 제출하였다. 이에 마오가 ‘1955 년 1 월말까지 진먼도를 해방하는 모든 준비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진먼 작전의 작전명을 ‘연합작전연습(联合作战演习)’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12 월 말에 마오와 평더화이가 진먼을 공격하는 데 5 만억 위안(당시의 인민폐 1 만 위안은 지금의 인민폐 1 위안과 맞먹는다) 가까운 비용이 들어야 하니까 100%의 자신이 없어서 이 제안을 또 잠시 보류하였다(张胜 2008:161-164).

1954년 1월, 장제스가 미국과중(대만)·미 공동방위조약(中美共同防禦條約)에 대해 협상하면서 진먼에 주둔하는 병력도 증가하고 계속 중국대륙 연해 지역을 습격하고 있었다. 한반도와 베트남의 분단을 교훈 삼아, 대만문제에 있어 중공측이 미국의 침점과 유엔의 간섭을 저지하기 위해 7월부터 대내외적으로 전국이나 전세계에게 ‘대만 해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만은 중국의 신성불가침한 영토이다’며 ‘대만을 해방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이자 내정이니 타국의 간섭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만문제는 이미 단순한 내전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국제화하고 복잡해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蕭鴻鳴 외, 2016: 463-465).

중공이 대만을 해방시킬 결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4년 9월 3일에 공산당군은 진먼의 수이터우(水頭) 등지를 향해 포격을 가하였고 다섯 시간 만에 6,000여 발을 발사하였다. 미군 고문단원 2명이 포격으로 사망하였다<sup>34</sup>. 그리하여 진먼방위부가 동쪽에 있는 타이무산지역으로 옮겼다. 1957년 9월 3일까지 3년 동안 공산당군은 진먼도에 총 52,923 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대만은 이를 '93 포전<sup>35</sup>', 국제사회는 '제 1차 대만 해협 위기'라고 부른다.

이에 미국 덜레스 국무 장관은 대만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유엔의 결의를 통해 대만해협의 전화(戰火)를 멈추게 하며 대만해협의

<sup>34</sup> Frank W. Lynn 중령과 Alfred Medendorp 중령의 희생에 대해 대만은 이 두 중령의 희생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중화민국(대만)과 미국의 '중(대만)·미방위조약'의 체결을 성사시켜서 서태평양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2011년 수이터우(水頭) 부두 근처에 'Frank Lynn 중령기념비'를 세웠다.(大紀元, 「紀念美軍林恩中校 金門立碑」, 2011-12-06).

<sup>35</sup> '9.3 포격전'은 진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국민당은 공산당이 중국대일항전 8년의 공로를 빼앗기 위해 일부러 대일항전승리기념일인 9월 3일에 폭격을 발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林馬騰, 2003, 『烈嶼的烽火歲月』, 金門縣：金門縣立文化中心:57)

현상을 유지하는 ‘신유계획(神諭計畫, Operation Oracle)’라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林孝庭, 2015b : 132) . 하지만 장제스와 중공, 심지어 미국 국내가 이 계획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는 유엔에서 '두 개의 중국'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중국대표권에 대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보리에서 중화민국의 대표는 정식 대표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는 초대를 받는 점, 그리고 대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면 대만 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이어서 중공은 절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張勝, 2008; 翟強 2018). 장제스도 이 계획에 포함된 두 개의 중국이라는 것은 중공에게 군사적으로 양보하며, 장제스에게 정치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진먼과 마주 등 낙도들을 지키는 마음이 더욱 확고된다 (周湘華 외, 2017 : 88) . 그래서 미국은 신유계획이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중공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저지하며, 또한 대만으로 하여금 대륙에 군사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더욱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기 위해 또 방어를 근본으로 하는 조약인 ‘중(대만)미공동방어조약(Sino-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林孝庭, 2015b : 130-132) . 주(駐) 미국 영국 대사 Roger Malins 의 분석에 의하면, 덜레스의 대만해협정책은 ‘신유계획’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유지하게 하며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것을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중(대만)미공동방어조약’을 통해 대만과 평후 열도(澎湖列島)를 지키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翟強, 2018 : 74-78) .

1955년 1월 18일, 공산당군은 이장산도(一江山島)를 공격했는데 주요 목표는 국민당이 저장(浙江) 연안의 최대 거점인 다천도(大陳島)이었다. 진먼보다 다천도를 먼저 공격하는 이유는 세 가지 있다. 첫째, 다천도는 진먼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만에서 빨리 지원할 수 없다. 둘째, 다천도는 진먼보다 병력이 약해서 속

전속결로 점령할 수 있다. 셋째, 다천도를 수복하면 윈저우(溫州)시에서 상하이까지의 적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이장산도가 공산당군에 의해 점령되자 대만측이 병력의 보유와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한 후, 장제스는 다천도가 대만과 약 250 해리(海浬) 떨어져서 수비하기 어렵고 대만을 방위하는 데 있어 이미 전략적인 가치를 잃어서 다천도에서 철수하며 다천도의 병력을 재배치하겠다고 선포하였다(蕭鴻鳴 외, 2016: 475-476). 1만 7천여명의 주민과 1만 4천여명의 병력을 대만으로 철수하였다. 이런 결정에 의해 철수된 군대가 영광스럽게 돌아온 것처럼 대만민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다천도 주민 전체적으로 대만으로 철수한 것도 공산주의의 통치 아래 자유를 잃을까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서 대만당국이 ‘난민’ 말고 ‘다천의포(大陳義胞)’라고 칭하였다. 다천도 철수 이후, 국민당에게 진면과 마주를 비롯한 13개의 도서들이 남아있다.

한편 다천도를 점령하는 것은 중공에게 더욱 영광스러운 승리였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공산당군이 최초로 육해공 3군 합동 작전이라서 1949년 구닝터우전투 때, 중공군과 해군 부족했던 한을 쓸어버렸다.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미국이 대만 해협을 방위하는 한계를 알게 된다(張勝 2008: 175-177). 그리고 중국은 이장산도전투 때 공산당군과 타이저우(台州)인민의 단결하고 서로 돕고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은 민족정신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공산당의 홍색정신(紅色精神)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장산정신’이라고 칭한다(賴繼年 2015: 333 - 335).

이장산전투가 발발하자 1월 29일에 미국국회에서 ‘포모사 결의안(Formosa Resolution of 1955)’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국 대통령에게 필요시 무력으로 대만과 관련 진지를 방어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여기의 관련 진지는 1954년 중국에 의해 공격

당한 진먼도와 마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李仕德,2014 : 29-30) . 3월에 마오쩌둥이 주 중국 소련대사인 유진(尤金)에게 보낸 “대만과 진먼 해방 관련(關於解放台灣與金門)”에서 ‘대만의 해방은 두 단계로 나뉘야 한다. 첫 단계는 진먼과 마주 등 중국 연해 도서를 먼저 해방시키고 두 번째 단계는 대만 본섬을 해방시킨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는 중국의 내정인데 미국이 자꾸 무력으로 이 일을 간섭하면서 우리에게 대만의 무력 해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두개의 중국'을 만들려고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미국의 음모를 파괴하기 위해 중공은 일단 중국 연해 지역의 긴장 국면을 유지해야 하며 주도권을 손에 쥐면서 '대만의 평화 해방'을 해야 한다. 5월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周恩來)는 올바른 조건 하에서 남북한과 베트남처럼 협상을 통해 대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대만의 평화해방 방침을 선포하였다. 1956년부터 중국은 '대만이 조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 주장하며 '대만이 조국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해도 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초보 구성까지 제안하였다(蕭鴻鳴 외,2016:477-491).

제 1 차 대만위기는 중공이 이장산도와 다천도를 해방한 후에 1957 년의 제 338 차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대만과 평후는 '제 1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의 일부로서 방위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시 대만을 돕고 외도(外島)들을 방위하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李仕德,2014 : 29-30) . 미국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1955년 8 월에 미국과 중공이 제네바회의에서 대만해협의 긴장 상태의 완화에 대해 합의를 이뤄서 제 1 차 대만 해협 위기가 종료된다(江柏煒,2017:55).

## ㉔1958년 제2차대만해협위기

1958년 마오쩌둥은 중공군을 푸젠(福建)에 진입시키기로 결정하고, 그해 8월 23일 진먼도에 포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958년 8월 23일 오후 6시 30분 부터 공산당군이 진먼에 2시간 동안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국민당군의 부사령관 세 명이 폭격에 의해 사망했고 위 다웨이(俞大維) 국방부장도 폭탄의 파편에 의해 부상하였다. 통신 시설도 파괴되었고 진먼을 봉쇄하기 위해 비행장과 해안을 집중포격하였다. 9월 13일부터 공산당군이 간헐적인 포격으로 전환하여 국민당군을 온종일 어둡고 축축한 갯도 안에서 숨어 반격까지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전면 봉쇄를 실시하였다(鄭有諒, 2018:19). 이 포격전은 대만에서 ‘8,23 포격전’이라고 부르고, 중국과 홍콩은 ‘진먼포전(金門炮戰)’, 국제사회는 ‘제2차대만해협위기’라고 부른다. 대만 측이 이 포격전을 두 단계로 나눈다. 첫번째 단계 포격은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44일이다. 중공에서 총 47만발의 포탄을 진먼군도에 발사하였다. 10월 6일부터 3주 정도 잠시 휴전했고 10월 25일부터 살상력이 있는 포격을 멈추고 ‘소리없는 종이폭탄’이라고 불리는 뼈라 포탄을 살포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앞으로 20년 동안의 포격전의 주요 형식이 되었다.

하지만 이 포격전은 대만과 중공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공의 전쟁, 심지어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힘겨루기를 말할 수도 있다. 8,23 포격전 이전, 중공이 점차 중공군의 병력을 향상시켜서 미국이 중공이 진먼과 마주해 대해 공격을 벌이는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연구하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정부의 과일을 보면, 미국 측은 1954년부터 4년간 진마 등 낙도들이 대만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진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중공은 ‘국지전(limited war)’으

로 낙도들을 분리시키는 시도가 이 지역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미국은 1954 년부터 중화민국정부에 진마 등 낙도를 포기하라고 권했는데 중화민국정부가 오히려 대규모로 이 섬들의 수비군을 늘리고 군대를 낙도의 인질이 되게 하는 데에 대해 불만하지만 이 낙도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이미 미국이 무시할 수 없음을 커졌다.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은 ‘진먼과 마주 등 연해 도서들이 베를린처럼 중화민국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진먼이라는 작은 섬을 무대로 하는 이 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은 영해 범위를 3 해리에서 12 해리로 확장하고 진마 등 섬들을 영해 범위에 포함하게 되자마자 9 월 4 일 미국은 Newport statement 를 발표했다 ‘대만과 진마 등 섬들이 중공의 관할 하에 있었던 적이 없다’며 ‘중공이 이 섬들을 탈취하려면 세계 질서의 기본 원칙을 어기며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이 진마의 방어에 협조하여 실제적인 군사 행동으로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宋學文,2009 : 13) 。 그리하여 미국이 제 7 함대를 파견하며 또한 진먼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륙전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The sidewinder missile), 그리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서 8 인치 곡사포를 진먼으로 운송하였다. 9 월부터 미국 군함과 대만 해군이 화력이 강한 ‘연합 함대’를 구성했고 대만 본섬에서 온 해군과 중공군의 물자보급을 호송해 주기 시작하였다(陳映真,1989:76).

미국의 호송은 중공의 ‘봉쇄 진먼’전략을 파괴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이때 진먼 병력의 감축과 진먼의 비군사화, 심지어 진먼을 유엔에 신탁 통치를 맡기자고 제안하였다(李仕德,2014 : 3). 이는 미국이 진먼으로 파병하고 싶지 않아서 진먼을 중립화시키는 작전이었다. 또한 국제사회는 장제스가 반공대륙하기 위해 진먼과 마

주에 집착한다면 큰 전쟁이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장제스는 중화민국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진먼과 마주에 국민당 병력의 3분의 1을 배치했고 끝까지 이 두 섬을 지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張淑雅, 2010 : 2-3) .

장제스에게 있어, 중국 공산당이 대만 본섬과 외도들을 침범하면 오히려 반격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 게다가 중공해공 부대는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장거리 대포까지 증설하였다. 그리하여 포격전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당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중공이 곧 공격하겠다'고 선전해왔다. 그리고 외도에 대해 방위 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중공이 8월 23일에 진먼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장병들이 장제스의 '정확한 예측'에 대해 아직도 신기하다고 칭찬한다. 823 포격전의 발발은 마침 국민당정부가 선전해왔던 '반공(反攻)'·'항폭(抗暴)'과 결합할 수 있다.

중공이 진먼을 포격하는 목적은 진먼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진먼을 봉쇄하고 미국이 진먼과 마주를 방위하는 결심을 시험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 패권주의의 기세를 꺾고 미국이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의도를 분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미국은 이 장산전투부터 8,23 포격전까지 그 동안 중공에 세 차례 정전을 요구했지만 중공은 타국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 대표가 바르샤바 회의에서 대만 보호자를 자처한 것에 항의하였다. 또 미국이 보급 호송 중단을 조건으로 '영구 휴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중공은 조국통일 방해 원칙으로 휴전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중공의 중앙군사위는 대만해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961년 12월에 푸젠 전선 부대에 진먼에 대한 실탄포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고 '단타쌍불타 (單打雙不打, 홀수 날에는 포격이 있고 짝수 날에는 포격이 없다)'의 선전전으로 전환하였다

(曹志剛·王仲远 2009:19-20).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국공내전이 대만해협에서 장기화되었고 진먼과 마주가 민족대치의 최전선이 되어서 국민당에게 장기간 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의 핑계까지 되어 주었다(陳映真 1989:77).

8.23 포격전 발발 이후, 장제스는 진먼과 마주 등 섬들을 지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 졌다. 이는 9 월 3 일 군인의 날에 중화민국 정부는 발행된 "보위진마우표(保衛金馬郵票)" 2 종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1952 년 장제스가 진먼의 최고봉 태무산에서 쓴 '무망재거(毋忘在莒)'라는 돌을 배경으로 하고 한 무리의 육해중공군 병사들이 구불구불한 계단에 가지런히 서 있다. 병력이 넘치는 시각적 감각을 조성하여 군민의 사기를 높인다. 또 다른 우표는 진먼과 마주 군도를 처음으로 대만 군도와 같은 도면에 포함시킨다. 이는 국민이나 계속 장제스에게 진마를 포기하라는 미국에게 대평진마(台澎金馬)가 하나인 것과 진마를 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구본 방식으로 대평진마 공동체를 나타낸 것은 특별하다. 필자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진마가 중국대륙보다 대만과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球體)의 시각적 차이와 일부러 중국대륙을 국지화시킴으로써 대평진마(台澎金馬)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둘째는 대만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지원, 특히 미국의 지원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그림 2- 8 특(特)009 "보위진마우표(保衛金馬郵票)"



출처: 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

우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49 년 이후 중화민국의 판도가 재 배치되었고 대만에서 정권을 재정비했다. 1958 년에 중공이 진먼에 대해 ‘8,23 포격전’을 가하는 것은 진먼을 점령하려고 포격전을 벌이는 것 아니었고 심지어 진먼과 마주를 양안의 연결고리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장 제스에게 남겼다. 즉 장래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화민국의 관할지역은 광대한 중국 대륙에서 대만 본섬, 평후제도, 진먼제도, 마주열도 등 29 개 섬으로 바뀌었다. 중화민국의 관할지역은 광대한 중국 대륙에서 대만 본섬, 평후제도, 진먼제도, 마주열도 등 29 개 섬으로 바뀌었다.

그림 2-9 중화민국 현재 관할 지역



## (2) 최전방의 군사화와 냉전경관

### 1) 지상(地上) 진면

냉전의 경계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권하에서 원래 한 정권 아래 있던 나라의 영토를 둘로 갈라놓음으로써 생긴 경계를 가리킨다. 인접 지역은 분단체제의 '전방(front)'과 '전장(battlefield)'이 되어, 즉 새로운 인위적 경계로 바뀌었다(정근식 2018:414). 동아시아의 냉전은 민족 내전의 요소를 담기 때문에 냉전경관을 만든 힘은 세계 강대국의 세력과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민족 내 정권다툼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만해협의 진면도와 남북한의 DMZ 같은 인접지역은 군사 요새화를 동반한 냉전의 경계가 되면서 특이한 냉전 경관을 만들어 왔다. 1949~1978 년 기간 동안 중공의 상륙전과 포격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면의 냉전경

관이 ‘전방화’되면서 두 개의 진면을 만들어졌다. 하나는 ‘지상 진면’, 하나는 ‘지하 진면’이다. ‘지상의 진면’은 두 가지의 지경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녹화 (environmental afforestation)’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 즉 나무와 방어적인 식물을 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방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지경, 즉 전장공간에 익숙한 토치카나 철조망 등으로 만들어진다.

먼저 조림(造林)이다. 일반의 가로수가 환경 미화와 보호, 그리고 주민의 긴장과 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문명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데 냉전시기에 진면의 가로수가 군대의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어 기능을 갖고 있었다. 진면 주민 장 퀘즈(張國植)의 증언에 따르면, 국민당 군대가 처음에 진면에 들어왔을 때 진면은 나무가 별로 없어서 1949년 구닝터우전투 때 공산당군이 신속하게 쳐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무심기’운동을 시작했다. 모든 군인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 그 당시 ‘나무가 죽으면 제대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서 군인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를 ‘본명수(本命樹, 내 목숨과 같은 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에 나무심기가 잘 안 되어서 당시의 사령관 후 쉰(胡璉) 장군이 ‘샤먼의 돌 틈에서 나오는 나무’라는 사진을 보여줘 ‘샤먼은 할 수 있다면 진면은 당연히 숲을 만들 수 있다’고 병사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조림’을 성공하면 부대 대장의 이름으로 숲을 명명하는 정책도 있었다. 이로 인해 포격전이나 태풍으로 나무가 넘어져도 군인들이 꾸준히 나무를 심어 왔다. 인조림의 면적은 5,300 헥타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진면 각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거의 무성한 녹음 아래 잘 숨어 있었다. 방어를 위해 이렇게 형성된 냉전경관으로 인해 진면은 ‘해상공원(海上公園)’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진면인도 나무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 관광 개방 초기에 ‘녹색터널(green tunnel)’을

통과하는 것도 인기코스가 되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가로수를 베어야 하는 데다 태풍등 자연 요소로 인해 이 특수한 냉전경관이 점점 없어졌다. ‘녹색터널’의 파괴로 진먼 주민의 자연 경관 보호 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또 다른 방어 경관은 1949에 국민당군이 진먼에 주둔하자마자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1950년 미국이 군사원조를 지원하기 전에, 즉 구닝터우전투 발발 이전, 진먼의 방어시설을 만든 재료가 주로 일반 민가의 문이나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판자와 같은 목자재, 혹은 마을 밖가의 용수(榕樹)나무까지 사용하였다. 그리고 군에서 이미 주민들에게 방공호를 파라고 지시하였다. 1949년 10월 13일 원래 진먼에 속했던 북쪽에 있는 다덩도(大嶼島)와 샤오덩도(小嶼島)가 공산당군에 의해 점령되자 진먼 서쪽에 주둔하는 청년군 201사단의 사장인 쩌궈(鄭果)는 적이 상륙하기가 쉬운 구닝터우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수비하며 전투할 수 있는 토보(土堡)군을 축조하라고 명을 내렸다. 축조재료는 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의 문과 벽돌을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은 더 많았다. 심지어 묘비까지 ‘빌릴 때’도 있었다. 필자가 현장조사할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국민당군이 진먼에 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우리 집의 문과 벽돌을 빼앗아 갔어. 내가 처음에 문을 못 주겠다고 버텼는데 그들이 문을 안 줄거면 나를 기생원으로 팔겠다고 나를 협박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로 인해 많은 진먼의 노인들이 국민당군을 ‘가산(家產)’과

‘조산(祖產)’을 빼앗아 가는 강도로 보인다. 군과 주민들의 ‘재료쟁탈전’ 끝에 201 사단이 3 일 안에 2 백여개의 토보를 만들었다(李福井,2014:85-86). 그리고 해변에 철책과 지뢰까지 설치해서 진먼 최초의 냉전 방어기제가 형성되었다. 그 당시 진먼 서부쪽 해변가에 약 7,000 개의 지뢰를 매설했고 800 여개의 수뢰를 설치하였다(知兵堂編輯部.2015 : 20) .

구녕터우전투의 승리는 국민당에게 자신감을 더해 주게 되었지만 적이 다시 상륙할까봐 더 대규모적으로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구녕터우전투 이전 빈집만 허물었는데 전투 이후 주민이 사는 집까지 허물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과 사당, 그리고 학교까지 철거되었다. 특히 구녕터우전투의 전장이었던 구녕터우와 안치(安歧),그리고 후웨이(湖尾) 이 세 지역의 경우가 가장 심하였다 이 지역은 원래 바다에서 돌기둥으로 굴을 양식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이었는데 돌기둥까지 뽑혀 갔다. 돌기둥이 즐비한 광경이 반상륙의 퀘조제로 대체되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녕터우 지역은 약 1 백여 개의 집을 철거당했고 안치 지역도 1 백~2 백 개를 철거당하였다고 한다<sup>36</sup>. 그리고 군인들이 민가를 철거하다가 아편을 발견해서 아편을 찾는 것도 철거의 이유가 된다. 진먼은 일본군에 의해 8 년(1937~1945 년) 동안 점령해 본 적이 있다. 1938 년부터 일본군은 전쟁의 비용이 필요해서 주민들에게 아편을 재배하라고 명령하였다 아편의 경제성이 높으니 까 ‘흑금(黑金)’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몰래 숨긴 사람이 있었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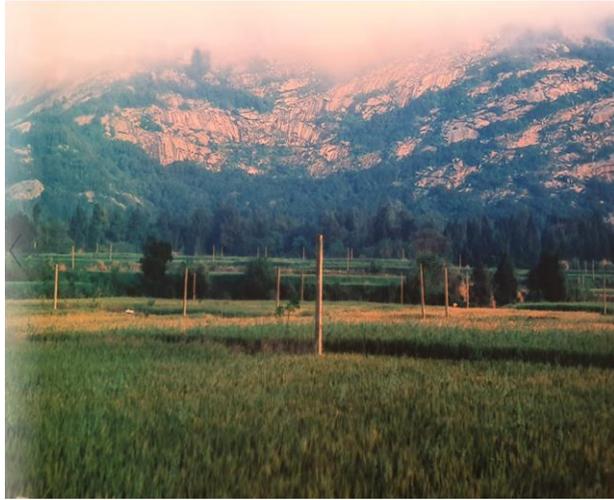
---

<sup>36</sup> 1950년 말, 진먼방위사령관 겸 푸젠성 주석인 후렌 장군이 집이 철거당한 주민들에게 ‘전사손실증명서(戰事損失證明書)’를 발급했지만 ‘반공대륙 이후 배상(反攻大陸後賠償)’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즉 공산당을 이기고 중국대륙으로 돌아간 후 배상하겠다는 뜻이다. 나중에 대륙반공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면서 1980 년대에 들어 증명서를 가지는 가정에게 150 만 대만 달러씩을 보상해 줬지만 전란 때 증명서를 잃어버린 사람도 많다.

문이다 (李福井,2014:284-286).

6.25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장제스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고 대만에 정착하면서 "1년째 준비하고 2년째 본토로 반격하며 3년째 공산당을 소탕하고 5년째 본토수복을 완수한다(一年準備, 兩年反攻, 三年掃蕩, 五年成功)"라는 구호에 '반공대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먼과 마주 두 섬에도 정규군 약 6만명을 배치했고 본격적으로 요새화를 시작하였다. 1965 년에서 1987 년까지(20 년간) 18 차례에 이르는 토지 재구획을 통해 사구와 대지(臺地) 위주의 진먼 지형에 비교적 평평한 평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히려 적군의 공수 부대원 낙하가 용이해졌다. 이에 당시 사령관이었던 송신렌(宋心濂)은 독일 군사고문의 제안에 따라 섬 전체의 평지에 '낙하방지말뚝'을 설치하고 말뚝사이에는 철조망을 추가 설치하였다. 낙하방지말뚝은 대부분 농지에 설치되었는데 방어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면에는 '삼각못(三角釘)'까지 고정하였다. 지뢰와 같았던 삼각못 때문에 적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더 다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대부분의 낙하방지말뚝이 사유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논밭일을 하다가 '삼각못'을 밟아본 적이 있었다. 또한 '물귀신(중공군의 양서부대)'에 대비하기 위해 해변에서는 부겐빌레아(bougainvillaea)와 용설란과의 경마(瓊麻) 같은 방어적인 식물을 대량으로 재배했다. 그리고 해변의 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꽂는 방어시설 등이 진먼의 지상 냉전경관을 형성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림 2- 10 낙하방지말뚝(反空降樁)



출처:영빈관

그림 2- 11 유리 파편이 꽂는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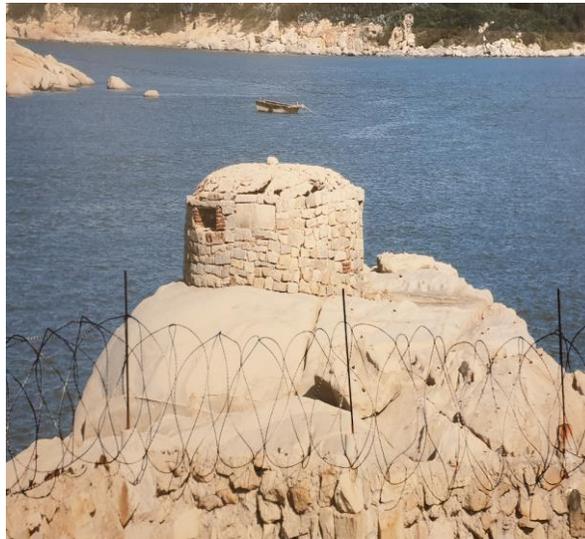
출처:연구자 촬영

그림 2- 12 사거리에 있는 대공정 토치카



출처:영빈관

그림 2- 13 해변 병커와 철저망



출처:영빈관

방어공사와 군대막사 외에 요새화 공간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의 정신 랜드마크(Spiritual landmark)는 진면의 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두 군사 공간

이 은폐성을 갖춰야 하는 것과 달리 정신적 랜드마크는 뚜렷할 수록 좋다. 진먼의 정신 랜드마크의 종류는 절, 기념관, 기념정, 반공 표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정신 랜드마크는 사기 진작과 기념의 기능 외에,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여 국족정체성을 강화하며, 군사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공간적 수단이다(江柏煒,2007:87).

건설연도로 볼 때 1950~1980 년은 역공작전 시기로 분류할 수 있어서 수시로 전비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여러 차례의 상륙전과 포격전이 벌어졌으니까 양안 냉전 시기에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시기의 표어는 대부분 ‘반공항아(反共抗俄)’, ‘살주발모(殺朱拔毛)’, ‘대륙동포 살리기(拯救大陸同胞)’, ‘최후의 승리 쟁취하라(爭取最後勝利)’ 와 같은 국민의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강산을 수복하겠다는 내용이다(鄭有諒,1996 : 42-43) . 냉전시기의 대표적인 정신 랜드마크는 태무산의 군인 묘지와 ‘무망재거(毋忘在莒)’를 새겨진 돌, 그리고 거광루(莒光樓)였다. 1949 년의 구닝터우 전투, 1950 년의 다얼단도 전투, 1954 년 9.3 포격전, 그리고 1958 년 8.23 포격전과 같은 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태무산묘지(1953 년)와 레위군인묘지(1960 년) 등 군인 묘지를 건설했다. 태무산 군인 묘지는 태무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먼의 중요한 주둔지라서 전몰장병들에 대한 중시가 엿보인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해마다 합동위령제를 거행하는 주요 장소이기도 한다.

전국 국민들에게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이었던 텐단(田單)이 두 개의 성(城) 만 가지고 결국엔 고국의 72 개의 성을 광복시킨 정신을 배우라고 하기 위해 정신 랜드마크 같은 태무산 꼭대기에 있는 ‘무망재거’라는 글을 새겨진 돌(1952 년)과 거광루(1952 년) 를 만들었다. 진먼 동반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망

재거'돌과 서반부의 진먼 시내에 위치한 거광루는 중국 대륙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냉전시기부터 국내외 귀빈들이 진먼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가 되었고 군대위문공연들이 공연할 때의 중요한 무대 배경이기도 한다(그림 2-14). 특히 거광루의 3층에 올라가면 샤먼도의 고층빌딩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소삼통을 실시한 후 중국인 관광객 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림 2-14 군대위문공연단의 공연 배경:거광루 및 '무망재거' 돌



출처:영빈관

‘거광(莒光)’이라는 두 글자는 더욱 널리 사용된 단어이었다. 거광루는 냉전시기에도 ‘진먼영웅관’으로 사용되었다. 국군은 1949년 구녕터우와 1950년 다얼단 상륙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므로 사기가 크게 올라갔다. 그리하여 1952년에 거광루를 건설했다. 3층 바깥에 있는 ‘거광루’간판의 세 글자는 다얼단상륙전에서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전령병인 라이 성밍(賴生明)이 쓴 것이었다. 거광루에 영광과 전장의 정신을 부여했다. 거광루는 1920년대부터 등장한 민족식 건축 양식을 지닌다. 즉 중국의 전통적인 궁궐 형식에 현대적인 벽면을 가미한 건축 방식이다. 이는 민족국가의 정신 물론이고 반공복국(反攻復國)의 의지와 힘

도 상징한다 (江柏燁.2002 : 93) . 특히 거광루는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퇴거한 후 민족의식과 민족식 건축양식을 재현한 첫 건물이다. 그리하여 민족의 대의와 애국주의를 선양하는 의미도 지닌다. 내부 전시내용은 원래 국군영웅을 주제로 하다가 1966 년에 민간 문물과 전장에 관한 자료가 추가되어 진먼역사문물관으로 바꿨다 (江柏燁.2002 : 114-116) .

건축상의 정치적 의미와 전쟁 정신 외에는 거광루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부각된 예가 바로 진먼과 마주에 사용 제한한 지폐의 대표적 그림으로 삼는 것이다. 1949 년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퇴거한 후 지방재정을 공고하기 위해 대만에서 "신 대만 달러(新台幣 [썬타이삐])를 발행했고, 낙도들에서도 전용 화폐를 발행했다. 즉 화폐에 '진먼/마주에 한해 통용'이라는 글자를 추가한 것이었다. 중국과 통용되던 화폐가 양안 분단으로 폐지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190 년 3 월 17 일에 진먼의 금융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후렌 사령관이 창립한 '진먼 월화 관병 소비 합작사 총사(金門粵華官兵消費合作社總社)'에서 '월화'임시 유통권을 발행했다. 1952 년 대만 전국의 화폐를 통일시키며 최전방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 대만 달러"가 진먼과 마주 등 섬에서 발행됐고 월화권은 회수하여 사용 중지되었다. 중공이 대만의 경제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의도 방지와 최전방의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러 '진먼/마주에 한해 통용'이라는 글자를 추가했는데, 사실은 낙도들이 함락하면 본섬의 금융을 교란시킬까봐 만든 방어 기제였다(그림 2-15)<sup>37</sup>. 그리하여 최전방 주민들은 언젠가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는 느낌이 든다.

당시에는 최전방 주민과 군인들이 대만 보섬에 갈 때 사용 제한

---

<sup>37</sup> 金門日報, "金門紙鈔史". 副刊文學. 2003/09/10. <https://www.kmdn.gov.tw/1117/1271/1274/32560>

의 글자가 없는 화폐를 환전해야 본섬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은행에서 매월 1인당 1만 대만 달러만을 환전할 수 있는 것을 제한했다. 이런 규정은 진먼인들이 현금을 모두 대만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38</sup>. 1969년 거광루는 법통적 의미가 강한 ‘중산루(中山樓)’를 대신하여 낙도 전용 화폐 중의 50원 지폐의 그림이 되었다. 이것은 진먼의 군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진먼에서 군 복무할 때 거광루나 태무산의 무망재거 앞에서 기념 사진은 남기지 않으면 진먼에 와본 적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林怡種,2009:37). 198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최전방 전용 화폐를 발행 중지하여 대만과 진먼·마주 등 낙도의 화폐가 그제서야 통일된다.

그림 2-15 1969년 진먼 전용 지폐



출처: 中央銀行券幣數位博物館

진먼의 우표와 엽서에도 거광루를 쉽게 볼 수 있다. 거광루는 진먼 전장 정신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

<sup>38</sup> 自由時報, “賺到了! /舊書夾舊鈔 市值5萬元”. 2005-07-27.  
<http://news.ltn.com.tw/news/society/paper/26581>

년 진먼현 문화국에서 개최한 진먼십십경(金門新十景) 투표 활동에서도 거광루는 1 위로 뽑혔다. 중국의 여행 사이트도 이를 타이베이 101 빌딩에 버금간다고 해서 ‘거광루를 방문하지 않으면 진먼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문구로 거광루의 관광적 가치를 올렸다. 현재 거광루의 내부 전시는 3층으로 나뉜다. 1층에는 진먼의 전통음식과 민속 등을 소개하는 현지특색문화전시관, 2층은 진먼에서 가장 유명한 민속 축제인 ‘영성황(迎城隍)’, 3층에는 샤오진먼과 샤몐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이고 전쟁시기에 관한 문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거광루는 후 쉰 장군이 진먼 사령관을 맡았을 때 지어졌기 때문에 3층에는 후 쉰 장군의 생애사와 훈장들에 관한 특별전시가 있다. 냉전 시기에 중중공군으로 하여금 존경하면서 미움을 받은 후 쉰 장군은 윗세대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어떤 77세의 중국인 관광객이 후 쉰 장군의 청천백일훈장을 훔쳐가 양안의 경찰들의 협력으로 마침내 훈장을 되찾은 사건도 있었다.

‘거광’이라는 두 글자는 거광루가 준공한 후에 대만 사회에서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면, ‘거광일(莒光日)’은 매주 목요일에 군대에서 사상교육을 진행하는 날을 가리키며 군인들은 국방 정령을 홍보하는 ‘거광원지(莒光園地)’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해야 한다. 그리고 ‘거광운동(莒光運動)’와 전투촌 계획에 따라 시작된 ‘중화문화부흥운동(中華文化復興運動)’은 진먼 군민의 이데올로기의 단결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대만의 사회 기율을 강화시킨다 (宋怡明 2016:148). 또한 기차나 향진(鄉鎮), 학교, 도로의 명칭에도 사용되어 대만 사람들의 귀에 익은 이름이다.

영광스러운 건물 외에는 사기 진작과 적개심을 돋우는 표어는 진먼에서 더욱 보편적이었다. 보통 돌이나 민가의 벽에 새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태무산의 ‘무망개거’돌과 ‘인정승천(人定勝天)돌

등이다. ‘무망재거’ 네 글자가 대표하는 정치적 의미로 인해 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이와 함께 찍는 것을 피한다. 진먼 곳곳에서 퍼져 있는 각종 정신 표어는 중국인 관광객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구호’는 강령적이고 격려적인 역할을 하며 외침에 적합한 짧은 문구이다. 표어는 ‘구호’와 같은 기능을 지니지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高偉智,2016) . 표어의 형식은 글자 외에 사진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복도에서 나라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바치는 민족의 영웅들의 사진을 붙이기도 한다<sup>39</sup>.

마을 안에 정신 표어가 새겨지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전투촌을 만들면서부터다. ‘전투촌’제도는 1968년 초에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와 북한의 1·21 사태,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10년 내에 복수하겠다는 소문의 배경하에 실행된 것이다. 그래서 장 징귀는 1960년부터 시작된 삼민주의모범현의 계획을 접고 전쟁 대비를 강화시키고, ‘개인마다 전투원, 마을마다 전투보 (人人是戰鬥員, 村村是戰鬥堡)’라는 전투촌 정책을 실시했다 (宋怡明 2016 : 136) . 전투촌은 마을 주민과 모든 사물을 군사화시켰다. 주민들이 민방대에 편입되어 마을의 지하 민용 갱도를 굴착하기 시작했는데, 총 16킬로미터 길이였다. 그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민방 갱도는 진먼 가장 협좁한 지대에 위치한 치웅린(瓊林) 마을에 있다. 1978년 완공된 이 지하 갱도의 길이 1,355미터이며 총 12개의 출입구가 있다. Michael Szonyi의 연구에 따르면, 치웅린 마을에 요만큼 규모의 민방 갱도가 생긴 것은 당시의 총정전부(總政戰部) 부주임이었던 샤오 정즈(蕭政之)가 ‘지하진먼’을 건설하는 구상을 제시하기 때문이었다. 즉 갱도 네트워크로 기존의 토치카를 연결한 것이다

---

<sup>39</sup> 金門日報. 說口號喊出的鄉愁. <https://www.kmdn.gov.tw/1117/1271/1275/106660>

(宋怡明 2016:139). 현재 이 갱도는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면에서 입장료를 받는 유일한 명소이다. 갱도 입구 앞 건물에는 여전히 ‘독립작전, 자력갱생, 끝까지 견지, 죽음에서 살아남라’는 표어가 쓰여 있다. 전투촌 건설하는 정신을 잘 드러난다.

## 2) 지하 진면

‘지하진면’은 포격전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갱도를 파는 것으로 만들어진 지하 방어요새를 가리킨다. 즉 무기와 탄약, 전투 준비 물자와 인원을 모두 지하로 옮겨 지하 보루를 개척한 것이다. 이런 지하 요새화로 인해 진면은 85 만 발의 포탄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1964 년 장제스는 어떤 강연에서 진면의 든든한 군사 시설은 군인들의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공복국의 역량도 보여주어서 장래 대륙을 수복하게 되면 진면과 마주, 대만, 평후 등지의 군사 시설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만의 반공복국의 승리는 결코 요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sup>40</sup>.

1956년부터 국민당군이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든든한 진면의 기반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갱도를 파고 거점과 지휘소, 통신소와 창고 등 시설을 지하화하였다. 8.23 포격전 발발 이전 국민당군이 이미 진면에서 포병 병커(Artillery bunker) 88 개, 관측소 60 개 등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화포 진지를 만들었다 (鄭有諒, 2018:16-18). 더구나 국민당군이 대일항쟁 때의 경험에 의해, 철근·시멘트로 든든한 포진지의 대포 병커(Cannon bunker)를 만들어서 포격전 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문에

---

<sup>40</sup> 秦孝儀主編.1985.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臺北: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823 포격전 때 중공은 이미 진먼의 방어시설이 아주 든든하게 만든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장제스가 진먼도에서 9 만 5 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진먼에 상륙할 생각이 없었다. 백지운(2017)은 중국이 진먼을 포격하는 것은 동아시아 분단-냉전 구조의 가담자이자 당사자로서 한반도와 베트남의 분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이미 대만해협의 분단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대만문제는 이미 동아시아 냉전의 성격을 결정하는 참예한 국제적 문제가 되어서 중국은 동아시아 냉전구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먼과 마주가 미국을 대만해협에 묶어두는 올가미로 만들었다고 분석하였다(백지운,2017:332-333).

823 포격전 발발 이전, 군에서 방어시설의 지하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중공의포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제스는 국방부와 진먼방위사령부에 대해 타우산의 화감암을 이용해 갱도를 파고 탄약과 보급 물자들을 다 갱도 안에 보관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계획도 없어서 진먼 전역에서 보다 든든한 방어시설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또한 1957년 7월 다시 진먼방위사령관을 맡은 후론헤이 전 사령관과 달리 방어시설의 구축보다 진먼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더 중시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시멘트가 도로 건설에 사용되었고 군인들이 인프라 건설에 바빠서 방어공사를 소홀하였다는 비판도 있다<sup>41</sup>. 823 포격전 발발한 후 다시 집중적으로 갱도를 파고 방어공사가 본격적으로 지하화하였다 (孫建中,2018:82-85) . 지상 지휘소와 군비 시설 외에 군대

---

<sup>41</sup> 1958 년 4 월에 진먼으로 파견하는 웬 위시(苑玉璽)의 증언을 따르면 그 당시 진먼의 토치카나 병커가 아직 부족했고 참호의 깊이가 그냥 사람 엎드릴 정도가 되고 병커도 위장망으로만 감싸고 있는 상태였다. 포탄의 공격에 전혀 막아낼 수 없었다.(출처: 行政院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2008. 『追憶金門砲戰 50 週年』, 中華民國政府出版品: 82-83 쪽)

가 고위장권과 각국 귀빈 등이 묵는 영빈관<sup>42</sup>과 군 병원(화강석병원<sup>43</sup>, 남웅병원, 대담병원) 등도 지하로 옮겼다(그림 2-16, 그림 2-17). 이 시설들은 또한 전쟁 시에 지하 진면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시설이기도 한다. 병원까지 화강암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진면 주민들이 자신을 손오공처럼 ‘돌에서 튀어나와 태어난다’고 농담하기도 한다. 견고한 화강석 병원은 사람을 보호하며 주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이미지를 주지만 Michael Szonyi (2011) 는 이를 진면의 지역정치의 ‘식민지화’가 절정에 이르는 상징이라고 본다.

또한 진면 주민들도 포화를 피하기 위해 각자 마을에 방공호나 지하갱도를 직접 뚫었다. 1968 년 진면의 155 개의 마을이 73 개의 전투촌으로 편성되었다. 1976 년 이 중 12 개 전투촌이 지시에 따라 지하 갱도를 파도록 했다. 갱도 내의 표준 시설은 지휘실, 식량저장실, 발전기, 통신설비와 우물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 치웅린(瓊林) 전투촌에 이런 민방(民防) 갱도는 총 12 개가 있는 것으로 가장 많다. 현재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며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다.

---

<sup>42</sup> 1980 년에 완공된 영빈관은 지하 여관이였다. 약 33 개의 방이 있고, 도서관, 레스토랑 두 개가 있다. 리 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와 인기 가수 덩 리쥘(鄧麗君) 모두 이곳에 묵었다. '지하 힐튼 호텔'이라 불리기도 한다. 2010 년 전장과 군대위문공연문화관으로 개축했다.

<sup>43</sup> 화강석 병원은 타이우산 기슭에 위치하여 화강석 바위 안에 있는 지하 갱도 병원이다. 병원 안에 남북 세로 갱도가 세 개가 있고 동서 가로 갱도가 9 개가 있는 별집 모양으로 만든 구조이다. 총 길이가 1,800 미터이다. 1980 년부터 2005 년까지 진면의 가장 중요한 군 병원으로 2007 년에 사용 중지되었다. (羅志平.2010.『金門行業文化史』, 秀威出版:254-255)

그림 2-16 화강석병원



그림 2-17 영빈관:인기 가수 덩 리궈(鄧麗君)이 묵었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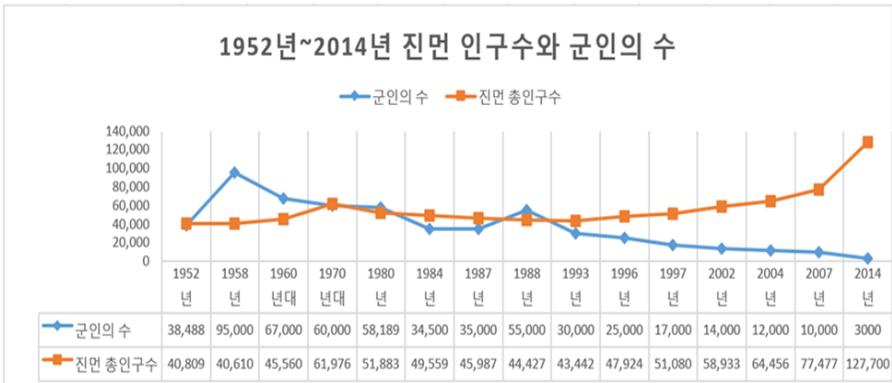


#### 4절. 탈냉전과 민주화

진먼의 탈냉전은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측면은 대만 본섬의 민주화운동과 계엄령 해제와 관련 있고, 군사적 측면은 철군과 군사 시설의 철거(지뢰 철거 등)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의 탈냉전을 보면, 1958년 823

포격전이 발발했을 때 진면에 주둔한 군인의 수가 거의 10 만 명에 달했고 1960 년대에 들어 중국이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만과 진면에 대한 위협이 점점 줄어들어서 진면 군인의 수도 줄이기 시작하였다. 1980 년대 초기에 ‘嘉禾案(가화안)’、‘陸精案(육정안)’、‘陸鵬案(육봉안)’ 을 실시해서 진면의 군병력이 급속 감축됐다. 게다가 1996년-2001년 기간에 필요없는 부서를 없애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자는 개념에 부대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정실안(精實案)’, 군인의 수를 줄이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원칙으로 2004년-2008년 기간에 실시한 ‘정진안(精進案)’, 그리고 2011년-2014년 기간에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정수안(精粹案)’ 등으로 인해 진면의 군인 수가 10 만명에서 4 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18) .

그림 2-18 1952년~2014년 진면 인구수와 군인의 수



- 출처: 1. ‘金門駐軍知多少’  
 2. 自由時報, ‘金馬駐軍 最多時高達 17 萬’  
 3. 李仕德總編修. 2007. 金門縣志: 96 年續修-第三冊人民志 (下卷). 306-308 쪽. 필자 재정리함.

진면에 주둔하는 군인 수가 계속 줄었는데 국민당 정부가 ‘반공대륙’의 신화와 집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면과 마주 지

역의 ‘전쟁상태’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대만은 집단적으로 흥분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1979년 8월 “미레도(美麗島)”잡지의 발행에 따라 국민당정부의 집권 체제를 비판하는 당외세력이 형성되었고 아래로부터(from below)의 대만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같은해 12월에 일어난 ‘미레도사건’은 대만 민중이 정치와 인권에 대한 중시를 환기시켰고 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6년 정 난룡(鄭南榕)을 비롯한 2천여 명의 대만인이 일부러 37년 전 국민당정부가 계엄 시실을 선포하는 5월 19일에 계엄령 반대와 완전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최초의 ‘519 녹색행동’을 일으킨다. 이들이 타이베이 용산사의 광장에서 12시간 철야 농성을 하였다. 국민당 측은 약 2천명의 경찰을 파견해 용산사 밖을 포위하였다. 이번 시위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마쳤지만 계엄령 실시한 지 37년만에 대만인이 드디어 나서서 계엄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음해의 두번째 ‘519 녹색행동’이 민진당 사회운동부의 주도 하에 시작하였다. 이번 시위는 주로 ‘국가안전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라는 요구에 3만명의 대만 민중들이 참가하였다. 국민당정부는 1987년 7월 14일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국가안전법이 시행되었다. (鄭根植,吳俊芳.2015).

1987년 대만 본섬은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진먼과 마주 두 지역은 오히려 두번째 계엄을 실시하였다. 대만 본섬과 진먼도의 계엄령 해제의 시차로 인해 진먼도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증가시켰다. 대만 본섬의 계엄령 해제, 대륙 친척 방문 개방, 그리고 동원감란(動員戡亂)의 중지는 진·마지역 주민의 반계엄 정서를 더욱 자극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중국정부가 샤먼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건설을 왕성한 기세로 전개하는데 진먼 주민은 중국이 이미 포격을 중지했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기 시작했는

데 왜 국민당정부가 아직 ‘전쟁상태’라고 하는지 이해 안 간다. 그래서 진먼인들은 ‘전쟁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민선의 현장과 현의회의 의장이어야만 진먼의 발전을 이끌 수 있고 관광을 개방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엄령을 해제하며 민주체제를 실행라고 요구했다(劉灝,1989:86).

1987년 8월 12일, 웡 밉쯔(翁明志)와 천 전젠(陳振堅), 그리고 왕창밍(王長明) 셋이는 타이베이 신덴(新店)에 있는 푸이젠성정부에다 진먼·마주 지역도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그리고 민강항공기 개방과 관광 개방 등 요구 사항을 제출하였다. 정부 당국이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 방해’의 명목으로 그들을 ‘흑명단(黑名單)’에 올리고 ‘진마출입허가증(金馬入出境許可證)’을 발급하지 않았다. 허가증 없으면 집에 갈 수 없는 셋이가 1988년 ‘난 집에 가고 싶다’는 글이 적여 있는 흰 옷을 입어 길거리에서 항의하였다(그림 2-19).

그림 2-19 웡 밉쯔(翁明志) 외 세 명이 길거리에서 항의하는 모습



출처: 통안부두 전시관

이런 분위기에 1989년 베이징에서 ‘텐안먼 사건(天安門)’이 일어났을 때 진먼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에 나와 베이징 학생운동을 응원하였다. 대륙 동포의 자유, 민주와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은 원래 별문제가 없지만 학생들이 ‘군사 통제를 반대하라’는 것까지 외치는 것은 금기를 범하였다. 게다가 군사 통제로 인해 언론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도 없는 진먼인이 대안(對岸)의 민주운동을 응원하는 것도 매우 역설적인 장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8월 23일에 옹 밉 쑤와 마주인들이 ‘823 진마애향대유행(八二三金馬愛鄉大遊行)’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주로 진먼과 마주 지역은 대만 본섬과 평후도(澎湖)를 지켰으니까 하나의 공동체라서 ‘일국양제’의 민주체제를 실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진먼인 양 수칭(楊樹淸)이 진먼보도(金門報導)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계엄령을 돌파하며 군사 통제를 타파하라’는 취지에 창간한 민간잡지였다. 그래서 정부측에서 이 잡지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오랫동안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진먼인 사이의 중요한 화제가 되었다. 이 잡지는 총 3년 9개월 발간했으며 진먼 민주화운동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목격하는 중요한 잡지였다. 1991년 5월 7일 진먼보도의 직원들과 진·마인들이 ‘507 반진마계엄(反金馬戒嚴)’운동을 벌이며 입법원 앞에서 국방부가 진먼과 마주 지역에서 계속 ‘제2차 계엄’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11일 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507 반진마계엄’운동은 비록 국방부가 ‘통제 감소’와 ‘출입검사’ 등에 대해 양보를 해서 마쳤지만 진·마지역이 본격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다음해 11월 7일이었다.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는 그날에 진먼보도의 직원들이 1000m의 폭죽을 진청정신보루(金城精神堡壘)에서 진먼지방법원까지 끌고 경축하였다 (陳水在.2001,楊樹淸,1998) .

1994년 진먼에서 최초의 민선 현장을 선거하였고 천 쉘쨌이(陳水在) 현장 시기에 주요한 목표의 하나는 진먼을 ‘전략의 섬(戰略島)’에서 ‘일반 현(常態縣)’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민주화’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진먼을 ‘국토계획’의 일환으로서 발전시키며 진먼의 ‘생활권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며, 진먼의 인프라 시설과 민생공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반 현’으로 회복한다(陳水在.2001 : 158).

그리고 전쟁 때 진먼 주민들이 겪어본 고통을 위로하면서 철근에 의해 찾아온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1996년을 기준으로 진먼주장(金門酒廠)<sup>44</sup>의 연간 매출액이 20~30 대만 달러에 달하니까 진먼 현정부는 진먼인에게 진먼주장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3 대 명절 때 주민들이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고량주를 살 수 있으며 또한 고량주의 수익으로 이용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학비나 잡비 면제와 대중교통 무료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진먼의 인구가 점점 늘어났다. 심지어 ‘아들을 낳는 것보다 쉘쨌이를 뽑는 것은 더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이 진먼에 사는 것은 대만 본섬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陳水在.2001 : 15). 오늘날 이런 고량주 복지가 젊은 세대를 경쟁력을 잃게 할까, 그리고 인구의 증가함에 따라 진먼현의 재정부담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오

---

<sup>44</sup> 진먼주장(金門酒廠)은 고량주를 위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자 고량주 양조는 진먼 지역의 유일한 대형 공업이다. 1952년, 진먼 최초의 구룡강주장(九龍江酒廠)이 설립되었다. 처음에 일종의 군수(軍需) 공업으로 설립했는데 정부 고위층이나 외국 귀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1977년 국가 독점 판매 체계에 넣어 대량생산을 하며 본섬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2년까지 판매 수량이 ‘대만 지역 담배 및 술 독점 판매법’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래도 진먼은 ‘물자공용처’와 ‘진먼주창’ 양대 수입에 의지해 냉전시기에 경제자립의 모범현이 되었다.

랫동안의 전쟁과 군사통제를 겪은 진먼인들에게 계엄령 해제와 철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진먼의 전략적 중요성이 사라진 충격의 완화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비록 정치적 탈냉전은 민주화운동과 계엄령 해제에 따라 1992년부터 점차 실현해 왔지만 진먼의 해안가 곳곳에 매설된 지뢰는 보이지 않는 군인처럼 아직도 진먼인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심지어 관광객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어 진먼의 지역 발전을 견제했다. 1996년부터 진먼방위사령부에서 지뢰제거를 하기 시작했지만 경비와 지뢰제거능력의 한계로 제거 작업의 속도가 너무 느렸다<sup>45</sup>. 2005년 4월에 어떤 저수지의 공사를 하려고 주변 지뢰를 제거하다가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진먼의 지뢰 문제는 다시 관심을 받게 되어 2006년에 드디어 ‘살상용 지뢰 통제 조계’라는 대만 지뢰제거에 관한 첫 조례를 통과했다.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뢰제거 대대(排雷大隊)’를 조성하며 지뢰 제거 전문가를 훈련하기 시작했다. 총 두 단계로 나뉘어 2013년까지 약 10만 개(3,060,962 m<sup>2</sup>)의 지뢰를 제거했다<sup>46</sup>. 군사적 탈냉전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

<sup>45</sup> 1998~2001년 기간동안 대만 국방부는 5억 대만 달러를 써도 겨우 1,559개(6만 제곱미터)의 지뢰를 제거하였고, 진먼현청은 1999~2002년에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6,804개의 지뢰를 제거했다.(오준방·정근식, 2014. 진먼도 냉전생태의 형성과 해체. - 지뢰전시관 형성의 경로를 따라서, 사회와 역사 제 104집(2014년). p 7-43. 한국사회사학회:24)

<sup>46</sup> 오준방·정근식, 2014. 진먼도 냉전생태의 형성과 해체. - 지뢰전시관 형성의 경로를 따라서, 사회와 역사 제 104집(2014년). p 7-43. 한국사회사학회:23-32)

### 3 장 이산가족문제의 추이와 방문관광

#### 1절. 가족이산과 통우문제

‘烽火連三月 (봉화연삼월),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은 중국 시인 두보(杜甫)의 시 ‘춘망(春望)’에서 나온 문구이고 전쟁으로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가 모르는 상황에 이때가 ‘가서(家書, 가족의 편지)’ 한 통을 받으면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만 냥의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이다.

냉전 시기에 대만에 있는 외성인 노병들이 중국 대륙 고향의 친척과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비첩죄(匪諜罪)’로 뒤집어쓸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또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행정구역을 여러 번 개편해서 노병들은 기억하는 주소가 실제 주소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걱정과 기대의 마음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큰 봉투 속의 작은 봉투’라는 가서(家書) 형식은 양안 냉전의 특이한 풍경이 되었다. 송달 방식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해외 친구에게 보내고 친구가 다시 외국에서 중국 대륙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화교나 외국 친구가 귀국할 때 홍콩을 경유하면 그들에게 편지를 홍콩 우체통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연락이 닿는 가족들도 홍콩이나 일본 혹은 미국을 통해서 답장을 보내는 것이다<sup>47</sup>. 그러나 이런 송달 방식은 종종 수개월이 걸린다. 예를 들어, 외성인 노병인 가오 빙한(高秉涵)이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석 달을 거쳐 마침내 동생에게 보내졌다. 이런 편지는 보통 큰 봉투에 외국 우표가 붙어 있고 작은 봉투에는 ‘공비(共匪)’의 우표를 붙인다<sup>48</sup>.

<sup>47</sup> 华夏经纬网, ‘百万台湾老兵返回大陆探亲内幕’, 2008-11-03

<sup>48</sup> 崔企川, 「大信封裡的小信封」, 台灣外省人生命記憶與敘事資料庫-家書.

1979년 1월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고대만동포서'(告台灣同胞書)를 발표한 후, 진마 지역에 대한 포격을 중지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통항통우(通航通郵)'하자고 건의했다. 5월, 중국우전부(中國郵電部) 각 성에 '대만 우편물의 수신 확대에 관한 규정(關於擴大收寄台灣郵件的規定)'를 보냈고 대만으로 보내는 등기우편 업무를 회복했다. 10월, 중국 대륙 인민들에게 대만을 소개하기 위해서 중국 우전부는 '대만의 풍경(台灣風光)'이라는 우표 6종을 발행했다. 1981년 1월, 중국 우전부 우정총국(郵政總局) 옌샤오핑 국장은 대만으로 공문 한통을 보냈다. 공문에는 우정인원으로서 마땅히 가능한 빨리 중국과 대만에 사는 전 국민들에게 직접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골육 동포에게 직접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은 특별히 그 해의 설날 이전에 보냈지만 3월에 대만에 의해 반송되었다<sup>49</sup>. 같은 해 5월, 중국 우전부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쓴 '전우만리 · 국맥소계(傳郵萬里 · 國脈所系)'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그림 3-1). 우정사업이 국가의 명맥과 직결되어 있고, 인민에 대해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으므로 양안의 직접 통우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뜻이다. 9월 예젠잉(葉劍英)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은 '통우'가 삼통의 최우선 업무이어서 빨리 추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50</sup>.

---

典藏編號：000692.

-<http://ndweb.iis.sinica.edu.tw/TWM/Public/content/story/collectable.jsp?pk=692>

<sup>49</sup> 劉建輝.2012.第一封飛越海峽的郵政公函,『集郵博覽』, 2012, Issue 01, pp.24-26

<sup>50</sup> 龔達才.兩岸通郵,『中國郵政』情系萬家 40年輝煌歷程,pp33-34

그림 3-1 '전우만리 · 국맥소계(传邮万里 · 国脉所系)' 기념우표



출처: 京東商城

중국은 일방적으로 먼저 대만으로의 우편 업무를 시작했다. 주로 홍콩 우체국을 통해 대만으로 송달했다. 당시 대만 정부의 양안 정책은 ‘불접촉(不接觸), 불담판(不談判), 불타협(不妥協) 등의 삼불정책(三不政策)’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낸 편지들이 전부 다 무사히 수취인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보통 우편은 대만 우정부서에 의해 ‘이 주소 없다’나 ‘이 사람 없다’, 혹은 ‘수취인 거부’ 등 이유로 반송된다. 그래서 중국의 적극적인 통우에 비하면 대만 정부는 인정사정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만 사회에서는 통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987 년 외성인 노병들이 ‘회가(回家, 집으로 돌아가기)’운동을 일으켰다. 대만 정부가 조건부로 대만 민중들에게 중국 대륙에 가서 친척방문을 개방했다. 하지만 직접 통우를 개방하지 않아서 대만으로 돌아가면 중국의 친척과의 연락이 또 다시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외성인 노병들은 헌법에 의한 ‘통신자유(通信自由)’와 봉사로 서신 배달에 돕겠다는 조건으로 정부가 더 이상 대륙에

서 보내온 우편물을 수령 거부로 반송하지 않기를 바란다. 통우의 요구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확대하며 대만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동정을 표시하므로 대만 입법원은 1988년 3월에 조건부로 ‘통신 불통 우편(通信不通郵)’을 선포했다. 즉 대만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편지는 반드시 두 개의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겉봉투는 수취인 이름이 ‘우편 50000 호 우편함 수(郵局第五〇〇〇〇號信箱收)’이고 발신인의 이름과 대만 주소를 써놓은 중국식 봉투이다(그림 3-2). 안쪽에는 ‘홍콩·내상(內詳, 편지 안에 자세히 썼음)’이라는 글을 적여 있는 서양식 봉투이고 대륙의 친척 이름과 주소를 써 놓는다(그림 3-3)<sup>51</sup>. 이런 편지는 먼저 대만 적십자회로 보내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國泰航空)이나 드래건(港龍)항공을 통해 홍콩으로 보내다가 홍콩 우체국을 경유하여 대륙 친척들에게 편지를 송달한다. 이 시기를 ‘홍콩·내상’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張忠恕.2012 : 62) .

그림 3-2 대만의 우편 50000 호 우편함 수(郵局第五〇〇〇〇號信箱收)



출처:中央社, 兩岸郵件往來 曾經歷雙封包裝國名塗銷[影]

<sup>51</sup> 時報周刊, 第 210-217 期, 1989,45 頁

그림 3-3 '홍콩·내상 (香港·内詳)' 봉투



출처: 南京李茂长的博客, 1988年5月4日的“香港内详”封

1989년 6월 7일 대만 정부는 ‘대륙과 통화(通話)와 통우를 개방한다’고 선포했다. 10 일부터 수속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대만 측은 봉투에 직접 대륙의 수신자 주소를 쓰도록 해서 7 월 1 일에 적십자회도 대리송달의 업무를 중지했다<sup>52</sup>. 비록 여전히 홍콩을 거쳐야 해서 작업 시간을 많이 절약했다. 하지만 이때는 ‘6·4 텐안먼 사건’이 막 막을 내려서 중국은 좀 예민한 시기였다. 그래서 중국 측은 대만 측이 갑자기 통우를 개방하는 것이 대만의 일부 사람이 통우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편지 안에 정치적 선전 내용을 담은 전단지나 우표, 혹은 엽서를 넣어 ‘6·4 텐안먼 사건’을 응원하거나 반공선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렇게 하면 양안의 모처럼 찾아온 평화로운 분위기를 파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기 위해 대만의 우정총국에서 이렇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로써 1989 년 말까지 양안 쌍방향 통우의 성과는 1500 여만 건, 1991 년 약 2387 만 건에 달했다 (张忠恕.1990;张忠恕,2012;龚达才 2018).

<sup>52</sup> 夏大緯, 香港·内詳改郵政公事封, <http://blog.sina.com.tw/twhsia/article.php?pbgid=87951&entryid=593595>

양안의 이산가족은 마침내 정정당당하게 편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근황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은 약속이나 한 듯이 '부당문자(적절하지 않은 글자)' 제거 작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대만 측은 흑필과 '삼민주의통일중국,자유민주안화락리(三民主義統一中國, 自由民主安和樂利)' 같은 글자를 새기는 도장으로 중국에서 온 우편물 위의 국호, 국기 또는 국장을 지운 것이었다(그림 3-4). 반면에 중국 측도 물결무늬의 전용도장(波纹戳)으로 중화민국의 국명을 덮은 것이었다(그림 3-5). 대만 측은 1989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제거 작업을 중지하는데 중국 측은 2014년까지도 사용하는 성(省)이 있지만 많은 곳에서 1993년에 사용을 중지하였다<sup>53</sup>.

그림 3-4 대만의 '삼민주의통일중국,자유민주안화락리' 도장이 찍혀 있는 편지



출처:蘋果日報, '兩岸通郵 兩岸曾用這招互蓋郵票國名', 2017.10.11

<sup>53</sup> 蘋果日報, '兩岸通郵 兩岸曾用這招互蓋郵票國名', 2017.10.11

<https://tw.appledaily.com/new/realtime/20171011/1220514/>

南京李茂长\_新浪博客, "邮票涂抹专用戳"使用的几个问题, 2015.04.24

[http://blog.sina.com.cn/s/blog\\_593a1ac50102vfum.html](http://blog.sina.com.cn/s/blog_593a1ac50102vfum.html)

그림 3-5 중국의 물결무늬 도장이 찍혀 있는 편지



출처:南京李茂长\_新浪博客,“邮票涂抹专用戳”使用的几个问题,

양안은 우표를 도장으로 덮는 것은 우표가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표는 1840년 영국인 Rowland Hill이 우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채택한 요금 계산 방식이었다. 즉, 발송인이 일정된 요금을 지불한 후에, 우표를 이미 지불한 증명으로 삼는 것이다(Henio Hoyo, 2010:71). 우표의 유동성은 세계 각국의 정부로 하여금 점점 우표가 홍보, 교육의 기능을 갖는 뿐만 아니라 민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작은 광고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냉전 기간 동안 우표는 심지어 미국이 소련 집단 국가들의 정책 메시지를 수집한 경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나토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토의 회원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나토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Modarressi, Matin, 2017 : 196-197).

우표는 국가 이미지의 정치, 문화 등의 의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명함'이라고도 한다. 대내적으로, Brunn, Stanley D (2011)는 우표가 일반 민중의 삶에서 국가의 공식 입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자로 여긴다. 특히 정치와 경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George Gerbner 의 ‘상징적 파멸 (symbolic annihilation)’이라는 개념과 눈에 띄고 잇을 수 없는 도식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주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Henio Hoyo (2010) 는 우표가 국가에 의해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사와 특징, 구성과 발전을 포함하며 정부의 국각 상상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순수한 우편물의 배달을 통해 식별 가능한 기호로 국내외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권실체(new sovereign entity)들이 구정권과 구별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합법화시키고 자결권을 확립시키기 위해 국경 검문소를 세우고 국기를 게양하는 것 외에, 자신의 화폐, 여권 그리고 우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Henio Hoyo 2010; Timothy, Dallen J 2001) . 이 때문에 1949 년 양안 분단 이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우표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정권의 유일한 합법대표임을 대내외에 선전하였다(黃猷欽.2010).

대만 우표의 선택과 승인은 항상 심각한 정치화 과정이었다. 장제스 시기에는 우표의 설계에 대한 개입은 많았다가 장경국 시기에 이르러서야 우체국이 비교적 많은 자주권을 누리게 되었다 (Deans, Phil ,2005 : 10) . 1950 년대 대만에서 발행된 우표 중에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는 주제가 반공복국(反攻復國)과 원수 (元首) 이미지, 국제 관계, 중국 문화, 대만 본토 건설과 풍토 등 있다. 그 중에 특히 반공복국과 원수(장제스)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우표가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중국 문화에 관한 우표는 거의 없었다. 1960 년대 이후 중국 문화와 대만의 건설과 풍경 같은 우표가 크게 늘었다<sup>54</sup>. 반공복국 우표는 대만인들이 대만 섬이 '수복해야 할 국토'에서 '국토수복의 기지'로 바뀌었다는 점을 일깨

---

<sup>54</sup> 隨信附上一解讀 1950 年代郵票的政治意涵. 研究：北一女中三年級周侑萱、黃宇婕、劉柔妤. 指導教師：吳明勇教授、陳惠珠老師.

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만 주변에 빛나게 그린 것은 대만이 민주세계의 반공산주의 집단의 등불이라는 뜻이다(그림 3-6). 원수의 이미지 우표는 중화민국 국부인 쑨문과 총통 장제스의 초상을 위주로 했다. 발행 시기는 보통 건국, 창당, 취임, 생신, 기일 등이었다. 이는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신조를 가진 우표이다(Brunn 2011). 예를 들어 ‘장총통의 존영(蔣總統玉照)’으로 주제로 하는 우표는 주로 장제스의 공적을 찬양하며 장제스는 중화민족의 구세주임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림 3-7). 특히 1959 년 발행된 쑨문과 미국 링컨 대통령의 ‘민주의 멘토’ 우표는 링컨이 제시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과 쑨문의 삼민주의 사상인 ‘민족, 민권, 민생’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우표는 냉전시대에 중(대만)·미가 같은 진영의 우호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만인들에게 삼민주의 사상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비민주적이고 자유롭지 않은 공산주의의 손아귀에 사로잡힌 동포들을 구하자는 정의감과 동포애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림 3-6 1957 년~1962 년에 사용했던 '중화민국(中華民國)'우표



출처: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우표보물

그림 3-7 1958 ~ 1962 년에 사용했던 ‘장충통의 존영’ 우표



출처: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우표보물

1958-62 년 기간 동안 중국은 농업 집단화와 대약진운동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기근을 겪게 되어 약 3 천 6 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楊繼繩,2009). 그러므로 대만 정부가 1963 년 ‘대륙난민동포가 자유로 달려가는 기념우표(大陸難胞奔向自由紀念郵票)’ 2 종을 발행했으며 이들 우표의 도식은 다 어두운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는 도움이 없는 농가의 부인이 우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가 도망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그림 3-8). 그들의 목적지는 오로지 자유롭고 부유한 대만 섬이다. 이 우표는 4 백만 장이 발행되었다. 이 우표들을 보면, 우표가 정부의 이데올로기의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것이 분명해 보인다(黃猷欽.2010:544).

한편 국제적 주제 (International subjects) 의 우표는 보통 기념우표로 발행된다. 예를 들어, 유엔의 각 조직의 기념을 주제로 발행하는 우표다. 1971 년 중화민국이 유엔을 탈퇴하기 전에 국제적 주제의 우표를 특히 많이 발행했다. 이런 유형의 우표는 중화민국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임을 대만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고 국제

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에 맞서는 대만인의 자신감과 용기를 강화시켰다. 물론 이도 정치적 합법성을 얻는 수단 중의 하나다 (Deans, Phil ,2005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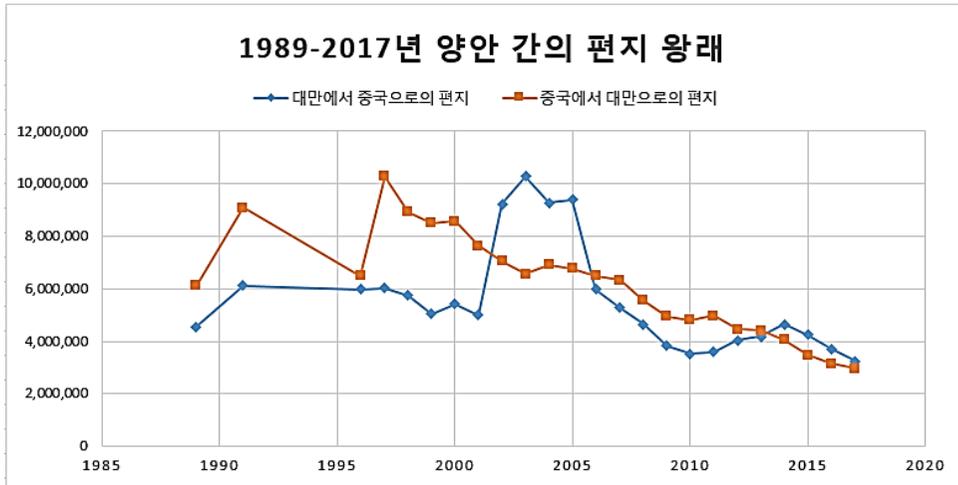
그림 3-8 ‘대륙난민동포가 자유로 달려가는 기념우표(大陸難胞奔向自由紀念郵票)’



출처:중화우정 글로벌 정보망·우표 보물

양안을 왕래하는 우편물에는 '광복 대륙'이나 '대륙난민동포'와 같은 민감한 우표를 일부러 붙이지 않지만 양안 정부는 우표의 선전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글자를 국호나 정치 이데올로기 구호 등 도장으로 '지우'면서 홍보한다. '지우다'는 동작은 '잘못된 것을 삭제하다'는 뜻이어서 상대 정권을 부정하는 의미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양안은 1989 년에 통우를 개방한 이후, 왕래하는 편지가 매년 백만 통이 넘는다. 중국에서 온 편지는 1989~1991 년 기간 동안 정점에 이른 뒤 대폭 감소하다가 1996~1997 년경에 갑자기 또 크게 증가했다(그림 3-9).

그림 3-9 1989-2017년 양안 간의 편지 왕래



출처:중화민국교통부,교통 연감

1978 년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다음에 중국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점차 나아졌지만 같은 시기에 대만의 경제체제의 성공과 1986 년~1990 년 기간 동안 대만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고 주식시장의 호황에 비하면 대만인들의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좋았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 대륙에 친척방문하러 가는 외성인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늘 ‘금의환향’으로 여겨서 서로 왕래 하는 편지 중에는 대만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이나 약품(간장병약 이 가장 많다) 혹은 소형 가전제품 등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많다.

옛날에 남들에게 무시당한 흑오류이었어<sup>55</sup>. 지금 대만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돈을 부쳐 주니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

<sup>55</sup> 인터뷰할 때 한 중국 기자가 ‘문혁시기에 푸젠성 사람들이 대만의 친척이 많기 때문에 청산당하지 않지만 내륙 사람들이 대만 친척이 한 명 있어도 청산을 당했어. 그래서 대만인은 우리 내륙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때 진먼 출신과 대만 출신 사람들이 흑오류로 분류하는 것은 책이나 신문에서 언급하고 친척방문했던 대만인도 기억하는데 내륙 주민만 청산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지. 그 때 대륙은 금의 수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우리는 금반지로 만들고 가져갔지. 조금 더 작으니까.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50 이나 60 개의 반지를 가져갔어.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나눠줬지. 이거 종족들에게 준 선물이다. 자신의 재부를 과시하는 것지. 금의환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왜 돌아가? 그래서 각 방의 친척들에게 금반지를 몇개씩을 주고 마음에 든 친척에게 몇 개 더 주는 거지. (진먼인 차이 쓰밍)

그 중에 비교적 특별한 것은 ‘차오회(僑匯) 권’이었다(그림 3-10)<sup>56</sup>. ‘차오회권’은 해외나 대만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1958 년부터 1994 년까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했던 일종의 물자권이다. 여러 가지의 액면가가 있고 사용 기간도 있다. ‘차오회권’이 발행된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50 년대 미국의 압력으로 해외 화교들이 이주국에 의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했다. 홍콩 등지를 경유해서 돈을 보내도, 대륙의 가족들이 해외 자본주의자와 관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까봐 돈을 찾으러 못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 둘째, 그 당시 중국은 물자의 계획적 공급을 실행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물자를 살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1960 년대 중국 국내의 물자가 부족했다<sup>57</sup>. 발행된 계기는 중국공산당 고위층은 화교들이 보내는 외화가 국가의 외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雷強&黎熙元.2008:101). 심지어 당시 저우 언라이(周恩來)는 ‘차오회’를 보호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리하여 화교 가정의 물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58 년에 푸젠성부터 먼저 ‘차오회권’을 발행

<sup>56</sup> 台灣中央研究院, 2007. 「台灣『外省人』生命記憶與敘事資料庫」의 「家書值千金」檔案。

<sup>57</sup> 侨汇券的那些事儿. 上海侨报. 中国侨网. 2009-02-02

하다가 광둥(廣東)과 광시(廣西) 등 13개의 유명한 교향(僑鄉) 지역에서도 발행된다. 이용방식은 차오회권에 표시된 물자(상품)를 지정된 차오회상점(일명 화교상점)구매할 수 있다. 차오회권은 우표의 크기와 같지만 마오타이주 또는 '다첸먼(大前門)' 담배 등 중국제 사치품은 물론이고 텔레비전, 자전거, 시계, 냉장고 등 '고가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胡子民, 2013"57).

내 후난(湖南) 출신의 고모부가 진먼에 와서 내 고모랑 결혼했어. 양쪽에 다 가족이 있어. 그래서 항상 중국으로 돈을 보냈지. 퇴직급 몇 만원을 보냈어. 그 당시 몇 천원의 인민폐가 있어도 난리 났는데. 그 때 '4 대건(四大件, 네 가지의 큰 가전 제품)을 가져 갈 수 있다. 세탁기와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가져가서 팔아. 팔고 받는 돈을 다시 종족 사람들에게 나눠 줘. 보통 홍콩에서 샀대. 물건을 사가는 것 아니고 어떤 권(차오회권)을 사는 거다. 보통 이 네 가지의 가전 제품을 살 수 있어. (진먼인 차이 쓰밍)

(1987년 이전) 내 이모가 대만에 있어. 그때 공산당은 정책이 하나 있어. 바로 홍콩에서 대만 친척을 만나게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못 오고 우리도 가지 못해서 홍콩에서 만나라 이거지. 대만 친척이 준 선물을 면세로 가져올 수 있어. 보통 '3 대건 3 소건(三大件三小件)'이다. '3 대건'은 텔레비전과 세탁기, 냉장고, '3 소건'은 선풍기와 자전거 등을 가리켜. 작은 가전은 비교적으로 값싸다. 공산당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가 양안 교류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물건들이 중국에서 그때 아직 생산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도 이모를 만나고 텔레비전을 가져왔어. 마침 내가 신

혼이어서 가전이 필요했어. (중국 모 황씨 종친)

그래서 중국 작가 루윈푸(陆文夫)는 자기의 저서에서 차오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질투게 한 것이다’고 표현했다. 그 당시 해외에 있는 화교나 대만에 있는 외성인들이 차오희권을 통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체면 있게 만들었다. 특히 ‘적대 대상’이었던 대만에서 온 송금이라면 서로의 염려와 온정이 더욱 느껴진다. 차오희권은 개혁개방과 1994년 중국이 국가외환관리체제를 개혁한 후에야 사용이 중단되었다.

그림 3-10 1966년 발권한 광둥성 차오희권(僑匯券)



출처:徐宝朝专题收藏研究侨汇券的事迹介绍<sup>58</sup>

또한 중국은행에서 발급된 외화태환권(中国银行外汇兑换券, 이하 외화권)도 대만인의 신분이 달라 보이게 한다. 외화권은 1980~1995년 기간 중국은행에서 발행되어 인민폐와 값이 같으며 지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일종의 특정 화폐이었다.

<sup>58</sup> [http://blog.sina.com.cn/s/blog\\_ed5944fb0102x18y.html](http://blog.sina.com.cn/s/blog_ed5944fb0102x18y.html)

1970년대 후반부터 발전된 중국의 관광업과 점차 증가하는 대외적인 경제·문화교류 활동으로 인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화교,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 사람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특별히 발행되었다. 외화권은 위안화로 살 수 없는 고급 상품을 살 수 있고 외화를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위안화라고도 불린다 (沈居安 2013 : 52)。

1994년 대만 관광객들이 중국 저장(浙江)에서 벌어진 '첸도후(千島湖) 납치 살해 사건'과 1995년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미국 방문 때의 '중화민국 재(在) 대만' 발언, 그리고 1996년 대만에서 거행된 최초의 직선 총통·부총통 선거 등 이유로 양안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제 3차 대만해협 위기까지 벌어지면서 중국에서 온 편지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대만의 노병들의 별세와 중국의 경제 굴기,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 등과도 관련이 있다.

## 2절. 중국의 개방과 가족방문

1981년 9월 30일, 예젠잉(葉劍英)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이 신중국 성립 32주년 축제 행사 전날에 9가지의 지침을 발표했고 조국 통일의 대업에 이루어기 위해 세 번째의 국공협력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양안이 '삼통사류(三通四)'를 촉진하자고 제안하며 특히 양안 인민들이 먼저 소식을 주고받고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을 강조했다. 10월 9일에 중국공산당 중앙위 주석인 후 야오방(胡耀邦)도 '신해혁명 70주년 대회'에서 장징궈 등에게 대륙과 고향의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중국 측이 대만에 대해 호의를 보여 주는 것은 1979년 장징궈가 제시한 '3불정책'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화와 교류가 있어야 양안이 평화통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과의 평화교류 최고

원칙은 바로 예젠잉의 ‘엽구조(葉九條)’를 관철하기 위해 중국이 대 대만의 교류 기구와 조직이 잇달아 설립했다. 예를 들어, 중화 전국 대만 동포 연의회(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 이하 전국타이렌) 등 있다(邓书杰,李梅,吴晓莉,苏继红,2013:158-162).

1986년 5월 3일 대만의 중화항공 기장과 조수석, 기계사 3명이 대만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방향을 바꿔 중국 광저우로 착륙했다. 쓰촨(四川) 출신의 기장 왕 씨취(王錫爵)가 중국 당국에 조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 정부의 ‘삼통’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양안 분단 37년만에 이산가족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은 대만 정부의 ‘3불’원칙을 타파하여 양안의 항공사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나머지 두 명이 대만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상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사회의 동정을 불러일으켜 대만정부에 빨리 대륙 출신 노병들을 친척방문할 수 있게 허락하라고 재촉했다(马振犇,2012:129-131).

1987년 10월 15일 대만행정원은 '대만 지역 민중의 대륙 방문 방법'을 통과하자마자 다음 날에 중국 국무원은 "대만 동포의 조국 대륙 친척방문 및 여행에 관한 접대 방법(关于台湾同胞来祖国大陆探亲旅游接待办法)"이라는 통지를 발표했는데 총 7개 사항이 있다<sup>59</sup>. 이 통지문에서 중국이 대만 동포에게 가장 큰 선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대만 동포를 자신의 국민으로 간주하여 각종 관광의 혜택과 금융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홍콩의

---

<sup>59</sup> 주요 내용은 대만 동포의 친지 방문과 여행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면 대륙 동포처럼 대륙 각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교통권이나 숙박 등도 대륙 관광객과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第 24 號,1987 年 10 月 25 日:798 참조)

중국 여행사가 '대만 동포 여행증명서'를 대리 발급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개방과 선의로 인해 대만의 '귀향' 열풍과 '뿌리찾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 (1) '귀향' 운동과 '뿌리찾기' 열풍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80% 정도가 푸젠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주로 취안저우(泉州)와 장저우(漳州)에서 온다. 이는 대만의 많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거나 이민의 고향의 거리이름 혹은 성씨로 명명하는 마을에서도 이주의 맥락을 알 수 있다<sup>60</sup>. 2015년 제 7회 '해협백성포럼(海峽百姓論壇)'은 '양안 동근·민대일가(兩岸同根, 閩台一家)'의 주제로 푸젠성 우이산에서 개최되었다. 양안 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70여개의 성씨 종친(宗親) 약 1,200명이 참석했다.

"해협백성포럼"은, 천 년 이래의 성씨 문화를 통해서 양안의 평화 발전의 흐름에서 양안 인민이 양안의 공생 공영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려는 취지로 개최된 포럼이다<sup>61</sup>. 2007년 9월 20일, 제 1회 "해협 백성 포럼" 및 민태족보전(閩台族譜展)은 푸저우에서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양안과 홍콩, 마카오, 그리고 해외 전문가 약 27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대만 학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주로 성씨문화, 성씨원류(姓氏源流), 첩보연구(譜牒研究), 그리고 성씨민속과 성씨문화교류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성씨 연구를 추진한 것은 주로 양안 공동의 근원을 논증하고, 서로의 혈연적 공감을 촉진하며, 나아가 양안의 문화적 정체성과 평화통일을 실현하

---

<sup>60</sup> 王大良, 2008. 「閩臺地緣及以姓氏為紐帶的親緣關係」, 『臺灣源流』 45期, pp69-71:61-64

<sup>61</sup> 李道成, 2015. 「千餘閩台宗親 武夷山聚一堂」, 『臺灣源流』; 72&73期, p182

기 위해서이다. 한편, 양안의 성씨연구기관이 번갈아 주최하는 ‘해협양안 청소년 중화 성씨 원류 퀴즈 대회(海峽兩岸青少年中華姓氏源流知識競賽)’는 2019 년까지 이미 11 회 개최되었다.

그리고 ‘뿌리찾기(尋根, 타향살이하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 혈통을 찾다)’는 행사는 민족 결속력 강화에 중요하다.

왕따근(2008) 연구에 따르면 대만 최초의 뿌리찾기 열풍은 1978 년 대만의 '청년전사보(青年戰士報)'에 실린 성씨, 가족, 가보 등을 통해 대만과 대륙의 관계를 고증하는 글에서 시작됐다. 이로부터 대만과 중국은 같은 문화 맥락을 가지는 것에 대해 논증하는 책이 출판되거나 워크숍이 잇따라 개최되었다<sup>62</sup>. 이 ‘뿌리찾기 열풍’은 대만의 본성인이 다시 ‘조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제스를 따라 대만으로 간 외성인들의 향수도 불러일으켰다. 이 ‘향수’는 1981 년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인 예 쥬잉(葉劍英)이 처음으로 통우(通郵), 통상(通商), 통항(通航)의 ‘삼통’ 개념을 제출한 것과 1980 년대 말 대만 민주화 운동에 따라 최고조에 달했다. 1987년 4월 장스장(姜思章)과 허윈더(何文德) 등이 '외성인 귀향 친척 방문 촉진회(外省人返鄉探親促進會, 이하 외성인 귀향 촉진회)'를 설립했다. 설립 목적은 중국 대륙으로 돌아가 친척을 방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구성원 대부분은 노병(老兵)이며 약 6 백여 명이 있다. 이 운동은 당외인사(黨外人士: 국민당에 속하지 않는 제야 정치 인물)의 도움도 받았다. 따라서 당시의 '자유 귀향 운동' 대상은 1949 년 이후 대만에 온 중국인과 1949 년 징병되었거나 생계를 위해 중국에 간 대만인 외에는 국민당 정부에 의해 대만 입국이 금지된 대만인도 있었고 그리고 '입산증'을 신청해야만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주민들도 있다.

---

<sup>62</sup> 王大良, 2008. 「閩臺地緣及以姓氏為紐帶的親緣關係」, 『臺灣源流』 45 期, pp69-71:68-69

그러나 외성인 귀향 축진회는 주로 국공내전 때 국민당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온 노병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1996 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대한 외성인 노병은 574,406 명으로 산둥(山東) 출신(53,055 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둥(廣東) 출신(49,156 명), 푸젠(福建) 출신 노병이 6 위였다(표 3-1).

표 3-1 대만의 외성인(대륙 출신) 성적(省籍)별 노병 수

성적(省籍)	노병 인수(명)	성적(省籍)	노병 인수(명)
산둥(山東)	53,055	쓰촨(四川)	29,943
광둥(廣東)	49,156	장시(江西)	28,835
장쑤(江蘇)	42,856	안후이(安徽)	27,321
후난(湖南)	39,738	후베이(湖北)	23,290
저장(浙江)	38,637	허베이(河北)	14,084
푸젠(福建)	33,958	광시(廣西)	10,461
허난(河南)	30,072	기타	53,928

출처: 1996 년 台灣現有榮民人數－按資深在臺及省籍

1987 년 5 월 어머니의 날에 축진회는 타이페이의 국부기념관에서 ‘상가(想家)’를 주제로 시위를 열었다(그림 3-11). 현장에서 돌리는 전단지에는 장제스의 자손들이 해마다 그의 생신을 축하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는 문구로 장씨 부자는 인정과 의리가 없다는 것을 풍자했다<sup>63</sup>. 6 월 28 일에 ‘집에 가고 싶으면 어떡해’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6 천여명의 노병들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노래하면서

<sup>63</sup> 毛劍杰.2011. 「1987“小兵”推动“老兵返乡”」, 『看历史』, 2011 年 12 期, pp120-127 :125

눈물바다가 되어 버렸다. 당시에는 아직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집회와 시위, 전단지 돌리는 것, 심지어 정부 정책에 반항하여 ‘친척 방문’을 개방하라고 호소하는 행위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때문에 추진회의 창립자들이 가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부인과 이혼을 택했다.

그림 3-11 1987년 '외성인 귀향 추진회'의 '상가(想家)' 시위 장면



출처:觀察.2017.NO.50, 「大陸探親開啟兩岸交流 30 年」

마침내 7월 15일 대만은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15일 행정원은 대만 지역 민중의 대륙 방문 방법(台灣地區民眾赴大陸探親辦法)을 통과시켰다. 전통적인 윤리와 인도주의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sup>64</sup>이 중국 대륙의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적십자사는 11월부터 친척 방문 신청 및 서신 전달 접수를 시작했다. 개방 6개월 만에 등록자 14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많은 노병들이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항의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결국엔 장 징궈(蔣經國) 총통이 "

<sup>64</sup> 현역 군인 및 현직 공직자를 제외하고 대륙에 3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姻戚)이 있는 자는 친척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일 년에 한번 대륙에 갈 수 있고, 한 번은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다.

노병은 반드시 돌아야 한다"고 한 의지와 국군퇴제역장병지도위원회(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의 협조로 모금 행사를 통해 5억 7천만 원을 모금하여, 2만여 명의 노병에게 1인당 2만 원을 보조하였다. 비록 대륙 친척 방문을 개방했지만 양안은 아직 직항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의 2천만 원을 홍콩에 '신안서비스센터(欣安服務中心)'를 설립하여 노병들이 양안을 왕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sup>65</sup>. 12월 1일 대만 지역 민중의 대륙 친척 방문 방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한 달 만에 만여 명이 대륙으로 친척 방문을 떠났다<sup>66</sup>. 대만은 마침내 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다는 3불 원칙을 켜고, 양안도 이산가족 상봉으로 평화 교류의 막을 올렸다(우권광, 2016:235).

## (2) 양안 이산가족의 귀향길

사실은 대만은 본격적으로 친척방문을 개방하기 전에 외성인 노병들이 이미 홍콩을 경유하여 귀향하거나 홍콩에서 친척들과 만나고 있었다. 하지만 1988년 1월 16일에 '외성인 귀향 촉진회'가 이끄는 친척 방문단이 '대만에서 대륙으로 날아가는 비둘기 떼'를 그려 있는 단기(團旗)를 들고 홍콩을 거쳐 대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귀가였다(그림 3-12). 18일에 촉진회는 산시(陝西)성의 황제릉(黃帝陵)을 참배했다. 그리고 양안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평화롭게 단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문<sup>67</sup>을 낭독하

<sup>65</sup> 許歷農.2017. 「退輔會協助老兵返鄉」, 『觀察』2017年10月;NO.50,pp 16-17

<http://www.observer-taipei.com/article.php?id=1698>

<sup>66</sup> 觀察編輯部.2017. 「開放大陸探親大事記」, 『觀察』2017年10月;NO. 50,pp12-16, <http://www.observer-taipei.com/article.php?id=1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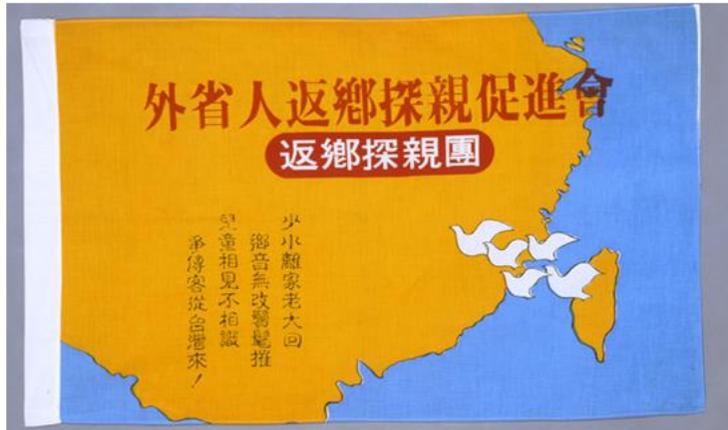
<sup>67</sup> 대만의 역사학자 왕샤오보(王曉波)가 집필한 제문이다. 내용은 '願我先祖, 佑我華胄; 同室止戈, 永棄相殘; 再結同心, 光大中華! (조상들에게 화하(華夏) 후손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중화 민족을 빛낼 수 있도록 보우해주기를 바란다).

였다. 대만에서 가져온 물과 흙도 바쳤다. 황제릉은 원고시대 중국 신화의 인물인 황제(黃帝)의 능이며 황제는 중화민족의 인문초조(人文初祖)로 간주되었다. 능구 동쪽에는 역대 제왕들의 어제제 문비군(御製祭文碑群)이 있고 서쪽에는 홍콩회귀기념비(1998)와 마카오회귀기념비(2000)가 있으며 조상에게 홍콩과 마카오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렸다. 기념정 안에는 중화민국 설립 이후 쑨문과 장제스가 쓴 '황제릉'이라는 글이 있고 마오쩌둥이 쓴 '황제릉제문'도 있다. 그래서 황제릉은 중화민족의 근원적 상징이자 중화문명의 정신표지일 뿐 아니라 정치통치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sup>68</sup>. 중국 국무원은 1961 년에 황제릉을 제 1 차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단위와 국가 5A 급 관광지로 지정했다. '천하제일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제릉 자체의 정치적 함의는 축진회의 참배에 정치적 색채를 더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고향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에 직면하는 일부의 노병들에게 공동의 시조를 상징하는 황제릉은 그들에게 마음상의 공동 귀속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이번 참배도 양안 간 직접 교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하며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심정을 남김없이 나타낸다.

---

<sup>68</sup> 吴绍礼;田立阳,「黄帝陵：中华文明的精神标识」, 人民网, 2017年03月24日. <http://theory.people.com.cn/n1/2017/0324/c40531-29165981.html>

그림 3-12 '외성인 귀향 친척 방문 촉진회'의 단기



출처: 중국 국가박물관

살아 있는 노병은 귀향할 수 있지만 죽은 노병의 귀향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노병의 유해 송환은 국가와 국가 간의 사무인데 대만의 정치적 지위가 모호한 데다 유가족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무명 유해라면 DNA 감식을 거쳐 신원을 확인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안의 군인 유해 송환 문제는 민간 사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산둥성 출신이고 열세 살 때 대만으로 피난하러 온 외성인 노병인 가오 빙한(高秉涵)이 친척 방문 개방 이전에 세상을 떠난 노병들을 ‘집으로 보내다’는 의거가 벌어진다. 그는 1991년부터 20여 년 동안 약 150명의 노병들의 ‘돌아갈 데가 없는 귀신이 되기 싫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대부분은 산둥으로 돌려보내고 가장 멀리 있는 간쑤(甘肅)로 보낸다. 외성인 노병은 대만에서 '영민(영예국민)'으로 불리고 '국군퇴제역장병지도위원회'에서 제대 후 생활, 취업과 의료 문제 등을 협조하고 있지만 계급이 낮은 노병들은 냉전 시기에 국민당의 '금혼령' 정책이나 본성인들이 그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결혼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변호사로서 생활조건이 비교적 좋은 가오 빙한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를 도와준다. 비록 친척 방문 초기에는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대륙의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했지만 현재 82세의 고령인 가오 빙한은 계속 시들어가는 노병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바로 "형님, 우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는 것이다. 2013년에 중국에서 그를 '2012년 중국 감동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어 양안의 '안혼자(安魂者)'로 불린다<sup>69</sup>.

무명 유해를 또 다른 안치하는 것은 종교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청나라부터 푸젠성이나 광둥지방에서 온 중국 대륙 이민자들이 대만에서 땅을 쟁탈하거나 족군간의 분쟁으로 인해 종종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충돌이 벌어져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대만에 온 한족이 대부분 젊고 힘센 총각이었다. 집도 없고 아내도 없으므로 죽으면 항상 집단으로 안장했다. 이들을 모시는 절은 많은 이름이 있는데 '만선사(萬善祠)' 또는 '만선묘(萬善廟)'가 그 중 하나이다. 사실 대만의 여러 현사에서 이런 '무주고혼(無主孤魂)' 신앙을 흔히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음묘(陰廟)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조차 함부로 제사를 지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의 절은 주민과 신자에 의해 신격화되어, 일반 절과 같이 분령(分靈)과 향을 나눠 자기의 분신(分身) 절을 만들 수 있다<sup>70</sup>.

전장이었던 진먼도의 '만선사'도 모시는 신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첫째, 청나라 때 해전으로 전사한 망혼을 모시는 절이다. 예를 들어 진청(金城)의 '만선야궁(萬善爺宮)'이다. 둘째, 일제 시

---

<sup>69</sup> 현재 중국에서는 가오 빙한의 의거와 전쟁인생에 대해 두 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오 빙한 회고록(回家的路: 高秉涵回憶錄)'과 '중국 노병의 안혼곡(中國老兵安魂曲)'이다. 대만에서 출판된 '안혼천애로(安魂天涯路)'는 '중국 노병의 안혼곡' 중 가오 빙한 부분을 발췌하여 출판하였다.

<sup>70</sup> 戴文鋒(Wen-Feng Tai).2011. 「臺南地區民間無祀孤魂轉化為神明的考察」, 『臺灣史研究』 ; 18卷3期(2011/09/01), P141-173:141

기에 선난으로 돌아가는 망혼을 모시는 절이다. 예를 들어 후터우(后頭)의 만선사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냉전 기간 동안 전사한 군인 망혼을 모시는 절이다. 국공 상륙전의 옛전장에 위치하는 구닝터우전사관(古寧頭戰史館) 오른쪽에도 2008 년에 진면방위사령부(金門防衛司令部, 이하 진방부)의 지뢰제거대대가 지뢰를 제거했을 때 발굴된 수천 개의 주민의 조상 묘지와 1949 년 구닝터우전투 때 전사한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의 유해를 모시는 만선사(萬善祠)가 있다<sup>71</sup>. 선민과 전몰 영령을 안장하기 위하여 2010년에 이 만선사를 지었다. 완공 당시는 마침 구닝터우전투 61 주년을 맞이해서 이 절의 설립 의미가 더욱 깊다. 구닝터우는 중공군이 유일하게 진면도에서 상륙작전을 펼쳤던 곳이기 때문에 중공군에게 있어 많은 동료들이 여기서 영면했다. 소삼통 실시 초기에 중국인들이 진면에 올 수 있지만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구닝터우에서 전사한 중공군들에게 베이징의 이과두주 한잔을 바치기 위해 규정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이 있었다<sup>72</sup>.

진면의 또 다른 구닝터우전투의 전몰자의 유해가 묻힌 곳이 바로 태무산에 있는 군인 공동묘지의 ‘천인총(千人塚)’이다. 2012 년 8 월 중순에는 진면 해인사(海印寺)와 샤먼 남보타사(南普陀寺)가 공동으로 ‘양안의 영구평화를 기원하며 재난해소 및 양안 전몰장병대법회(祈禱兩岸永久和平消災祈福暨超薦兩岸陣亡將士大法會)’를 개최하였다. 법회의 주최장은 진면현립체육관이고 법단의 우측에는 대만군의 전몰장병의 위패가 있고 좌측에는 중공군의 전몰장병의 위패가 있다. 법회에 참여한 28군, 29군의 중공군 참배단은 좌

<sup>71</sup> 金門戰地史蹟論壇:記錄金門戰地戰史-見證金門戰地歷史,「古寧頭萬聖祠」, 2010.8.6. <http://ttt0920.pixnet.net/blog/post/99711393-%E5%8F%A4%E5%AF%A7%E9%A0%AD%E8%90%AC%E8%81%96%E7%A5%A0>

<sup>72</sup> 姜从华.2004.赴金門祭扫烈士记,『福建党史月刊』, 2004, Issue 8, p.33

측 중공군 장병 위패 앞에서 스스로 정리된 300 명의 열사 명단을 묵념했다. 그리고 나서 태무산 군인묘지에 가서 ‘천인총’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했다. 그 후에 120 명의 고승이 태무산에서 농고어(隴口) 지역을 경유하여 구녕터우의 만선사로 영혼견인의식을 거행하였다. 만선사는 법회의 분(分)회장로서 절 안에도 ‘구녕터우 중공군 전몰 군혼 신위(古寧共軍戰殞軍魂神位)’라는 위패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회는 중국 정부에서 사람을 파견하지 않았다<sup>73</sup>.

2015년에 또 '양안의 영구평화를 기원하는 기복대법회'가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지며 난푸타사 123 명, 대만과 진먼 40 명, 총 163 명의 고승이 각 단장(壇場, 법회를 거행하는 장소)에서 송경(誦經)했다. 이번에 태무산 군인 공동묘지와 구녕통만선사, 안치(安歧)장군묘, 그리고 리 광치엔(李光前)장군묘 등 4 개의 단장을 나눴었다<sup>74</sup>. 이 네 곳 중에 태무산 군인 묘지를 제외한 세 곳은 모두 구녕터우 지역에 있다. 구녕터우 전투는 국지적인 전쟁이었지만 진먼도의 유일한 상륙전이자 중공군이 참패했던 전투이었다. 국공 쌍방은 사상자가 매우 많고 온 들판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래서 전몰자에 관한 귀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밤에 군대 훈련 소리를 듣는 것 외에 "토몽(託夢, 꿈에 나타나다)"과 "부신(신들리다)"은 군혼(軍魂, 군인의 영혼)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이다. 어떤 군혼들은 신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본적을 밝히는 것이고 어떤 군혼은 절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공군의 군혼이 꿈에 나타나 아무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울며불며 하소연하기도 한다<sup>75</sup>. 가장 유명한 예는 '리 광치엔 장군묘

<sup>73</sup> 魂兮归来 - 一参加金門超荐两岸阵亡将士大法会散记, [https://tieba.baidu.com/p/1885099744?red\\_tag=0474666683](https://tieba.baidu.com/p/1885099744?red_tag=0474666683)

<sup>74</sup> 金門日報, 「祈禱兩岸永久和平法會 10/27 舉辦」, 2015/10/08

<sup>75</sup> 李福井. 2014. 『1949 古寧頭戰紀：影響台海兩岸一場關鍵性的戰役(第 3

'의 건설 과정이다.

처음에 리 광치엔 장군의 망령은 한 여성의 몸에 들어가며 주민들에게 제단을 지어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나중에 무당을 통해서 망령이 제공된 정보로 이 장군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1953 년 주민이 그를 위해 '군부 만흥공묘(軍府萬興公廟)'를 지었는데 이때 리 광치엔은 용포(龍袍)를 입고 문무모(文武帽)를 쓴 모습이였다. 나중에 신자가 많아지면서 1976 년 이 장군의 요구로 광전묘(光前廟)로 증축되었고 다음해 대만 국방부는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리 광치엔을 소장으로 추인했다. 1978 년 후렌 장군은 리 광치엔 장군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절에서 군복을 입은 리 광치엔 신상을 모신 것을 건의했다. 2002 년 새 절이 준공되어 진면방위사령부에서 출자하여 리 광치엔의 신상을 현대군장의 모습으로 바꾸었다<sup>76</sup>.

리 광치엔 장군은 중국 후난(湖南) 출신이고 진면 현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몰지인 구녕터우는 마침 이 씨로 주로 구성된 마을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리 광치엔을 자기 마을 주민처럼 여긴다. 리 광치엔이 생전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사후에도 신적(神蹟)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자가 점차 늘어나 각지에 퍼져 있다. 리 광치엔이 진면에서 하루도 못 머물른 채 정렬하게 전사하기 때문에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외래인 한 명도 주저하지 않고 진면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다'는 생각에 진면 주민의 국가방위의 신념을 더 강화시켜서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리 광치엔도 구녕터우 전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토몽"과 "부신"으로만 주민의 신앙을 영속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 장군을 신격화하고 그는 대표하는 의미와 의지를 구상화(具象化,objectification)시

---

版)』, 五南出版社: 300-303

<sup>76</sup> 楊政峰.2016.『走進英雄島:金門戰地巡禮之旅』, 釀出版: 170-171

키고, 즉 신상을 만들어 제사 의식을 통해 인간과 신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林瑋嬪, 2003 : 122) . 또한 이장군의 신상을 전통적인 신명(神明)에서 현대의 군장신상으로 바꾼 것은 진면에서 처음이 아니고 유일한 것도 아니다(그림 3-13).

리 광치엔 장군묘는 '애국장군묘' 유형에 속한다. 진면에는 약 40 여 개가 있고 건설 이유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보통 전몰자가 주민의 꿈에 나타나 절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건설된다. 그러나 꼭 전쟁 나가다 사망하는 것 아니고 남녀관계나 공무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석회로 간단한 절로 만들었다. 그 중에 몇몇은 절 밖에 국기가 꽂혀 있다. 그리고 약 8 개만의 절에는 1~5 존의 군인 신상을 모시고 있다. 이 군혼들은 모두 장군님이라고 불리지만 리 광치엔 장군묘보다 그렇게 크지 못한다. 리 광치엔 장군묘의 입구에 총을 들고 서 있는 위병 두 명이 있고, 정전 앞에는 구녕터우 전투 때 리 광치엔 단장이 군복을 입은 반신상이 있으며 정전 안에 작은 전통신명 분장한 이장군상과 군복을 입은 이장군상이 두 개가 있다.

그림 3-13 리 광치엔(李光前)장군 신상



군복을 입은 신상을 모시는 것은 아마 대만 본섬에서 전해 온 것이다. 대만이 네덜란드인에 의해 지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민족의 신명을 모시는 예가 있다. 하지만 보통 이 신들의 모습과 분장은 현지화(localization)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신명만 현대군복을 입고 군모나 사무라이 칼을 착용하며 짧은 수염까지 기른 모습은 완전히 일본인이다. 일본군인을 모시는 절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생전에 대만인을 잘 보호해주고 잘 챙긴 일본 병사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2차 세계 대전 때 전사한 일본 병사다. 특히 무고한 대만인을 다치지 않도록 전투기를 일부러 바다에 빠지게 하는 일본 병사를 모시는 절이 적지 않다. 셋째, 일본 장교가 ‘토몽’을 해서 주민들이 절을 만들어 준다. 옷이나 장식품까지 자세히 요구하는 장교도 있다. 일본군인 신명을 모시는 가장 많은 곳은 타이난(台南), 다음으로 평둥(屏東), 마지막은 가오슝과 자이(嘉義)다. 이 가운데 평둥의 동강자모궁(東港慈母宮)과 가오슝의 보안당(保安堂)이 매일 일본 노래를 틀어주기도 한다<sup>77</sup>.

2018년 진먼 지역의 신들은 그 동안 리 광치엔 장군이 진먼을 지켜주기 때문에 무당을 통해 리 광치엔을 진먼수호신으로 봉했다. 그리하여 그 해 10월에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현장과 진방부 지휘관은 큰 이장군상에 리분을 달고 '진먼수호신훈장'을 수여하였다. 즉 국군의 최고 영예인 청천백일훈장이다. 이로 인해 이 절의 특수한 지위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이다. 2011년과 2012년 타오웬 신옥팔로재신묘(新屋八路財神廟)는 2년 연속으로 리 광치엔 장군묘에서 '양안화간고위옥백향제대법회(兩岸化干戈為玉帛祭祀大法

<sup>77</sup> 臺灣宮廟奉祀的異國神明-1-3 <http://weng3309.pixnet.net/blog/post/334916540>

台灣供奉日本人及外國人的奇廟 <https://home.gamer.com.tw/creationDetail.php?sn=3670026>

會)'를 개최하였다. 이 법회는 양안의 전몰자를 위해 제사를 지낸 것 외에 360 척의 법선도 준비해 양안 장병을 고향으로 실어나르고 양안의 평화공존을 기원했다.

### (3) 소양안 이산가족의 귀향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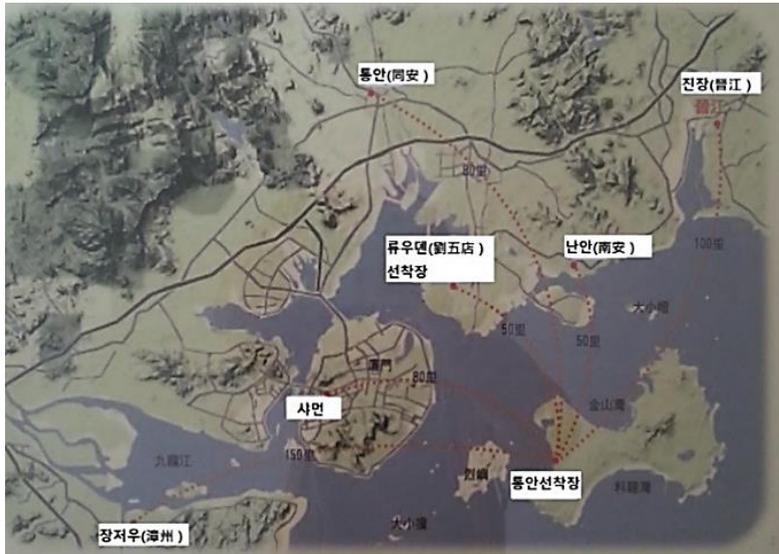
진먼은 송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800 여 년간에 통안현(同安縣)의 관할에 속하였다. 민국 4 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먼현으로 독립되었다. 통안현성(縣城)의 별칭이 은성(銀城)이나 동어성(銅魚城)이었고 원래 진먼도의 모현(母縣)이었다. 통안현성은 내륙에 있으니 진먼 주민들이 종종 통안현에 가서 토란이나 마늘, 고구마 모종 같은 식재, 그리고 냄비와 그릇 같은 식기를 사곤 하였다. 무역과 교류가 잦아서 두 곳의 주민도 서로 통혼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통안 노인들이 소양안이 분리되기 전에 '진먼에 간다(上金門)'는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sup>78</sup>. 정성공이 샤먼에 주둔했을 때, 샤먼을 '사명주(思明州, 명나라를 그리워하다는 뜻)'로 바꾸었다. 당시의 관할 구역은 샤먼본섬 일대(현 샤먼의 사명구와 호리구)와 진먼지역(현 대만의 진먼현과 중국의 다딩도(大嶼)와 샤오딩도(小嶼)를 포함하였다. 1915 년 진먼현이 설립되어 다딩도(大嶼)와 샤오딩도(小嶼)도 진먼현에 속하고 1949 년에야 분리되었다. 진먼도는 따·샤오딩도의 모도(母島)와 모현(母縣)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14).

1949 년 이전, 진먼인이 통안현에 가려면 대부분 진먼 서남쪽에 있는 '통안선착장(同安渡頭)에서 배를 타고 갔다. 그 당시 진먼과 샤먼 사이에 오가는 배는 '진싱호(金星號)'와 '진칭호(金靑號)'가 있었다. '진싱호'는 1923 년 진먼기선회사(金門輪船公司)에서 제

<sup>78</sup> 顏立水.1998. 『金門與同安』, 稻田出版社: 2-7

작하였다. 1937년 10월 26일 일본군이 진먼을 점령했을 때 진사해역을 봉쇄했으니 진먼 현장이 이 배를 타고 다당도로 도망가고 나서 운항 정지되었다<sup>79</sup>. 12년 후인 1949년 2월에야 다시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0월 17일 샤먼이 중공군에 의해 해방되기 직전에 ‘진싱호’가 마지막 진먼 승객을 태우고 나서, 또 운항 정지되었다. 진먼의 수이터우(水頭) 선착장과 통안(同安)현의 류우텐(劉五店)선착장의 왕래도 끊어졌고 통안 선착장도 폐쇄되었다<sup>80</sup>. 이로 인해 소양안의 두번째 분단 국면이 형성되었다.

그림 3-14 진먼 통안선착장과 중국대륙 각 지역의 연결망



출처:진먼 통안선착장전시관

소양안의 왕래가 워낙 빈번했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샤먼에 가서 간장 한 병을 사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장사를 하거나 했는데

<sup>79</sup> 金門日報, ‘分離隔絕金廈在兩岸臨界點’, 2009/10/17

<sup>80</sup> 우권광, 2016, “소삼통 이후 '진샤생활권'의 복원”,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 진인진, pp221-249

오후에 집에 갑자기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전에 출문(出門), 오후에 관문(關門)’으로 1949 년 진먼과 사면 이 두 ‘문’을 비유해서 소양안의 이산가족의 당황과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을 표현하였다. 지리적 공간이 가깝지만 정치적인 공간의 거리가 전쟁으로 인해 뛰어넘지 못하는 커녕 냉전시기에 소양안의 모두 섬들이 국공 대치의 최전선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골육상잔(骨肉相殘)의 싸움이 되었다. 1960 년대부터 시작된 방송심리전 시기에는 양측이 일부러 이산가족을 찾아 방송을 통해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투항하라는 코너가 있어서 오히려 소양안 이산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만나지 못하지만 적어도 생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림 3-15 1949 년 중국에 남은 진먼인들



출처: 楊樹清.2001.金門島嶼邊緣,3 쪽

중국의 ‘푸젠성진포연연의회(福建省金門聯誼會) 전임 부회장인 황 건예(黃建業)의 증언에 따르면 초기에 푸젠성에 있는 진면 동포(이하 재민진포)의 인구수를 조사했을 때 ‘남아선호’의 전통 관념으로 인해 시집가는 여성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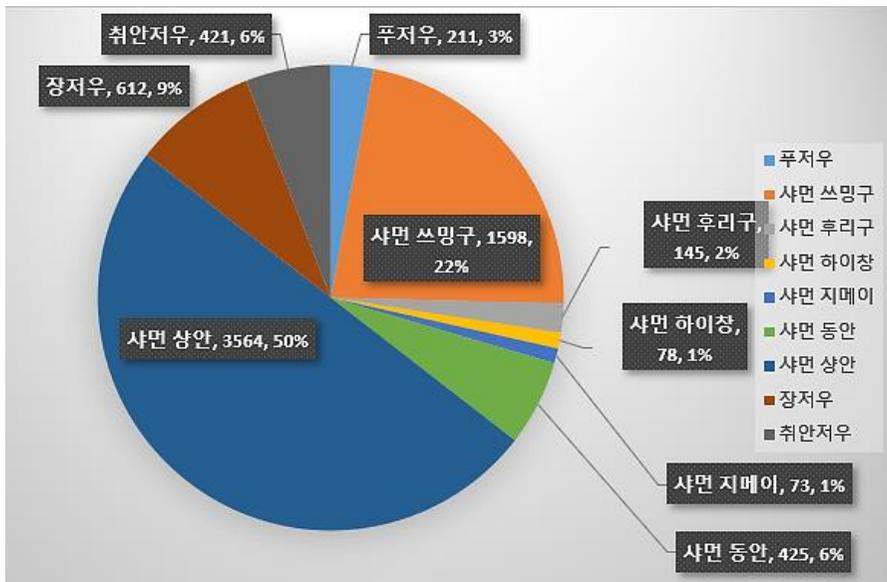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 년에 황 쯤예가 부회장을 맡았을 때 이런 전통 관념을 타파하여 다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푸저우,샤먼, 장저우, 취안저우에 있는 진먼동포가 약 7,143 명이 있다. 그 중에 샤먼 상안구(翔安區)는 3,564 명으로 가장 많고 5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샤먼 쓰밍구(思明區) 1,598 명 (22%) 이다(그림 3-16)(福建省金門同胞联谊会 2007). 상안구는 바로 앞서 말하는 따등도와 샤오등도가 속하는 행정구역이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은 진먼과의 왕래가 상당히 밀접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전통 관념이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먼의 ‘행정적인 귀속’도 문제이다. 냉전시기에 국민당정부가 항상 ‘광복대륙’을 구호로 외쳐서 줄곧 ‘대만성(省)’과 ‘푸젠성(省)’ 이 두 행정구역명칭을 유지해왔다. 지금 이 두개의 행정기관이 이미 소형화(Downsizing)했지만 진먼 주민의 신분증에 여전히 ‘푸젠성 진먼현’이라는 글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진먼인을 어색한 국면에 빠지게 한다. 즉 중국인들이 진먼이 대만에 귀속하고 있는데 왜 푸젠성을 적여있냐고 물어보고, 대만 본섬인들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먼을 아예 중국에게 돌려줘라 외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어색한 장면은 중국에 있는 진먼동포에게도 발생한다. 특히 호적을 신고할 때 ‘진먼’호적을 등록하지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곤 한다.

작년에 내 푸저우 친척의 아이가 호적 신고하려고 할때 공안이 진먼호적을 등록하지 못하게 했어. 왜냐하면 ‘진먼’의 옵션이 없어. 왜냐하면 중국인이 진먼을 대만동포가 아닌 푸젠성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중국인 황 쯤예)

황젠예의 친척의 경우처럼, 중국의 호적 시스템에는 취안저우에 '진먼' 옵션이 있지만 푸저우에는 없는 이상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하려고 공부문에게 호적자료를 달래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진먼동포가 주로 샤먼, 장저우, 취안저우에 분포하고 있으니 푸젠성 다른 지역의 인구수가 통계하기 어렵다. 하지만 2017년에 푸젠성진포연연의회는 다시 진먼동포의 인구수에 대해 조사를 했다. 비록 샤먼도의 통계 결과를 빠지고 있지만 현재 푸젠성에 있는 진먼동포가 1만명을 돌파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진먼인의 귀속 문제로 인해 푸젠성진포연의 주요 업무는 가난한 재중진먼동포를 지원하는 것 외에, 진먼동포를 대만동포와 같은 대우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재중진먼동포가 중국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누리고 있다.

그림 3-16 2007년 푸젠성의 진먼동포 인구수



출처:福建省金門同胞名錄,福建省金門同胞聯誼會.2007.

소삼통을 실시하기 전에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본섬보다 소양안의 이산가족들의 귀갓길이 더욱 길었다. 냉전 시기의 최전선의 신분으로 인해 진먼 등 섬들은 대만 본섬보다 5년 늦게 계엄령을 해제했다. 이 5년동안 홍콩과 마카오 주민만 대만에 갈 수 있지만 대만을 경유해 진먼에 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진먼과 샤먼의 거리는 뱃길로 35분 거리 밖에 안 되어도 소양안의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홍콩 등지에서만 가족을 만나거나, 1~2일의 시간을 들여 홍콩, 타이페이 또는 가오슝을 경유해서 진먼에 가야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에게는 너무 힘든 것이었다. 진먼인 차이 쓰슝(蔡世雄)은 대만 '타이중시 진먼동향회'의 이사장이다. 그의 아버지가 국민당군을 따라 상하이에서 대만으로 왔다. 동산도(東山島)전투가 끝나고 진먼이 자기 고향과 가까워서 자발적으로 진먼에 남아있었다. 아래는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1988년에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에 돌아갔어. 우리 고향은 장저우에 있다. 그때 장저우의 동향회를 통해 친척들과 연락이 되었어. 그때 우리는 대만에서 출발하여 홍콩에서 배를 갈아탔어. 15시간의 배를 탔고 드디어 샤먼의 평화부두에 도착했어. 배가 기슭에 닿을 때 아버지가 흑백사진을 들고 부두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친척을 찾고 있어. 내가 사진대로 우리 친척들이 어딘지를 아버지에게 알려줬지.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진먼인 차이 쓰슝)

차이 쓰슝이 탔던 배가 아마 '구량위'호이었다. 이 샤먼-홍콩 항로가 재개하는 이유는 1979년 중국이 진먼에 대한 포격을 중지하

고나서 그 해의 푸젠성 ‘양회’에서 홍콩에서 온 정협 위원이 제안한 것이었다. 30년간의 열전·대치로 인해 진샤수역은 이미 고도로 경계하는 군사 봉쇄선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저 기뢰를 제거하여 덴마크에 ‘구랑위호’를 매입했으므로 1980년 1월 1일 구랑위호가 바로 냉전시기에 ‘포화의 복도’라고 불렸던 수로를 통과하여 홍콩으로 무사히 향했다<sup>81</sup>. 이는 중국이 양안 교류를 추진하는 급한 마음을 드러내고 국민당군이 ‘구랑위호’의 항행을 저지하지 않는 것도 양안관계가 평화를 맞이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馬振犛 2012: 113). ‘구랑위호’의 순저로운 항행은 중국이 양안 교류를 추진하는 급한 마음과 대만측도 묵인하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양안관계가 평화를 맞이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1990년대부터 양안의 관리들이 진하 직항을 통해 공무상의 교류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0년 양안의 적십자회가 형사범 송환 문제에 대해 협상하려고 진먼에서 회의하여 ‘진먼협약(金門協議)’도 체결했다. 게다가 1997년부터 양안의 화물선은 이미 샤먼에서 가오슝까지 직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양안의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직항으로 고향에 갈 수 없었다<sup>82</sup>.

그래도 푸젠성에서 머물던 진먼인의 ‘귀가’ 갈망을 막을 수 없다. 1995년 추석에 진먼애심자선기금회(金門愛心慈善基金會)에서 거행한 ‘8민(八閩, 즉 푸젠성)에서 머무는 65세 이상 늙은 진먼 동포 직항 반향 친척 방문(滯居八閩六十五歲以上老金胞直航返鄉探親)’ 활동<sup>83</sup>으로 500명의 진먼 출신 노인들이 ‘해상 친척 방문선’이라 불리는 화완선(華灣輪)을 타여 샤먼에서 출발했다. 다딩도와

<sup>81</sup> 厦門廣電網.《光輝歲月》踏浪台海：“鼓浪嶼號”的故事

<sup>82</sup> 楊樹清.2001.『金門島嶼邊緣』, 稻田出版社: 5

<sup>83</sup> 金門日報, 愛心慈善會登陸送愛心

\*2010/09/24

샤오딩도를 경유하여 진먼 북동쪽에 위치하는 차오위(草嶼)와 300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추고 폭죽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귀향’을 경축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귀향’이며, 목적은 소양안 주민들의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진하해역은 아직은 군에서 수비했기 때문에 수비군은 배가 다가오자 총을 쏘아 경고했다<sup>84</sup>. 2001년 1월 2일, 소삼통이 실시된 후 52년간 중단되었던 진샤직항가 드디어 재개되었다(그림 3-17). 2월 6일에 94명의 푸젠의 진먼인들이 샤먼의 평화부두에서 ‘구랑위’호를 타고 진먼으로 친척을 방문하러 갔다. 이것은 진먼으로 직항하는 최초의 친척 방문단이며 그 중의 어떤 73세의 노인이 너무나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오래간만의 고향의 땅에 입을 맞췄다<sup>85</sup>.

내가 처음에 진먼에 돌아갔을 때 내 삼촌하고 숙모가 부두에 와서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넌 이따가 먼저 조상들에게 절을 올려라’고 했어. 나는 무릎을 꿇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나는 가족 3대의 기대와 향정을 가지고 돌아왔다.(중국인 황 쯐예)

그림 3-17 진먼 여객선 ‘태무호’가 샤먼으로 직행 장면



출처: 행정원 신문국(行政院新聞局)

<sup>84</sup> 楊樹清.2001.『金門島嶼邊緣』, 稻田出版社:2

<sup>85</sup> 台海网,真情 20 载 搭起“厦金大桥”(2), 2009-12-02

그림 3-18 중국 푸젠성 진먼 출신 96 세 노인 55 년만에 65 세 딸과 상봉 장면



출처: 중앙통신사(中央通訊社)

### 3절. 이산가족의 지위 향상과 종친(宗親)조직의 부상

#### (1) 이산가족의 지위 향상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는 1981 년 12 월 22 일 베이징에서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는 대만 동포의 애국애향 정통을 이어받고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와 애국주의의 명의 하에 ‘대만 독립’을 반대하여 대만 동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국에 정착한 대만 동포다. 그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과 그들의 정치 참여가 조국 통일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sup>86</sup>.

1946 년 국민당에 징집되어 중국으로 간 서조린 쉬 자오린(徐兆麟, 대만 신주인)이 산둥성이 해방된 후 중국 인민해방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그는 1982 년 전국대련에 근무했고 1985 년 전국대

<sup>86</sup> 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简介 <http://tailian.taiwan.cn/n1080/n1190/index.html>

런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양안 민간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1980년대 가장 주요 접촉 대상은 해외 대만 동포였다. 처음에는 해외의 대만 동포가 중국 대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1985년 6월에 해외의 대만 학자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대륙·대만 세미나(大陸與台灣研討會)"에 초청했다. 1987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대만 문제' 세미나 이후 해외 대만 동포의 중국으로 돌아가는 열풍을 일으켰다. 이들 행사는 해외 대만 동포를 통해 대만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륙의 근황을 알림으로써 대만인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구심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국타이렌은 해외 대만 동포를 통해 대만의 통일과 인사와 당외 인사도 접하게 된다. 1990년대부터 대만 학자들의 중국에 가서 학술 교류를 진행하는 열풍이 점차 시작했다. 1991년 베이징에서 최초의 고위급·대규모로 양안 관계를 토론하는 "해협 양안 관계 심포지엄(海峽兩岸關係研討會)"을 개최했다. 매년 1회 개최되어 2018년까지 27회째가 되었다. 이는 양안의 학술 교류가 가장 오래된 회의라고 할 수 있다<sup>87</sup>.

1987년 대만 정부는 대륙 출신 노병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도록 하였으나 대만 출신 노병들에게 귀국해서 친척방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쉬자오린의 말에 의하면 약 2,000명의 대만 출신 노병들이 대륙에 체류했는데 대만 정부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국타이렌은 1988년 9월에 '대만출신노병귀향탐친협진회(台灣省籍老兵返鄉探親協進會, 이하 탐친협진회)'를 설립하여 쉬 자오린이 회장을 맡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대만 출신 노병이 아직도 1000여명

---

<sup>87</sup> 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为促进两岸交流而奔波— 与全国台湾同胞联谊会原副会长徐兆麟一席谈」,2008.5.5  
<http://tailian.taiwan.cn/n1080/n1141/n2827/n2887/153365.html>

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에 냉전으로 징집된 노병도 있고, 1950~60년대 반공 대륙하기 위해 중국으로 파견된 반공 구국군(反共救國軍)도 있다.

1946~1947년 기간 동안 국민당군은 대만 본섬에서 진먼 등 낙도에서 주민들을 징집해 중국 대륙으로 내전을 치루러 갔다. 당시 약 1만 5천명의 한족(漢族)과 원주민 청년들이 징집되었다. 당시 국민 정부는 ‘일본과 수년 간의 항쟁하는 끝에 일본이 마침내 패전하여 무조건으로 항복했다. 그리하여 대만인민들이 조국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금 고난의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청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로 농촌과 산지의 부의 청년들의 ‘조국애’를 유발시키며 입대를 권유했다. 또한 입대자는 월 2천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 2년을 마치면 부대에서 일자리까지 배정해 주는 후한 조건도 있다고 밝혔다(何書彬 2012:105). 당시 국민 정부는 대만을 접수한 후 일본인이 남긴 물자 등을 팔고 상공업의 발전이 멈추는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와 높은 실업률은 청년들의 입대 의사를 부추겼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 대륙에 도착해서야 부대에서 준 ‘관금(關金)’과 ‘법화(法幣)’은 이미 쓸데없는 종이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배에 타거나 중국 대륙에 도착해서야 내전을 치르러 가는 것을 알아내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튼타서 도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許昭榮, 2008:76-78).

그 당시 국민당 정부가 ‘기만과 강제로 끌고 가기’라는 ‘라틴(拉丁)’방식으로 대만병을 징용하기 때문에 호적 명부나 병역 명부에 다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許昭榮, 2008). 그러므로 탐친협진회가 아직 천여 명의 대만 출신 노병이 있다고 밝혔을 때 국민당 정부는 부인하였다. 하지만 전국타이웬의 대만 출신 노병 명부는 대만에 있는 친구에 의해 대만의 ‘자립만보(自立晚報)’와 ‘자

유시보(自由時報)'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는 어쩔 수 없이 1988년 11월부터 대만 출신 노병들을 조건부로 대만으로 돌아가 병문하도록 했다. 그리고 12월에는 '현재 대륙에 있는 대만 출신 전 국민당 군인의 대만 정착 허가(允許現在大陸台籍前國民黨軍人返台定居案)'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수속은 대륙 출신 노병들이 대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75세 이상의 노병만 신청할 수 있게 제한하여 대만에 있는 직계친족들의 증명서와 초청서, 두개의 언행 및 생활보증인 등 다 필요하다. 또한 여비보조 없다. 이들 규정으로 인해 대만 출신 노병들이 국민당정부의 차별 대우에 대해 호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모든 수속을 마친 후 중국 공안국 등 관련 부서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1991년까지 800여 명이 대만에 정착했다 (許昭榮,2008; 何书彬,2012) .

전국타이렌이 조사한 대만 출신 노병 가운데 대만 출신 원주민 노병은 모두 159명이 있었다. 신중국이 설립된 후 그들이 대부분 대만의 기후, 언어와 비슷한 푸젠성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남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국민당 군에 입대하여 북경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오히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중국 대륙에 도착한 후 현지인에 의해 '중국인과 같지 않고 일본인도 같지 않는 대만인'이라고 형용되었다 (何书彬,2012 : 106) .

그러나 이렇게 형용된 대만 원주민들이 오히려 1980년대 양안이 친척 방문을 개방하면서 가소성을 지닌 '통전의 주체(統戰主體)'가 되었다. 중국 학자 천귀창(陳國強)이 1988년 발표한 '조국 대륙의 고산족 동포' 글에서 대만 출신 원주민을 '대륙의 고산족 동포들이 대부분 항일전쟁 승리를 전후해 대만에서 대륙으로 이주

한 경우가 많고 문맹자가 많았다. 그러나 전국 해방 이후 고산족은 문화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고,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민족평등 정책 하에서 고산족 동포는 재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각종 평등 대우를 누리며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고 소개했다<sup>88</sup>. 이처럼 중국과 별로 연관이 없던 대만 원주민들은 통일 전쟁으로 연결고리가 생겼고 전쟁으로 인해 중국 56 개의 민족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중국의 국가 공식 문서에서 대만 출신 원주민을 '고산족', '소수 민족' 혹은 구체적인 족명을 칭하는데 '원주민'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주민'이라는 말은 중국 대륙의 한족이 대만으로 이주하고 나서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고 원래 대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구분은 오히려 한족들이 나중에 대만에 온 외래자임을 나타내며, 근본적으로 "중화민족"의 합리성을 부정하였다<sup>89</sup>. 천 귀창의 글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고산족의 인구는 1964 년 366 명이 있었고, 1982 년에는 1,549 명으로 늘었다. 그 가운데 거의 3 분의 1 의 고산족이 푸젠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 '푸젠의 고산족'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비율은 중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이주하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고,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대만의 원주민을 중화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무리인 것 같다. 또한 천귀창의 글에서 대부분의 고산족이 문맹자라고 언급하는데, 사실은 원주민들이 일

---

<sup>88</sup> 陈国强.1988. 祖国大陆上的高山族同胞,『东南学术』:1988, Issue 01: 74-75

<sup>89</sup> 在中國的官媒, 你不許講「原住民」這三個字, 2017/08/03.

<https://www.matataiwan.com/2017/08/03/no-indigenous-peoples-in-china/>

본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 일제시대 중기에 이르러 원주민의 어린 학생의 취학률이 74%에 달해서 재(在)대만의 일본인의 취학률 다음으로 높고 식자율이 대만 한족보다 훨씬 높았다(李宜憲, 2017:19). 그래서 중국어를 할 줄 몰랐을 뿐이고 꼭 문맹이 아닐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떤 원주민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대만을 통치하는 사람이 일본인에서 중국인으로 바꾸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만 원주민의 '한명화(漢名化)' 과정은 중국 정부에게 그들을 일족에 포함시키는 이유를 제공한다. 개명(改名)은 보통 이민족 통치자가 현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치 방식이다. 동화(同化) 기능을 지닌 것 외에 ‘아군(we-group)’으로서의 영광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다. 대만 원주민의 언어는 남도어족(南島語族, Austronesian languages)이고 생김새와 문화도 한족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족 통치자가 그들에게 ‘한명화’ 정책을 실시했다. 대만 원주민 이름의 한화 과정은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청나라 때 청정부에서 평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성(姓)을 많이 내려주었기 때문에 일부의 원주민들은 급속히 한화되었다. 하지만 고산에 사는 원주민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족명을 사용한다(林瑤棋, 2003:13). 두번째 단계는 일제시기 말기에 원주민들이 짧은 기간에 한자로 표시된 일본 이름을 사용했다. 특히 일본 교육을 받았던 원주민 젊은이들이다. 셋번째 단계는 1945년에 국민당 정부가 대만을 접수한 뒤 호적 관리와 ‘중국어화’를 하기 위해 3개월 내에 모든 일본 이름을 중국 이름으로 ‘회복’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1947년까지 일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주민이 여전히 많았다. 그러나 대륙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던 원주민들은 군대에 입대할 때 중국 이름을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일부 사람들

이 일본 이름을 중국 이름으로 바꿨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만 출신 원주민 노병의 '한명화'를 조국 인정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중국인 전통사회에서 성씨에 대한 정체성은 조상을 인정하고 귀종하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영역의 세력상징<sup>90</sup>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산족'도 1980년대 말기의 '귀향'의 열풍을 타서 대만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주체의 하나가 되었다. 1987년 전국타이웬의 고산족대표와 '대만 원주민 권력 추진회(이하 원권회)' 대표 모네가 미국 시카고의 '대만문제' 세미나에서 만났다. 1989년 원권회가 중국 대륙 시찰에 초청된 이후 대만 원주민 단체들은 거의 매년 대륙을 방문해서 보통 전국타이웬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中華人民共和國國家民族事務委員會)가 접대한다.

## (2) 종친조직의 부상

진먼의 씨족은 진(晉)나라 때 중원의 전란을 피해 진먼으로 온 여섯 성씨 가족에서 비롯되어 이후 계속 증가하여 성씨에 따라 여러 개의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1949년부터 대거 주둔하던 국민당 군대의 구성원이 워낙 중국 대륙의 사방에서 왔기 때문에 진먼의 성씨가 크게 늘었다. 1979년의 진먼현지(金門縣志)에 따르면 180여 가지 성씨에 이르므로 '반중공군흥 이래 천남지북의 사람들이 진먼에 운집해왔다(反共軍興以來, 天南地北之人雲集金門)'는 말에서 보여준 듯이 성씨의 증가를 통해 진먼의 반공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金門縣文獻委員會, 1979:371). '도고인불고(鳥孤人不孤, 섬은 고립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아군의 사람도 많고 세력도 크다는 기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중

---

<sup>90</sup> 國史館臺灣文獻館, 2004. 『臺灣全志』, 第 3 卷, 第 3 篇

화민국의 국부(國父)인 쑨문의 주장이었던 씨족으로부터 중화민국의 '국가' 개념을 이어가는 수단중 하나로 볼 수 있다(金門縣政府.2009b:92).

진먼 사회의 구성원은 거의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성씨 끼리가 모여 살곤 했으며 종상 제사나 종족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로 삼기 위해 사당을 건설하기 십상이다. 종족의 활동을 통해 조직적인 종친 단체를 형성한다. 즉 성씨와 혈연에 기초한 '종친회(宗親會)'를 형성하였다. 진먼 현지에 따르면 1979 년 16 개였던 진먼 성씨 종친회는 2007 년 67 개로 늘었다(金門縣政府.2009b: 406-408). 매년 봄과 가을 두 계절의 조상 제사는 각 종친회의 중요한 행사이며 보통 사당에서 거행된다. 조상 제사는 제사 의식과 선인을 추모하는 과정을 통해 가문의 정신과 중국인의 전통 정신을 전승하는 중요한 풍속이다. 진먼은 예로부터 종족과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섬에다가 냉전시기의 폐쇄적 통제로 인해 오히려 많은 전통의례가 남게 되어서 현재 민남문화의 중요한 자료고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진먼의 종친회가 지방선거, 특히 지방 수장 선거 때 항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 같은 대내적인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 대외적으로 양안 교류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 주도로 진행하므로 정치적 색채가 덜 강하다.

대만에서 성씨를 기초로 조직된 조직을 '종친회(宗親會)'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연의회(聯誼會)'라고 더 많이 부른다. 이 두 단어에서도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 년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푸젠성 진먼 동포 제 14 회 대표대회'에서 당시 성(省)상무위원과 통전부장인 레이 춘메이(雷春美)가 언급한 '이진연대,이진추대 (以金聯合、以金促台)'는 말에서 중국은 진먼인이 중국에 대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

성하는 것으로서 진먼을 통해 푸젠과 대만의 교류를 추진하거나 대만 본섬인들의 중국에 대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국 통일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는 ‘연의회’은 민족애와 조국통일을 위한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단체로 설립하는 반면에 진먼과 대만의 ‘중친회’의 설립은 ‘뿌리찾기’와 ‘중화문화 전승’의 문화적 색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친회라고 해서 정치적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70 년대에 왕성하게 발전을 시작한 대만의 중친회들 중에 일부 중친회의 규정에는 ‘삼민주의나 국책을 위반하는 언행’ 혹은 ‘공산주의를 지양한다’는 정치적 색채가 선명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冯尔康,2005:481).

중국의 대(對)대만 동포연의회에 정치적 색채를 부여하는 조직은 ‘통전부(統戰部)’라 할 수 있다. ‘통일전선’은 ‘국가통일’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대만 정책에 있어 중국공산당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 왔다. 특히 대만과 가장 연원이 깊은 ‘중국공산당 복건성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中国共产党福建省委员会统一战线工作部, 이하 푸젠통전부)’이다. 푸젠통전부의 주요 임무는 중앙 정부와 성(省) 위원회의 방침과 정책을 철저히 수행한 것이다. 그래서 조국통일과 푸젠성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해외통전사업의 중점이고 추진 방식은 홍콩과 마카오, 해외의 푸젠성 친목회와 대표인사들, 대만 동포와 진먼 동포와 연계하는 것이다<sup>91</sup>. 1979 년 중국은 ‘고대만동포서’(告台灣同胞書)연설문에서 먼저 이산가족 분리의 아픔을 호소하고 통일은 중화민족의 생존과 장래가 걸린 중대한 임무이며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민족의 천고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말로 대만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대대만의 평화통일사업을

<sup>91</sup> 福建省委统战部网站 - 中共福建省委统战部  
<http://www.fjztb.org.cn/ar/20141112003163.htm>

촉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고대만동포서'의 내용을 보면 '중화민족'과 '하나의 중국', 그리고 '평화통일'은 중공이 대만에 대한 통진 주축임을 알 수 있으며 중화민족의 '혈맥' 혹은 '혈연망'을 연결하는 매개가 바로 대만이나 다른 해외에서의 종친회와 동향회 등 향우단체들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 대만의 향우조직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성립된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전국타이웬(全國台聯)이다. 이 연의회와 대만민주자치동맹(台灣民主自治同盟)의 구성원들이 항상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만성(台灣省) 대표단'으로 선정된다. 비록 '상징적'으로 '대만 2300만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지만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 핵심에 가장 가까운 향우조직이다. 대만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말하는 것은 대만성 대표단의 대표들이 대만에서 선거를 통해 뽑는 것 아니라 중국에 있는 대만성 호적을 가진 동포들이 협상 선거를 통해 뽑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sup>92</sup>. 대만 출신 여부에 의해 대표단을 1대 대표단과 2대 대표단으로 나눌 수 있다. 1대 대표단(1975-1998, 4기~9기 전국인대 대표)의 구성원은 대부분 대만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주 원인은 자발적 이주(유학이나 좌경적 편향,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 망명(228 사건과 관련된 사람, 국민당에 의해 블랙리스트 또는 비적 집단과 내통하는 용의자 등), 그리고 국공내전 참가 등 있다. 2003년(10기 전국인대 대표)부터는 냉전시대 진면에서 중국으로 수영해 투항한 린 이푸(林毅夫)의 아내 천 윈잉(陳雲英)을 빼고 거의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10기부터 2대 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만성 대표단이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

<sup>92</sup> 端傳媒, 這 13 個人代表台灣出席中國全國兩會, 2016-03-03  
<https://theinitium.com/article/20160303-mainland-taiwannpcmember/>

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가 논란이 된다.

또 다른 비교적 큰 대(對)대만 동포 향우회는 ‘푸젠성 대만 동포 연의회(福建省台湾同胞联谊会)이며 1981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다. 전국타이렌보다 먼저 설립되었지만 성(省)급 조직이다. 기층의 대대만 향우조직은 푸젠성의 각 진먼 동포 연의회라 할 수 있다. 1985년부터 푸젠성의 각 현시의 진먼 동포 연의회(이하 진포연)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표 4-2) . 1980년대에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성(省)급 진포연이고 그 다음으로 시(市)급·구(區)급 진포연이다. 1985년 10월 푸젠성 각지에 거주하는 17명의 진먼 동포가 연명으로 '푸젠성 금문동포 친목회 설립에 관한 제안서(关于成立福建省金门同胞联谊会倡议书)'를 제시했다. 각지의 진먼동포와 해외의 진먼동포 뿐만이 아니라, 중공 복건성위원회와 성정부의 지도층의 중시와 지지도 받았다. 그래서 ‘푸젠성진먼동포연의회’(이하 푸젠성진포연)라는 최초의 진먼동포연의회는 같은 해 12월 18일에 설립되었다. 초기에 푸젠성진포연의 업무 대상은 1949년 이후 중국에 정착한 진먼동포와 1960년대 배중운동으로 인해 중국에 돌아온 진먼동포이었다. 초기 회원은 100~200명 내외로 대부분 진먼인이었으며, 심지어 한동안은 진먼인만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주요 업무는 진먼동포의 인구수와 분포 위치를 통계하고 중국에 있는 진먼동포가 진먼의 고향을 찾는 데 협조하는 것이었다.

이 연의회는 비록 NGO의 성격이다. 다른 시·구급인 진포연과는 종속관계가 아니지만 업무지도를 하긴 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연의회가 성급 조직 때문에 협상 능력도 다르다. 즉 푸젠성진포연은 중앙 기관과 비교적 직접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 점은 푸젠성진포연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동심루(同心樓)’에서 "푸젠성 대만동포 연의회", "대만민주자치동맹 푸젠성위원회", "구삼학

사 푸젠성위원회(九三学社福建省委员会)" 등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990년대부터 현(縣)급과 각 구(區)의 진포연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10 개 정도의 대(對)진먼 향우 조직이 있다. 이들 대(對)진먼 향우 조직들은 보통 푸젠성 각지에 거주하는 진먼적(籍) 동포들이 진먼 동포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적 친목적 애국 인민단체’이다. 설립 취지는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기치 아래 당의 노선과 방침, 정책을 관철하며 현지와 해외의 진먼 동포의 향우애를 증진하고 통일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표 3-2 중국 푸젠성 각지의 진먼 동포 연의회

설립 시간(년)	조직 명	설립 시간(년)	조직 명
1985	푸젠성(福建省)진먼동포연의회	1995	영춘현(永春县)진먼동포연의회
1986	푸저우시(福州市)진먼동포연의회	1996	동안·상안현(同翔安县)진먼동포연의회
1986	취안저우(泉州市)진먼동포연의회	2002	샤먼시 동안구(同安区)진먼동포연의회
1986	장저우(漳州市)진먼동포연의회	2005	샤먼시 상안구(翔安区)진먼동포연의회
1989	샤먼시(厦门市)진먼동포연의회	2017	진장시(晋江市)진먼동포연의회

출처: 연구자 정리.

#### 4절. 뿌리찾기 관광(尋根之旅)

1980년대 말 대만 정부가 중국의 친척 방문의 개방에 따라 ‘뿌리찾기 관광’도 관광 인기 상품이 되었다. 1979년 푸젠성은 최대의 섬 평탄(平潭)도 등 4개의 섬에 ‘대만어선정박지(台灣漁船停泊點)’와 ‘대만동포접대소(이하 대포소)’가 설치되었다. 대포소는

원래 ‘대만 어민 응접소(台灣漁民接待站)’라고 불리며, 대만 어민의 물자 보급과 어선들의 분쟁 해결을 도와준 곳이었다. 바람을 피하려고 여기에 모이는 양안의 어민들이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은 자주 상연된다(陸幸生,2015; 謝漢杰·李適金,2007).

이후 이름은 ‘대만 동포 접대소’로 바뀌는 것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대만 동포의 친척을 찾기 열풍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친척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삼통 직항으로 인해 대포소의 중개기능이 점점 약해졌다. 핑탄대포소 같은 경우 2010년경에 접대 서비스를 중지하였다. 일부 대포소들이 대만과의 소액 무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대만 동포의 뿌리찾기 여행을 협조하는 것과 대포소가 단체로 대만에 가서 친목 교류를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업무다<sup>93</sup>. 이때의 뿌리찾기는 대부분 자신의 헤어진 가족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소삼통’과 ‘대삼통’의 개방에 따라 양안의 ‘뿌리찾기 관광’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 때의 ‘뿌리찾기’는 ‘성씨’의 기원을 찾는 것이다. ‘친족’의 뿌리에서 ‘성씨’의 뿌리까지 변하는 것은 ‘집’의 개념으로부터 ‘족군(族群)’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 사회의 이민 주체는 중국 본토에서 온 한족이며 그 중에 푸젠에서 온 장저우(漳州)와 취안저우(泉州)의 한족은 약 60~70%를 차지한다<sup>94</sup>. 1981년 4월 22일 중국 언어학자인 황 덩청(黃頂誠)이 허난일보(河南日報)에서 발표한 ‘중원으로 모어를 찾다(尋根母語到中原)’이란 글에 의하면 대만 한족의 뿌리찾기의 기점은 ‘민남(閩南, 푸젠성 남부)’이며 중점은 허난(河南)’이다. 이는 향후

---

<sup>93</sup> 2017“三心”服务 给台胞“家”的温暖-玉环新闻网, 2017-09-29 09:25:13 来源: 今日玉环 作者: 王敬  
<http://yhnews.zjol.com.cn/yuhuan/system/2017/09/29/030426467.shtml>

<sup>94</sup> 陈孔立.2003. 『清代台湾移民社会研究』,九州出版社: 177

양안의 성씨 뿌리찾기의 근거가 되었으며 중원과 푸젠·대만의 연원에 대한 연구의 서막도 열렸다. 윤 쉰하이(尹全海,2012)는 중원과 푸젠·대만의 연원 관계 연구를 뿌리찾기(1980년대), 기억(1990년대), 공감(2000년대)의 세 단계로 나뉜다(尹全海 2012:2).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도 연구의 기본 과제가 되었다. 왕 이푸(汪毅夫,2012)는 중원과 푸젠·대만의 연원 관계를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은 다족군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순정한 한민족 혈통’을 민족국가의 주성분으로 삼을 수 없어서 천즈핑(陳支平,2012)은 문화의 초월과 문화의 정체성을 중화민족의 단결과 발전의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본다(陳支平 2012:331). 그리하여 근대의 중국은 경제와 문화적 융합과 통합을 통해 중화민족을 주축으로 한 ‘국족(國族)’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인들의 ‘뿌리찾기’ 활동은 중국에게 해협을 건너는 하나의 민족의 다리로 보인다. 또한 뿌리찾기의 근거가 되는 ‘가보’나 ‘족보’의 기재와 복구, 그리고 맞물리는 작업을 통해 양안의 동종 동족간의 단결공조를 촉진시키면 감정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원을 알아내고 조상순배라는 종교적 순례 욕망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대만인의 혈연의식의 강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대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蔡干毫,林庚.2014:60). ‘족보’는 성씨의 혈연을 근거로 한 특수한 기록이며 중화민족의 인문사회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 중화민족의 문화와 국가에 대한 높은 정체성을 지니고 ‘문화 대독(文化台獨)’과 민족 분리주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朱定波 2014 : 11-10). 그리하여 왕영관(2012)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뿌리찾기 열풍을 ‘새로운 역사 시기에 중화민족문화의 응집력과 문화향심력의 표현이라고 여기고 이런 공통의 문화심리 때문에 뿌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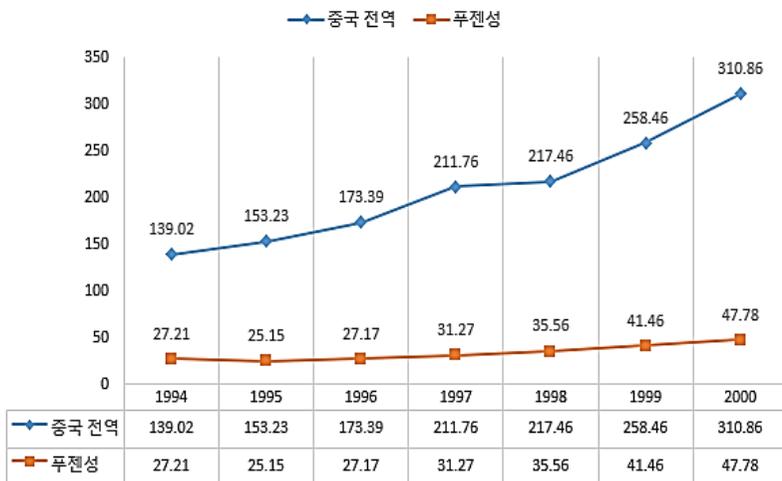
에 대한 강한 소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王永寬 2012: 92-94).  
자오 수강(趙樹岡)도 중공이 개혁 개방 이후 국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뿌리찾기 열풍’으로 중화의식을 형성하며 종족의 부흥으로 당국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본다(趙樹岡.2004).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뿌리찾기 관광(Search-origin Tourism)에 대한 정의는 ‘원적지·종족 기원지에 관한 관광’에 한정해 혈연 종친의 정의에 편중한다. 윤 쉐하이(尹全海)의 분류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정의된 뿌리찾기 관광자원은 이민출발지의 자원과 이주지의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민 출발지의 자원은 주로 이민 선조가 살았던 유적지, 이주 경로,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 유적이나 전설이 있다(尹全海 2012:373). 이주지의 자원은 이주 선조들이 이주한 뒤 이주 사회에 대한 기여와 현지 사회에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경관을 가리킨다. 차이 리빈(蔡礼彬,2008)은 '뿌리'를 좀 더 정신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 시공간의 조합으로 해석한 것으로 '뿌리찾기'라는 개념을 확대한다. 시간과 공간이 오래되면 여행자는 '뿌리'의 잃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찾아보기'의 갈망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갈망은 혈연, 종족, 동향지간의 감정, 향수, 인생 경력 또는 문화 전승 등 여행자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 목적지는 원적지나 출생지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역사, 느낌, 문화 또는 지방에 대한 향수와 동경의 감정일 수 있다(蔡礼彬 2008: 76-79).

뿌리찾기 관광의 종류는 중화인문시조(始祖) 뿌리찾기, 문화 뿌리찾기, 가족 뿌리찾기, 성씨 뿌리찾기와 족군(group) 뿌리찾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화 인문의 시조 뿌리찾기 관광 자원은 중국의 '허난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중국의 성씨 1 만 2000 개 중 절반이 하남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허난성은 중화민족 성씨의 발상지로 여겨진다. 허난은 중원에 위치하므로 예로부터 전란이 끊이

지 않아서 중원의 주민들이 각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푸젠과 광둥인의 조상은 대부분 중원에서 남쪽으로 이주하다가 대만과 해외 각지로 이주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 국가 관광국이 내놓은 14 개의 특별 여행 코스 중 허난에는 ‘황허 (黃河) 투어’와 ‘뿌리찾기 관광’이 있다(林英海 2012:14-18). ‘황허 투어’의 뿌리찾기 관광자원은 중화문화의 어머니인 ‘황허’가 있으며, 중화민족의 공동시조로 추앙받는 ‘황제(黃帝)’의 고향이 있다. 매년 음력 3 월 3 일 성대하게 개최되는 ‘황제故里拜祖大典’은 중국 정부에 의해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 이러한 관광상품은 "중화인문시조 뿌리찾기"로 분류된다. 앞서 언급한 대만의 외성인 노병들이 대륙으로 돌아왔을 때 황제릉에 가서 제사를 지낸 것도 이런 종류에 속한다. 또한, 3,000 개의 백가성(百家姓)을 새긴 '중화 성씨 문화 광장 (中华姓氏文化广场)'이 있다. 관광객들이 여기서 자신의 성씨를 찾는 것은 바로 ‘성씨 뿌리찾기’다. 대만과 진먼의 종친 뿌리찾기 관광이 대부분 이에 속한다.

그림 3-19 1994 년~2000 년 중국 방문하는 대만인 관광객 수  
(단위:만 명)



출처: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푸젠과 대만은 83 개의 성이 허난(河南)에서 왔어. 뿌리를 찾는 것이 바로 종족 관념이 깊다는 뜻이다. 수전망조(數典忘祖, 근원을 잊고 소홀히 하다 )라고 욕을 먹는 것은 큰 수치야. 나는 계엄령 해제한 후 푸젠의 동안(同安) 으로 돌아갔다. 종친회가 먼저 뿌리찾기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교류가 빈번해졌다. (진먼인 차이 쓰밍)

진먼인 차이 쓰밍의 증언은 금문인이 뿌리를 찾는 것을 중시함을 보여준다. 진먼에는 직성촌이 많기 때문에, 뿌리찾기 관광은 성씨 종친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행사이기도 하다. 족보를 편찬하는 것은 소삼통 이후에 인기 있는 활동이 되었다. 물론 양안 교류의 수요에 부응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2004 년 설립된 '진먼현 종족문화연구협회(金門縣宗族文化研究協會)'가 가장 규모가 크다. 현재 회원은 70~80 명이 있다. 종족과 관련된 것은 족보와 가묘, 선산이며 그 다음에 성씨의 교류이다. 그래서 이 협회의 주요 업무는 지역의 족보 편찬에 협조하고, 각 성씨의 족보 수집, 정리, 복사와 전시도 한다.

진먼의 족보는 사실 우리 협회가 설립됨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잊고, 족보를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았다. 옛날에 사람들이 족보를 너무 신중히 대해서 족보의 존재가 종종 잊고 살았어. (진먼인 황 익장)

종족문화연구협회 창회이사장인 황 익장(黃奕展)은 진먼이 중국처럼 문혁기의 파사구운동으로 족보가 유실된 것은 아니지만 너

무 신중하게 보호하다 보니 누구나 뒤적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족보의 존재를 종종 잊게 되어 족보가 습기나 책벌레로 인해 손해하곤 했다. 그래서 이 협회를 설립하여 진면의 각 성씨를 도와 족보를 수선하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중국으로 상류의 족보를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문혁 시기에 중국 종친들이 족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생 많은 사실을 알게 된다.

전에 어떤 진씨 교장은 자기 가족의 족보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징장에 갔어. 찾아보니 그들의 가족이 아직 족보와 조상 위패를 보존하고 있다. 문혁시간에 이 가족은 5개의 족보가 있어서 이 가족의 어머니는 이 다섯 권을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 어떤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이 다섯 권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서 지금 족보 물론이고 족보의 상자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 (진면인 황 익장)

동안쪽의 종친이 나에게 문혁 때 조상의 위패가 불에 탔다. 그래서 우리에게 족보와 자료를 달라고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족보를 들고 그들의 사당에 갔어. 다행히 사당의 벽에 아직도 조상의 이름이 적여있기 때문에 내가 증명서를 써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뿌리찾기를 했다. (진면인 차이 쓰밍)

족보, 조상의 위패, 사당 여부, 그리고 사당의 벽에 적여있는 성씨의 맥락 등 모두 뿌리찾기하는 데 중요한 근거다. 비교적 엄격한 종족, 예를 들어 진면의 치웅린 채씨 가족은 양아들이나 데

릴사위는 족보에 등록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족은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로, 같은 성씨 사람이 돌아와 조상을 인정하면 상황에 따라 족보에 등록할 수 있다. 사당 가묘의 건설도 매우 중요한 종족 활동이다. 사당의 건전함은 종친 조직이 건전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종친 지위 향상에 수반하여 족보, 가묘의 보수 및 조상제사활동의 회복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초기에 중국이 사당을 건설할 때, 대만의 종친이 적지 않게 도왔다. 이것은 '금의환향'과 "광종요조(光宗耀祖)", 그리고 "근원"을 복원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도와준 것이다. 해외 진면화교들이 고향인 진면에게 사당과 공공시설의 건설에 기부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중국 종친의 경제 조건이 크게 향상되었고,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경로금(敬爐金)이란 명목으로 소액 기부하곤 한다.

사당은 종친들이 모여 중요한 일을 토론하는 장소이다. 그 중 가장 큰 행사는 바로 '조제(祭祖, 조상 제사)'이다. 제조행사를 통해 국내외의 동성 종친이 한자리(사당)에 모인다. 그래서 교류에 있어 가장 긴밀한 활동이 된다. 심지어 비교적 규모가 큰 성씨 종친회는 이미 '기금회'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면의 글로벌 동양(董楊) 기금회다.

우리는 동과 양 두 성이 함께하는 글로벌 종친회이다. 작년에 우리는 중국 허베이(河北) 광천(廣川)에 가서 조상 제사를 드렸어. 한 500 명이 있었어. 제단 하나를 설치하고 동씨와 양씨의 조상 위패를 올리고 제사한 것이다. (필리핀, 홍콩 등) 각지 종친회 이사장은 맨앞에 서서 뒤에 각 종친회의 이사, 회원과 회원 가족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조상 제사 의식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진면인 양 청귀)

양 청귀가 소속된 이 동양종친회는 종친 교류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규모가 있다. 매년 조상 제사를 지내고 보통 2박 3 일이고 비용은 1 인당 400 달러이며, 그 해에 개최되는 종친회가 이 회비를 가지고 숙식을 배정한다. 특히 조상 제사를 마친 뒤 '수뇌회의'가 열린다. 각지의 이사장과 비서장, 사무총장 등 약 1 백명 정도 참석한다. 주로 조상 제사의 상황과 다음 차례는 누가 주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규모와 조직화를 알 수 있다. 더 특별한 것은 글로벌 종친회라고 하지만 총회 이사장은 모두 대만인이 맡고 있다. 애초 설립 당시에 대만에서 등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일부의 중국사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륙은 동아리를 만드는 데 대만보다 편하지 않고, 또한 이사장의 선출은 대만의 종친 방법에 따라 거행하기 때문에 중국의 종친회는 활동에만 참석할 수 있고 선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 행사 주최를 쟁취하는 데 있어 중국의 종친회는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유는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이 금지되었던 것이고, 또한 대만 본섬이나 진먼의 종친이 조상 제사를 지내고 교류하는 것은 통전(統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대륙종친회의 통전역할을 느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친과 성씨는 일종의 "근원"의 대표이다. 그래서 종친교류나 성씨경기대회 등 '인조귀종(認祖歸宗)' 외에도 '조국 인정'이라는 함의가 있다. 샤먼의 강하당(江夏堂)을 통해 중국 종친회의 정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강하당(江夏堂)은 황씨의 한 당호이며 샤먼에 있는 강하당은 1910 년에 준공되었다. 황씨 대사당의 제조당은 물론이고 황씨 종친들이 '대만을 건너(過台灣)' '하남양(下南洋)'의 중계역이다. 그야말로 황씨 종친 공통의 '집'이라 할 수 있다. 문혁 때 파괴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당과 종친회

관 두 건물만 남아 있다. 원래의 "강하초등학교"는 지금 "문안초등학교"로 변경되므로 거의 절반의 공간이 초등학교 용지다. 강하당은 2009 년에 시급 제 2 차 섭대문물(涉台文物, 대만과 관련된 문물) 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2018 년 푸젠성대만·홍콩·마카오 사무실은 이를 ‘대(對)대만교류기지(對台交流基地)’로 지정하기도 했다. 2017 년 푸젠성에는 최초의 성급 대 대만 교류 기지가 설립되었다. 2018년 8 개 더 설립되어 현재 총 14 개가 있다. 이 중에 민간신앙 관련된 곳이 4 개 있고, 대만과 관련된 유명인사 관련된 곳이 3 개, 조상근원지문화 관련된 곳 4 개가 있다. 그 중 유일하게 성씨 종친과 관련된 것이 '강하당'이다.

2004 년에 대만 '중화대팽금마황씨 종친연합총회(中華台澎金馬黃氏宗親聯合總會)' 총 320 명이 뿌리를 찾으러 샤먼에 갔다<sup>95</sup>. 그 당시 강하당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에 샤먼시정부는 강하당의 복구와 보존, 관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다. 결국엔 강하당의 일부를 황씨 종친회 관리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때 우리가 회의(강하당의 종친회 반환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륙 쪽에서는 교육국, 통전부, 시(市)위원회, 대만사무실 등의 장관들도 참석했다. 상당히 선의를 보여줬어. (진먼인 황 익장)

---

<sup>95</sup> 每日頭條. ‘黃氏家訓是什麼? 他們用書法弘揚江夏家風, 傳承黃氏祖訓’. 2017-9-26. <https://kknews.cc/culture/4pkl8ag.html>

이로써 강하당의 반환은 종족의 감정만 고려한 것뿐만 아니라 대 대만사무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sup>96</sup>. 뿐만 아니라 샤먼 시정부는 복구를 위해 60만 위안을 지원했고 여기에 황씨 종친회의 기부금 200만 위안으로 2010년 강하당의 복구 공사를 시작했다. 2016년 샤먼 사명구의 대만사무실은 강하당에서 사명대만동포역참(思明台胞驛站)을 설립하기도 했다. 지금 강하당의 가풍가훈관(家風家訓館)은 사명구의 당정간부들이 참관해야 하는 '가정건설 시범기지(家庭建設示範基地)' '하문시 가정건설 시범기지(廈門市家庭建設示範基地)'이기도 하다. 강하당 회장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200명의 간부가 참관하러 온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도 마침 세무국 간부들이 강하당을 참관하러 왔다(그림 3-20). 그들이 주로 황씨의 훌륭한 가풍 가훈과 '충성애국, 효도, 인의대우(仁義待友), 평화인생'같은 강하 황씨 정신을 배우러 왔다. 물론 양안 황씨 종친교류의 거점으로서 강하당이 대만교류기지로 지정되던 것은 중국정부가 양안 교류에 있어 성씨 종족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sup>96</sup> 황 씨는 샤먼과 대만에서 모두 세 번째로 큰 성씨로 양안 민간 교류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또한 강하당이 황씨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더 큰 비율을 가진 진씨 사당을 대 대만교류기지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개혁 개방 이후 황씨 종족이 수도회사와 전력회사를 모두 소유하면서 정부에 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림 3- 20 강하당을 방문하는 당정 간부들



## 4 장 평화적 교류와 관광산업의 발전

### 1절. 소삼통 이전의 교류 문제

소양안이 소삼통을 실시하기 전에 진먼은 여전히 계엄상태였기 때문에 제 3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은 여러 면에서 양안의 완충지가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홍콩은 정치 중립의 역할로서 양안이 민감한 사무적 접촉과 협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1986 년 비행기 납치 사건과 1992 년 양회 회담을 예로 들 수 있다(徐天成 2016). 경제 무역에 있어서 홍콩은 양안 경제 무역 관계의 중계점 역할이었다. 1979 년 1 월 1 일에 중국은 대만에 ‘통상’, ‘통우’, ‘통항’을 제언했다. 그러나 양안이 대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콩은 양안간 중계무역의 '대체적 국경(替代性的國界)'이 되었다 (張榮豐.1986 : 46) . 1987 년 대만 정부가 대륙친척방문을 실시했으므로 양안은 홍콩을 거쳐 무역 총액이 크게 증가하였다(표 4-1 ). 1992 년 홍콩은 처음으로 미국에 이어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과 최대 무역출초 지역이 되었다. 중국 학자 로 사희(羅祥喜)에 따르면 홍콩 반환 이전 ‘경제무역을 위주로 하는 홍콩과 대만의 관계가 이미 홍콩 특색 구성의 일부’가 되었다. 물론 양안 간 인적 교류의 가교 역할도 했다 (羅祥喜.1998 : 154-162; 徐天成 2016:11-12) .

표 4-1 양안이 홍콩을 경유하여 진행되는 무역 총액

년도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는 대만 제품	작년 동기간 대비 (%)	홍콩을 경유하여 대만으로 수입하는 중국 제품	작년 동기간 대비 (%)
1984	425.5	170.7	127.8	42.9
1985	986.8	131.4	115.9	-9.5
1986	811.3	-17.8	144.2	24.4
1987	1226.5	51.2	288.9	100.4
1988	2242.2	82.8	478.7	65.7
1989	2896.5	29.2	586.9	22.6
1990	3278.3	13.2	765.4	30.4
1991	4667.2	42.4	1126.0	47.1
1992	6287.9	34.7	1119.0	-0.6
1993	7585.4	20.6	1103.6	-1.4
1994	8517.2	12.3	1292.3	17.1
1995	9882.8	16.0	1574.2	21.8
1996	9717.6	-1.7	1582.4	0.5
1997	9715.1	0.0	1743.8	10.2
1998	8364.1	-13.9	1654.9	-5.1
1999	8174.9	-2.3	1628.2	-1.6
2000	9593.1	17.3	1980.5	21.6
2001.1	617.6	-13.4	138.7	-15.0
2001.2	686.5	27.9	131.2	10.5
2001.3	744.7	-6.0	156.2	-7.7
2001.4	757.1	-10.7	155.1	-5.5
2001.5	801.1	-8.7	153.5	-12.2
2001.6	655.5	-17.7	121.9	-23.2
2001.7	794.2	-1.7	136.1	-21.0

출처: 홍콩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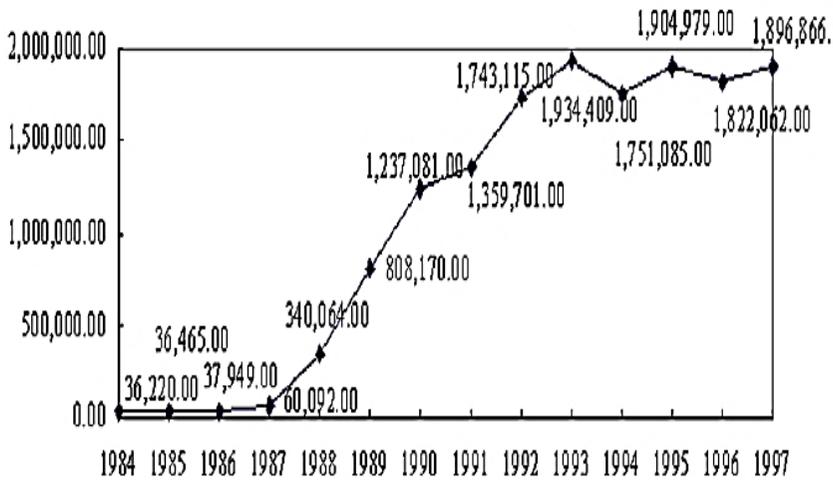
제 3 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1986 년 대만 중화항공의 기장 왕 씨궈(王錫爵) 등이 중국 광저우에 착륙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 두 명이 대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사람을 보내 협상해야 하지만 ‘3 불’원칙을 깨지 않도록 대만 정부가 제 3 자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제 3 지에서 협상이 가능한데 제 3 자를 보내면 안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만 측은 중화항공의 대표를 파견하고 중국 측은 중국민항의 대표를 파견하며 쌍방이 홍콩에서 담판을 지었다. 이로써 홍콩은 양안의

원칙 완충지가 되었다.

다음해 대만 정부가 대륙 출신 노병들이 제 3 지를 거쳐 중국 대륙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때부터 홍콩은 양안 화해의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해 왔다. 1987 년에 대만 정부가 대륙 출신 노병들이 제 3 지를 거쳐 중국 대륙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때부터 홍콩은 양안 화해의 중요한 중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홍콩에 가는 대만인이 크게 늘었다. 1988 년에 홍콩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수가 468,106 명이 증가했고 그 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그림 4-1). 이 때문에 대만-홍콩 항로가 황금항로로 변했고 홍콩의 캐세이패시픽 항공과 드래곤 항공(港龍)도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특히 드래곤 항공이 중국 자본의 배경으로 1990 년대에 홍콩에서 중국 대륙으로 갈아타는 항로를 독점으로 운영했다. 1990 년 홍콩을 방문한 대만인의 수가 134 만 명으로 일본을 추월하여 1 위가 되었다. 1994 년 중국 관광객이 1 위가 되었지만 홍콩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수가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 (香港旅遊發展局 2007:4-11). 1995 년 양안관계는 대만 최초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으로 긴장되고 1997 년 홍콩의 반환을 앞두고 때문에 1995 년 중국의 첸치첸 부총리가 홍콩 반환 이후 대만 문제에 관한 7 가지 기본 원칙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홍콩 반환 이후 홍콩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관계의 특수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대만 정부와 홍콩에 있는 대만 기관과 인원에게 홍콩 기본법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홍콩과 대만의 각종 민간 교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홍콩을 양안의 ‘삼통’ 실시 이전의 실험 구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콩과 대만의 경제 무역 거래와 대만 기업이 홍콩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증가했다(羅祥禧,1998:165-167).

1988년에 대만 대륙위원회가 발표한 ‘홍콩 이관 1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대만과 홍콩간의 무역이나 투자, 그리고 관광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홍콩은 양안 자금 조달의 중심지되기도 한다. 원래 인원 수도 207만 명에 달했고 그 중에 대만 관광객이 189만 명이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왕래가 제한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홍콩과 대만의 관계에 점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997년 8월에 홍콩 특구 정부는 대만이 중화민국 명의로 홍콩의 ‘아시아 생산력 조직’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조직과의 모든 관계를 중지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홍콩 경찰이 홍콩 길거리에서 중화민국 국경일에 축하하려고 꽂은 중화민국 국기를 제거하는 것도 대만과 홍콩의 관계, 그리고 중화민국의 존재 사실에 시련을 주고 있었다(陸委會 1998).

그림 4-1 홍콩의 대만 방문객 수



출처: 대만 내정부 경정서출입국관리국

1995 년 마카오 국제공항이 운영을 시작한 뒤 마카오에서 환승이 더 편리하고 비용이 싼 데다 대만은 홍콩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가우슝항이 구미 지역과 중국의 푸저우, 샤먼 두 항구와의 왕래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홍콩의 양안관계의 중계점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郭正亮,1999:72) . 하지만 2000 년 대만관광객이 홍콩공항에서 대만동포증을 만들 수 있으므로 중국 대륙의 41 개 도시로 환승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때문에 그 해 213 명의 대만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하여 그 중에 중국 대륙으로 환승하는 대만 관광객이 약 108 만 명에 달했다(표 4-2). 2001 에 양안이 ‘양문-양마’의 소삼통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소양안을 양안의 기항지로 고려하지 않고, 진먼과 샤먼의 항로가 단거리의 왕래 항로이어서 해운에 대한 도움도 크지 않았다. 그리하여 홍콩은 대삼통을 실시하기 전까지 계속 양안의 주요한 제 3 지역 할을 해 왔다<sup>97</sup>.

---

<sup>97</sup> 蔡宏明.2001. “由兩岸三地的經濟交流觀察未來香港中介角色的發展”. 大陸委員會「港澳」季報第 094 期 (90.10 ~ 90.12) . 卓越雜誌, 第 1-6 期.卓越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2002:36.

표 4-2 1987~2003 년 대만과 홍콩/마카오의 왕래인원 수

년 도	대만을 방문하는 홍콩·마카오의 인원 수			홍콩·마카오를 방문하는 대만의 인원 수		
	홍 콩	마 카 오	계	홍 콩	마 카 오	계
1987	236,210	766	236,976	60,092	520	60,612
1988	218,088	1,588	219,676	340,064	1,833	341,897
1989	217,517	3,957	221,474	808,170	14,007	822,177
1990	186,896	4,642	191,538	1,237,081	15,302	1,252,383
1991	164,210	4,660	168,870	1,359,701	9,840	1,369,541
1992	159,240	9,690	168,930	1,743,115	10,966	1,754,081
1993	165,737	22,830	188,567	1,934,649	7,084	1,941,733
1994	176,167	34,778	210,945	1,751,085	61	1,751,146
1995	174,469	37,128	211,597	1,904,979	9,063	1,914,042
1996	183,110	38,599	221,709	1,822,062	301,730	2,123,792
1997	177,923	35,692	213,615	1,896,866	500,456	2,397,322
1998	194,116	35,863	229,979	1,738,319	587,083	2,325,402
1999	226,450	36,254	262,704	1,824,423	800,142	2,624,565
2000	263,943	31,330	295,273	1,859,747	1,027,269	2,887,016
2001	322,451	27,052	349,503	2,134,317	1,174,627	3,308,944
2002	340,310	22,867	363,177	2,278,873	1,271,384	3,550,257
2003	249,505	17,530	267,035	1,765,559	836,870	2,602,429

출처: 대만 대륙위원회

## 2절. 소삼통와 진샤관광권의 형성

### (1) 소삼통의 형성

대만 정부는 1987 년에 대만 민중들에게 중국에 가서 친척 방문을 하도록 개방했기 때문에 중국 관광과의 무역 통상 열풍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본성인 대만인도 친척방문의 명목으로 중국으로 관광을 하러 간다. 통계에 따르면 1988~1998 년 10 년 동안

샤먼을 찾은 대만인이 121 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 관광객과 비즈니스객이 가장 많았다(趙玉榕.2001). 1990년대 중국의 해외여행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면서 대만 국내에서도 중국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개방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sup>98</sup>.

그리하여 2000년 10월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양안 소삼통의 영향평가와 계획방향(兩岸小三通影響評估與規劃方向)"을 공포하였다. 내용은 주로 '낙도건설조례' 제 18 조에 따라 진먼·마주·평후지구와 대륙지역 간의 '통항'을 시험운영하는 것을 공포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다만 진먼과 마주지구가 먼저 실시하여 운영이 제대로 하게 된 후 평후지구의 조건부로 개방의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초기에 개방된 항구는 '진먼 라오로항-푸젠 샤먼'과 '마주 푸아오항-푸젠 푸저어'이다. 인적 교류는 국가 안보 원칙에 의하여 쿼터제를 채택했다. 즉 진먼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매일 700명 이하, 마주도는 100명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소삼통을 개방하는 것은 낙도들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특히 중국의 인파가 현지의 관광과 상업을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하지만 물과 전기의 공급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대만 정부가 '소삼통(小三通)' 정책을 추진하는 낙도 경제의 번영과 무역 제죄화(除罪化)와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하지만 '소삼통을 먼저 실시하다가 나중에 조건부로 (대)삼통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중국측은 꽤 불만이 있다. 중국 학자 리비(李非)는 소삼통이 대만 민진당정부가 '이소완대(以小緩大)', 즉 소삼통으로 대삼통의 실시시간을 늦추게 하려고 내놓은 미봉책이

---

<sup>98</sup> 1998년 6월에 대만 측은 대만에 오는 중국 화물선 선원들이 단체로 대만을 관광할 수 있도록 했다.(李非. 2001. "海峽兩岸海上直航問題探討". 台灣研究集刊 Issue 4 : 64 참조)

지만 진먼 같은 낙도 지역과 중국에 한해 ‘통인(인적교류), 통화(화물무역), 통우’를 하는 것은 낙도 지역 주민의 ‘급수, 진료, 취학’에 대한 수요는 물론이고 양안간 직항과 대만 경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李非,2001:65). 또한 창 청(常成)도 대만 정부가 걸은로 소삼통을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대만 상인들이 소삼통을 타게 하여 정치적인 선전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常成,2001:43). 진먼인도 ‘소삼통’ 정책이 ‘직접통항’과 ‘직접통상’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지만 ‘시행’이어서 진먼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유리한 정책적인 계획이 없다고 생각한다(楊再平,2007:5). 그래서 대만 내부에도 양안 간의 경제무역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대만 내부에서도 지역경제에서 대만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소삼통을 양안의 정치적 협상 칩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양안의 경제무역 정책으로 여기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李非,2001:68).

게다가 당시 집권하는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소삼통은 대만의 일방적인 개방으로 되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소삼통이 실시 후 첫 2년간은 화·금요일 이틀만 정기 페리가 있고 일주일에 4 편밖에 없었다. 2003 년에 4 일로 일주일 20 편으로 증가했지만 소삼통 이용자는 대만 국민이 대부분이며 이용 목적은 여행과 친척 방문였다. 중국인 이용자 수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림 4-2 진먼-샤먼 소삼통 노선도



출처: 진먼관광처

2004 년에 이르러 중국 푸젠성은 푸젠성의 대 대만의 지위적 우세를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區)"의 구상을 제시했다. 9 월에 푸젠성이 처음으로 푸젠 주민들에게 진먼과 마주의 여행을 개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쌍방(소양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sup>99</sup>. 그리하여 여행 명목으로 처음 진먼여행을 신청한 샤먼건설그룹(廈門建發集團), 푸젠성석탄협회(福建省煤炭協會)로 구성된 3 개의 관광단이 12 월 7 일에 진먼에 입국해 2 박 3 일의 관광활동을 진행했다. 12 월 15 일 푸젠성관광국 국장인 황 샤오옌(黃曉炎)을 비롯해 중국 정부 관리들이 관광시장시찰단을 구성하여 진먼을 방문했다. 이는

<sup>99</sup> 2004 년 10 월 26 일 왕미향(王美香) 중국공산당 푸젠(福建)성 부성장은 련장(連江)현의 천쉐성(陳雪生) 현장을 만나 ‘푸젠의 마위(馬尾)와 마주의 교류협력이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참조: 參考自范世平.2004. 大陸開放民眾赴金馬地區旅遊之影響, 『展望與探索』第 2 卷第 11 期: 15)

푸젠성 주민이 처음으로 여행의 명목으로 진먼도에 ‘상륙’한 것이었다. 황샤오옌 국장은 ‘진먼의 관광이 바로 푸젠관광의 발전과 연장이어서 진먼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 새로운 관광노선을 황금 관광노선으로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sup>100</sup>. ‘소삼통’ 정책에 대한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꾼 것은 2004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후 진타오가 말한 ‘대만 집권 당국’과 ‘대만 국민’을 분리하는 원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대만 사무를 진마사무와 분리하여 진마 지역에 대한 ‘지지’를 통해 대만과 진마의 모순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sup>101</sup>. 이로 인해 진먼은 본격적으로 포스트 냉전시기에 ‘진샤관광권(金廈旅遊圈)’으로 포장된 중공의 ‘통일전선(이하 통전)’ 전략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2004년 2월부터 ‘진샤항로’는 매일 페리가 있는 것으로 바뀌 2006년 7월부터 하루에 20편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진먼-취안저우 항로’도 증설되었다. 2008년 대만은 두 번째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당이 재집권되어서 양안이 본격적으로 삼통 직항이 실시되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드디어 대만 본섬을 여행할 수 있게 해서 대만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배수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2008년 진먼에서 샤먼 동북쪽에 있는 우통(五通)부두로의 항로를 하나 더 증설하여 운항시간이 60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2014년 4월부터는 진샤항로가 모두 ‘진먼 수이터우(水頭) -샤먼 우통(五通)’ 단일항로로 바뀌었다. 우통 항로의 정기 페리는 하루에 36편으로 늘었다. 2016년까지 진샤항로의 정기 페리편(취안저우 항로포함)은 하루에 44편이 있고 왕래 선박은 진먼 회사의 7척과 중국 회사의 6척을 합치면 총 13개의 선박이다(그림 4-3).

<sup>100</sup> 楊再平.2007.《金廈旅遊圈》整合架構下的金門觀光發展策略管理之研究, 碩士論文: 1

<sup>101</sup> 范世平.2004. 大陸開放民眾赴金馬地區旅遊之影響, 『展望與探索』第 2 卷第 11 期: 14

그림 4-3 2001-2016 년 진먼 소삼통 페리편 수



출처:중화민국국교통부(中華民國交通部),105 年度交通年鑒

## (2) 진샤관광권의 현황

양자이핑(楊再平,2007)은 ‘진샤관광권’을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닌 이웃 관광지역의 지역관광 협력권’이며 ‘양안 경계를 넘는 특수한 지역적 협력체계’로 정의했다. 사실은 진먼만 양안 대삼통 이후 진먼의 관광산업에 대해 충격이 될 것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 푸젠 지역도 대삼통 이후 대 대만의 위치 우세가 잃을 것을 우려해서 진샤관광 협력 모델을 추진하는 데 소양안이 합의를 이루었다. 2003 년 샤먼시 관광국(廈門市旅遊局)은 진먼관광협회(金門旅遊協會)와 관광협력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의 체결은 ‘진하관광권’이라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다차원적 관광협력체계로써 과거에 대만 상인들에게만 ‘진샤직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를 돌파하여 샤먼을 민대(閩台, 푸젠성과 대만)관광객

교류의 유통 센터와 중계점이 될 전망이다<sup>102</sup>.

2004년 9월 푸젠성의 ‘진먼유(金門遊)’의 개방 선언, 10월 진먼 고량주가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여 판매되며 12월 푸젠성 주민의 첫 ‘진먼유’의 시작에 따라 진샤항로가 마침내 다시 활성화시켰다. 소양안의 많은 산업은 ‘관광’을 중심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관광업과 부동산업이다. 2005년 11월 7일 크게 증가한 중국 관광객을 위해 진먼의 새로운 수이터우 여객터미널이 낙성되었다. 당시의 진먼 현장인 리주펑(李炷烽)은 소삼통을 통해 양아의 대삼통(大三通)을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평화통일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sup>103</sup>. 이는 2005년 2월에 진먼현정부와 현의회 방문단이 샤먼과 중국 각지의 진먼 동포 연의회와 좌담회를 열었을 때 푸젠성진먼동포연의회(福建省金門同胞聯誼會) 명예회장이 진먼에 대해 제시한 5가지의 전망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소양안이 진샤관광권을 구축하는 방향을 향해야 양안의 인적 왕래·교류의 중계점과 양안 동포의 감정을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와 중화민족의 전통 문화를 선양하는 문화현, 그리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sup>104</sup>.

2006년 9월 제2회 해협관광박람회(海峽旅游博览会)가 샤먼에서 개최되어 "해협 양안 관광구역 구축(构建海峡两岸旅游区)"의 비전 아래 참석한 양안의 학자와 관료들이 ‘진먼유’를 모델로 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주민의 대만 관광을 개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당 중앙정치국 장샤오옌(蔣孝嚴) 상무위원

---

<sup>102</sup> 中福建网. 厦門着力打造“厦金旅游牌”, 2004年2月19日, <http://info.hotel.hc360.com/2004/02/19093216786.shtml>

<sup>103</sup> 金門日報, 水頭客服中心十一月七日啟用

\*2005/11/05. <https://www.kmdn.gov.tw/1117/1271/1272/129864/>

<sup>104</sup> 厦門日報, 金門參訪團訪厦門“兩門”同胞熱議兩岸合作,

2006年02月14日

[http://www.qzwb.com/gb/content/2006-02/14/content\\_1974879.htm](http://www.qzwb.com/gb/content/2006-02/14/content_1974879.htm)

은 관광이 민간 교류이어서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없다고 말하면서 양안 관광이 양안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sup>105</sup>. 그리고 좌담회에 참석한 진먼측 대표는 지금 진먼을 방문하는 대륙 관광객 수가 아직 처음 정하는 하루에 600 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동남쪽 9 개의 성의 주민들이 진먼에 올 수 있게 확장시켜야 하며 그래야 진먼은 진정한 인적 왕래·교류의 중계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sup>106</sup>.

2005 년 1 월 푸젠성의 철도와 고속도로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점점 완비되기 때문에 샤먼과 취안저우, 장저우(漳州), 룽옌(龙岩) 4 개의 시가 샤먼을 주축한 민서남관광경제권을 형성하였다. 이는 푸젠 지역의 특색과 대만·홍콩·마카오와의 긴밀 연결 등의 관광 자원 우세를 이용해 해협서안경제구역의 관광산업을 발전하는 데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지역 관광 통합이다<sup>107</sup>. 2007 년 1 월에 진먼도 이 민서남관광구역협력연합체(闽西南旅游区域合作联合体, 이하 민서남관광협력체)에 가입하여 민서남 ‘4+ 1’구역의 관광 협력 모델이 형성되었다. 이는 진먼관광의 방문객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진먼을 연결고리로 삼아 관광 시장을 대만 각 섬으로 확장시켜 “해협양안관광권”의 공동시장을 이루는 것을 더 바란 것이다<sup>108</sup>. 같은 해 진샤소삼통을 통해 푸저오(福州)와 취안저우, 그리고 샤먼의 주민들이 마침내 대만섬과 가장 가까운 평후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10 월에 출발한 샤먼시의 평후유(澎湖遊)선

<sup>105</sup> 华夏经纬网, 酝酿世界级规划 两岸携手共谋“海峡旅游”, 2006-09-08 <http://www.huaxia.com/tslj/rdqy/fj/2006/09/55968.html#>

<sup>106</sup> 华夏经纬网, 李炷烽: 金门要发挥两岸重要中转地独特作用图, 2006-09-07

<sup>107</sup> 沈文馥. 2006. 闽西南旅游经济发展的实证研究, 『经济与社会发展』 Vol.4 (2), pp.80-82 : 80

<sup>108</sup> 金門日報, 4+ 1 閩西南區域旅遊圈成形, 2007/04/28 <https://www.kmdn.gov.tw/1117/1271/1272/139798/?cprint=pt>

발단만 해도 무려 280 명에 이른다. 비록 대만에 갈 수 없지만 중국 관광객들에게 이미 큰 유인이 된다. 그래서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평후유가 관광업자와 민중에게 “큰 즐거움의 충격”이라고 평가했다<sup>109</sup>.

하지만 민서남관광협력체는 지역의 경제 발전불균형과 중심 도시 샤먼과 취안저우가 다른 도시를 이끄는 힘도 강하지 않아서 각 시 사이의 관광 협력도가 낮은데다가 비교적 심층적인 관광상품의 공동 개발이 부족하고 각 시의 기존 관광상품은 동질성이 높고,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상품이 부족한 것 등의 문제가 있다 (顏莉虹 2007; 曾慧娟, 張雅萍 2017).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진먼은 관광의 방식으로 중국의 지역 경제 통합의 일원이 된 것은 정치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것 외에, 또한 2008 년에 다가올 양안의 대삼통 실시 후 진먼의 주변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안의 관광계 인사들도 ‘샤먼-진먼-평후<sup>110</sup>’ 코스가 민남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황금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7 년 12 월 중국 국가관광국은 ‘중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진먼과 마주, 그리고 평후에 관광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며 ‘진샤관광권을 해협 관광권의 협력 모델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만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삼통의 진샤항로는 운항거리가 짧고 가격이 낮아서 양안 학교의 졸업여행의 또 다른 선택이 되었다. 2005 년 여름 휴가철에는 중국에 관광하러 가는 대만 본섬 관광객을 위해 소삼통 페리편이 하루 8 편에서 12 편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 당시 샤먼에 입국한 여행객은 일반 관광이나 종교 관광을 하는 대만인이 가장 많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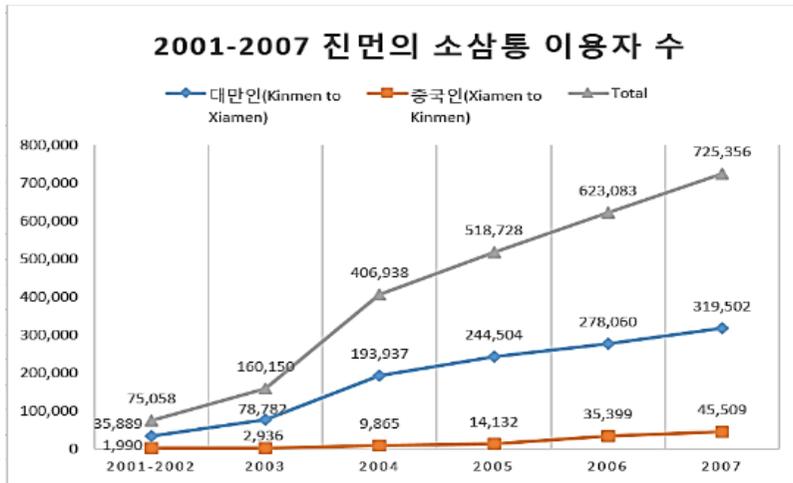
---

<sup>109</sup> 新华网, 厦門-金門-澎湖将成为闽台黄金旅游路线, 2007年10月05日, <http://travel.sohu.com/20071005/n252483401.shtml>

<sup>110</sup> 평후에는 70%이상의 이민이 진먼에서 왔기 때문에 민남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고, 대만 사인이 그 뒤를 이었다<sup>111</sup>. 하지만 같은 해 11 월에 샤먼 시 관광국과 진먼현 여행동업조합이 중국국제관광거래회에서 진샤 관광을 같이 홍보한 후 진먼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sup>112</sup>. 그러나 진먼 여행의 가격이 여전히 중국 국내 여행보다 높아, 특히 증명서 발급 비용과 교통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2007 년 7 월 샤먼은 진먼 여행 증명서 발급소를 설립하였고, 증명서 발급 시간을 단축하였다. 아울러 대만 측도 중국인 관광객의 진먼 여행 비자 심사 처리권을 타이베이에서 진먼으로 넘겨오고 발급 소요시간을 1 개월에서 3 일로 단축시켰다<sup>113</sup>. 쌍방은 약속이나 한 듯이 증명서 발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객의 방문 의사를 제고하였다.

그림 4- 4 2001-2007 년 진먼의 소삼통 이용자 수



출처:金門縣港務處,

<sup>111</sup> 人民网,厦金航线入境人数创新高 入境台胞多来旅游购物, 2005年02月12日 <http://www.people.com.cn/GB/42272/42273/3177543.html>

<sup>112</sup> 新华网,厦门金门推出"厦金游" 一举阅尽"两门秀色",2005-11-18

<sup>113</sup> 新华网,做好厦金旅游: 缩减金门游成本提高性价比, 2007年09月07日 <http://travel.sohu.com/20070907/n252018925.shtml>

2008년 양안이 삼통을 실시한 후 진먼은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까봐, 중국의 샤먼과 다딩도(현재 샤먼시 예속)와 연결한 진샤대교를 제시했다. 그리고 대만 중앙정부도 다리를 만들 가능성을 평가했다. 진샤대교는 진먼도와 다딩도 구간의 북선(8.6km)과 레위도(샤오진먼)와 샤먼 구간의 남선(6km) 두 부분으로 나뉜다. 다딩도는 샤먼보다 발전이 덜하고 샤먼도와와의 거리는 진먼보다 더 멀어서 진샤대교의 북선이 남선보다 편리하지 못하고 경제성도 남선보다 못하다. 진샤대교의 남선은 발전이 좋고 대만 상인들이 많은 샤먼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이어지면 레위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으면서 진먼의 관광산업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그림 4-5).

그림 4-5 진샤대교 남북선 노선도



출처: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

진면의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한 푸젠성진포연의 직원이 진면을 샤면에 포함시켜 다리를 만들어 샤진반도가 조성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통수(通水)와 통전(通電)은 필수이다. 이것은 또한 금문인들이 공공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대에도 부합한다. 진면의 관광 인프라의 규모와 품질이 모두 샤면보다 못하고 물과 전기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다리가 정말 연결되면 진면은 샤면 여행의 반일 여행이나 당일 여행 코스의 필수적인 관광 목적지로 될 우려가 있다. 관광객을 진면에 유숙시킬 수 없다면 관광 수익은 지금보다 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면을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지 않으면 교통량의 증가로 진면의 기존 문화 및 생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그 당시 마잉주 정부는 다리 건설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결국엔 대·소진면을 연결하는 진면대교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Michael Szonyi (2011) 는 마잉주 정부가 사실은 국지적인 이익과 계획, 발전으로 인해 더 광범위한 해협 통일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선 다리 공사만 해도 130 억 대만달러의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면의 대외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공항이 있는 샤면에 의존하는 것은 기존의 제한을 극복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2020 년경에 진샤대교 북선의 다딩도에서 상안(翔安) 국제공항이 개통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4-6). 다딩도와 소등도 사이에 건설하고 있는 상안국제공항의 여행객 수송량이 연 7500 만명, 컨테이너 물류 처리량이 70-80 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대륙 동남쪽의 주요 지역적 허브공항 및 국제 화물운송 공항이 될 것이므로 진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공항을 항공도시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다딩도와 샤오등도 사이의 해역에 부지를 선정하여 바다를 매립한 공항으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안공항은 신도시로의 자리 매김함에 있어서, 대만 산업에 대한 교두보와 현대적 서비스업 중심, 해협서안 여행유통 중심, 중계무역 허브 등의 4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녕도의 국제화는 진먼의 국제화에도 유리하다. 또한 진먼인은 진샤대교를 ‘평화의 다리’로 간주하므로 진먼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먼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관광자원이 있을까? 또 양안의 접경지역인 진먼은 어떻게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해 평화관광의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림 4-6 상안국제공항 위치도



출처: 旺報, 「翔安機場若開通 將重疊金門航路」, 2015.01.14

### 3절. 진먼의 관광자원의 체계화

#### (1) 지방정부의 관광개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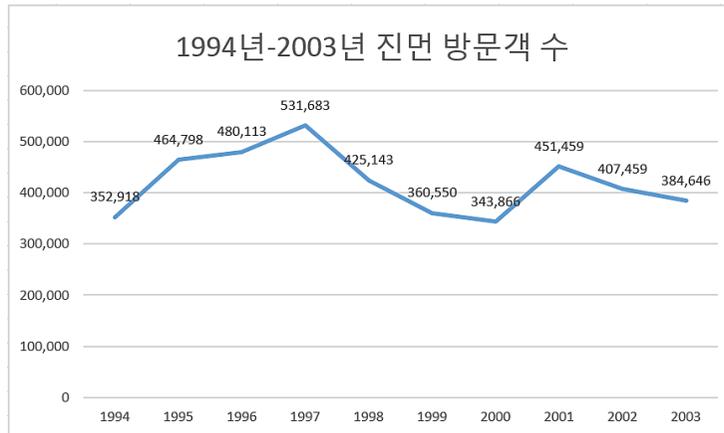
1992 년에 진먼이 계엄령 해제 이후, 진먼현청은 "민남 건축(閩南建築)"과 "전쟁유적(戰役遺跡)", 그리고 "해도형(海島型)"의 자연생태계를 진먼의 특색과 관광자원으로 삼았다. '전장의 진먼'을 '관광의 진먼'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했다. 1987년 9월 날로 늘어가는 대만과 진먼을 오가는 여객을 위해 민항기의 항로를 개방했다. 다음해 진먼을 찾은 여객 수는 76.89% 성장했다<sup>114</sup>. 개방 초기에 대만 국민 관광을 주로 하며 1~3 일 여행 형태로 한다. 대폭으로 증가하는 본섬 관광객 때문에 진먼에게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었다. 1996 년에 진먼을 방문하는 언론인의 묘사에 따르면, '진먼의 거리가 많이 넓어지고 차와 건물도 많아졌다...태평세월의 변화한 풍경은 엄숙하고 긴장된 전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대체했다'<sup>115</sup>.

진먼 관광 개방 초기에는 전쟁터의 신비한 색채가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었지만 정적인 전쟁역사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쟁 유경험자에게 매력이 있는 반면에 전쟁 무경험자들에게 덜 매력적이었다. 이는 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만 본섬 여행과 외국 여행의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에 따라 여행 비용과 관광 목적지의 매력에 대한 고려 아래 진먼의 관광 경쟁력 우위가 별로 없었다(林進財 외, 2002; 范世平, 2004). 그리고金門 관광 개방 초기에 환경 파괴 및 오염 문제, 물값과 땅값의 상승, 범죄 문제 등으로 인해 진먼 주민이 관광산업의 부정적인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歐聖榮, 顏宏旭, 1994).

<sup>114</sup> 內政部營建署, 1944, 『金門戰役紀念國家公園計畫(草案)』, p97-98

<sup>115</sup> 陳水在, 2001. 『金門解嚴前後』, 稻田出版社, p14

그림 4-7 1994-2003 년 진먼 방문객 수



출처:진먼현정부통계실(金門縣政府統計室),2004

그러나 대량 철군과 진먼도의 선천적 조건 제한으로 관광산업은 탈냉전 이후 주요 산업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관광을 발전하기 위해, 진먼현정부는 “제 1 기 진먼현 낙도건설 실시 방안(2003-2006 년)”에서 ‘대만-진먼-샤먼 관광권(台-金-廈旅遊圈)’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며 관광을 통해 자신이 양안을 연결되어 있는 ‘중심’역할임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2006 년부터는 진먼을 ‘국제관광레저도서(國際觀光休閒島嶼)’로 자리매김하여 민남문화 및 전쟁터특색을 주축으로 삼아 ‘슬로라이프’와 심층 관광을 주요 관광형태로 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전력을 기울인다<sup>116</sup>. 2013 년의 ‘진먼현 개념적 마스터플랜’에서는 4E 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Eco 지속생태도’, ‘Event 국제관광도’, ‘E-Island 선봉지혜도’ 및 ‘Entrust 해협서비스도’이다. 이중에는 관광은 진먼의 독특한 전장문화와 민남문화를 바탕으로 공항 등 대외의 인프라시설을 완비하여 10 대 테마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관광도로 만드는 것

<sup>116</sup>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2009), 《金馬中長期經濟發展規劃整體規劃報告》

을 목표로 한다.

또한 관광지의 스토리성의 강화 및 서비스 시설의 향상으로 품질 좋고 친근하며 즐거운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양안 직항과 저가 항공사, 그리고 중국의 해서경제구(海西經濟區) 발전 전략과 같은 외부의 위협에 맞선다. ‘진샤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양안의 평화 복도가 되어 해서경제구와 함께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진먼은 양안의 중심을 갖추도록 한다<sup>117</sup>. 2013 년의 진먼현 정부가 수립한 ‘진먼현 개념적 마스터플랜’과 2014 년 중앙정부가 작성한 ‘진먼현 제 4 기(2015-2018 년)낙도종합건설 실시방안’을 보면 진먼이 이미 관광차원의 발전 전략에서 점차 ‘양안의 비전(非戰)구역’ 또는 ‘평화시범구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2017~2021 년)는 냉전의 섬에서 국제평화도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전쟁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15 년의 '금문현 개념적 마스터플랜'은 2013 년 계획의 기본 개념을 이어갔지만 동아시아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대만을 지역 평화 확보의 중요한 역할로 여긴다. 그러나 조화로운 양안만이 지역의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그러므로 ‘양안평화의 최전선’인 진먼은 대만 가치와 자원의 계승자로서 중국과의 경제 무역과 관광 제한 등을 완화하여 중국 해서경제구의 샤먼과 적극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을 촉진하여 대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지역경제블록의 접점에 있는 섬으로서의 우세를 발휘해야 한다.

---

<sup>117</sup> 진먼현정부.2015. 『金門縣 104-107 年綜合發展計畫』



1996년부터 국방부는 진먼주둔군 감축 계획을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군 기지와 진지가 방치된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진관처는 국가공원 범위 내의 방치된 군사 공간과 방어 공사, 그리고 퇴역 무기를 인수하기 시작하<sup>118</sup>고 전쟁 유적을 대표적인 진지, 지하공사, 훈련장, 심리전기지, 민방전투촌, 기념관(비) 6 가지로 구분하였다. 1999년 대만 교통부 관광국이 진먼 향후의 관광 발전 방향을 ‘민남인문지경과 전투사적관광도(閩南人文地景和戰役史蹟觀光島)’를 정했습니다. 2001년에 ‘진먼의 민남문화와 전장문화의 보존과 전승(如何維護並傳承金門的閩南與戰地文化)’에 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는 대만검찰원(監察院)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진먼에 관한 자문회의였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어떻게 민남문화와 전장문화를 결합시키고 진먼의 독특한 특색으로 전환하는지’이었다. 특히 전장문화의 보존에 있어, 진먼의 전장문화자료의 수집 및 정리 외에 진먼의 역사유적과 마을, 그리고 전쟁유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보호계획에 등재 신청을 제출하며, 반공애국(反共愛國) 같은 정신표어(spirit slogan)를 보유하는 것이 있다<sup>119</sup>.

중국인 관광객에게 민감한 존재인 정신표어의 보존까지 강조하는 것은 관광을 개방하면서 많은 전쟁 유적들이 관광화와 오락화되어서 역사의 진정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20</sup>. 1994년부터 전면적으로 관광을 개방하기 시작한 진먼에 대해 과거의 전쟁유적은 가장 좋은 관광 자원이고 진먼인에게 있어 관광 개방은 평화를 뜻한다. 그래서 ‘전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전쟁의 흑안면을 되도록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1년 중국 푸젠성의 사면과 소삼통을 실시할 때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지만

<sup>118</sup> 2011 金門國家公園計畫書 (第二次通盤檢討) (草案) : 3-24

<sup>119</sup> 陳水在.2001. 『金門解嚴前後』, 稻田出版社 : 153-155

<sup>120</sup> 陳秀竹.2003. 『八二三砲戰口述歷史 (自行研究)』, 金門 : 진먼국가공원 관리처自行研究報告

중국 정부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인 관광객은 양안 대치 시기에 관한 기념관이나 진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정신표어와 반공산주의 토템을 보면 안 된다. 2011년 중국인 관광객이 자유행 관광으로 대만을 방문할 수 있기 전에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로만 진먼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environmental bubble’의 보호 아래 정치적인 자극이 없이 진먼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진먼은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이끌려면 전쟁 유적의 ‘전쟁’ 요소를 최소화시키면서 ‘평화’ 요소를 증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표어’를 없애는 것이다<sup>121</sup>. 그러나 진먼인들은 이리다가 진먼이 자신의 독특한 유산과 자원을 잃게 될 거고 전쟁 유적의 보존과 재활용에도 발언권이 점점 잃어갈 것, 즉 전쟁 유산의 관광화나 평화화는 전쟁 역사의 진정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진먼은 지속적으로 방치된 군사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2003년 대만 국방부는 진먼을 비롯한 6개의 낙도를 지방 정부 해당 기관에 넘겨주며 관광 발전에 재활용하도록 한다<sup>122</sup>. 진관처도 장 보웨이 교수에게 진먼의 전장공간경관의 보존과 관광발전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의뢰하였다.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진먼의 전장경관은 진먼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책략일 뿐 아니라, 푸젠 각 성(省)의 관광 성격과도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문화산업 발전의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보존 및 자연 생태의 보육을 위해 전장공간을 마을과 결합하여 에코 뮤지엄(Eco-Museum)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즉 마을 주민들이 재활용된 군사공간의 관리와 안내에 참

<sup>121</sup> 그러나 정신표어의 철거는 관광만 때문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마을정비사업 때문에 철거된 것도 많다. (江柏煒;翁芬蘭.2005. 『金門戰事紀錄及調查研究(二)』, 金門:金門國家公園管理處,179쪽 참조)

<sup>122</sup> 2011金門國家公園計畫書(第二次通盤檢討)(草案):3-24

여하게 하며 집단 정체성을 통해 전쟁 유적의 보존과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개인 건축물의 집주인이 과거에 군민이 함께 살던 상황을 이야기해주며 관광객들로 하여금 현지의 전쟁유경험자의 구술에서 전시의 어려움을 깨닫고 전쟁에 대해 반성하게 하며 생활박물관이 평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도록 한다<sup>123</sup>. 더 나아가 장 보웨이(2012)는 ‘진먼 군사테마단지사전계획(金門軍事主題園區計畫先期規劃)’에서는 국족이나 군의 서술로부터 벗어나고 시민사회를 주체로 삼아 진먼의 군사 자원을 ‘전쟁박물관군’과 ‘평화경관공원’ 두 가지의 장소 개념으로 ‘세계 냉전 기념지’를 만들어야 비로소 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24</sup>.

‘전쟁박물관군’ 측면에서 진관처는 ‘구닝터우전투기념지’와 ‘태무산’을 군사핵심박물관으로 여기고 전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 그리고 전시 등 작업을 수행한다. 2015 년까지 진관처와 진먼 현정부, 그리고 군은 이미 20 곳의 군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성화시켰다. 또한 방치된 군사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2006 년 진먼 갯도 예술제’와 , ‘2007 년 진먼 토치카 예술제’, ‘2009 년 진먼 전장국제예술제’ 등이 열렸다. 즉 문화 예술로 엄숙한 전장과 황폐된 군사 공간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추억’을 생태와 결합하여 다원적인 전장관광을 추진하여 장 보웨이가 제시한 개인의 미시사(microhistory)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진먼에서 군복무했던 노병들에게 다시 진먼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 년과 2013 년에 진관처는 ‘노병의 추억 여행’을 열었고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좌담회도 열었다. 또 다른 군인을 주체로 하는

<sup>123</sup> 江柏煒;翁芬蘭.2005. 『金門戰事紀錄及調查研究 (二)』, 金門: 진먼국가공원관리처: 185

<sup>124</sup> 江柏煒.2012. 《金門軍事主題園區計畫先期規劃》,金門: 진먼국가공원관리처:103-106

행사는 바로 2011년 중화민국 건국 100년 동계탐조행사와 함께 진먼현정부 교통관광국에서 개최한 '백만 대군의 영웅섬 복귀(百萬大軍重返英雄島)' 행사이다. 1995년 전 제대하여 진먼에서 군복무했던 노병들에게 옛 군영을 찾아가고 군복무할 때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여행 보조금과 선물 외에 군복무 때의 기억에 중요한 부분인 진먼고량주(200ml, 58도)도 한정으로 증정하기도 한다(그림 4-9). 2015년 세 번째로 개최할 때 행사 대상은 노병에 국한되지 않고 현역 군인이나 군사 매니아와 일반 민중들도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인 추억 코스와 군사 매니아와 일반 민중들을 위한 군사체험 코스로 나뉘었다. 군사체험 코스는 페인트볼사격 대회와 야간 행군 행사가 포함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철거된 군영이 백개나 되기 때문에 많은 노병들은 자기가 복무했던 군영을 다시 찾아갈 수 없다고 원망하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군영도 철군에 따라 황폐되어 있어서 노병들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먼현정부와 진관처는 겨울철에 이런 노스탤지어 관광(Nostalgia Tourism)을 추진하는 것이 특정 관광족군이 진먼을 방문하는 동기를 강화시키고 비수기 관광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노병들의 이야기와 사진도 수집할 수 있어서 군인들의 집단기억으로 진먼의 전장관광의 소프트웨어 자원을 풍부하게 만든다. 또한 전장관광의 참여자들이 단층이 생기지 않도록 군사체험으로 전쟁 무경험자의 관심을 끄는 것도 진먼 전장관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림 4-9 진먼 ‘백만 대군의 영웅섬 복귀’ 기념주



표 4-3 현재 관광명소로 재활용하는 진먼 군사 공간들

번호	지역	군사 공간 이름	유형	재개방 년도	현 소속 기관	현재 용도
1	진먼 다오	마산 관측소	갱도	1991	진먼국가공원관리처	양안전망대 (갱도 길이 175m)
2		치웅린 민방갱도	갱도	1993	치웅린 마을	전시갱도체험 (길이 1,355m)
3		자이산 갱도	갱도	1998	진먼국가공원관리처	전시갱도체험, 해군장비 전시갱도음악 축제
4		젠공위 (W038 거점)	해상 벙커	2002	진먼현정부	군영체험, 양안 역사 연결 (정성공 조각상), 굴 생태 장치 예술
5		츠후 삼각보	벙커	2008	진먼국가공원관리처	탱크와 심리전 확성기 전시, 평화와 자연생태 보호의 문화 경관
6		진청 민방갱도	갱도	2008	진먼현정부	민방대 조직 및 훈련 관련 전시관, 전시갱도체험. (길이 1,285m)
7		천공 갱도	갱도형 군영	2008	진후진(鎮) 사무소	전시군영지하생활체험. (길이 620m)
8		경천청(擎天廳)	갱도형 대강당	2008	진먼방위지휘부, 진먼국가공원관리처	태무산 중앙갱도 안에 있는 대강당.

9	영빈관	갱도형 호텔	2010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전장 및 군대위문공연 문화관
10	특약다실전 실관	군대위 안시설	2010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전시위안시설역사전시 관
11	사산 포진 지	갱도형 포진지	2011	진먼현정부	각종 군사물품 전시, 대포쇼 (총 길이 508m)
12	고래 생태 교육관	포진지	2012	진먼현정부	해양 자원 전시관
13	240 도 궤 도 극장	포진지	2012	진먼현정부	공중촬영으로 진먼 경 관을 소개하는 극장
14	노병 이야 기 전시관	수돗물 공장 제 어실	2013	진먼현정부	군복무 시기의 노병 이야기와 사진 전시
15	경천 수돗 물 공장 전 시관	갱도	2013	진먼현정부	수자원 전시관
16	료잉 보병 군사체험단 지	군영	2014	진먼현정부	사격 체험, 페인트볼사 격 체험 등
17	구닝터우 제 3 군영 (W16 거 점)	갱도式 군영	2014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장제스 총통 진먼 순 찰 사진과 해변 군영 및 방어 시설 전시
18	사강(沙崗) 안동 제 1 군영	해안거 점	2016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노병들이 말하는 구닝 터우 전투 이야기
19	선형보(船型 堡)	해안거 점	2019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보기 드문 선체 조형 군사 거점. 현재 선형 보의 특수한 건축 구 조를 주축으로 하는 전장 문화 경관 전시 관
20	지어공 갱 도	갱도	2001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갱도 개착 과정 전시 , 전시갱도체험
21	장군보	해안거 점	2004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소형의 군사박물관
22	용사보, 철 한보	갱도형 거점	2009	레위향사무 소	지뢰전시관, 무기전시 관, 전시지하생활체험 。(용사보 350m, 철 한보 115m)
23	홍투거(紅土 溝)L36 거 점	해안거 점	2010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해안 거점 방위 및 양 안 전망대

24		레위 난산 토어 제 4 군영	해안거 점	2018	진먼국가공 원관리처	독특한 현무암 지형 감상, 갯도 방탈출놀 이 체험
25		호린 군영 소총 모의 사격관	군영	2018	레위향사무 소	소총 모의 사격관
26	다단도 (大膽島)		최전방 의 섬	2019	진먼현정부	진먼에서 유일한 전코 스보행체험

출처: 연구자 정리.

현재 진관처는 여전히 방치된 군사 공간을 관리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이다. 독특한 전쟁유적에 인문과 생태관광까지 진먼을 다른 낙도보다 더 많은 관광 매력을 지닌다. 2013년의 ‘대만 국가(자연)공원 경제 가치 평가’에 따르면, 진먼국가공원의 연간 전체 경제적 가치는 69.3 억 대만 달러에서 75.6 억 대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sup>125</sup>. 그러므로 기존의 관광자원을 잘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재활용된 군사 공간은 매년 20 만~300 만 대만 달러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일부의 군사 공간의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직 재활용 계획이 없는 군사 공간은 관리상 소홀히 하여 치안의 사각지대나 오염의 원인이 되었다<sup>126</sup>. 이들 문제는 진관처의 재정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기 위해 진먼국가공원의 수입을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진관처는 관광지의 입장료를 받는 방안, 혹은 기업이 전통 건축이나 군사 공간을 관리하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다<sup>127</sup>.

전쟁 자원은 진먼관광의 주요 자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sup>125</sup> 內政部.2015. 『105 年至 108 年國家公園中程計畫 (核定本)』: 87

<sup>126</sup> 審計部福建省金門縣審計室. 『105 年度金門縣總決算審核報告』: 乙-14

<sup>127</sup> 內政部.2015. 『105 年至 108 年國家公園中程計畫 (核定本)』: : 118-121

2003 년 대만행정원문화건설위원회는 진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이 있는 12 곳으로 선정되었다. 처음에는 ‘진먼도와 례위도’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지만 2009 년에는 이를 마주도와 합병해서 ‘진마전장문화’로 명명했다. 또한 '양안 공동 세계유산 등재'를 2009 년의 '진마 중장기 경제발전계획(金馬中長期經濟發展規劃)'에 포함시켰다. 2010 년 진먼과 마주의 문화 속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진먼전장문화’와 ‘마주전장문화’로 수정하여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 곳이 18 곳으로 늘렸다. 2011 년 진먼은 ‘진먼 현 세계유산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최초로 샤먼과 공동으로 전장 문화를 등재하자는 제안을 했다<sup>128</sup>.

#### 4절. 잔징관광과 생태관광

##### (1) 관광지로서의 진먼의 이미지

대만 관광국의 관광 홈페이지의 다국어 사이트를 비교하면 각 언어의 사이트에서 진먼을 소개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삼아 대만 중앙기관이 각국 관광객들에게 진먼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먼을 소개하는 내용에 있어 중국어 사이트는 영어 사이트와 대체로 똑같고 한 페이지의 짧은 글에는 진먼의 ‘자연 풍경’, ‘1949 년 이전의 역사와 진먼의 전략적 지위’, ‘냉전시기의 방어공사와 유산, 기념품’, 그리고 ‘진먼의 양안 교량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국공대치와 냉전’에 대한 서술은 ‘진먼은 50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쟁터의 역할을 했다’는 한 마디만 하고 바로 진먼의 탈군사화와 관광산업 시대로 넘어

<sup>128</sup> 「金門擬將戰地文化申遺 盼兩岸攜手完成」2011-03-29 鳳凰衛視, 彭詩婷, 金門報導

<http://taconet.pixnet.net/blog/post/34408303-%E6%88%B0%E5%9C%B0%E6%96%87%E5%8C%96%E7%94%B3%E9%81%BA>

간다. 그러나 영어 사이트 위쪽에는 진먼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장소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있다.

일본어의 소개문에는 양안 대치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지만 사이트 위쪽에 진먼은 반공의 방조제와 자유의 성지라는 문구가 있다. ‘국공대치와 냉전시기’에 대한 서술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어 사이트이다. 한국어 사이트에서 국민당을 ‘민주주의자’라고 부르고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며 ‘진먼의 충성심과 용기는 현재 대만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역사를 전승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서술한다. 심지어 진먼은 국민들과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서 신성한(심지어 신격화되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까지 있다. 이 소개문은 냉전시기에 국민정부가 진먼의 영광스럽고 신성한 반공 보루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을 통해 진먼을 가지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어법을 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먼은 1949~79년 30년간 동아시아 냉전의 ‘열구’였던 반면에 남북한의 서해 5도는 1973년경부터 동아시아 냉전의 ‘열지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냉전의 ‘열구’ 전환의 맥락을 보여준다. 이 외에 소개문에서 명확하게 진먼의 위치와 관할권을 명시하는 것은 일본어 사이트밖에 없다. ‘진먼 뒤에 평후가 있으며 대만 본섬과 마주 보고 있다. 태평양에 떠 있는 반공방파제이기도 한다. …(생략)…중화민국정부가 통치하는 섬이다’. 이는 재미있는 서술이다. 왜냐하면 진먼이 대만 본섬과 마주 보고 있다면 평후도는 진먼의 전방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냉전시기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지리적 위치를 재배열한 서술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을 비교하고자 한다. 영어 사이트에서 진먼의 상징 사진은 ‘즈후(慈湖)’이다. 소개문의 첫머디인 ‘Cihu is the result of a joint military/civil engineering project’로 즈후는 전쟁하에서 생긴 방어 공사라는 것을 설명한다.

츠후는 샤먼과 가깝고 구닝터우의 옛전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국군이 바다를 분리하기 위해 긴 제방을 만들었고 모래사장에 상륙을 방지하기 위해 퀘조제(軌條砦, 철도의 궤도로 만든 방어시설)을 대량으로 설치했다. 오늘날 진먼 전장관광의 상징물 중의 하나다. 그러나 영어 사이트에 실린 츠후 사진은 바닷물 빠진 후 수로가 굽어치는 모습인데 오히려 퀘조제가 드러나는 유명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그림 4-10). 하지만 관광객의 호기심을 더한다. 일본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은 우장(浯江) 하구이다(그림 4-11). 하구 가운데에 우뚝 솟은 건축물이 있어, 폐기된 초소이다. 냉전 시기에 여기는 중국 샤먼과 가장 근접한 하구라서 중요한 거점이었다. 비록 츠후와 우장 하구의 맞은편은 샤먼의 고층빌딩이 즐비한 번영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두 사이트는 공교롭게도 이런 장면을 강조하지 않고 '샤오진먼도(小金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반 관광객들이 샤먼을 포함시켜 진먼의 변경지역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이런 사진 촬영 방식은 대만 중앙 정부의 영토 경계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번진과 달리, 한국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은 양안 포격전 때 대만이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굴착한 작은 보트 갯도인 자이산갯도(翟山갯도)이다(그림 4-12). 같은 냉전 배경을 가진 한국과 공감대를 찾아 한국 관광객을 진먼으로 이끄는 것이 분명하다. 공교롭게도 베트남어 사이트에도 같은 보트 갯도 사진을 사용한다(그림 4-13).

그림 4-10 영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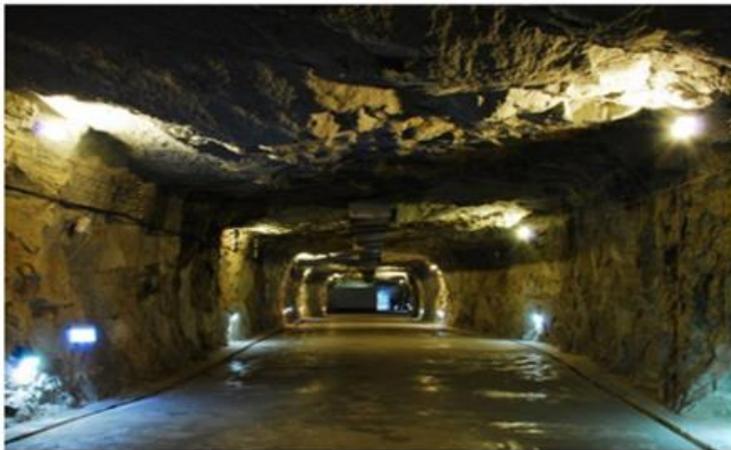
그림 4-11 일본어 사이트의 진먼 대표적인 사진



그림 4-12 한국어 사이트의 진면 대표적인 사진



그림 4-13 베트남어 사이트의 진면 대표적인 사진



각 언어의 웹사이트를 보면, 비록 진면이 1992 년에 계엄령을 해제한지 벌써 25 년을 넘어 이미 ‘최전선’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옛 전장이 남긴 방어 공사는 오히려 오늘날 진면의 특별한 관광 자원이 되었다. 오늘날 진면의 관광객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임에도 불구하고 지만 이러한 전쟁 유산은 관광자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평화’ 상태를 상징하면서 냉전시기의 이데올로기를 담

는 많은 것들이 이미 관광과 양안의 평화 교류라는 고려 하에 수식되거나 삭제되었기 때문에 큰 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비록 진먼은 이미 탈냉전과 탈군사화했지만 중국보다 여전히 완전한 냉전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으니 이들 유산은 냉전사 연구나 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전히 귀중한 자원이다. 다음 소절에서 냉전유산에서 파생된 관광자원을 ‘생태관광’과 ‘전장관광’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 (2) 탈냉전과 생태관광

비록 군사 통제와 지뢰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진먼의 발전을 방해했지만 현재 진먼생태관광 자원을 구성하는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4 년 진먼인 천창지(陳長志)가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진먼은 관광에게 납치된다’고 탈냉전 후 진먼의 파괴적인 발전 방식을 비판했다. 그리고 같은 해 9 월에 진먼해향연맹(金門愛鄉聯盟)과 중화민국황야보호협회(中華民國荒野保護協會) 등을 비롯한 단체가 상의(尚義)공항, 마산(馬山), 그리고 웨이토어(水頭) 세 군데의 도로 신설과 확장에 대해 항의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먼, 주민 공동 참여(永續金門、全民參與)’라는 연서(連署) 활동도 했다. 그들은 현정부가 관광 전략을 ‘체류형’관광에 치중해야 하며 단기적인 관광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진먼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sup>129</sup>. 이번 시위는 진먼인이 최초의 생태보호에 대해 발기한 좀 규모 있는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It’s beautiful! It’s clean, safe and quiet! It’s got lots of trees, flowers, beaches and birds! It’s fantastic for bicycling!’. 이것은

<sup>129</sup> 「永續金門、全民參與」連署說帖」, <https://www.ptt.cc/bbs/Kinmen/M.1095256285.A.E6C.html>

진먼관광처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진먼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Extraordinary Nature"라는 제목으로 진먼의 자연 경관을 표현한다. 비록 진먼은 관광객들에게 시골로 느껴지게 하며 맞은편에 있는 샤먼의 고층빌딩이 즐비하는 도시감과 강력한 대조를 보여 주지만 오히려 진먼관광의 매력이 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지뢰'의 수호로 유지되었던 해안풍경과 생태를 모두 다 진먼 현재 생태관광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하여 여러 해 동안의 개발과 건설 후에 진먼인들이 샤먼의 도시화를 배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발전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즉 전쟁 시기에 보존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샤먼과 차별화되는 생활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2009년 국토공간 발전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태'를 개념으로 하여 진먼 현정부는 진먼을 '인문생태관광지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관광과 진먼 고량주 산업을 두 개의 축으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로 한다<sup>130</sup>. 2013년에는 진먼도의 태무산과 례위도를 생태관광의 핵심으로 삼고 태무산 녹색벨트와 례위생태 슬로라이프오락섬과 같은 군사문화와 민남문화가 결합하는 생태관광의 형태를 제시했다.

진먼국가공원은 계엄령이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설립된 것도 진먼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이 개발 제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지만 관광과 발전으로 인한 파괴를 방지하기에 큰 효과가 있다(그림 5-1). 예를 들어 진먼은 중국 동남연해의 중요한 철새 이동의 중계소로서 조류 자원이 풍부하다. 가마우지를 비롯한 철새 종류는 305 종이 있고 야생 포유동물은 유라시아 수달을 비롯해 적어도 16 종이 있으며 조간대생물도 다양하다. 특히 가마우지는 진먼 겨울의 유명한 철새이다. 2019년

---

<sup>130</sup> 진먼현정부.2010.『金門縣綜合發展計畫暨第三期(100至103年)離島綜合建設實施方案\_核定本』:1

겨울에 진면을 찾아온 가마우지가 1 만 3054 마리로 최근 10 년 동안 가장 많다. 밤에는 주로 츠후에서 서식하며 진면의 중요한 생태경관 중 하나이다<sup>131</sup>. 가마우지는 중국 장난(江南) 일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도구로 이용되지만 진샤해역에서는 그들이 겨울을 무사안일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진면에는 가마우지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카수아리나 나무(소나무류)<sup>132</sup>가 있으며 샤면은 맛있는 해산물이 있기 때문에 가마우지들이 보통 진면에서 서식하며 샤면에서 먹이를 사냥한다. 이는 오늘날의 진면인들처럼, 평상시에는 진면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즐기고 휴일에는 샤면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같다. 한편, 양안의 긴장한 대치 시기에 조류는 ‘경계’와 ‘이테올로기’에 제한하지 않는 자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전(前) 전장에서 조류생태를 탐사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

2003 년부터 진면현정부와 진면국가관리처가 ‘가마우지축제’를 거행하기 시작했다. 행사는 철새 탐조 체험을 위주로 진행되며 진면의 겨울 생태관광을 더 풍부하게 한다. 2006 년의 ‘진면 가마우지 관광 추진 행사’는 진면의 전통 고택 및 군영 군사체험 유원회와 탐조 사진경연대회 등 다원적인 행사를 결합된 큰 행사였다. 2008 년부터 진관처에서 스스로 개최하는 ‘진면채풍 (金門采風) - 고택·가마우지’등 시리즈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음식, 전통 건축 민박, 자전거 타기 등의 체험방식을 결합하여 단순한 탐조

<sup>131</sup> 金門國家公園保育研究課, 鷓鴣受人為干擾驚嚇 金門國家公園呼籲遊客自制, 2019-01-11

[http://www.kmnp.gov.t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894&Itemid=6](http://www.kmnp.gov.t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894&Itemid=6)

<sup>132</sup> 카수아리나 나무는 가뭄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진면의 토질에 적합하다. 방풍의 효능이 있고 떨어지는 가지도 전시에 물을 끊어 밥을 짓는 연료가 되었다. 그래서 냉전시기에 국군이 많이 심었고 진면 녹색터널을 만든 데와 진면을 보호하는 주요 수종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진면인의 전생 추억의 일부이기도 한다.

생태 관광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이런 복합형 생태관광을 통해 오히려 진먼 현지의 원생생물에 대한 외지 관광객의 보호 의식을 증진시켰다. 심지어 후손들에게도 이런 자원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진먼국가공원의 생태, 인문, 그리고 전쟁 역사 유적 등 자원의 보호 및 보존하는 데 기여이 기부하는 외지 관광객도 적지 않는다<sup>133</sup>. 또한 2013년부터 진먼은 ‘낙도형 저탄소 도시’의 구축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뢰제거구역을 경관과 조림 두 가지 용도로 나눠 계획하였다. 지속적인 나무심기의 노력으로 2016년까지 이미 170여 헥타르에 달하는 해안조림구역을 조성했다. 그 외에도 저탄소 관광 교통 수단을 보급시키는데, 예를 들면 전기버스나 전기오토바이 등이 있다. 진먼은 대규모 공해 공장이 없는 데다 저개발 환경까지 갖추기 때문에 오히려 고품질의 레저 관광을 추진하여 ‘슬로라이프(Slow Life)’의 생활미학으로 발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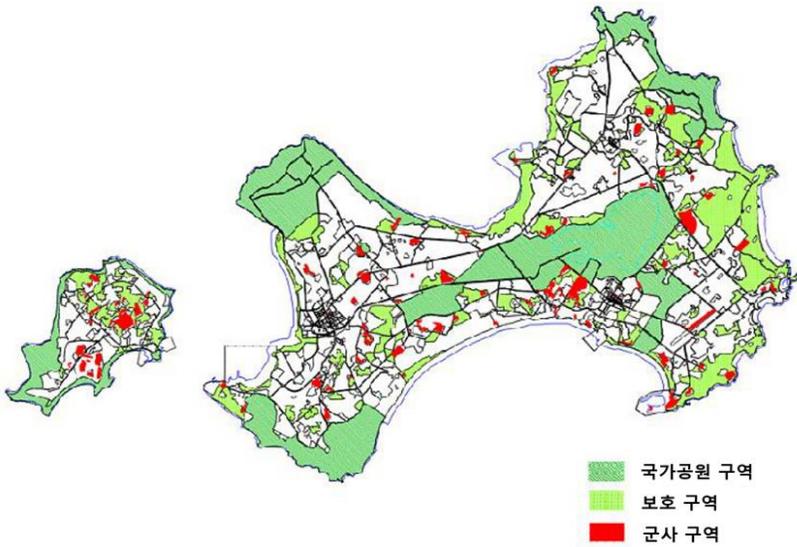
2015년의 진먼현 개념적 마스터플랜에서는 진먼을 동양의 녹색 명주와 생태의 모델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진먼도를 츠후와 타우산, 그리고 치웅린 등 3대 중점생태핵심구역과 레위핵심생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중국과 북해안의 공동 해양 보호 구역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샤먼의 상안 공항이 바다 매립으로 만든 것이어서 진먼 연해지역에서 모래자갈을 무단 채굴하는 대륙의 모래선을 늘상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진먼의 해안선이 줄곧 축소되었으며, 이 외에도 모래선의 왕래 항행은 진먼의 굴양식장의 생태를 파괴하여 굴양식을 하는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쳤다. 일부 바다모래는 진먼이나 대만으로 되팔리기도 하여 언론에 의해 ‘도둑에게 국토를 사다’라

---

<sup>133</sup> 金門國家公園管理處委託研究報告.2016 金門國家公園的生態經濟效益分析：80-90

고 풍자되기도 했다. 중국은 바다모래 채굴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므로 대만 사이의 해협 중간선은 회색지대가 되었고 무단 모래 채굴의 핫 존이 되어 하루에 백여 척의 모래선이 진먼에서 무단 채굴을 하고 있으나 진먼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필요하다.

그림 4-14 진먼 발전 제한 구역 분부도



출처: 金門建設局,金門縣綜合發展計畫暨第三期(100至103年)離島綜合建設實施方案\_核定本,9쪽

### (3) 전장관광의 현황과 미래 전망

#### 1) 관광버스의 전장코스로 본 진먼의 전장관광

금문의 전쟁유산이 관광자원으로 전환된 지 거의 25년이 되었다. 평화시기의 오늘날에 양안 관광객들이 진먼의 전쟁유산을 어떻게 보는지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인가는 지방정부가 전쟁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의미와 전쟁유산의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8년 8월 22일~9월 17일 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대만 본섬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이다.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아직까지 전쟁역사관을 방문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비록 자유형 중국인 관광객이 전쟁역사관을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지만 대부분 5분~10분 아주 짧은 시간만 구경하는 데다가 가이드의 안내 없이 구경하곤 한다. 그리하여 본 설문조사는 해설원이 있고 자유형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사용하는 진먼 관광버스 ‘대만호행 B 선-구닝터우전장코스(台灣好行古寧頭戰場線)’를 택하여 조사를 했다.

설문지의 구성은 1) 개인정보, 2) 진먼도에 대한 인식, 3) ‘대만호행구닝터우전장코스’에 대한 만족도, 4) 전쟁유산과 평화관광의 4부분의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 내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3명의 전문가들<sup>134</sup>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총 316명으로, 그 중에 대만 관광객이 183명(남자 47%, 여자 53%), 중국 관광객이 127명(남자 46.5%, 여자 53.5%)을 차지한다. 대만 관광객은 50대(26.2%)와 60대(26.2%)의 응답자가 가장 많고 중국 관광객은 30대(27.6%)와 20대(22%)의 응답자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 전장코스를 선택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모두 ‘해설원이 있어서 좀더 ‘안

---

<sup>134</sup> 검증은 대만 교수 2명, 한국 교수 1명이 진행했다. 대만 교수는 장보웨이(江柏煒) 대만국립사범대학 동아시아학과장과 장리혜(張梨慧) 국립진먼대학교관광관리학과 교수이며, 한국 교수는 백지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이다.

내원이 있어서 좀 더 깊게 진면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이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조금 다르다. 중국 관광객은 '진면의 전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14.2%)이며 대만 관광객은 '코스기가 좋다'(8.7%)로 나타났다. 금문의 전쟁 유산이 아직도 중국인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면도에 대한 인식' 부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진면을 찾아오는 이유'에는 모두 '옛 전장의 분위기를 느껴 본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데, 대만 관광객이 62.3%(그림 4-15)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29.9%로만 나타나고 다음으로 '중국대륙과 가깝다'(23.6%), '진면에서 사면을 보기'(12.6%)로(그림 4-16) 나타난다. 진면도의 전장 이미지는 여전히 양안 민중의 머리 속에 새겨 있고 중국 관광객이 좀더 접경 지역의 응시 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진면은 처음 방문하는데 대만 관광객이 5 번(5 번 포함)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15.8%로 나타난다(그림 4-17). 이는 대부분 진면에서 친척이나 진면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나오는 결과다.

그림 4-15 대만 본섬 관광객 방문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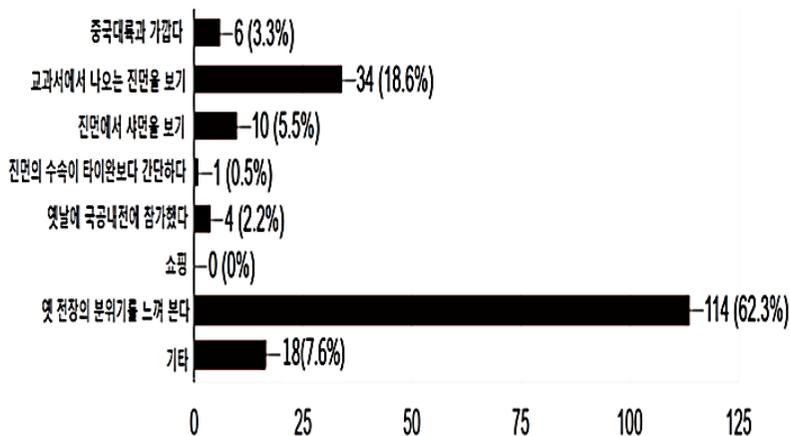


그림 4- 16 중국관광객 방문 동기

<중국관광객 방문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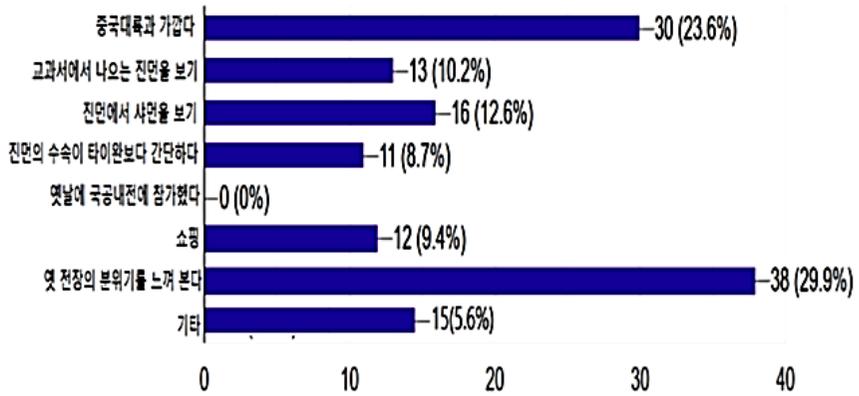


그림 4- 17 대만 본섬 관광객의 방문횟수



그림 4- 18 중국 관광객 방문횟수



‘대만호행구닝터우전장코스’에 관한 조사에 있어, 91.3%의 대만 관광객이 구닝터우(古寧頭)’를 알지만 중국 관광객은 겨우 34.6%만 알고 있다(그림 4-19,그림 4-20). 이는 전쟁 결과에 대한 양측의 중앙정부의 진술과 홍보 비중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중공은 구닝터우 전투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강조하거나 관련 전시관이 있지 않는 반면에 국민당은 구닝터우 전투에서 오래만의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관련 역사관이나 교과서로 전국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공 중앙도 궁금하고 검토해온 패전 경험은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양안 관광객들이 이 전장코스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소는 바로 ‘구닝터우전사관’이다(그림 4-21,그림 4-22)

그림 4-19 대만 본섬 관광객의 구닝터우에 대한 사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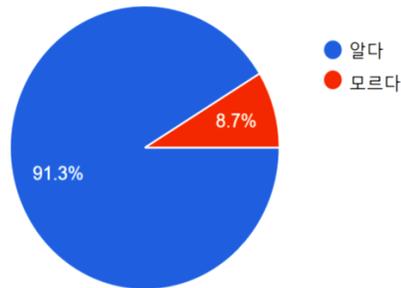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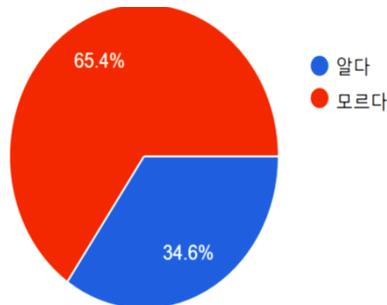


그림 4-20 중국 관광객의 구닝터우에 대한 사전 정보



하지만 비율적으로 대만 관광객이 59%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30.7%만 나타나고 두 번째로 기대되는 장소가 체험 코스인 ‘진천민방갱도(金城民防坑道)’이다. 전 코스를 관람한 후 대만 관광객은 여전히 ‘구녕터우전사관’이 가장 좋고 40.4%로 나타났지만 중국 관광객은 가장 마음에 든 곳이 ‘진천민방갱도’(31.5%)로 바꿨다. 그리고 이 코스 중에 ‘평화기념공원’을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뽑았다. 그리고 이 코스 중에 양안 관광객들이 ‘평화기념공원’을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뽑았다(그림 4-23). 아쉽게도 설문 조사라 왜 ‘평화기념공원’을 선택하는지 좀 더 깊이 알 수가 없지만 ‘평화’라는 단어와 공원 안의 ‘평화의 종’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두 번째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은 양안 관광객들이 약 22.75%로 ‘구녕터우전사관’을 선택했다. 진먼의 전쟁 기념관이나 전시물품들은 이미 원래 건설될 때의 승리의 영광을 과시하는 기능으로부터 평화 이념을 선전하는 기능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대만 본섬 관광객이 기대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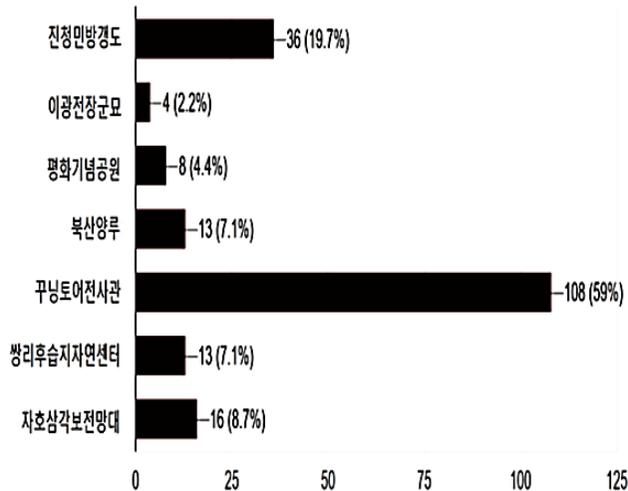


그림 4-22 중국관광객이 기대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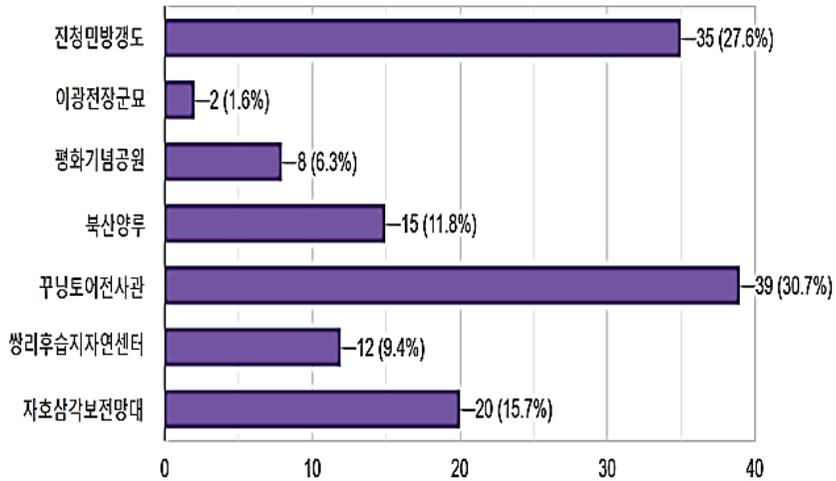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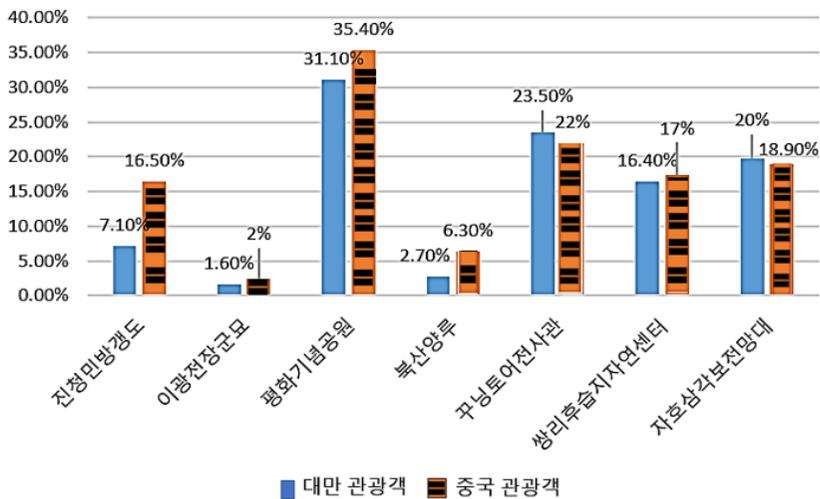


그림 4-23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



마지막으로 ‘전쟁유산과 평화관광’의 부분에 있어, 양안 관광객들이 진먼의 전쟁유산은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적합적이고 진먼 관광 발전에 부적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여긴 것으로 나타난다. 양안 관광객들은 구녕토어전사관이 관광상품으로 잘 활용되어 있는 전쟁유산이라고 여긴다(그림 4-24). 그리고 ‘진먼의 전쟁유산의 우세’

에 대해, 약 44.6%의 양안 관광객은 '역사 교육의 교재와 장소'로 하는 것은 가장 큰 우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만 관광객은 진먼의 전쟁유산이 평화의 상징(16.4%)보다 관광자원(31.6%)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평화의 상징(27.6%)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그림 4-25). 비록 이런 차이가 나타났지만 진먼의 전쟁유산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약 59.65%의 양안 관광객들이 '정부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평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어느 정부'에 의해 관리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안 관광객들은 진먼의 전쟁유산을 공공재라고 보고 이를 적절히 지켜야 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가능성'에 대해 30.1%의 대만 관광객이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15.7%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시 양안 관계의 정의(definition) 문제로 돌아간 것이다.

그림 4- 24 전쟁유산이 관광상품으로 잘 활용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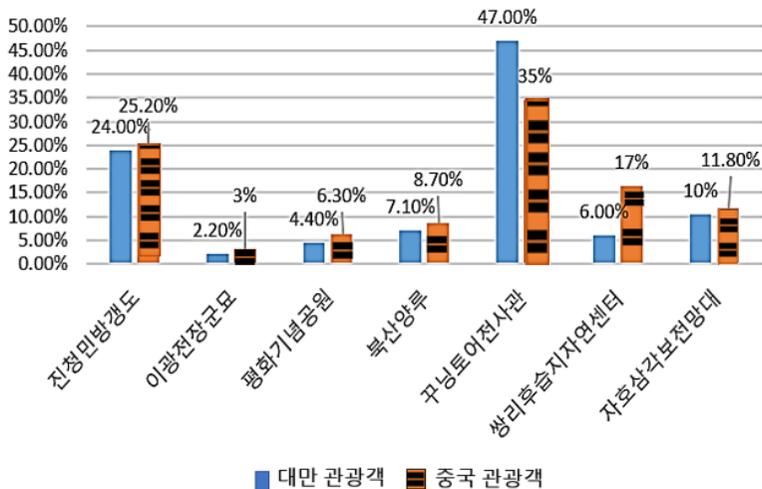


그림 4- 25 진먼의 전쟁유산의 가장 큰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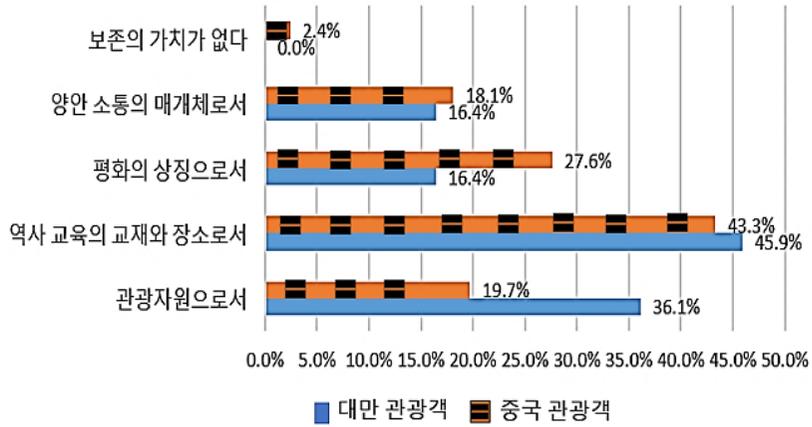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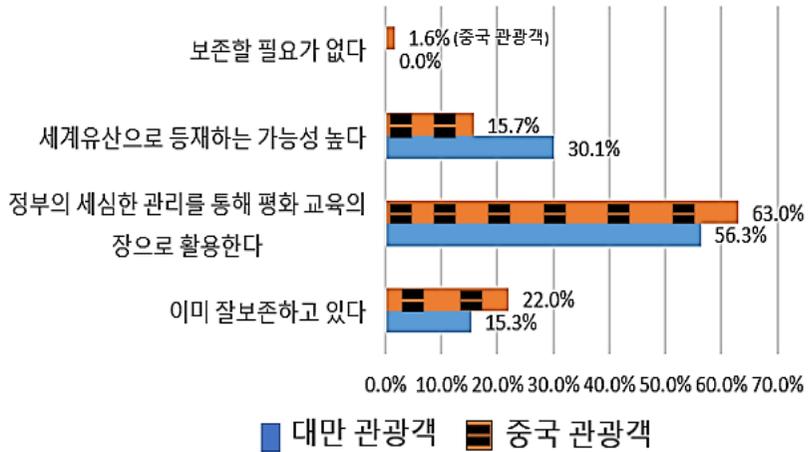


그림 4- 26 향후 진먼의 전쟁유산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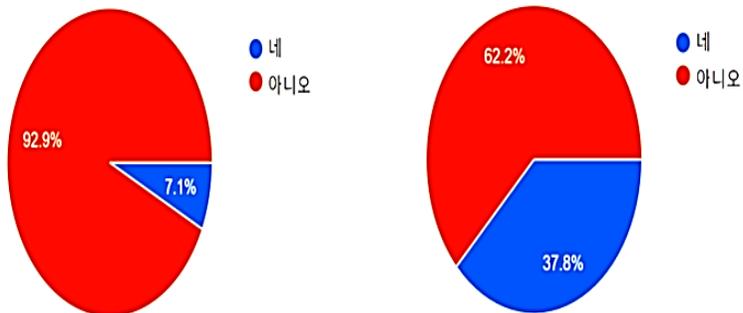
## 2) 전장관광의 미래 전망

대만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라서 스스로 등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7000 만 대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대만 내부에서 국내와 양안의 정치적 틀을 벗어나야 하고 대등하고 존중하는 전제 아래 양안이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라는 소리가 나왔다. 특히 ‘전장문화’는 양안의 지역 전쟁사이자 전세계 냉전사의 핵심 중의 하나라서 유난히 중요하다. 이에 중국 측은 양안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면, 공동으로 중화문화를 고양하는 것은 모두 협상할 수 있지만 민남문화와 자연생태의 공동 등재에는 더욱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5년 진먼은 여전히 ‘진먼현 개념적 마스터플랜’에서 중국의 홍색관광과 같이 전장관광을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중국에 보존되어 있고 관광명소로 운영하고 있는 냉전 유산들이 모두 애국주의 색채가 강한 홍색 관광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푸젠의 냉전 유산은 샤먼시의 샤먼도와 다딩도, 그리고 진장시의 웨이터우(围头)촌 3 군데에 주로 퍼져 있다. 그 중에 1999년 건설된 다딩도의 ‘영웅삼도전지관광원(英雄三島戰地觀光園)’에 전시된 냉전시기의 물건들이 가장 많고 가장 집중된다. 중국 양안 냉전의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난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인들에게 이런 붉은 색 관광 명소는 여전히 매우 낯설다. 하지만 의외로 62.2%의 중국관광객도 영웅삼도전지관광원에 가본 적이 없다.

그림 4- 27 양안 관광객 ‘영웅삼도전지관광원 방문 여부

<대만관광객의 ‘영웅삼도전지관광원’ 방문 여부 > <중국 관광객의 ‘영웅삼도전지관광원’ 방문 여부



이 관광원은 통일조국의 대업을 주제로 하여 전장 관광을 내용으로 하는 ‘성(省)급 애국주의 교육기지’이다. 관광원 내에는 823 포격전역사관, 군사방송확성기, 망금루(望金樓), 국방교육관, 평화통일광장, 그리고 체험시설들(전지군사갱도, 페인트볼사격) 등 18개의 전시관이 있다. 전시 내용은 크게 냉전기억과 흥색기억으로 나뉜다(그림 4-28). 냉전기억은 823 포격전유적과 무기, 선전전(방송전과 풍선 선전전), 그리고 민병(民兵)기억 등의 주제로 나뉜다. 그 중에 선전전 관련 전시가 가장 특별하다. 양안의 심리방송소는 1950년대부터 건설하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설립된 곳은 샤먼 자오위도에 위치한 ‘대진면방송팀(1953년)’이었다. 1953~1954년 동안, 소양안이 상대적인 위치에 잇따라 방송소나 방송벽을 건설했다. 당시 자오위도에서 일하는 방송원인 우 쓰저(吳世澤)의 회고에 의하면, 1953~1957년 동안에만 100명이 넘는 국민당군이 진면에서 중국 대륙으로 수영해 갔다<sup>135</sup>. 공교롭게도 진면에 주둔한 보병사단이 1956년경부터 2년 한번씩 교대하기 시작했다. 진면의 어른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대륙 출신 국군이 중국으로 투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마 방송심리전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1958년 10월에는 샤먼 후리산(胡里山)에서 ‘샤먼 대적방송총소(厦門对敌广播总站)’을 설립하여 다딩도와 샤오딩도, 그리고 칭위(青屿) 3곳에서도 방송분소(广播分站)를 설립했다<sup>136</sup>. 비록 자오위도에 설치했던 ‘구도조(九头鸟)’확성기가 현재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샤먼 ‘중국 인민해방군 푸젠최전선 방송국 (厦門中国人民解放军福建前线广播电台)’에 설치했던 ‘세계

<sup>135</sup> “福建前线广播站”开播 60 周年：老播音员重游炮台忆芳华\_厦门广电网  
<http://xiamen.xmtv.cn/2018/10/06/VIDE459s9ZX2mJIV3FNEjfJk181006.shtml>

<sup>136</sup> 厦门市地方志--1991 专记

최대 군사 방송 스피커'는 현재 관광원 내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4-29). 홍색기억은 홍색기억전장관(红色记忆典藏馆)을 위주로 하여 마오쩌둥의 초상화, 중국식의 자수와 술병 등을 진열하여 마우쩌둥, 저우 언라이, 그리고 중국 10대 장군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그림 4-30)(오준방·김란,2018:73-75).

그림 4-28 다딩도의 '영운삼도전지관광원 가이드맵



그림 4-29 세계 최대 군사 방송 스피커



그림 4-30 홍색기억전장관



또한, 웨이터우는 1958년 8.23 포격전의 주요 진지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웨이터우 8.23 전지공원(围头八二三战地公园)’은 주로 현지의 냉전유적지와 용감한 민병들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전시되어 있다. 이 전지공원은 2008년 8.23 포격전 50주년에 건설되었으며 이 전지공원을 중심으로 웨이터우촌의 서선(西线) 전장관광대가 형성되었다. 8.23 포격전 관련 유적은 달옥루(达屋楼), 8.23 대로, 8.23 신촌사무동, 전망대와 해안포진지유적지, 그리고 우수루(毓秀楼) 등 6 곳이 있다(그림 4-31). 전지공원 내의 전시내용은 네 가지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즉 냉전역사, 민간신앙, 홍색기지, 그리고 환경교육이다. 홍색기지는 2016년에 개관한 ‘전쟁과 평화 전시관’을 주체로 하여 관내 전시는 당건(党建) 전시와 홍색교육청, 그리고 양안 교류 등 내용이다(그림 4-32). 이 전지공원이 늦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다둥도의 ‘영웅삼도전지관광원’과는 달리, 진먼과의 오늘날의 교류 성과를 더 많이 언급한다. 전시관의 3층은 바로 양안의 무역과 통혼으로 웨이터우촌이 이미 ‘해협포격전제 1촌(海峡炮战第一村)’에서 양안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오준방·김란, 2018:75-79). 특히 2018년 8월 5일 웨이터우촌과 진먼은 23년의 협상 끝에 드디어 인수(引水) 공정이 준공되었다

(그림 4-33). 웨이터우촌은 명실상부한 ‘민타이오연촌(闽台五缘村)<sup>137</sup>’이 되었다. 이 때문에 웨이터우는 대만을 향한 ‘평화의 손’으로 표현된다<sup>138</sup>. 따라서 양안의 냉전유산이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왕래교통시설이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면 관광연동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31 진먼로부터 포격을 당한 웨이터우 강철진지



그림 4-32 전쟁과 평화 전시관



<sup>137</sup> 오연(五缘)은 지연(地缘), 상연(商缘), 인연(姻缘), 민연(民缘), 수연(水缘)을 가리킨다.

<sup>138</sup> 福建新闻网, 「围头: 海丝航道上的「海峡第一村」, 2016.08.08  
<https://read01.com/zh-tw/dMkjxo.html#.WyPEOKczYus>

그림 4-33 진먼의 중국 인수(引水) 공정도



마지막으로, 샤먼도는 1980 년대에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도시화를 위해 많은 냉전 관련 물품들이 다량 도에 전시하며 보존하고 있다. 탈냉전시기에 들어, 중국 정부는 샤먼을 양안 평화 통일의 최전선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샤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관광 명소는 '일국양제·통일중국(一國兩制·統一中國)'이라는 거대한 표어 간판이다(그림 4-34). 이 표어는 양안 심리전의 연장이다. 이에 대응하는 표어는 샤먼에서 약 4,400m 떨어져 있고, 현재 진먼현에 속한 다단도의 '삼민주의·통일중국(三民主義·統一中國)' 표어다(그림 4-35). 이 두 표어의 설립 배경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81 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무위원장인 예젠잉(叶劍英)이 발표한 '예구조(叶九条)'중의 '양안 통일 이후 대만은 고도의 자주권을 누린다'는 말에 호응하며 이를 '하나의 나라, 두개의 제도'로 정리하였다. 1992 년 지양쩌민(江澤民)은 정식으로 '일국양제'를 양안의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았다. 대만은 중국이 제시한 일국양제에 응하기 위해 1986 년에 다단도와 어단도(二膽島)에서 '삼민주의·통일중국'의 표어 간판을 설치했다. 2014 년 소삼통의 진샤향로가 '진먼 수이터우(水頭) -샤먼 우통(五通)'으로 바꾸기 전에 오가는 페리들이 어단도의 표어 간판을 보이곤 했다. 다단도의 표어 간판이 샤먼의 인기 해변 휴양지인 환도로(環島路)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1999 년 중국도 환도로에서 '일국양제·통일중국' 간판을 설치했다. 샤먼 관광업자의 '대만 경계선을 넘어 진먼군도를 구경하다'와 '해상군사분계선'과 같은 특수한 국경 매력을 지닌 광고 문구로 제시한 '하이상칸진먼(海上看金門,바다에서 진먼을 바라본다)'라는 관광상품에는 다단도의 표어 간판을 보는 것이 주요 코스이다. 이 관광 코스는 샤먼 여행업에 1 년에 1.7 억 위안의 관광 수익을 가져 온다<sup>139</sup>. 샤먼도에는 양안 냉전시기의 전문 기념관이나 관광단지 가 따로 없지만 샤먼의 가장 큰 냉전유산의 전시 무대가 바로 진먼군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오준방·김란,2018:80-81). 2019 년 3 월 1 일, 다단도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관광을 개방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진먼도와 레위도와 다른 전장관광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전 코스는 안내원이 관광객을 데리고 걸어서 섬을 한 바퀴 도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이 맛볼 수 있도록 진먼 특유의 전쟁요리인 '볶음라면'이나 다단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케이크 를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다단도는 아직 중국 관광객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

<sup>139</sup> ETtoday 新聞雲,戰地秘境大膽島 「統一中國心戰牆」讓陸客年花 7 億朝聖,2018.6.8  
<https://travel.ettoday.net/article/1186796.htm#ixzz5k7W8vaA2>

그림 4-34 샤먼의 '일국양제 · 통일중국' 표어



그림 4-35 다단도의 '삼민주의 · 통일중국' 표어



## 5절. 민남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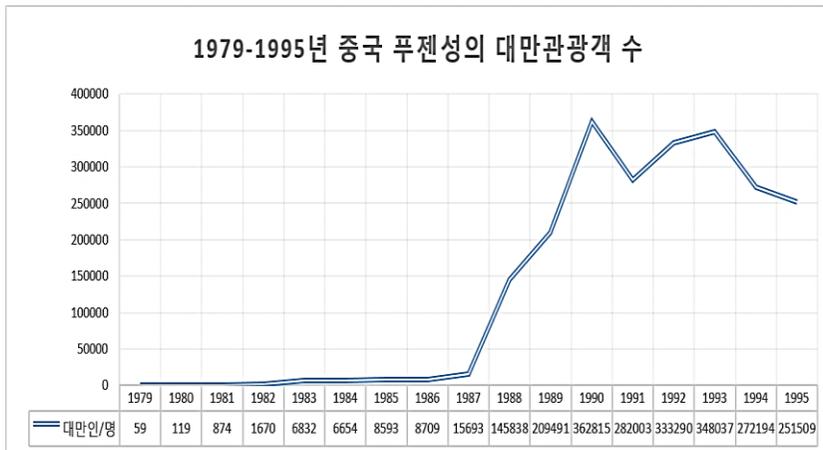
‘민남(閩南)문화권’이란 ‘민남어(일명 푸젠어, Hokkien)’라는 방언을 사용하는 문화권을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중국 푸젠 남부 지방(장저우, 취안저우, 샤먼 등지)에서만 사용하는 방언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민을 따라 대만과 동남아 지역의 화인들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연(語緣)’은 처음에는 놀라움 속에서 다시 시작했다. 왜냐하면 양안의 분단으로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안 교류를 개방한 이후 민남지역에 온 대만 사

랍들은 샤먼 등지의 사람들도 민남어를 할 줄 아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 대만 사업에 있어, 언어의 친근감도 양안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된다. 언어 소통이 가능하므로 대만인들의 푸젠 여행 의향을 높인다. 1987년 대만은 중국 대륙의 친척 방문을 개방한 이후 푸젠을 찾는 대만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푸젠 출신 노병은 제일 많은 것이 아니지만 많은 대만인들의 조상은 푸젠에서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척 방문의 명의로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 이것도 뿌리찾기 여행 중의 하나다.

중국 푸젠성은 중국 최초의 대외 통상의 성(省) 가운데 하나로 푸젠 사람들이 해외로 출발하는 기점으로서 유명한 화교들의 고향이다. 1981년 중국은 푸젠성을 통일 조국의 중요한 기지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한다. 대만과의 통우(通郵)와, 통전(通電), 통항(通航), 그리고 대만 동포의 친척 방문, 관광 및 정착 등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또한 대만 상인들이 푸젠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16 군데의 소액무역구를 개방하고 무역회사도 설립했다. 원래 불법이었던 양안 무역을 합법적인 소액무역으로 바꿨다. 그리고 대만상인투자구역(台商投資區, 1989)과 대만농업투자구역(台灣農業投資區, 1990) 등을 잇달아 설립하여 대만 상인들이 푸젠성에 투자하는 것을 이끌었다. 1981년~1989년 푸젠에 설립된 대만 기업은 259개가 있어 푸젠의 주요 외래 투자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푸젠을 경제 개발구역으로 점점 발전시켰다. 또한 최전방의 진지와 관찰 초소 등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도 중점적인 발전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대만인들의 푸젠 여행은 대부분 민남문화 명소를 관련 구경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 1989년 “취안저우 대만동포 귀향 뿌리찾기 가이드북(泉州臺胞回鄉尋根指南)”은 대만 동포들이 참배

나 여행, 친척 방문을 더욱 편의하게 하고 작고로 대만과 취안저우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샤먼대학교에서 출판되었다. 이 가이드북에서 중공은 문화재의 보호가 애국주의의 고취와 조국 통일 대업의 촉진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黃安全, 1989:31). 이 가이드북에서 특별히 대만과 관계가 있는 명소로는 ‘천후궁(마조묘)’, ‘관우묘’, ‘용산사’, ‘칭수암’, ‘정성공릉’ 등을 꼽았다. 통계에 의하면 1987년 11월~1991년 말 기간 동안만에도 푸젠성을 방문하는 대만 동포가 약 80만 명에 달했다. 특히 ‘동양의 메카’라고 불리는 메이저우의 마조묘는 대만인의 ‘종교의 뿌리찾기(순례)’의 중요한 곳이다(陶紅亮, 2018:11).

그림 4-36 1979-1995년 중국 푸젠성의 대만관광객 수



출처: 福建统计年鉴(2018)

중국에 있어서, 민남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대만 동포의 공감을 얻고 조국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1988년부터 취안저우 문화청은 민대(閩台)관계에 관한 박물관의 건설에 대해 계획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취안저우의 천후궁 내에 부설했고 당시의 명칭은 ‘취안저우 민대관계

사박물관'이었다. 1989년 10월부터 '민대연(閩台緣)'을 주제로 한 각종 전시가 열렸다. 2004년 천후궁의 건축구조와 동선을 고려한 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 창춘(李長春)이 현대적이며 국가급의 테마 박물관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민대연박물관은 주변 박물관과 기존의 민남건축물과 결합해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건설될 계획에 '源(근원)', '緣(인연)', 그리고 '圓(원형)'의 이념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기초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에서 중시되므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걸러 2006년 5월에 순조롭게 개관했다. 건설된 후, 민대연박물관은 지연(地緣), 혈연(血緣), 법연(法緣), 사연(史緣), 문연(文緣), 속연(文緣), 신연(神緣)을 주제로 실내 전시관을 설계했다. 이 외에는 건물 자체는 민남의 독특한 '빨간 벽돌'과 '백석담', '연미마루(燕尾屋脊)', 그리고 '말등산벽(馬背山牆)'과 같은 '동근(同根)' 경관을 나타낸다(그림 4-37)(潘峰著, 2011:28-39). 이런 건축 형식은 진먼에서 가장 흔히 본다. 2008년 개관한 지 2년도 안 되어 56만 명이 민대연박물관을 방문했고 그중 대만 동포 6만 명이 있다. 2016년 건립 10주년에 누적된 방문객이 1000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 대만 동포 70만 명에 가까이 있다<sup>140</sup>. 민대연박물관에서 진열된 문물들이 민대이 '오연(五緣)관계를 보여주는 외에 체계적으로 양안의 역사적 관련을 반응해서 '문화적 대만독립'과 '법적 대만독립'을 효과적으로 반대하며 억제한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선전과 교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양안 인

<sup>140</sup> 华夏经纬网. “情系闽台缘 六万台胞走进闽台缘博物馆”. 2008-02-16. <http://www.huaxia.com/xw/zhxw/2008/02/365531.html>; 新华社. “浓浓“闽台缘”两岸一家亲”, 2016-05-23. <http://www.scio.gov.cn/zhzc/8/3/Document/1478456/1478456.htm>

민의 연계와 교류를 강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또한 역대 해협 포럼에서 민대연 박물관은 ‘양안족보공동전시회’를 맡는데다가 현대 기술로 입구의 '동문, 동종, 동근생' 대형폭파벽화에 180 개의 성씨를 현상하는 것까지 대만인들을 위해 ‘뿌리찾기’를 할 때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그림 4-38). 2011 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실은 박물관 내에서 ‘해협 양안 교류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박물관의 대 대만 통전 전략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림 4-37 민대연 박물관의 본관 건물 외관



그림 4-38 민대연 박물관 입구의 '동문, 동종, 동근생' 대형폭파벽화



대만의 진향(進香, 향을 사르고 참배하다) 행사는 원래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이었지만 일제시기 중기부터 ‘관광·레저’의 분위기를 더했다. 그리고 각 제당회사의 사설철도의 증축에 따라 마조의 신자들의 진향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대만 국내 경제를 촉진하는 성대한 순례 행사가 되고 말았다(鄭螢憶, 2014:28-29).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 마조묘들의 관리조직 구성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관리 계층은 ‘신직’의 승려에서 ‘인선(人選)’인 지방 권력자로 바꾸는 것과 정치인이 관리 계층을 겸직하는 것도 점점 흔히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절의 관리 계층은 계엄시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세력이 될 뿐만 아니라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절은 지방선거와 중앙선거 때 정치인들이 기세를 돋우는 장소가 된다(張伯鋒·陳國川, 2010:56-57). 또한 절의 관리 계층의 정계 배경은 대만 중앙 정부에 양안의 종교 직함을 실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예를 들어, 소삼통을 실시하기 전에 대만 타이중의 대갑진란궁(大甲鎮瀾宮)의 회장이 현직 입법위원의 신분으로 정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종교 의식을 통하여 마조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당시의 민진당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민진당 정부는 종교 직함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전법을 어길 수 있는 정치적 문제라서 마조를 대만 내부를 분화시키고 중국 통전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답했다(張家麟, 2002:50-53). 하지만 대만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1987년에 대갑진란궁은 일본을 경유해서 중국의 메이저우에 순례참배하러 갔다. 장 보우풍&천 귀추안(張伯鋒&陳國川, 2010)은 이가 대갑진란궁을 위해 더 높은 위계를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령 해제 이후 대만의 폐쇄적인 마조 신앙 체제를 타파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1990 년대에 대만의 각 마조묘들이 중국의 조묘에 가서 순례하는 풍조를 일으켰다. 이에 2000 년 중국은 양안의 중

교 교류 원칙을 제시했다. 즉 제 3의 지역을 경유하면 안되고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중국의 선박만 이용하며 쌍방향으로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2001년 대만 정부는 ‘특수 직항’의 방식으로 500여명의 마주도 신자들로 하여금 소삼통을 이용해 중국 푸저우에 순례하러 가게 했다. 마침내 52년 만에 양안의 첫 ‘종교 직항’을 완성했다(蔡東杰 외, 2017:166).

메이저우도의 마조묘는 문혁 때 ‘사구(四舊, 4개의 낡은 악)의 미신’을 깨뜨리는 운동으로 인해 절과 신상은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1989년에 재건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묘’ 지위는 좀 논쟁이 된다. 예를 들어, 제인 잉신(簡英欣, 2016)의 연구에 대만의 민간 신앙의 순례 활동으로 인해 중국의 일부 조묘의 ‘재건’과 ‘건설 작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 특히 메이저우 조묘를 재건했을 때 거의 대만의 마조묘들이 헌납하여 건설되므로 메이저우 조묘의 신물(神物) 권위는 약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만의 일부 절들은 중국의 조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簡英欣, 2016:191-200). 하지만 중국은 자신의 ‘조묘’ 정통성을 강조할 때 주로 역사 권위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들의 ‘고향’은 조묘의 정통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마조의 고향인 메이저우도는 마조 신앙의 ‘성역(聖域)’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해외 각지의 신자들이 메이저우도에 돌아와 순례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대만의 단체들이 1986년~2000년 기간 동안 메이저우 마조묘에 가서 수십번의 교류를 진행했다(張家麟, 2019:39). 2002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메이저우 마조의 금불상은 처음으로 해상 직항으로 진먼으로 오고 5일간의 순안(巡安)행사를 열었다. 당시 영접단 단장인 우 청토편(吳成典)이 ‘마침 수십년만에 상봉된 모자와 같다’고 표현했고, 진먼 현장도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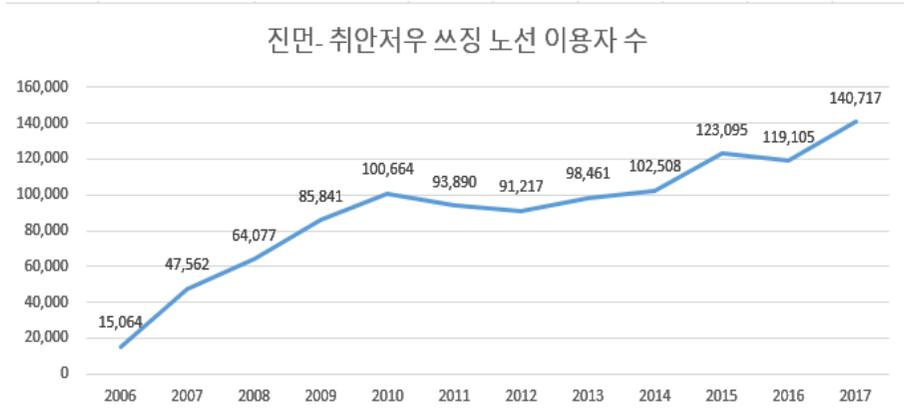
조를 양안의 공동 신앙이자 염황(炎黃)자손의 정신적 미덕을 구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4년 중국은 푸젠성 주민들이 소삼통을 이용해 진먼·마주 지역에 관광할 수 있게 하면서 진먼·마주와 함께 ‘해협 관광’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므로 당시 양안 관계가 긴장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대만 신자들이 메이저우에 순례하는 것을 위해 ‘취안저우의 쓰징(石井)-진먼’의 관광 직항 항로가 개시되었다. ‘대만 마조 연의회(台灣媽祖聯誼會)’도 7000여 명의 진향단을 구성하여 순례진향 관광과 민속문화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2008년 소삼통 직항이 실시된 후, 푸젠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10개의 대만 관광 코스를 만들었다<sup>141</sup>. 2013년 11월까지, 푸젠성 푸톈시 메이저우도 국가 관광 휴양지 관리 위원회(福建莆田市湄洲島国家旅游度假区管委会)의 통계에 따르면, 메이저우에 순례진향하러 온 대만 동포가 300만 명을 넘었다<sup>142</sup>. 2014년 메이저우도는 국가 5A급 관광지구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순례도, 관광도, 생태도’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문화를 주축으로 세계마조문화포럼과 마조문화관광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의 깊이를 풍부하게 한다. 2018년 중국은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의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를 실행하기 위해, 메이저우도는 ‘대만 주민 왕래 대륙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과 같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한 대만 동포들에게 현지 주민과 같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준다. 또한 ‘양안일가친’의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 메이저우도는 ‘양안 동포 한마음의 시범구(两

<sup>141</sup> 人民網. “從福建前線到兩岸交流合作前沿平台”. 2011年5月25日. <http://www.zgds.org.cn/BIG5/218994/219014/220570/222737/14824847.html>

<sup>142</sup> 新華網. “湄洲媽祖祖廟30年來接待謁祖進香台胞逾300萬人次”. 2014-09-03

岸同胞心灵契合的示范区)’를 만들고 있다.

그림 4- 39 진먼-취안저우 쓰징 노선 이용자 수



출처: 金門縣港務處

## 5 장. 결론: 평화의 지속가능성과 진면 정체성의 전망

1980년대 말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이 모두 적극적으로 탈냉전시대 혹은 신시대의 민족주의를 구축해 왔다. 6·4 운동 이후, 중공은 원래 정치민주주의를 중시하여 문화민족주의를 무시하던 책략을 바꿔 다시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취함으로써 중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중화민족의 집단정체성을 재통합했다. 이로 인해 '공자 열풍(孔子熱)', '염황 열풍(炎黃熱)', 그리고 '독경 열풍(讀經熱)'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중화민국이 대만에서 만든 민족주의는 민주화와 본토화 운동에서 중국처럼 '대만의 문화'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대만은 예로부터 이민사회였고, 이주의 시간에 따라 각 족군(族群)들이 대만이라는 땅에서 공동으로 생존하기 위해 '대만'만의 특수한 지역 문화를 발전해 왔다. 이민들이 토착화(indigenization)를 거쳐 점차 이 땅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만문화'는 대만지역의 관할권 이전과 정치 체제의 전환, 특히 민주화된 이후 각 족군이 모두 지도 계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상황에서 '족군 정체성'은 선거의 언어가 되므로 대만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가 점점 분화되고 '국족(國族)'에 대한 정체성도 점차 분리되고 있다. 첸 정녕(陳中寧, 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만 민중이 '대만독립건국', '온화한 대만 독립', '중화민국 재(在) 대만', '두개의 중국' 등 5 가지의 국족 정체성의 유형을 가진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의 중국 논술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중화문화식 민족주의를 수출하여 대만의 현지 조력자 네트워크의 확대에 따라 점차 발효되고 있다. 대만의 정체 체제나 정권이 아무리 변화해도, 민

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른바 '대만 특색의 중화 문화' 논술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근원논술'으로 보면 대만의 중화문화는 단지 '지역 특수성'을 지니는 중화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 독파가 중국과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완전히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이며 중국에 의해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독파의 '문화독립' 작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민진당의 두 번의 집권 기간 동안, 대규모로 여러 방면에서 '본토화'와 '탈중국화'의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본토화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역사 과목에서 중국사의 비중을 줄이고 심지어 동아시아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에게는 상당한 불만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는 민진당 인사들이 말하는 '천연독(립)' 세대가 형성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의 교육과 교과서에 개입이나 수정 요구하지 못하는 이상 좀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문화근원논술을 전달할 수 있는 '관광'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민진당이 집권할 때마다 양안의 정부 기관들이 거의 대화와 왕래를 중단하곤 한다. 비록 2001년 민진당이 집권했을 때 진먼과 마주 두 섬과 중국의 샤먼과 마위의 소양안 직항(일명 소삼통)을 개방했지만 대만의 적극적인 태도와 소삼통을 이용하는 데의 빈도에 비해 중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04년에 이르러서야 중국 푸젠성에서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區)'라는 구상을 제시하며 푸젠 주민들에게 진먼과 마주에 관광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광시장 시찰단을 진먼에 보내 진먼을 푸젠 관광의 일부로 포함시켜 '진샤관광권(金廈旅遊圈)'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는 진먼을 대만 본섬까지의 '해협관광권'의 중계점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국은 대만과의 삼통 직항이 비교적 복잡하고 예민하는데다가 이렇게 교류를 오래 중단해도 안되는 것을 인식해서 그런지 '대만 집권 당국'과 '대만 인민'을 따로 대처하겠

다는 대책을 세웠다. 즉 대만 사무와 진먼 사무를 분리해 먼저 '평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진먼은 양안 평화 교류의 실험구역이 되었다.

관광은 인간사회의 상호 교류의 행위로서 방문국이나 방문지역의 사람과 만나고 부딪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ce)로 발전하는 산업이다. 그리하여 관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알아내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며 인간의 소통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기도 한다. 그리고 관광도 정부간 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트랙 II 외교(track II diplomacy)의 수단 중의 하나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광의 비공식 교류와 대화를 이루어지면서 쌍대방의 갈등 관리, 긴장 완화, 신뢰구축, 그리고 지역 정체성 형성 등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양안이 오랫동안 분단해 와서 각자 내부의 변화와 발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공은 아무리 대만의 문화가 중화문화에서 나온다고 주장해도 심리적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관광 명목으로 양안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특히 1987년 대만 정부는 대륙 출신 노병에게 친척 방문을 개방하여 양안의 '불접촉(不接觸), 불담판(不談判), 불타협(不妥協)의 삼불정책(三不政策)'난국을 타개하면서도 대만 인민의 뿌리 찾기 열풍까지 이끌었다. 이것도 중국 정부가 즐겨 보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가족과 종족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시된 뿌리 조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족은 혈연 관계의 연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에 국한 없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특수한 사회조직의 형태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탈냉전 시기의 대만인의 뿌리찾기 관광에서 대륙 출신 노병은 '가족' 또는 '민족'의 뿌리를, 대만 출신 대만인은 '종족'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족-종족"은 전통적인 중국의 권위 구조 중의 가족 권위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단위이다. 그 가부장제에서 파생된 종법 제도는 중국식의 '가국(家國)'의 관념을 형성한다. 비록 이러한 가국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정의와 형식은 이미 많이 전환하였지만 중공의 통전 전략에서는 대만인의 혈연에 대한 인정과 종족의 힘을 결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의 매개는 바로 '문화'이다. 중화문화의 확산은 '양안 일가친'과 '중화민족'에 대한 정체성의 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화문화'는 중국이 '일국양제'를 실천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 '신동원, 인동근(神同源, 人同根)'이라는 구호에 중국이 중화 전통 문화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식으로 대만인들을 이끄는 중국 대륙으로의 '뿌리 찾기'나 '종교 순례'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신동원(神同源)'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 문화대혁명 초기에 추진된 '파사구(破四舊)'는 "구사상·구문화·구풍속·구습관"의 타파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이었다. 예전의 제도나 습관, 문화, 심지어 집안의 낡은 것까지 다 태워버리거나 부수거나 팔아야 했다. 그 중에서 공산당의 무신론으로 인해 묘우(廟宇), 신상, 불경이 파괴되었고 종교 의식도 미신적 행사로 간주되어 억제되었다. 1968년에 이르러서야 중공이 12기 중전회(中全會)에서 민족의 사상도덕적 자질과 과학 문화적 자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적 문명을 건설함으로써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을 배척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 종교는 신속하게 부흥된다. 1987년 대만 대갑진란궁(大甲鎮瀾宮)이 앞서서 중국 푸젠성의 메이저우도로 순례하러 갔다. 이는 1990년대 대만에서 마조(媽祖) 조묘(祖廟) 순례 열풍을 이끌었다. 전세계의 향객(香客, 향을 사르고 참배해 오는 사람을 가리킴)을 위해 1989년 중국이 메이저우의 마조 조묘를 신속하게 재건했다. 메이저우 조묘과 취안저우의 천후

궁(또한 마조묘)의 재건에 있어 대만 묘우와 향객들의 성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조국에 대한 구심력과 양안 일가친의 증명으로 간주되어 있다. 조묘의 정통성도 그 문화의 근원성을 증명한다. 또한 대만 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양안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더라도 일반적으로 향객들의 중국행 순례를 제한하거나 막지 않는다. 그래서 2014 년부터 진먼-취안저우 쓰징 노선의 소삼통을 이용하는 대만인 수가 증가세로 보이고 매년 10 만 명을 넘고 있다.

이어서 '인동근'이다. 대만에 온 이민들 중에 약 80%가 중국 푸젠성에서 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취안저우와 장저우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양안동근, 민대일가(兩岸同根, 閩台一家)'의 주장은 유난히 중요해 보인다. 다시 동근(同根)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종족이 결성한 '종친회(宗親會)'이고 특별히 따로 설립된 대 대만의 '향정(鄉情)조직'이다. 종족은 성씨를 축으로, 주거지를 범위로 결성된 하나의 기본적인 사회 조직이다. 대만의 한족들이 이주한 후, 성씨로 마을(거주지)의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았고 또는 성씨의 발원지를 집의 정문 위에 써서 외부인에게 이 집의 내력을 알려준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문혁 '파사구' 운동 당시에 불태우거나 철거된 종족의 족보와 사당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7 년부터 열린 제 1 차 해협백가성포럼(海峽百姓論壇)이 양안 성씨 원류 연구를 학술화·정기화하였다. 20018 년까지 이미 10 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 1980 년대부터 발족된 대 대만 향정조직은 크게 중앙 체계의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전국타이렌)과 지방 체계의 '연의회'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개의 체계의 첫 번째 임무는 대만 동포와 밀접한 관계와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교류를 통해서 대만 동포로 하여금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 동포의 조국 정치문화적 정체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타이웬은 최초의 대 대만 향정조직이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만성대표단'에 참석할 수 있는 조직 중의 하나로서 중공 결정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향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양안이 아직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81년 설립된 전국타이웬이 가장 주요한 접촉 대상은 해외 대만 동포였다. 임무를 추진하는 방법은 해외 대만 동포를 하여금 중국을 여행하거나 교류하게 한 후 해외 대만 동포를 통해 대만 본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중국의 현황을 알려준 것이다. 또한 전국대연은 지방 향정조직과 다른 점은 그의 멤버 중 '대만 출신 노병'이 있다. 전국 타이웬은 1988년 9월에 '대만출신노병귀향탐친협진회(台灣省籍老兵返鄉探親協進會)'를 설립할 때 대만 출신 노병이 1000여명만이 남았다. 대부분은 문혁 시기에는 비판투쟁과 노동개혁을 겪었지만 대만의 친척 방문 개방하면서 대등한 신분을 가진 대만 출신 노병들의 지위는 하루아침에 높아졌다. '근원론'과 '문화'로 중국 대륙과의 연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중국 '고산족' 동포(즉 대만 원주민)까지도 전쟁 시에 '중국어화'와 '한명화(漢名化)'를 겪어왔으니 중국에게 그들을 중화 일족에 포함시키는 근거가 되고 그들을 가소성을 지닌 '통전 주체'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 한편 지방 대 대만 향정조직은 대만 동포의 고향인 푸젠성에서 많이 설립됐다. 1981년 설립된 '푸젠성 대만 동포 연의회(福建省台灣同胞联谊会)'는 가장 큰 지방향정조직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층의 향정조직이고 대부분 진먼동포연의회이다.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개의 진먼동포연의회가 설립된 것을 보면 중공에 의해 '흑오류'로 분류되었던 진먼 출신 중국인의 지위도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종교 문화의 회복과 향정조직의 발족을 보면 '뿌리찾기 관광'은 이미 민간인 활동에서 국가 간접적으

로 참여하는 국족 재구축하는 활동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진먼도는 1949년부터 대만 본섬과 정치 공동체로 형성되었고 냉전 시기에 대만을 지키는 중요한 최전선이 되었다. 군사적 통치와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해 진먼도가 냉전시기에 오히려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진먼도에 주둔했던 군대가 철수하는 것에 따라 진먼도가 '최전선'의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주변화되었다. 또한 대만 본섬의 본토화운동으로 인해 진먼도가 이 공동체에서 어색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대만'이라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지가 탈냉전 이후 접경지역인 진먼도의 큰 과제이 되었다. 하지만 관광을 개방하면서 진먼인이 정치 공동체 외에 중국과의 경제 공동체도 구축해야 된다. 진먼인에게 있어, 전쟁이 이미 끝났고 다시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안의 평화 교류 지역의 역할을 잘 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며 중립된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은 진먼도의 전망이다. 그리하여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는 진먼도의 이중 정체성이 가져온 갈등과 어색함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라고 본다. 공교스럽게도 '문화'도 진먼에 '평화' 분위기를 구축하는 요소를 제공한다. 냉전 시기에 모택동이 진먼도를 양안이 완전히 분단되지 않도록 양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삼았고 현재의 진먼도도 중국 정부에 의해 경제통일전선의 본보기로 간주되었다. 이는 탈냉전 이후 관광산업이 주요 경제원이 되는 진먼도가 평화관광 무대를 구축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1949년 이전 진먼도는 변방 중의 변방이었지만 진먼의 종족 조직이 오히려 비교적으로 공고하게 발전했다. 푸젠 이민자들은 이민 후 대만에서 힘을 모이거나 자신의 세력을 발전하기 위해 본적이나 신앙권 등을 근거로 많이 활용하였다. 반면에 진먼에서 성씨를 주로 하는 종족조직은 아직도 지방정

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이다. 푸젠 각지에서 진면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항상 성씨나 본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세웠기 때문에 진면의 직성촌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민가 건물이나 가문 사당의 문미(門楣)에는 '영천연파(潁川衍派, 진(陳)씨 집안)'나 '자운연파(紫雲衍派, 황(黃)씨 집안)과 같은 가족 내력을 표시하는 성씨 현판이 많이 보인다. 냉전의 군대 관리 시기에도 진면의 모든 일을 관장했던 군대도 이런 종친 조직을 존중해야 하며 주민들을 관리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멀리 있는 대만 본섬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면은 중국 대륙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냉전시기에는 종족과 종교활동에 군대는 가능한 한 현지의 수요를 존중하였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있어 많은 진면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화민국정부를 인정한다. 1920~1930년대 동남아에 가서 일했던 진면 출신 학교들이 돈을 부쳐 고향에서 만든 서양식 건물 정면의 산벽에다 중화민국 국기나 국민당 당기, 그리고 중화민국과 같은 장식 무늬를 새기는 것을 보면 진면인들은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정치적 구심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심력은 오늘날에도 진면인의 정당 선택에 반영된다. 그 동안 진면은 국민당의 득표 확보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하는 외에 민진당의 '진마철군론'이나 독립을 하기 위해 진면과 마주를 중국에 돌려주자는 독립파의 주장들도 주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이는 진면인으로 하여금 배신당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

1949년 이후 진면은 중화민국이 대만 지역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최전방이 되었다. 43년 동안의 양안 열전 공격과 냉전 대치, 그리고 군사 통제를 겪은 후 진면 전역이 폐쇄적인 방어형 냉전 경관을 형성했다. 군대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은폐기 위해 군대는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진면도와 주변 섬들이 방

어용 녹색터널에 의해 보호되었고 진면의 전장 특별한 풍경이 되었다. 또한 중공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진면은 지하요새화했다. 군대나 주민들이 모두 체계적인 조직과 동원하에 포격이 없을 때 밤낮없이 갱도를 뚫다. 주민들이 관 갱도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에게 포탄을 피하도록 한 것이고 군 작전에 보조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민방자위대(民防自衛隊)'라는 조직을 통해 주민들이 방어공사의 구축과 군사 훈련에 참여하게 한다. 나무 뿌리처럼 뻗어 퍼지게 되는 지하갱도들이나 땅 위의 나무나 모두 진면인과 군인들로 하여금 맹렬한 포격전과 20년 동안의 선전탄 포격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지하갱도의 일부가 이미 관광자원으로 개방되어 있고 양안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1992년 진면 지역이 계엄 해제되었고 해안의 경비가 허술해지자 소양안 간의 '불법소삼통'이 성행했다. 2001년 불법소삼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진면-샤먼', '마주-마위'의 소양안 소삼통을 개방했다. 이로 인해 진면을 양안의 중요한 중계점으로 만들었다. 양안의 관광객들이 진면에서 특별한 '변경지역'의 응시(gaze)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거광루(莒光樓)의 3층에서 지척에 있는 샤먼의 도시 경관을 조망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거광루는 비록 국민정부가 구닝터우 전투와 따단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반공복국(反攻復國)의 의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된 정신적 보루이지만 중국 전통적 궁궐의 건축 양식과 민족 대의와 애국주의를 선양하는 자체가 모두 대중국주의의 성격을 드러낸다. 특히 '조국'을 조망하는 동작이 오히려 중국 정부가 통일을 바라는 해석에 맞춰 된다. 더구나 거광루 전방에 있는 작은 섬에서 우뚝 솟아 대륙을 바라보는 정성공 조각상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응시를 더욱 강화시켰다. 하나는 냉전 시기에 반공 정신을 선양하면서 패전한 적군에게 자랑했던 건물이고,

하나는 적군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조각상이 냉전 시기에 진먼 서반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하구에 위치하는 작은 섬에 세우는 것은 관광객들이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정성공과 군사 토치카의 부조화감은 진먼인들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진먼이 양안 평화교류의 실천구로서의 시대적 역할로 인해 조성된 경관적 충돌감이라고 본다. 충돌감이 있기 때문에 양안의 조화 과정을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2018년 진먼의 모범거리(模範街)에 양안의 국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는 것과 같은 충돌감을 예로 들자면, 이는 변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은 물론이고 진먼은 자신의 정치문화와 국족에 대한 정체성 갈등으로써 양안관계를 조화시키는 포스트 전쟁시대의 평화로운 역할을 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001년부터 소삼통을 개방할 때부터 진먼도 주민들이 줄곧 적극적으로 진먼도를 양안의 평화 무대로 구축해 왔다. 예를 들어, 진먼도 주민들은 모범거리를 양안의 국기로 꾸미는 것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상징을 관광화시키고 양안의 긴장된 분위기도 완화시킨다. 비록 일부 동네 주민들은 대만 본섬 사람의 비난을 초래할까봐 걱정했지만 양안의 관광객들은 이것이 접경지역인 진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이라고 생각하므로 오히려 신기하고 창의적이라고 본다. 이것으로 진먼도는 이미 성공적으로 평화의 무대가 구축되고 양안의 평화 상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 모범거리의 양안 국기 나란히 걸린 장면



과거의 전쟁터가 오늘날 평화교류의 실천구로서는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은 관광이다. 특히 최근 몇 년에 중국 정부가 관광을 통전과 외교의 제재 수단으로 삼아 탈냉전 이후 관광에 의존해 온 진먼으로 하여금 평화관광의 요소와 선의를 최대한으로 조성하게 만든다. "평화"는 곧 전쟁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과거의 전쟁 유산에 어떻게 평화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진먼의 큰 도전이다. 관광 개방 초기에 진먼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주로 본섬 관광객이므로 전쟁유산은 가장 주요한 관광자원이었다. 심지어 전쟁 유산과 폐쇄적인 방어용 냉전 경관으로 만든 자연과 인문경관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진먼은 전쟁 역사 유적을 보호하는 최초의 국립공원이 되었다. 하지만 한때 진먼은 빠른 관광 산업의 발전과 중국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려고 하므로 전쟁유산이 '애매한' 존재가 되었다. 예를 들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정신적 표어와 전쟁역사관들이다. 보통 전쟁유산이 자신의 '평화'가치를 돋보이려면 전쟁 의미를 반성하여 전쟁의 잔인함을 부각시키는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관광객의 '노는' 기분이 파괴될 수 있다. 한편 전쟁유산의 '적아논술(敵我論述)'이 지나치게 수식되거나 없어지면 역사의 진실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만 측의

논술을 그대로 보여주면 중국정부나 중국 관광객이 싫어할까 봐 걱정이다. 따라서 진먼 지방정부는 '민감한 글자'를 감소한 것으로 했다. 예를 들어 관광지의 '살주발모(殺朱拔毛)'나 '반공항러(反共抗俄)'와 같은 표어는 모두 가능한 한 삭제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표방하는 '작전정신' 표어는 진먼의 용맹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거나 기념품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 작전, 자립 갱생"과 같은 표어들이다. 그러나 2017 년에 '전지 36 년, 해엄 25 주년(戰地 36 年, 解嚴 25 週年展)'이라는 기념 전시에서 진먼은 이례적으로 1949 년까지 진먼과 샤먼이 긴밀한 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동안나루(同安渡頭)'에서 '살주발모(殺朱拔毛)'나 '반공항러(反共抗俄)'와 같은 글이 적여 있는 노란색 천 조각이 걸려 있고 토치카 전시관 안에는 냉전시기에 대만 측의 반공 내용을 담은 전단지가 진열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진먼인이 관광객의 감정을 확보하면서도 자신의 역사적 기억도 남기고 싶은 모순된 심정이 드러난다.

진먼의 관광자원은 줄곧 전쟁유산, 민남문화, 자연경관을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자원들이 오랫동안의 군사 통제로 생기고 보존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남 문화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군대는 군관 시기에 지방 종족의 활동과 전통을 존중한 것이다. 문혁과 냉전시기에 푸젠 지역의 전통문화가 파괴 당하는 것과 대비하여 진먼은 자신을 민남 문화의 유전자고인 것을 자부하고 있다. 또한 진먼국립공원이 설립된 후 진먼국립공원관리처가 전통민남건축의 소유자와 협상해서 건축물의 보수 작업을 맡고 30 년간 사용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통민남건축을 보존과 활용하고 있다. 복구된 집은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맡겨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시관, 특색 매점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먼의 붉은 벽돌 전통 건축물은 푸젠성보다 많지 않지만 현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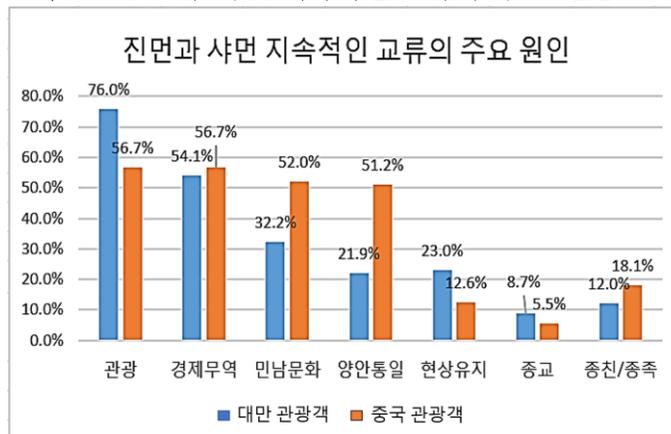
이용 활성화 성과로는 모범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바이두백과(百度百科)조차 붉은 벽돌 문화를 소개할 때, 맨 앞에서 금문의 붉은 벽돌의 전통 고택을 언급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양안의 붉은 벽돌 건축물의 세계 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진먼은 문화적 전승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진먼은 한때 동아시아의 냉전 정세에 영향을 준 곳이었다. 그래서 진먼의 '전장문화'는 양안의 지역 전쟁사이자 전세계 냉전사의 핵심 중의 하나라서 유난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먼인들은 2003년부터 냉전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양안관계와 중국-중미-미국 삼방관계, 대만은 국가인지의 문제, 대만은 유엔 멤버가 아닌 것, 중국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냉전 최전방이었던 진먼과 마주하는 각각 신청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 진먼이 스스로의 힘으로 등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기대 함께 등재 신청하면, 특히 따등도의 응삼도관광원과 같은 애국주의 색채가 진한 홍색관광지와 함께 신청하려면 진먼의 냉전 유산이 중공의 애국주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진먼의 냉전 유산은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역설적인 냉전 유산(the paradoxical heritage of cold war)'이 될 수도 있다.

탈냉전 이후 금문의 지위가 난처해졌다. 그러나 진먼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점차 양안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관광은 양안의 긴장관계와 진먼의 이중 정체성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주요 방식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양안 관광객(대만 관광객 98.4%, 중국 관광객 95.3%)은 모두 진먼

이 양안 관계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진먼은 양안 간의 평화교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대만 관광객 94.5%, 중국 관광객 96.1%). 이 때문에 진먼과 샤먼 소삼통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낙관적(대만 관광객 97.8%, 중국 관광객 97.6%)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진사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안관광객이 모두 '관광'을 1 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은 무역이고, 세 번째는 민남 문화이다(그림 5-2). 이는 관광이 확실히 평화적인 교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민남 문화는 진하의 공동의 문화이면서도 진먼 평화 관광을 구성하는 주축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동문동종(同文同種)'의 문화교류는 정치적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종교와 종친의 역할이 비교적 적다. 필자는 종친교류를 중요시하는 진먼 현지인이 관광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본다. 둘째, 종교와 종친의 교류에 참가하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종교의 신자 혹은 종친 사무에 열중하는 사람만 참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 관광객에 비해 확대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교류 방식은 비교적 심도 있고 정기적이다.

그림 5-2 진먼과 샤먼 지속적인 교류의 주요 원인



그래서 본 연구는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 양쪽의 서로 교류에 따라 정치적으로 난처한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다른 쪽과 긴밀한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국가정체성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접경지역으로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하지만 진먼은 자신의 역설성을 이용하고 자신의 지위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진먼은 대만에 대한 정치적 정체성과 중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이용해 충돌성 있으면서도 조화로운 평화의 무대를 만들어 낸다. 이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본다. 또한 양안관계는 1980년대 말부터 양안 교류가 시작된 이래 대만의 정권이 바뀔에 따라 양안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지만 종친과 종교 같은 민간 교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의 통전정책이 문화통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동문동종'의 비교적 평화적인 논술은 확실히 대만인들에게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하고 교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이 민간 교류를 확대려고 한다면 대양안 교류 간의 정치적인 공작이나 수단이든, 소양안 간의 문화생활권의 재구축이든 본연구는 진먼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 참고문헌

### <한국어 문헌>

- 김민환. 2014. “동아시아 변경 섬의 지정학과 냉전체제 성립기 국가폭력 발생의 구조”. *탈라문화* 46 권 0 호: 127-164.
- 김사헌. 2008. “어리의 관광시선론 再論: 視線主義의 비판과 확장”. *관광학연구*, 32(6): 85-103.
- 김진호;김평선;신민석. 2008. “관광을 통한 평화’(Peace Tourism)의 창출 : 중국-대만 관광교류 사례가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평화학연구*, 2008, Vol.9(3): 113-142
- 김학준 . 2013b. “ Maoz 의 상호시선(mutual gaze)을 활용한 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의 시선 연구’. *관광연구저널*, 27(2), 167-183.
- 김학준. 2013a. “Urry 관광시선론의 비판적 적용을 통한 일본인 관광객과 내국인의 상호 시선 비교”. *관광레저연구*, March 2013, Vol.25(3): 53-69
- 박순성. 2002.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전환기의 북한 경제”. *SAEUL FOUNDATION OF CULTURE, HWANGHAE REVIEW* 34, 2002.3: 181-199.
- 백지운. 2016. “양안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가능한가”. *외국학연구* 제 35 집 :285~308.
- 백지운. 2017. “진먼문제와 동아시아 냉전구조의 역설”, *馬祖 : 戰爭與和平島嶼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313-334
- 엄문연·량가·윤유식. 2017. “관광객 시선에 따른 관광지 정체성 및 브랜드 가치와 방문성과 연구-서울지역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1 권 10 호, 한국관광학회: 125-143
- 오승렬. 2016. “양안 통상, 축복인가 독배인가”.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 하다*. 진인진 :107-134.
- 오준방·정근식. 2014. “진먼도 냉전생태의 형성과 해체. — 지뢰전 시관 형성의 경로를 따라서”, *사회와 역사* 제 104 집(2014년). p 7-43. 한국사회사학회.
- 오준방. 2015. “탈냉전과 금문학— 형성, 성과, 과제”. *사회와 역사*,

Vol.0 No.107: 389-420.

- 우권광, 2016, “소삼통 이후 “진샤생활권”의 복원”,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 하다*. 진인진 :221-249
- 윤현호. 2013. *관광객과 주민의 시선 분석 : 양동마을의 전통 및 진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 윤현호·황희정·이훈 . 2012. “중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의 상호 시선 비교, Urry 이론의 비판적 적용”. *관광학연구*, 36(10): 239-263.
- 이종률. 1978. “歐美에서의 平和研究”.*國際政治論叢* 第 18 輯, 1978.12: 27-40.
- 이진교. 2009. “민속마을의 관광지화와 시선의 재구성: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February 2009, Issue 13: 71-94
- 장용석. 2016 “진면에서 바라본 서해 5 도”.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 하다*. 진인진 :319-336.
- 전원근. 2016. “냉전 경관의 비교준거, 연평도와 백령도:1970 년대 서해 5 도의 요새화와 개발을 중심으로”, 냉전의 섬 진면도의 재탄생(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14). 진인진: 195-223.
- 정근식. 2016a. “책머리에”.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정근식, 김민환 공편. 진인진:5-12.
- 정근식. 2016b.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서의 평화 사상과 연대”. *아시아리뷰*, 5(2): 211-232.
- 정근식. 2016c.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격자구조와 “냉전의 섬”들”.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 하다*. 진인진:269-296.
- 정은미. 2016. “삼통으로 본 양안과 남북”.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 하다*. 진인진 :297-318.
- 조한승. 2016. “평화 매개자로서 국제관광의 개념과 대안: 이해관계자 맥락과 국제기구의 참여”, *국제정치논총*, March 2016, Vol.56(1): 47-79.
- 한우석. 2011. “전쟁터에서 평화의 섬으로, 대만 금문도”. *국토* (2011):108-113

## <중국어 문헌>

- Ian Rowen. 2017. “在台灣上演「一中」”，*吊燈裡的巨蟒：中國因素作用力與反作用力*, 左岸文化 . p241-288.
- J. Michael Cole. 2016. *島嶼無戰事：不願面對的和平假象 (The Convenient Illusion of Peace : Convergence or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李明、劉燕玉譯.台北：商周出版.
- Michael. Szonyi. 2011. “金門在前線：1949 年以來地域政治、兩岸關係和地方社會”. *福建省金馬歷史回顧與展望學術研討會論文集* :1-14.
- 簡英欣. 2016. “祖廟在台灣：台灣民間信仰神明祖廟的權威來源與正統性” *思想 30：宗教的現代變貌*.台北：聯經出版事業公司 :191-209.
- 江錦財. 1992. *金門傳統民宅營建計劃之研究*. 碩士論文. 建築研究所
- 江柏煒. 1994. *宗族移民聚落空間變遷的社會歷史分析：金門瓊林與澎湖興仁的比較研究*. 台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 碩士論文.
- 江柏煒. 1999. “洋樓”：*閩粵僑鄉的社會變遷與空間營造(1840s-1960s)*. 台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博士論文.
- 江柏煒. 2002. *金門莒光樓*, 金門縣政府.
- 江柏煒. 2007. “誰的戰爭歷史？：金門戰史館的國族歷史 vs.民間社會的集體記憶”，*民俗曲藝* 156 期 :85 - 155
- 江柏煒. 2009. “軍事治理下的地方社會：以金門華僑網絡為中心之考察(1949-1970s)”，*考古人類學刊* 第 71 期 . pp 7-46
- 江柏煒. 2012a. *金門軍事主題園區計畫先期規劃*.金門國家公園管理處.
- 江柏煒. 2012b. *閩粵僑鄉的空間營造*，內政部營建署金門國家公園管理處.
- 江柏煒. 2012c, “金門洋樓：一個近代閩南僑鄉文化變遷的案例分析”，*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學報* 20 期：1-24
- 江柏煒. 2015. *冷戰金門的國際史料彙整及譯述(二)：以美國國家檔案局紀錄片為主*」*成果報告書*, 金門國家公園管理處.
- 江柏煒. 2017. *冷戰金門：世界史與地域史的交織*,金門縣：內政部營建署金門國家公園管理處
- 江宜樺，1998，“當前台灣國家認同論述之反省”，*台灣社會研究季*

- 刊第 29 期：163-229.
- 江宗諭. 2017. *以超限戰論點探討中共對臺經濟統戰之研究*. 碩士論文.
- 耿曙·劉嘉薇·陳陸輝. 2009. “打破維持現狀的迷思：台灣民眾統獨抉擇中理念與務實的兩難”，*台灣政治學刊* 13 卷 2 期（2009/12）：3-56
- 高偉智. 2016. *共軍標語口號之研究-以長征時期為例*, 碩士論文
- 顧哲豪. 2012. *代言人類型對宣導效果之影響 - 以莒光日保防教育電視教學為例*, 碩士論文
- 郭相枝. 1992. “「以大事小」和「以小事大」－海峽兩岸的分裂現狀與政治整合問題”，*海峽評論*；23 期(1992 /11 /01) :41 - 45.
- 郭正亮. 1999. “兩岸三通的政治邏輯”. *東吳政治學報* 1999 第十期：65-95.
- 郭添漢. 2013. *熱線：兩岸軍事互信機制建構*，台北：新銳文創
- 管仁健. 2016. *外省新頭殼*, 方舟文化.
- 觀察編輯部. 2017. “大陸探親開啟兩岸交流 30 年”，*觀察*. 2017 年 10 月;NO.50：12-16
- 歐聖榮；顏宏旭. 1994, “金門地區觀光發展衝擊認知之研究”，*戶外遊憩研究*；7 卷 4 期 (1994 / 12 / 01) :61 - 89
- 國史館臺灣文獻館. 2004. *臺灣全志*, 第 3 卷，第 3 篇
- 金門縣文獻委員會. 1979. *金門縣志 68 年重編：人民志*. 金門縣政府，104 年度施政計畫績效報告, 金門縣政府輯印.
- 金門縣政府, 105 年度金門縣政府施政報告, 金門縣政府輯印.
- 金門縣政府. 2009a. *金門縣志 96 年續修：兵事志·華僑志*. 金門縣政府.
- 金門縣政府. 2009b. *金門縣志 96 年續修：人民志*. 金門縣政府.
- 金以蕃. 1994. *金門開放觀光的社會變遷研究*. 碩士論文.
- 內政部營建署. 1944, *金門戰役紀念國家公園計畫（草案）*
- 戴東清. 2005. *中國大陸國家與社會關係, 1989-2002：以鑲嵌之社會團體自主性為例*. 秀威出版
- 戴文鋒. 2011. “臺南地區民間無祀孤魂轉化為神明的考察”，*臺灣史研究*；18 卷 3 期 (2011 / 09 / 01)：141 - 173
- 董群廉. 2008. *金門鄉僑訪談錄(二)：汶萊、砂勞越篇*, 金門縣政府
- 童振源. 2011. *台灣的中國戰略：從扞從到平衡*，新銳文創
- 羅祥喜. 1998. “「九七」前後港臺經貿關係評析”. *經濟中華* :153-16

- 8.
- 羅志平. 2010. *金門行業文化史*, 秀威出版.
- 駱芬美. 2013. *被誤解的臺灣史：1553~1860 之史實未必是事實*. 時報文化出版.
- 劉文斌. 2011. *為人民服務：兩岸制度競爭的核心*. 秀威出版.
- 劉美好. 2014, “一夜長大”, *太陽花之後(思想 27)*, 聯經出版社：111-128
- 劉傳揚, 2018, *屹立前線七十年，大二膽的歷史記憶*, 金門縣政府
- 劉必榮. 2014. *國際觀的第一本書：看世界的方法*. 先覺出版.
- 劉灝. 1989. “金門人：我的家在「跳板」那一邊”, *人間雜誌*(46) 等待解嚴的土地系列：78-87
- 陸委會. 1998. “香港移交週年報告”. 柒、香港移交之後爭議事件.
- 李坤城. 1999. *舊民族國家，或新公民社會？--對於台灣民族主義的批判*. 國立政治大學社會學系碩士論文
- 李道成. 2015. “千餘閩台宗親 武夷山聚一堂”, *臺灣源流*; 72&73 期：182
- 李明璁(2011), “旅居經驗與觀光凝視的折射／轉向：台灣和日本遊學生的比較研究”, 台灣社會學會年會 “研究新世代” 發表論文：1-22
- 李福井. 2014. *1949 古寧頭戰紀：影響台海兩岸一場關鍵性的戰役*(第 3 版), 台北：五南圖書出版.
- 李仕德 編譯. 2014. *金門的戰爭與和平：823 砲戰期間美國外交文書有關金門文獻選譯*. 金門縣政府文化局
- 李錫隆. 2006. *雲山萬里：馬來西亞浯江華僑訪談錄(精)*, 金門縣政府文化局
- 李錫祥. 1997. *金門地區血緣聚落的社會空間組織*. 碩士論文.
- 李楊勝. 1996. *以形狀文法建構金門傳統民宅基型平面之研究-自傳統民宅既有文獻中建構形狀文法應用架構之初探*. 碩士論文.
- 李宜憲. 2017. “原教界封面故事.日本時代的原住民教育”, *政大原住民民族研究*：17-21.
- 李貽鴻. 2003. *觀光學導論*. 台北：五南圖書出版.
- 李慈榮. 2010. *金門地區民眾國家認同與地域認同之研究*. 碩士論文.
- 李靜宜. 2006. “小三通”後金門地區「安全之研究. 碩士論文

- 李清來. 2007. 從「小三通」實施探討金門地區安全之研究. 碩士論文
- 林慶銘. 2018. “八二三戰役之研究”, *軍事史評論年刊* 第25期-107.6.  
台北：國防部政務辦公室史政編譯處.
- 林金榮. 2018. *金門人文紀事*, 金縣文化局.
- 林馬騰. 2002. *走過滄桑歲月*, 金門縣立文化中心
- 林明議. 1990. *金門傳統建築保存之研究*. 碩士論文. 建築研究所
- 林文玲. 2005. “翻轉漢人姓名意像：請問蕃名”系列影片與原住民影像運動”, *台灣社會研究季刊*, 58期：85-134
- 林美桂. 1992. *開發許可制應用於金門地區土地開發管制之研究*. 碩士論文. 建築研究所
- 林瑤棋. 2003. “原住民的“還我姓名”運動”, *歷史月刊*, 181期：11-17
- 林瑋嬪(Wei-Ping Lin). 2003. “臺灣漢人的神像：談神如何具象”, *臺灣人類學刊*; 1卷2期: 115 - 147
- 林怡種. 2009. *走過烽火歲月*, 秀威出版
- 林正珍. 2014. *日據時期金門鴉片種植暨其它相關史料調查研究結案報告書*. 金門縣文化局.
- 林竣達. 2009. *政治主體的誕生：戰後台灣政治論述及民主概念 1970s-1980s*. 碩士論文.
- 林進財·陳建民·張皆欣. 2002. “金門地區觀光競爭態勢之研究”, *觀光研究學報*；8卷2期(2002 / 12 / 01): 151 - 175.
- 林泉忠. 2010. “哈日、親日、戀日？邊陲東亞的“日本情結””, *思想* 14期: 139-159.
- 林姮妤. 2003. *台灣國家認同爭議之研究*. 中國文化大學政治研究所碩士論文.
- 林孝庭. 2015b. *台海·冷戰·蔣介石：解密檔案中消失的台灣史 1948-1988*, 聯經出版公司
- 方亞先. 2005. *金門情深*, 秀威出版
- 白宜君. 2009. *軍事地景與邊陲認同：烈嶼（小金門）雙口村的人類學個案研究*, 碩士論文.
- 范世平. 2004. “大陸開放民眾赴金馬地區旅遊之影響”. *展望與探索* 第2卷第11期：12-16.

- 范世平. 2005. “中國大陸旅遊外交政策之研究：以出境旅遊發展為例”. *中國大陸研究* 48 卷 2 期. p61-97.
- 傅朝卿. 2011. *馬祖戰地文化景觀：全球冷戰時期文化遺產瑰寶*.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文化資產總管理處籌備,福建省連江縣政府.
- 徐志仁. 1994. *金門洋樓建築形式之研究 (1840~1949)*. 碩士論文. 建築研究所
- 徐天成. 2016. *我們香港這些年：since 1977*. 聯合電子出版有限公司.
- 石之瑜·黃競涓. 1999. “我國第二軌道外交中的 “國家—社會” 論述”. *政治科學論叢*. 第十一期：103-126.
- 蕭阿勤. 1999. “1980 年代以來台灣文化民族主義的發展：以 “台灣 (民族) 文學” 為主的分析”. *台灣社會學研究*：第三期 (1999 年 7 月)：1-51
- 蕭阿勤. 2012. “追求國族：台灣 1980 年代台灣民族主義的文化政治” *走過八十年代 (思想 22)*, 聯經出版社：85-110.
- 蕭阿勤. 2016. “族群化、國族化的政治、文化與情感”. *族群、民族與現代國家：經驗與理論的反思*. 中央研究院社會所：1-21
- 孫瑞穗. 2009 “失敗者的共同體想像：回應龍應台的大江大海一九四九”, *思想 13 期*, 聯經出版社：135-145
- 宋怡明. 2016. *前線島嶼：冷戰下的金門*, 台北市：台大出版中心出版
- 宋學文. 2009. *全球化下的國際關係理論、政策與治理*, 巨流圖書
- 顏立水. 1998. *金門與同安*, 稻田出版社
- 楊繼繩. 2009. *墓碑：中國六十年代大饑荒紀實*, 香港：天地圖書.
- 楊樹清. 1998. *金門社會觀察*, 稻田出版社
- 楊樹清. 2001. *金門島嶼邊緣*, 稻田出版社
- 楊儒賓. 2014. “在台灣談中華文化”. *在台灣談中華文化 (思想 25)*. 台北市：聯經出版社：147-149.
- 楊儒賓. 2014. “台灣的創造力與中華文化夢”. *在台灣談中華文化 (思想 25)*, 台北市：聯經出版社：151-157.
- 楊再平. 2007. *金廈旅遊圈整合架構下的金門觀光發展策略管理之研究*, 碩士論文
- 楊政峰. 2016. *走進英雄島：金門戰地巡禮之旅*, 釀出版
- 楊春龍. 2001. *廈門湄州武夷山自由行*. 台北：大興出版社

- 吳介民. 2009. “中國因素與台灣民主”，*思想*，第 11 期：141-157
- 吳介民. 2012. “九二共識：中國因素的選舉效應”，*文化、民主與兩岸關係的東亞觀點*，謝政諭等主編，趙永茂等著。出版：台北：松慧有限公司：163-174
- 吳介民. 2017. “中國因素作用力與反作用力”，*吊燈裡的巨蟒：中國因素作用力與反作用力*，左岸文化：21-86.
- 吳培暉. 1992. *金門聚落的變遷與空間意義的再界定*. 碩士論文. 建築研究所
- 吳炳廷. 2015. “以文化記憶詮釋媽祖接砲彈傳說”. *有鳳初鳴年刊* 11 期 (2015 / 11 / 01)：64 - 73
- 吳叡人. 2016. “三個祖國：戰後初期台灣國家認同的競爭與形”. *族群、民族與現代國家：經驗與理論的反思*. 中央研究院社會所：23-82
- 吳一萍. 2009. *退伍軍人懷舊情感、地方依附及戰地觀光意願之研究，兼論金門戰地觀光政策*. 碩士論文
- 溫振華. 1984. “北港媽祖信仰大中心形成試探”. *史聯雜誌* (4)：10-20
- 王宏文. 2003. *台灣民主化與務實外交政策（一九八八~二〇〇〇）*. 碩士論文.
- 王宏忠, 吳重禮等. 2013. *台灣選舉與民主化調查(TEDS)方法論之回顧與前瞻*. 台北：五南圖書出版.
- 王大良. 2008. “閩臺地緣及以姓氏為紐帶的親緣關係”，*臺灣源流* 45 期：69-71
- 王世慶. 1972. “民間信仰在不同祖籍移民的鄉村之歷史”. *台灣文獻* (23):1-38。
- 王學新. 2006. “臺灣黑幫籍民與日本對華鴉片謀略（1895-1945）”，*國史館學術集刊*第 9 期.
- 王曉華、張慶軍. 2016. *1901~1949 中華民國之謎（修訂版）*. 台北：靈活文化.
- 張家麟. 2002. “政教關係與兩岸宗教交流：以兩岸媽祖廟團體為焦點”. *新世紀宗教研究*；1 卷 1 期 (2002 / 09 / 01) :33 - 76.
- 張伯鋒·陳國川. 2010. “權力、空間與象徵：大甲鎮瀾宮的進香路

- 線”。*地理研究*；53期(2010/11/01):49-70.
- 張淑雅. 2010. “主義為前鋒，武力為後盾：八二三砲戰與「反攻大陸」宣傳的轉變”。*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70期(民國99年12月):1-49
- 張珣. 1995. “台灣的媽祖信仰－研究回顧”。*新史學*；6卷4期(1995/12/01). 89-126.
- 張榮豐. 1986. “台灣與大陸經由香港之轉口貿易”。*經濟前瞻*, (1), 1986:43-62.
- 張宇彤. 2001. 金門與澎湖傳統民宅形塑之比較研究－以營建中的禁忌、儀式與裝飾論述之. 博士論文
- 張蜀誠, 吳建德, 王瑋琦. 2014. *四個寄希望：解構中共對台政策*.台北：五南圖書出版.
- 張火木. 1999. *古寧頭戰役與役事－金門戰史與軼事*, 金門縣政府
- 前原志保(Shiho Maehara). 2014. *李登輝與臺灣認同*.博士論文.
- 鄭根植, 吳俊芳. 2015. “金門的(脫)冷戰及民主化：著重於其雙重性轉換”。*歷史島嶼的未來－2015年金門歷史、文化與生態學術研討會論文集*, 金門縣金寧鄉、金門國家公園:371-388.
- 鄭根植. 2018. “喚醒在廢墟中被遺忘的戰爭：鐵原研究”，「馬祖：戰爭與和平島嶼」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江柏煒主編,連江縣南竿鄉：連江縣政府：411-433
- 鄭有諒. 1996. *遺留戰場中的精神標語*, 金門縣政府文化局
- 鄭有諒. 2018. “823 砲戰之回顧與看法”,*金門國家公園八二三砲戰六十週年紀念研討會論文集*,台北市：中國文化大學華岡出版部;金門縣金寧鄉;金門國家公園：11-30
- 鄭螢憶. 2014. “日治時期的進香旅遊：以北港朝天宮為例”。*臺灣學通訊*79期【庶民生活史】專欄：28-29.
- 趙樹岡. 2004. *星火與香火：大眾文化與地方歷史視野下的中共國家形構*, 聯經出版事業公司.
- 周湘華, 董致麟, 蔡欣容. 2017. *台灣國際關係史：理論與史實的視角(1949-1991)*, 獨立作家－新銳文創.
- 曾逸仁等. 2013. *金門世遺系列叢書3：世界遺產亮點在金門*. 金門縣政府文化局.
- 陳建民. 2009. *兩岸交流與社會發展：“小三通”與旅遊研究文集*. 秀威

出版.

- 陳宏義. 2005. *金門的投票行為研究*, 碩士論文.
- 陳亮智. 1999. *民主化下的外交政策 : 論台灣的政治民主化對其務實外交的影響(1986~1998)*. 碩士論文.
- 陳琳. 2015. *煉金術—金門戰地襲產的觀光治理*. 碩士論文
- 陳水在. 2001. *金門解嚴前後*. 稻田出版社
- 陳映真. 1989. “虛構的珍珠港：美國干涉主義下的金門與馬祖”, *人間雜誌*(46) 等待解嚴的土地系列：74 - 77
- 秦孝儀主編. 1985.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 臺北：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 蔡宏政. 2017. “陸客觀光的政治經濟學”，*吊燈裡的巨莽：中國因素作用力與反作用力*：217 - 240.
- 蔡東杰, 洪銘德, 李玫憲. 2017. *圖解兩岸關係*. 台北：五南圖書出版.
- 蔡詩萍, “臺灣文化主體性”辯, *臺灣中國論壇*第 359 期
- 川島真. 2015. “從日文資料來看的日據時期金門”, *金門歷史、文化與生態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金門國家公園: 37 - 42.
- 何乏筆. 2009. “1949 年與台灣的跨文化潛力”. *思想* 13 期. 聯經出版社：175 - 187.
- 何乏筆. 2014. “創傷與創造：台灣的文化糾結與中華文化的重構”. *在台灣談中華文化 (思想 25)*: 159 - 168.
-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 2009. *金馬中長期經濟發展規劃方案*
- 行政院大陸委員會. 1996. “民眾對大陸政策及兩岸關係的看法綜合分析 - 摘要”.
- 香港旅遊發展局. 2007. “香港旅遊業五十年”. *香港旅遊發展局 2007 - 08 年報*: 4 - 13
- 許歷農. 2017. “退輔會協助老兵返鄉”, *觀察* 2017 年 10 月; NO.50 : 16 - 17
- 許奮鬥. 2005. *中央政府與金門縣政府對「小三通」政策的分歧與爭議*. 碩士論文.
- 許昭榮. 2008. *寧願燒盡·不願鏽壞：台灣烈士許昭榮與台籍老兵紀念集*, 高雄市政府文化局
- 許如中. 1959. *新金門志*, 金門縣政府
- 黃猷欽. 2010. “臺灣與中國郵票裡的中國文字設計與書寫”. *清華學*

報,第 40 卷第 3 期 : 543 - 581

- 黃俊傑. 2006. *臺灣意識與臺灣文化*, 出版 :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 黃振良. 2003. *金門戰地史蹟*. 金門縣政府
- 姜从华. 2004. “赴金门祭扫烈士记”, *福建党史月刊*, 2004, Issue 8: .  
33
- 唐志明. 2007. “相互依赖条件下旅游与世界和平关系初探”, *桂林旅游高等专科学校学报*: 606 - 609.
- 陶紅亮主编;李伟绘画. 2018. *印象泉州1*. 北京 : 海洋出版社.
- 邓书杰,李 梅,吴晓莉,苏继红. 2013. *变革风生 (1980-1989) (中国历史大事详解)*. 中国湖南 : 青苹果数据中心.
- 邓书杰,李 梅,吴晓莉,苏继红. 2013.*变革风生 (1980-1989) (中国历史大事详解)*, 中国湖南 : 青苹果数据中心
- 邓达宏 ; 李仲才. 2012. “福州侨批历史探究”, *福建论坛*2012, Issue 11 : 93 - 97
- 雷强&黎熙元. 2008. “侨汇券和外汇兑换券的社会经济意义—兼论 1958~1995 年的粤港关系”. *广东社会科学*. Issue2 : 101 - 106.
- 赖继年. 2015. “诠释“一江山精神”及其弘扬”,*消费导刊*2015 年 12 期:333 - 335
- 刘建辉. 2012. “第一封飞越海峡的邮政公函”,*集邮博览*, 2012, Issue 01 : 24 - 26
- 刘国深. 1994. “海峡两岸“白皮书”比较分析”, *台湾研究集刊* 1994 年 04 期:1 - 8
- 刘国深. 1995. “试论百年来“台湾认同”的异化问题”, *台湾研究集刊*1995 年第 3/4 期 : 95 - 101
- 刘国深. 1996. “台湾政治文化“脱中国化”现象刍议”. *台湾研究集刊*: 1 - 7
- 刘国深. 1999. “两岸政治僵局的概念性解析”, *台湾研究集刊*1999 年 01 期 : 1 - 7
- 刘丽娇 ; 宋伟. 2019. “黑龙江分营 共绘瑰丽冰雪梦,同谱两岸一家亲”. *台声* : 20 - 26.

- 刘永玉. 2002. 湄洲妈祖金身巡安金门纪实. *台声*, 2002, Issue 7 :6 - 8.
- 刘勇为. 2008."第二轨道"外交属性与影响辨析. *兰州学刊* 2008年 12期 ( 2008/07) : 43-45.
- 陸幸生. 2015. “向前走，別回頭：陸幸生報告文學選”. *獨立作家出版社* : 303-308.
- 李家泉. 2003. *陈水扁主政台湾总评估*. 华艺出版社.
- 李强. 1995. “两岸关系的展望”，*台湾研究集刊*, 1994年 04期 :8-15
- 李国梁. 2009. “两个三十年：感受华侨华人研究的变化”. *华侨华人历史研究* 2009年第 04期 :6 - 7.
- 李道湘. 2003. “文化台独理论及其批判”. *中央社会主义学院学报*. 2003年 06期 : 29-34
- 李道湘. 2005. “论“一国两制”理论产生形成的历史文化基础”.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005卷 1期 (2005/02) : 68-72
- 李丽娟. 2009. “从社会符号学角度解读妈祖石雕像的再现意义”. *莆田学院学报*. Vol.16 No.6 : 79-82.
- 李立. 2007. “略论「文化台独」”. *北京行政学院学报*. 2007年 05期 : 109-112
- 李鹏. 2011. “两岸协商谈判中的「两岸特色」:理论意涵与实践特徵», *海峡两岸持续合作的动力与机制:2011台湾研究会学术研讨会论文集选编* : 7-11
- 李非. 1995. “「三通」與「福建」”,*台湾研究集刊*1995年 3/4期 : 49-54
- 李非. 2001. “海峡两岸海上直航问题探讨”.*台湾研究集刊* Issue 4 : : 63-72
- 李向群. 2015. *见证:1938 厦门日寇入侵厦门前后报刊史料汇编*, 厦门大学出版社
- 林劲·聂学林. 2008. “1949年以来金门在两岸关系中的地位与作用”, *台湾研究集刊*. 2008年 04期 :22-32.
- 林劲. 1991. “民进党政治主张的走向及对海峡两岸关系的影响”. *台湾研究集刊*.1991年 04期 : 17-23
- 林劲. 1995.评李登辉的“台湾命运共同体”, *台湾研究集刊*. 1995年 3/4期 : 103-108
- 林劲. 1996. “1996年台湾“大选”结果的初步评估”, *台湾研究集刊*

- 1995年02期：1-8
- 林劲. 2008. “1949年以来金门在两岸关系中的地位与作用”, *台湾研究集刊* No.4 2008：22-32
- 林劲. 2012. “关于构建两岸关系和平发展框架的若干思考关于构建两岸关系和平发展框架的若干思考”, *海峡两岸持续合作的动力与机制——全国台湾研究会 2011年学术研讨会论文集选编*, 九州出版社。
- 林迅. 1993. “两岸直航的船旗问题”, *台湾研究集刊* 1993年02期：33-36.
- 林英海. 2012. “在首届豫闽台姓氏源流国际研讨会上的讲话”. *中原与闽台渊源关系研究三十年：1981~2011*. 尹全海, 余纪珍, 乔清忠编. 九州社 崧博出版社：14-18.
- 林长华. 1995. “两岸直航与境外海运中心”, *台湾研究集刊*, 1995年02期：16-20
- 马芳菲, 刘志. 2011. “妈祖文化传播中视觉符号的运用前景”. *莆田学院学报*. Vol.18 No.4：12-15
- 马振犊. 2012. *台前幕后：1949-1989的國共關係 從當年上海的蔣介石開始*. 九州社 崧博出版社.
- 毛剑杰. 2011. “1987“小兵”推动“老兵返乡”», *看历史*, 2011年12期：120-127.
- 潘峰著. 2011. *两岸同根同源的文化展演研究：以台湾民俗村和闽台缘博物馆为例*. 九州社 崧博出版社.
- 方焰 “臺海現狀維持解析”, *鏡報*, 2008年5月號,：56-58
- 范正义. 2018. “民间文化与现代化-晋江围头妈祖宫的个案研究”. *海丝之路：祖先的足迹与文明的和鸣(第一辑)*. 厦门：厦门大学出版社：68-80.
- 福建省金门同胞联谊会. 2007. *福建省金门同胞名录*.
- 福建省地方志编纂委员会. 1992. *福建省志：华侨志*. 福建人民出版社.
- 史霜霜. 2009. ““大三通”后厦金旅游业现状及对策分析», *中国市场* 2009年44期: 53-54.
- 谢汉杰；李适金. 2007. “大妈在海峡的那一边——跨越海峡的会母寻

- 亲记”。*两岸关系*, 2007, Issue 3 : 47-47.
- 常成. 2001. “小三通：口惠而实不至”。*两岸关系* 06 期：43-44
- 徐博东. 1991. “从国统纲领看台湾当局的大陆政策”，*台湾研究集刊* 1991 年 04 期：33-36
- 苏双碧. 1997. “从多民族国家的角度评价爱国主义历史人物——为纪念施琅逝世 300 周年而写”。*清史研究* 1997, Issue 01 : 55-58+75
- 苏全有；崔海港. 2012. “论 20 世纪二三十年代民信局的衰亡”，*南京邮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2, Vol.14(04) : 83-89
- 苏进强. 2017. “两岸关系“药方”可在中华文化”。*台声* : 35
- 苏进强. 2017. “两岸关系“药方”可在中华文化”。*台声* : 35
- 萧鸿鸣、萧南溪、萧江. 2016. *金门战役纪事本末*, 中国青年出版社出版 :418-425
- 颜莉虹. 2007. “闽西南区域旅游合作的思考”，*漳州职业技术学院学报* Vol.9(1) : 77-80
- 艾松如. 2015 “两岸心灵契合要靠文化引领”。*台声*, 2015 Issue 02 :50-50.
- 杨丽珍. 2007. “台北原住民的美丽之旅——记台北市原住民妇女会云南省参访团”。*台声* : 49-50
- 杨立宪. 2002. “当前台湾在有关两岸关系问题上的主流民意探讨——解读一年多来台湾相关民调透露出的讯息”，*台湾研究集刊* 2002 年 01 期：1-7
- 杨云龙·吴逸群. 2000. “台湾大选与两岸关系”，*中共太原市委党校学报* 2000 年第 3 期：.17-19
- 杨骅. 2000. “台湾行三百六十五里路”。*台声* : 29-31
- 倪永杰. 2015. “创建两岸共同价值 加强心灵契合”。*台声*, 2015, Issue 23 :49-49.
- 吴能远. 1997. “海峡两岸经贸关系若干问题”，*台湾研究集刊* 1997 年第 01 期：9-15
- 吴能远. 2000. “台商投资祖国大陆与两岸关系——一个政治经济之分析”，*台湾研究集刊*. 2000 年 01 期：1-8
- 吴能远. 2011. “也论两岸政治定位”，*海峡两岸持续合作的动力与机*

- 制：2011 台湾研究会学术研讨会论文选编/周志怀主编. 12-15
- 王永宽. “中原姓氏寻根概述”，*中原与闽台渊源关系研究三十年：1981~2011*,尹全海,余纪珍,乔清忠编. 2012年1月1日,九州社 崧博出版社：92-105.
- 汪毅夫. 2016. “天演论与两岸同胞的心灵契合——在北京大学“十华文化论坛（2016）”上的演讲”.*台声*, 2016, Issue 23 : 90-92
- 喻常森. 2003. “第二轨道”外交与亚太地区安全合作”*东南亚研究* 2003年 05期: 43-47
- 俞新天. 2003. “民族、宗教和文化：东亚发展与合作中的重要因素”.*世界经济与政治* 2003(02) : 45-49.
- 俞新天. 2004. “东亚认同感的胎动——从文化的视角”.*世界经济与政治*. 2004(06) :20-25
- 俞新天. 2006. “中国国家利益的文化思考”.*国际问题研究*. 2006(2) : 12-16.
- 尹全海. 2012. “固始移民与两岸三地寻根资源之整合”，*中原与闽台渊源关系研究三十年：1981~2011* ,尹全海,余纪珍,乔清忠编,九州社,崧博出版社 :371-380.
- 庄国土. 2000. “从民族主义到爱国主义：1911-1941年间南洋华侨对中国认同的变化”，*中山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0年 04期 : 110-116
- 张文生. 1998, “1997年台湾县市长选举评析”，*台湾研究集刊*1998年 01期 : 39-43.
- 张胜. 2008. *从战争中走来：两代军人的对话*, 中国青年出版社
- 张亚中. 2016. “文化台独会断了台湾的慧命”.*台声*, 2016, Issue 12 : 55-55
- 张忠恕. 1990. “愿海峡两岸“驿马”飞腾”,*瞭望* 1990, Issue Z1 : 42-43
- 张忠恕. 2012. “两岸通邮（上）”,*中国邮政*. 2012, Issue 05 : 62-62
- 翟强. 2018. *冷战年代的危机和冲突*, 出版社：崧烨文化
- 曹剑浪. 2004. *国民党军简史第1卷*, 解放军出版社
- 赵玉榕. 2001. “从试点直航看厦台经贸合作的前景”，*台湾研究集刊*

2001年04期：73-80

曹志刚·王仲远 “乱云飞渡仍从容——江山岛战役和炮击金门中毛泽东反对美国干涉的斗争策略”. *军事历史* 2009年 02期 (2009 / 07 / 02) , pp19-22

朱定波. 2014. “务实开展两岸民间谱牒文化交流”, 中国闽台缘博物馆编, *海峡两岸谱牒文化研究：族谱研究*, 九州社 崧博出版社：11-14.

曾慧娟；张雅萍. 2017. “闽西南四市生态旅游合作模式研究-基于“海上丝绸之路”建设背景”, *龙岩学院学报* Vol.35(03)：65-71  
知兵堂编辑部. 2015. *国共内战：戡乱与解放角力*, 知兵堂出版社。

陈孔立. 1993. “两岸交流中的政治文化问题”, *台湾研究集刊*, 1993年 02期：p.1-7

陈孔立. 2013. “台湾特色的中华文化的建构”. *台湾研究*. 2013 (6)：1-6

陈孔立. 2014. “两岸之间的文化冲突”. *台湾研究集刊*. 2014年 01期：1-7.

陈国强. 1988. “祖国大陆上的高山族同胞”, *东南学术* 1988, Issue01：74-75

陈动；陈孔立. 2005. “从“主权未定”到“主权独立”——台湾当局修改历史教科书的政治目的”. *台湾研究*. 2005 (1)：28-33

陈支平. 2012. “从历史向文化的演进-闽台家族溯源与中原意识”, *中原与闽台渊源关系研究三十年：1981~2011*. 尹全海，余纪珍，乔清忠编. 九州社 崧博出版社：325-331.

陈支平. 2018. “妈祖信仰的社会基础与世界文化意义”, *海丝之路：祖先的足迹与文明的和鸣（第一辑）*：17-28.

蔡干毫,林庚. 2014. “闽台谱牒的特点与文化价值”. *海峡两岸谱牒文化研究：族谱研究*. 中国闽台缘博物馆编.九州社崧博出版社：58-61.

蔡礼彬. 2008. “中国寻根旅游研究—兼论河南“古光州”寻根旅游开发战略”. *河南大學學報*. 2008-09-30, 48 卷 5 期 (Vol.48, Issue 5)：76-83.

- 肖季文. 2002. “中华民族反侵略斗争的光辉旗帜”. *南京政治学院学报*. 2002, Vol.18(1) : 45-47.
- 崔之清. 2000. “台湾大选后两岸关系之展望”, *世界经济与政治论坛* 2000年 03期 (2000 / 07 / 03) : .58-59
- 沈居安. 2013. “特殊时期的特权人民币——外汇券”. *商周刊*2013, Issue 20 : 52-52
- 沈文馥. 2006. “闽西南旅游经济发展的实证研究”, *经济与社会发展* Vol.4(2) : 80-82.
- 沈世豪. 2012. *大嶝一寸土*, 鹭江出版社
- 蒲宁. 1997. “试析台湾问题在中国对外战略中的定位”, *台湾研究集刊*1997年 04期 : 1-7
- 冯尔康. 2005. *18世纪以来中国家族的现代转向*.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夏明星. 2012. “毛泽东帷幄运筹一江山岛登陆战”, *党史纵横* 2012年 11期, 15-17
- 何芳东. 2018. “新时代增强台湾青年中华文化认同路径探析”. *山西社会主义学院学报* 2018年 03期 (2018 / 01 / 19) : P57-61.
- 何书彬. 2012. “何日葬我高山上 寻访最后的台籍高山族老兵”, *看历史*; 2012年 4期 : p104-109
- 胡文生. 2012. *和平发展视角下的台湾问题*, 九州出版社.
- 胡子民. 2013. “有一种票证叫侨汇券”. *金融经济*. Issue 06 : 57-57.
- 黄安全. 1989. *泉州台胞回乡寻根指南*. 厦门大学出版社.
- 黄俊凌. 2017. “日剧时期福建在台 “华侨” 析论-以福建省藏档案资料为中心”. *台湾历史上的移民与社会研究*. 九州社 崧博出版社 : 168-181.

## <영어 문헌>

- Antonsich, Marco. "The “everyday” of Banal Nationalism—Ordinary People’s Views on Italy and Italian." *Political Geography*. 54.C (2015) : 32-42. Web.

- Brunn, Stanley D (2011) , “Stamps As Messengers Of Political Transition(Essay)”. *The Geographical Review*, Jan, 2011, Vol.101(1) : 19-36
- Dallen J. Timothy. 2001. “Postage Stamps Microstates and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ume 26, 2001 - Issue 3 : 85-88
- Deans: hil (2005) .Isolation, identity and Taiwanese stamps as vehicles for regime legitimation. *East Asia*, 2005, Vol.22(2) : 8-30
- Henio Hoyo(2010), “Posting Nationalism : Postage Stamps as Carriers of Nationalist Messages”. *Beyond Imagined Uniqueness : Nationalisms in Contemporary Perspectives*, Jan, 2010 : 67-92.
- Hsin-Chi, Kuan . 1997.Hong Kong in 1996 : Structuring the Future. *Asian Survey*, 1 January 1997, Vol.37(1) : 52-59
- JONATHAN HEARN . 2007. “National identity : banal: ersonal and embedded”. *Nations and Nationalism*. Volume13, Issue4 :657-674.
- Litvin,S. 1998. “Tourism : The World’s Peace Industry?” *Journal of Travel Research*,37(1),63-66.
- Lu, X.,& Lu, L. 2014. “Cultural identity and representation of late development tourism destin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ourist gaze”. *Human Geography*, 29(6), 117-124.
- Maoz, D. 2006. “The Mutual Gaz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221-239.
- Modarressi, Matin. 2017. “Philatelic Propaganda: U.S. Postage Stamps during the Cold War”, *Journal of Cold War Studies*, 2017, Vol. 19(3) : 196-201
- Phil Deans. 2005. “Isolation, identity and Taiwanese stamps as vehicles for regime legitimation”. *East Asia*. 2005

Vol.22(2) : 8-30.

- Raento: auliina and Brunn, StanleyD . 2005. "Visualizing Finland : Postage Stamps as Political Messengers". *Geografiska Annaler* : Series B, Human Geography 87 :145-64.
- Raento: auliina. 2009. "Tourism, nation, and the postage stamp : Examples from Fin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6, No. 1 :124-148.
- Richard Baum and Alexei Shevechenko. 1998. "The "State of the State", in Merle Goldman and Roderick Macfarquhar, ed., *The Paradox of China's Post-Mao Reforms*.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Shils, Edward. 1991. "The Virtue of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26, No.1(Winter)3-20.
- Szonyi, Michael . 2016. "The Cold War on the Ground : Reflections from Jinme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016, Vol.75(4) : 1041-1048
- Szonyi, Michael. 2011. "Militaryization, Memory and Jinmen (Quemoy) Society", 1949-1992. *Japan Center for Area Studies Review* 11, no. 1 : 62-87.
- Teng-Hui, Lee . 1999. "Special State-to-State Relations : Saying "Yes" to Reality". *New Perspectives Quarterly*, September 1999, Vol.16(5) : 48-49
- Timothy, Dallen J.2001. "Postage Stamps, Microstates and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01 January 2001, Vol.26(3): .85-88.
-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London : Sage.
- Urry, J. 1992. The Tourist Gaze "Revisited".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6(2) : 172-186.
- William D. Davidson and Joseph V. Montville, "Foreign Policy According to Freud". *Source Foreign Policy*, No. 45

(Winter, 1981-1982): 145-157

Neng-Shan Ling. 2011. "Lee Teng-hui's "Two-State" Theory: Perceptions and Policy Change. *Soochow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11-12-01, Vol.29, Issue 4: 175-247

## Abstract

### The Dilemma of Jinman “s Identity In The Post-Cold War era:

The Exchange and Tourism of Jinman and Xiamen

WU CHUN FANG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exchange situation between Xiamen and Jinmen (also known as Soyangan) which are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Taiwa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what role Jinman plays in promoting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peace between China and Taiwan.

Existing research on exchanges between Xiamen and Jinmen usually focuses on economic aspects such as trade and tourism. But in order to look deeper at how Xiamen and Jinmen have continued to remain unaffected by political fluctuations in cross-strait relations for nearly two decades since they restored exchange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rough Jinman’s special political identity and cultural identity. So this study looked at the change in Taiwan’s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Taiwan consciousness” that emerged as a result of Taiwan’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aiwanization movement. And the identity dilemma that Jinman faced in this

political community after the demilitarization. In addition, through Taiwan's "cultural independence" essay and China's "cultural unification" essay: politicized cultural essay under the debate of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explored the influence of Jinmen's cultural identity.

And in terms of peaceful exchanges, like many studies, this study chose "tourism" as the main influence factor. Unlike previous studies, however, this study added the most representative "roots tourism" and "Pilgrimage tours" in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of both sides. And Using "ordinary tourist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religious believers" as subjects of analysis, we will examine the impact and contribution of civil society's capabilities in peaceful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However, because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different, this part adopted interviews and surveys. Because Jinman's war heritage is a sensitive and distinctive tourism product, it is important to see what Chinese tourist and Taiwan tourist think about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Jinmen's war heritage, and also what kind of contribution that Jinman does for the peaceful exchange of Cross-Strait relations.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1. Tourism certainly has the effect of promoting peaceful exchanges. 2. Jinman's border and battlefield image are still a factor by Chinese tourist and Taiwan tourist's visiting. 3. The Kunning-Tou area, where China and Taiwan had a fierce landing battle, is the place where tourists from both sides want to visit the most and the place where the peaceful atmosphere

is felt the most. 4. The greatest advantage of Jinmen's war heritage is as a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istorical education textbook and a place for peaceful education.

In addition, through visiting the clan gathering groups of Jinmen and Xiamen, this study found that the clan gathering had limited regional and large scale, but the depth of the exchange was different from ordinary tourists and religious believers. It has regularly formed a good network of the clan gathering by sacrificial and exchange activities. For this reason, the network of the clan gathering organizations is crucial to the sustainability and deepening of peace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although it brings greater economic benefits because of the larger number of ordinary tourists and religious believers.

This study looked at Jinmen, a former battlefield of, faced the dilemma of political and cultural identity after the Cold War, and finding the most ideal position in cross-strait relations using the duality of its identity. And converting to an "island of peace" through the model and conduct of tourism derived from cultural essays on both sides under the "unification" debate.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example and direction for the future exchang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n active contribution to peace and convergence in East Asia.

**Key Words** : China, Taiwan, cross-strait relations, Jinman, Kinmen, Xiamen, divided country, border area: political identity, cultural identity: peace tourism.

**Student Number** :2009-31209